

發 刊 辭

私法人은 近代史의 고유한 組織體로 民主社會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法人의 목적이 利潤追求에 있건 아니던 여타의 目的(예컨대, 勞動組合, 大學, 市民團體 등의 設立目的)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法人은 調整構造의 한 형태, 즉 個人과 國家 사이에 존재하는 社會·政治的인 牽制·均衡體系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私法人은 民主主義 發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이는 經濟的 自由와 政治的 自由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經濟學 文獻은 法人의 構造와 機能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法人이 갖는 歷史的·社會學的·神學的 側面의 기능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다. 또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偏頗의이거나 批判的인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까지 이러한 견해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는데 이는 法人에 대한 지지자들이 歷史와 社會學, 神學을 생소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 영역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本書가 밝혀주듯 이러한 상황은 점차 변화되고 있고, 法人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 그 神學的 探究(The Corporation: A Theological Inquiry)』라는 책을 발간함에 있어서 美國企業研究所(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自由社會에서 法人이 갖는 중요성을 보다 깊이 있고, 이론적이며, 공정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本書는 神學 및 經濟學에 관한 1980년 夏季研究會의 教材로서 시라큐스大學 宗教學科와 AEI가 공동으로

주관한 일련의 會議 가운데 세번째 회의의 성과를 담고 있다. 1978년 및 1979년 여름에 열린 夏季研究會의 결과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Capitalism and Socialism: A Theological Inquiry)』 및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Democracy and Mediating Structures: A Theological Inquiry)』가 發刊된 바 있다.

이 紙面을 빌어 夏季研究會를 組織하고 主管해 주신 시라큐스大學의 文理大 副學長 로널드 카바나(Ronald Cavanagh)博士와 宗敎學科長인 제임스 B. 위긴스(James B. Wiggins)博士, AEI의 常任研究委員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博士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私法人은 多元化된 體制에서 合法的 機能의 遂行 및 牽制와 均衡의 維持를 돕는 독특한 社會的 構造이다. 우리가 獨裁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權力分立을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法人의 理論——혹자의 표현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企業神學(Theology of Corporation)——이 필요한 것이다.

美國企業研究所 所長
윌리엄 J. 바루디 2세

序 文

本書는 시리큐스大學 宗敎學科와 AEI가 共同으로 主管한 神學 및 經濟學에 관한 夏季研究會의 세번째 會議 成果를 summarizes한 것이다. 첫번째 회의의 主題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로서 경쟁적 關係에 있는 두 社會體制의 思潮 및 實態와 制度에 관한 理論 中 一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有效性을 검토하였다. 두번째 會議에서 다룬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에서는 個人과 政府 사이를 媒介하는 社會的 組織體들——이웃, 家庭, 教會, 自發的 諸結社, 勞動組合, 營利法人 등——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탐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本書에서는 法人의 媒介機能과 自由社會에서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0년 夏季研究會의 主管者들은 法人이 토론을 위한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1주일간의 일정 동안 公式 및 非公式 討論을 통해 통찰력 있는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회의에는 神學者, 經濟學者, 歷史學者, 哲學者, 法人의 重役 및 顧問들, 教會機構와 民間團體의 幹部들, 專攻이 다른 다수의 大學院生들이 참석하였다. 이 會議는 法人의 起源, 本質, 機能을 文化的·宗敎的 價値와 관련시켜 탐구하고자 하는 이론가들과 실무자들로 이루어졌다. 本書는 이 회의에서의 主題發表와 討論 그대로를 싣고 있다.

本 研究는 法人들 특히 대규모이거나 超國家的인 企業法人들이 자주 사회적 비판이나 宗敎倫理學者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는 認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關係되는 사실들을 냉정하게 이해하자는 데 관심

을 두었다. 특히 ‘大規模’法人을 構成하는 것은 무엇인가? ‘大規模’法人이 美國經濟와 世界經濟에 주는 效果는 어느 정도 중요한가? 法人은 均衡된 經濟發展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지해하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近代 西歐社會에서의 고유한 組織體인 法人이 가지는 포괄적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法人은 유익한 社會的 構造인가 아니면 해로운 構造인가? 法人의 任職員들이 보다 철저한 倫理意識으로 무장되게 하고, 法人들이 公共福利에 보다 많이 기여토록 할 수 있을 것인가? 營利法人을 非營利法人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兩者에 공통되는 점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美國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法人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얻으려 하였다.

우리는, 本書가 法人에 대한 論議의 수준을 일상적인 文獻에서와 같은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찬사나 비난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企業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하며, 歷史的 事實에 부합되게 하논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媒介機能을 수행하는 中間組織과 사회적 과정의 보다 폭넓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된 年例 夏季研究會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우리가 추구하는 研究方向을 지지·격려해 주었다.

1981년 夏季研究會에서는 「經濟學과 經濟的 正義」에 관한 教會의 公式 文書들, 특히 로마 가톨릭教會, 世界教會協議會, 美國教會協議會 文書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981년 夏季研究會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분과 議長으로서 會議를 主管해 오신 시라큐스大學 文理大 副學長 로널드 카마나博士, 宗教學科長 제임스 B. 위긴스博士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이클 노박
존 W. 쿠퍼

韓國語版에 부쳐

美企業研究所(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宗教學的 探索」 시리즈가 韓國에서 번역·출간되고 그 序文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韓國은 世界 160개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해 왔으며 宗教뿐만 아니라 文化·道德體制에 있어서도 활력과 생기에 넘쳐있는 나라이다.

民主資本主義는 政治的 영역에 있어서는 民主主義, 經濟的 측면에서는 市場機構 존중의 資本主義, 그리고 文化·道德的 體制에서는 多元主義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서의 政治經濟體制이다. 民主資本主義의 三元的 體制 중 한 體制의 自由는 다른 두 체제의 自由를 이끌어내고 강화한다. 韓國에서 民主資本主義의 세 理念 가운데 비교적 낙후된 領域이 있다면 政治體制가 아닌가 생각된다.

自由, 節制, 貯蓄, 發明, 生産的 投資에 基礎한 經濟體制는 한 나라의 文化的 特性과 精神의 風土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점이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모든 經濟體制는 이른바 자기 독특한 宗教的 次元을 가지고 있다. 經濟生活과 精神生活, 個人과 社會, 國家의 公共分野와 民間分野에서 機能하는 수많은 調整構造와의 相互關係는 全世界 知性人이 관심을 넓혀가야 할 知的 課題이다.

經濟生活과 精神生活에 대한 探究는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美企業 研究所의 宗敎學的 探索시리즈는 이러한 知的 努力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經濟生活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精神生活에 대한 探究는 지극히 빈약함을 느끼고 있다. 精神生活이란 創造的인 경제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또 어떤 經濟生活에도 現實的으로 存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시대 공통의 과제인 이러한 知的 努力에 대해 韓國의 많은 知性들이 동참하여 공동노력을 펴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83년 8월



譯者序文

企業은 民主資本主義의 사회적 소산으로 國富를 늘리고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리하여 기업은 지난 2세기 동안 거대한 사회적 변혁을 초래하였다.

이에는 經濟的 측면 외에도 生活水準의 향상, 餘暇善用, 自發的 社會活動, 문화의 창달, 교육의 보편화 등의 文化道德的 측면과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自由政治體制, 國家主義·社會主義에 반대하는 政治勢力의 등장, 광범위한 중산층의 형성, 國家外的 권력의 창출과 같은 政治的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資本主義는 대내외적으로 크나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의 도전이 외부적 도전이라면 지나친 政治權力의 개입, 體制秩序에 대한 비평과 혹독한 평가는 내부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이었던 社會主義의 挑戰은 民主主義 政治를 통해 論理法則과 倫理價値를 양립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와 책임을 저해하고 있는 지나친 政治權力의 介入, 資本主義의 道德性, 기업 내부의 獨裁性·非民主性, 利潤追求 動機에 대한 비판과 같은 내부적 도전은 이에 대한 새로운 응전을 요구하고 있다.

資本主義 體制를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의 뿌리깊은 편견은 기업의 利潤追求 자체까지도 악덕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비난은 주로 知識人, 文化人, 宗教社會主義의 일부 인사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알 기회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내부적 도전에 대한 응전은 社會主義의 외부적 도전에 대응했던 民主主義的 정치방법에 의한 運用·管理의 원용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환경으로서의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행위주체로서의 기업이 갖는 政治·社會·文化·思想的 含縮性を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업이 영리추구만을 위해 존재하는 배타적 조직이라는 통속적 관념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능·역할이 政治的 紐帶感, 社會의 安定性, 文化的 正體性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제도적 장치라는 폭넓은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AEI(美國企業研究所)의 宗教學的 探索시리즈인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그 신학적 탐구』는 이런 점에서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갖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과 성격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기업이 단순한 利潤追求 이상의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사회 발전의 추진력이 되는 동시에 삶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다는 企業神學의 가치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본서는 編者が 後期産業社會에 들어선 美國經濟狀況에 있어서 新左派, 批判的 知識人, 宗教人의 기업 및 자본주의체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새로운 哲學的·神學的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에서 편집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을 歷史, 宗教, 이데올로기, 정부와의 관계, 哲學, 福祉, 世界秩序와 관련지어 다양한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책은 기업에 대한 社會主義的 批判의 全體像을 그려내고 이를 逆批判하여 기업의 哲學的·神學的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物神主義와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企業像이 아니라 雇傭과 厚生과 勤勞意慾의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 정신적 성취감과 사회적 유대감의 부여자로서의 企業像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상은 自由와 創造性이 강조되고 개인적 자유주의가 경제에 투영되어 自由市場 經濟體制가 확인되고 더 나아가 정치에 투영되어 自由民主主義가 이루어질 때다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民間企業과 그 環境의 전개는 단순히 기업의 規模와 質의 장래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커가는 相互作用은 政治·社會·文化의 내용과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 오랜 관심을 가져 온 譯者로서는 1981년 6월 美國務省 초청으로 미국의 經濟·技術·公共政策 關聯 연구소들을 시찰하는 기회에 民主資本主義의 사상과 民間企業의 役割定立 연구에 있어 世界最高 頭腦集團인 AEI에 초점을 맞추어 접촉했고 82년 말에 다시 구체적인 연구협력 관계를 협의한 바 있다.

그 첫번째 결과가 82년 2월 마이클 노박教授의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번역과 한정된 배포였다. 당시 譯者의 의도를 솔직히 고백하면 신설된 純粹民間研究所로서 우선 내부 研究員들과 本研究院 支援機關과 人士들에게 民主資本主義와 民間企業主義에 대한 스스로의 確信과 矜持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民主資本主義의 將來』는 큰 寄與가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결과는 지난 2월 24일 AEI의 政府規制 研究部長인 마빈 코스터즈博士의 초청강연이었다. 『政府規制 緩和方向과 美國經濟展望』은 레이건 政府의 規制緩和 背景과 內容, 效果 등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많은 계몽과 시사를 주었으리라 믿는다.

세번째 결과가 AEI의 宗教·哲學·公共政策 연구책임자이며 시라큐스 大學 教授인 마이클 노박博士에 의하여 진행된 「宗教學的 探究」시리즈

- 1 部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 2 部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 3 部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의 번역이었다. 이미 번역을 마치는는 지난 年初였으나 出刊費用의 어려움으로 늦어졌다가 全國經濟人聯合會의 주선으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民間企業主義 發展戰略」시리즈를 發刊코자 한다. AEI의 宗教學的 探究시리즈 이외에 같은 著者에 의한 『民主資本主義 精神』의 序文 (Introduction: Capitalism, Socialism and Religion-An Inquiry into the Spiritual

Wealth of Nations)과 編著인 『資本主義의 冒瀆』, 既刊된 『民主資本主義의 將來』를 한데 묶어 따로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本院은 앞으로 이 方面의 出刊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出刊의 決定을 본 직후 재작년부터 招請을 해 두었던 著者が 9월 첫주에 來訪할 수 있게되어 本出版은 著者の 訪韓과 거의 때를 같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韓國의 民主資本主義 發展에 대하여 各方面의 指導者와 知性人, 企業經營人들은 보다 높은 確信과 矜持를 갖고 보다 깊고 넓은 波濤를 헤쳐 나갈 準備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出刊의 뜻을 이해하여 그동안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本院 金容正 首席研究員과 여러 研究職들의 勞苦에 감사한다.

1983년 8월

韓國經濟研究院
代表理事·副院長 金鎮炫

차 례

發刊辭

序 文

韓國語版에 부쳐

譯者序文

法人의 發展過程 / 오스카 핸들린15

討 論 29

法人의 分類 / 오스카 핸들린37

討 論 49

企業과 自由主義 秩序 / 폴 W. 맥크래켄58

討 論 76

教會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 티모시 스미트95

討 論 112

第三世界, 外國援助, 世界的 再分配 / P. T. 바우어124

討 論 142

西方世界의 罪와 第三世界의 貧困 / P. T. 바우어154

討 論 182

多國籍企業과 世界經濟發展 / R. H. 존스189

討 論 207

企業에 대한 社會主義的 批判 / 버나드 머치랜드226

討 論 249

非營利法人으로서의 財團 / 메리몽 커닝임262

討 論 278

企業神學 / 마이클 노박291

討 論 320

參考文獻

筆者紹介

마이클 노박의 經歷과 背景

法人의 發展過程

오스카 핸들린

Oscar Handlin

歷史學者인 나는 감히 法人에 대한 神學的 탐구를 하려는 의도는 없다. 단지 法人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즉 어떻게 해서 法人이 오늘날의 法人(株式會社)과 같은 것이 되었는가에 대해 논급하고자 한다. 법학자나 경제학자가 이러한 토론을 開陳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양자가 모두 法人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접근방법은 법학자나 경제학자가 다루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法人을 연구하는 法學者들은 劃一性和 論理的 整合法을 추구한다. 그들은 법규와 判例를 조사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法人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法人이라는 조직체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더불어, 미래에 진행될 法則性を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法學者들은 企業이라는 조직체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非整合的이고 偶然的인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經濟學者들은 法人을 기능면에서 고찰코자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生産이라는 측면에서 法人이 수행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고찰하는 경향이 있고, 法人이 현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法人이 그러

16 法人의 發展過程

한 조직체가 되도록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정은 이 조직체가 발전해 온 과정의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法人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創案된 것이었다. 法人이 창안되게 되었던 방식이 法人의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 社會 안의 政府 및 각종 권력과의 관계에서 法人의 위치를 생각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法人은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正義概念에 적합하도록 창안되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여기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과 미래에 당면하게 될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를 考察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法人을 논함에 있어서 최근 연도——즉 1800년인데 이는 共和國(美國)建國後 四半世紀가 지난 시점이다——를 출발점으로 하고자 하며,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法人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1800년대의 法人

1800년에 美合衆國은 獨立國家로서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시점에 있었다. 당시의 美國은 低開發國家이었으며, 기본적으로 農業國이었고, 人口도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대략 4~5백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미 당시의 美國은 유럽國家들에 있던 法人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의 法人, 보다 정확히 말하면 企業法人(株式會社)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經濟學者의 관점에서 볼 경우 놀랄 만한 일이다.

經濟學者들은 株式會社를, 資本을 축적시켜 근대적인 生産體制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생각한다. 1800년대의 경우 英

國, 프랑스는 물론 獨逸조차도 製造業, 商業, 金融業 分野에서 ——이들 분야는 모두 전통적으로 法人이 출현해 왔던 분야들이다—— 美國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19세기 전반에 걸쳐서만은 유럽이 美國을 훨씬 능가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美國에서는 株式會社의 數가 점점 증가되어 갔던 반면 유럽에서는 株式會社가 매우 희귀했고 企業形態로서도 특수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經濟環境이 企業活動의 추진 및 조직방식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었던 때에 그러한 조직체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일찌기, 그리고 급속히 美國의 건국 초기부터 그 형태를 갖출 수 있었는가 하는 問題이다.

法人의 개념은 물론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 기원은 중세나 로마까지로 소급된다. 12세기와 13세기에, 政治·自治團體로 불리워졌던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法人에 해당하는 것들이 王의 特許狀(charter)에 의해 이미 설립되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직체는 기업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컨대 自治都市와 같은 것이었다. 혹자는 런던시와 英國의 기타 自治都市와 같은 法人들을 거론하기도 한다. 이 法人에는 市長이 있고 시장은 市議會議員과 더불어 法人을 구성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대에 와서도 유럽인들이 정치적 사고에 지배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기본적으로 特許狀 發付機關——일반적으로 國王——은 統治權의 일부를 보조적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고 自治團體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단체는 단체를 설립하는 문서, 즉 特許狀에 구체화된 목적을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들 이외에도 몇몇 종류의 法人이 주로 獨占, 特權, 아니면 特許와 관련해서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新大陸에 최초로 출현한 法人들도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1800년 이전의 法人

17세기 초에 政治·自治團體의 성격을 가진 法人團體에 의해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기타 植民地가 기능은 달랐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률적 구조로 세워졌다.

이들 法人들은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法人들은 여러가지 명칭을 가진 理事會를 가지고 있었고, 植民地 總督에 의해 경영되었다. 이들 法人들은 전통적인 중세기의 特許會社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特許會社들은 오랫동안 존속되지 못했다. 버지니아會社는 1607년 정부터 1625년까지 존속했고 매사추세츠會社도 10년을 못가고 와해되었다.

세계의 다른 한 쪽에서는 東印度會社가 英領印度에 대한 통제력을 19세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北아메리카의 植民地에 그러한 형태의 조직체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英國 무스코비會社(The British Muscovy Company)는 러시아와 交易을 했고, 터키會社는 터키와 교역을 했다.

이들 會社는 引受된 형태로 존속되었다. 이러한 會社形態도 많은 定着民團體가 런던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意思決定權을 요구하는 北아메리카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植民地本國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産業 또한 유치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定着民들은 과거에 이들 會社의 中央指揮部에서 행사하던 權限의 많은 부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地域感情的인 敵對意識이 이들 會社에 대하여 일어났었고, 이러한 감정은 17세기와 18세기의 2세기 동안이나 해소되지 않았다. 이 적대의식은 분명한 감정이 아니고 이들 會社가 런던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지역——네덜란드 西印度會社도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네덜란드를

건설하려 했다——에서 경영하는 他國의 조직체라는 데서 오는 것으로서, 또한 멀리 떨어진 외국의 기관에서 意思決定이 이루어질 때 現地勢力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서 발생하는 막연한 감정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定着民들 자신이 會社形態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1636년 매사추세츠 住民들이 케임브리지에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 후에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이 法人은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기구를 세우기 위해 지역의회가 法人設立 特許狀을 發付했다.

法人設立 特許狀의 發付는 植民地 本國의 國王과 議會가 직접 장악하고자 했었던 특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植民地 本國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것이 매사추세츠 特許狀이 폐지되었던 이유 가운데의 하나이며 이후 植民地들 자체의 自治機構를 통해서도 法人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후 150년간 國王의 권위에 의해 特許狀이 발부될 수 있는 종류의 會社는 植民地에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거부되는 한편, 植民地로서는 스스로 會社를 만드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 150년간의 발전의 전 과정을 통해서, 植民地當局이나 本國의 王室政府가 會社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착민들은 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있었다. 예를 들어 번영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大規模貿易을 하고 있는 경제가 銀行 및 貨幣와 信用支拂手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것인지 상상해보라.

銀行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여러 植民地에서 계속 입안되었으나 本國의 王室政府가 그러한 실체를 갖춘 어떠한 기구도 法人組織으로 만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도 만족할 정도로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特許狀에 의한 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銀行을 세울 방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法人設立의 代案들

이에 대신하여, 유럽에서 特權會社가 공식적인 방식으로 하던 종류의 일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협동방식이 다수 안출되었다. 미개척지역의 개척자들에게 있어서는 상호협동의 慣行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어떤 개인도 혼자서는 살 수 없었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경우 이웃 사람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邑民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각종 형태의 協同行爲는, 이를 원만하게 실행할 制度的 裝置를 그들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所有權 문제를 비롯한 제반문제는 어떤 종류의 法律的 決定을 필요로 한다. 敎區問題를 예로 들어보자. 유럽에서는 建物과 기타 敎區財產, 墓地 등을 소유하는 敎區의 지위는 政府와 法律에 의해 규정되었다. 敎會와 國家는 敎區問題 기타 敎會制度를 國教化하는 데 서로 제휴하고 있었고, 이들 敎會機構는 主教나 監督團 또는 王의 지위에 해당하는 至高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敎區問題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룰 수 없었는데 그것은 교구가 植民地에 위치할 경우 國教化가 우연적이거나 제한된 것이었고, 또한 로드 아일랜드 같은 植民地에서는 전혀 國教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國教化가 될 수 없으면서도 재산을 소유한 많은 異端敎會들이 등장했던 데에서 그 理由를 찾을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가장 부유한 敎會들이 프렌드(The Friends)派敎會이었다. 프렌드派를 대리해서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어떤 개인도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었다. 집회 자체도 어떤 法的 權限을 갖지 못했다. 뉴포트나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宗教儀式이 진행되는 시설물들을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공동체로서 소유하고 있었다. 메릴랜드와 펜실바니아에서 예수회는 유럽에서의 사건들과 관련된 이유로 지하화할 때까지는 財產所有者이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主教監督團과

같은 권한은 없었다. 대신에 受託者가 중심이 되는 일련의 방안들이 고안되었고 여기서 受託者들은 그들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그들의 고객인 공동체를 대리해서 재산을 소유했다.

본래 정치 및 경제 조직체이었던 뉴잉글랜드의 도시들의 경우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도시는 규칙을 제정하고 地方政府의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정치적 조직체이었다. 그리고 공유지와 이용가능한 未分割地를 변경지역이나 심지어는 東部の 도시에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移住民들이 들어올 경우 기존의 정착민들은 그들을 市民으로서 받아들였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즉 이들에게 共有地와 未分割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었다. 지나치게 관대할 경우에는 다음 世代에게 돌아갈 유산을 빼앗기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共有地所有者라는 명칭을 가진 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市政會합의 구성원이자 시정을 담당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공유지에 대한 所有權을 갖는 독립된 기구가 되었다. 이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市政會합의 모든 구성원은 共有地에 대한 所有者가 될 수 없게 되었다.

敎區와 敎會간의 구분도 역시 이리했고 점차 불규칙적인 것으로 되었다. 淸教徒植民地에서는 敎區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모두 일요일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敎會構成員들만이 聖餐式을 가졌기 때문이다. 교회구성원은 住民全體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고 淸教徒들이 罪人과 聖徒를 區分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특별한 改宗儀式에 의해 區分되었다. 이렇게 해서 敎區와 敎會의 그룹에 의한 또 다른 구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정착민들은 그들이 特許狀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허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自治團體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사례의 최초의 것은 바로 메이플라워號를 타고 온 사람들로서 그들이 정착할 권리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던 新世界의 한 곳에

22 法人의 發展過程

정착한 것이다. 그들은 버지니아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그들의 進行路가 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뉴잉글랜드에서 정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정착하기 전에 맹약을 했다. 그들은 自治團體와 法人團體를 형성하고, 憲法 내지는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銘記한 방식대로 행동할 것을 서로 합의했다.

18세기 중반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작은 조직체들을 다수 설립했다. 英國은——개화되고, 안정적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두 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었다. 美國革命 시기까지 殖民地에는 여섯 개의 대학이 있었다.

이들 大學은 博識하거나 향학열에 불탄 學者도 확보하지 못했고 有效한 特狀許도 갖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로드 아일랜드, 뉴 지지, 뉴욕 등지에서 자력으로 세워진 기구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權利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착수했다.

거기에는 일단의 協同組合들도 존재했다. 사람들은 부두를 건설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협동해서 롱 휘프(Long Wharf)나 브로드 스트리트 휘프(Broad Street Wharf)와 같은 것을 설립했고 이것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들 기구는 同業者 關係도 아니며 個人企業도 아니다. 이것들은 委託經營과 관련된 일종의 협정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기구에서 개발된 경영방식의 일종이었다. 이들 기구는 스스로 고찰한 것이었고, 아직 미숙한 상태의 것이었으며, 엄격히 따지면 不法的인 것이었지만 계속 설립되었었고 당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美國革命 이후의 法人

이윽고 혁명이 발발했다. 혁명은 1774년에 시작해서 1783년까지 계속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두 해 동안에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혁명의 직접적인 충격은 英國이 150년간이나 금지해 온 사항을 깨뜨리는 것, 즉 습

法的으로 特許된 自治團體 및 法人團體를 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權力의 증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시킨 점이였다.

그들은 이들 조직체에 대한 선례로서 알고 있었던 英國과 大陸에서의 것에서 指針을 발견하려 했다. 自治團體 및 法人團體들은 政府가 特許를 발부함으로써 설립되고 각종의 特權과 獨占權, 副收益 獲得機會 등을 부여받은 것이였다.

銀行의 경우를 보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英格蘭銀行(the Bank of England)은 英國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였다. 초기의 조치로 1781년에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서 北美銀行(the Bank of North America)을 設立 許可한 것은 그럴 듯하게 보였다. 그러나 새 政府가 그러한 特許文書를 발부할 수는 있었지만, 英國에서와 같이 기능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목표와 결과의 불일치는 美國의 어떤 특징적이고 매우 단순한 조건들 때문이였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첫째 無知를 들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 北美銀行을 設立하기 위해 特許狀을 획득한 사람들은 이 문서를 받았을 때 商人들이 銀行運營에 대해서 아는 정도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했고 이러한 狀態는 銀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아는 銀行家가 출현할 때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러한 무지는 대부분의 美國人 法律家들이 獨學에 의한 사람들이였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이 읽는 책은 과거의 것만을 다룬 『블랙스톤(Blackstone)』이나 『코크 온 리틀턴(Coke on Littleton)』과 같은 몇 권의 책 정도에 불과했다.

그들은 特許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었고 法人 内部에서 진행되는 사태나 法人과 政府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본 경험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權限의 配分에 관한 용어 등이 불분명했고 많은 미비점들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후대의 법률가들이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남겨 놓게 되었다.

둘째로 美國政府의 聯邦主義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美合衆國에

서 누가 特許狀을 발부할 권한을 갖는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英國의 경우는 문제가 없었다. 즉 그 권한은 國王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 14개의 主權體가 있었고 새로운 州가 더해질 때마다 그 수도 증가했다. 北美銀行이 特許된 후 1년 동안에 매사추세츠州에서는 매사추세츠銀行이 特許됐고, 뉴욕州에서는 뉴욕銀行이 특허됐다——이 두 銀行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펜실타니아州에서도 자체의 銀行設立을 특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各州마다 따로 많은 수의 銀行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聯邦主義는 合衆國의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불명확성에서 연유했다. 사람들은 合衆國을 主權體로 부르면서 各州도 主權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法人體를 창설할 권한이 집중되지 못했고, 체계적으로 통제되거나 규제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것이면서도, 다음 세기에 가서도 강력하고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서 일반적인 國民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法人體가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特許했기 때문에 國民들이 法人에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國民들은 法人의 권한을 소수의 개인들에게 국한시킨 데 대해 반발했던 것이다. 그들은 特權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特權을 누릴 權利가 있어야만 한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스턴에 매사추세츠銀行의 설립이 特許됐을 때 셀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우리는 銀行을 가져서는 안되는가?”라고 불평했다. 이 銀行이 아직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뉴베리포트 사람들과 그리고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스턴의 다른 경쟁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조차도 “자, 그 자들이 銀行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도 역시 銀行을 가져야만 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法人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權限을 갖고자 하는 欲求를 현실화시킬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結局 1800년경까지 美國에는 유럽 전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法人이 생겼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수가 증가되어 갔다. 敎會들도 法人化되었고, 敎育機關 및 慈善機關, 製造業體, 運河 등은 물론 시일이 다소 경과한 뒤에는 鐵道와 高速道路運營도 法人化되었다. 즉 필요성을 느끼는 단체는 어느 것이나 法人의 조직형태를 취해가게 되었다.

權利로서의 法人設立

法人設立 力量의 확산은 눈에 띄지는 않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초래했다. 유럽에서 그리고 초창기의 美國에서도, 法人設立 特許는 特別立法事項이었다. 法人設立에는 下院이나 上院의 입법이나 州議會의 입법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美國에서는 法人設立이 더 이상 特典이 아니고 權利가 되었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단의 기준에 의해 法人을 設立할 수 있었다. 立法에의 壓力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法人은 法律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순한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곧바로 法人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세부사항의 작은 변화는 바로 法人設立에 관계된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켰다. 法人設立이 가지는 의미가 상술한 간단한 절차를 의미한다면 그것의 실질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 잉글랜드銀行을 설립하는 것——이러한 형태의 法人設立에는 일련의 특권이 수반되었고 잉글랜드銀行을 제외할 어느 누구도 이 은행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없었다——과 필요한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여섯 사람이 모여 서명함으로써 銀行을 설립하는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大學, 敎會, 慈善團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法人設立은 特權이 아니고 특권과 정반대의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회를 의미했다. 즉 그 사업의 성격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간에 협력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다.

美國에서의 法人發展이 갖는 否定的 側面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 측면은 인식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예컨대 대량의 낭비가 있었던 것이다. 發展되지 못한 경제, 예컨대 19세기의 오하이오나 일리노이 같은 곳에서 20 내지 30개의 銀行을 설립했을 경우 그 중 半數는 실패하게 되어 있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반수 이상이 실패했고 어떤 경우에는 모두 실패하기도 했다. 要件을 갖추지 못했던 점은 且置하고라도 경쟁적 상황이 큰 위험을 무릅쓰게 했고 이것은 낭비적인 것이었다.

19세기 중반에 교통망이 설계되었을 때 일관성 있는 노선이 전혀 없었던 점도 들어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파리를 중심으로 철도가 四通八達로 뻗어 있었다. 모든 교통시스템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英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企業이 서로 협력해서 두 都市間 鐵道를 건설하는 사례가 없었다. 1870년대에 뉴욕과 보스턴간에는 6개의 鐵道路線이 있었고 이 중 넷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운행되었다. (당연히 넷 중 셋은 오래지 않아 파산했다.)

法人 설립방식의 변화는 또한 집중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美國은 19세기 말에 ทรั스트 및 이와 유사한 大企業에 대해 엄청난 반발의 물결이 일어났다. 물론 유럽의 英國, 프랑스, 獨逸 등에도 大企業이 역시 존재했으며 산업계, 기업계, 금융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었지만 美國의 경우와 필적할 만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럽의 경우 적대감이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ทรั스트가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ทรั스트는 政府에 의해 장려되었던 것이다. 議會의 입법은 會社設立에 있어서 카르텔 기타 이와 유사한 협정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會社에게 부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체의 內規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美國에서 트러스트는 法人조직으로 設立되지 않았다. 美國에서의 트러스트 발생은 유럽 같으면 단일 會社들이 할 수 있는 일을 美國에서는 한 會社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美國의 會社들은 모두 독립된 小規模 단위가었기 때문에 트러스트 形態로, 엄밀히 말하면 持株會社 기타 교묘한 방법으로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 대중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 점이 美國적인 法人形態發展의 또 다른 낭비적 측면이다.

美國에서의 法人發展이 갖는 肯定的 側面

美國에서의 法人發展은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았다. 그 한 예를 들어 보면 政府가 法人設立權限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政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기구들이 설립됐고 이것들은 전적으로 政治의 산물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敎育과 慈善分野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19세기 중반에 각종의 州立大學을 설립하기 위한 고무적이기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대학들은 敎育분야에서 우선적인 領域確保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이들 大學들의 설립활동과 때를 같이 하여 훨씬 큰 규모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敎育기관들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들 敎育기관도 다른 法人들과 같은 방식 즉 등록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法人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리고 政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을 희생시켜서 政府가 설립한 대학을 지원할 힘, 다시 말해서 어느 한편을 위해 다른 한편을 희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었다.

지난 해 夏季研究會 교재의 주제이었던 〈調整機構〉——병원, 각종 자선단체, 종교단체 및 종교관련단체 등——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범주의 法人의 경우도 동일한 측면을 갖는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法人設立이라는 동일한 방식을 이용했으나 法人設立이 단순한 등록의 문제로 되어버림으로써, 政府가 法人을 통제할 힘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에 政府에 의존하

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일한 政府統制로부터의 자유는 經濟分野에도 적용된다. 특히 이 경우에 法人의 利用資源에 의해 가능해진 새로운 기회의 조속한 활용은 法人 상호간의 낭비적인 경쟁과 투쟁방식을 점차 개선시켜 나갔다.

鐵道는 英國에서 발명된 것이지만 10년이 채 못되어 美國의 鐵道延長이 유럽 全體를 합한 것보다 길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의 鐵道延長이 모두 運行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 중 일부만이 運行되고 있었다. 수송되어야 할 승객과 화물이 아직 출현하기도 전에 각지로 철도가 뻗어나갔던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9세기 말경에는 일련의 모든 새로운 경제적 계획들이 모두 이용되었는데, 이는 法人이라는 장치가 다량의 資本 및 經營能力 그리고 이들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기업활동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랜 發展過程에서 발생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처음에는 特權 부여의 수단과 독점적 조직체의 일종으로서, 국가에 의해 그 자체의 목적 때문에 빈틈없이 통제되었던 法人이 나중에는 그 구성원이——누구나 法人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원하는 목적이 어느 것이든간에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 되었다. 따라서 法人은 존속과 발전을 위해 特權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되었다. 法人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法人구성원들과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의 이익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만 하면 족했다. 이는 法人이 자신의 고객이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장의 요구에 호응해야 하며, 法人에 資本이나 기금 기타 자원을 공급한 法人 구성원의 요구에 호응하던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수의 法人들이 실패했지만 그것은 特權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고객과 그들이 구성원의 이중적 요구에 적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發展過程은 보다 伸縮的인 수단을 탄생시켰고 19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法人이 상대하는 사람들과 시대의 요구에 호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討 論

질문 : 法人設立特許狀은 法人의 특권뿐만이 아니고 법인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법인들이 어떻게 영리기업이 되었는가?

해들린 : 特許狀은 어떤 의미에서 축소된 憲法(miniconstitution)과 같은 것이었다——이것은 特許狀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英國의 경우에 해당한다. 特許狀은 政治的 法人團體를 설립시키면서 그들 法人들의 目的을 규정했다. 또한 그것은 法人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어떻게 細則이 성립되는지, 法人의 구성원의 권리가 무엇인지, 구성원의 法人에 대한 義務가 무엇인지, 法人의 特權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法人의 운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예기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法人 중 일부는 항상 영리기업이었다. 예컨대 버지니아會社는 株式會社이었는데 이것을 개인들이 정부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에 投資하여 그 투자로부터 利潤——이윤을 얻는 경우는 없었지만——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 會社는 土地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는 등의 일을 수행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營利企業의 일종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法人들은 東印度會社 등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 흥미 있는 것은 美國인들이 어떻게 特權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經濟的 활동에로 나아가게 됐는가 하는 점이다. 즉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鐵道나 運河, 高速道路 등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그는 어떤 특권들——예를 들

30 法人의 發展過程

면 土地收用權 등——을 가져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必然的으로 法人이 등장했던 것은 남득이 간다. 그러나 製造業에 있어서는 個人企業밖에 없었고 유럽의 경우 製造業 분야의 기업은 19세기말까지 法人으로 설립될 수 없었다. 美國의 제조업에서 法人이 등장한 데는 特權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이유들이 있었다. 美國의 製造業분야에서 최초의 大規模企業은 방직업에서 등장했다. 방직공장은 상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지 않고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法人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持分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공장의 經營은 자신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했다. 이리하여 발전되지 못한 경제의 일부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들 중에서, 法人設立은 인가를 받은 영리기업이 자본을 동원하고 자원을 축적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營利企業活動에 하나의 형식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되었다. 法人設立은 이후 다른 종류의 사업에서도 역시 유용한 수단이 되었는데, 이는 法人設立의 경우 사람들이 직접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媒介機構를 활용하는 특정한 방식을 통해 자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질문 : 유럽에서는 고유하고 한계적이었던 특권이 美國에서는 개인이 有限責任을 갖는 ‘민주화된’ 형태의 것으로 되었던 데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해틀린 :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民主화된’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많은 대중들이 사업에 착수하여 자신의 法人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대중의 일부만이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차라리 어느 하나를 지원하고 다른 것들은 차별하는

政府의 濫過裝置를 통하지 않고서도, 法人設立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法人設立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질문 : 英國의 경우 特許會社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가?

한들린 : 特許狀의 規程은 일반적으로 매우 관대했기 때문에 法人은 獨占, 去來의 制限, 不當한 價格政策 등에 대해 責任을 지지 않았다. 이것들은 法人에 부여된 特權들 중의 하나이었으며, 不文法體系下에서는 責任이 있음을 主張할 수도 없었다. 責任追窮의 가능성이 提起되는 유일한 경우로는 法人의 幹部가 權限을 남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法人設立法規는 政府系 機構가 아닌 기구가 치하게 되는 制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自由로운 政府機關의 설립을 수반케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떤 措置가 취해졌는데, 東印度會社의 경우 19세기 중반 경에 會社가 해체되고 政府의 공식부서가 되었다. 그러나 法人들 중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다.

질문 : 이 分析이 어떻게 大規模의 現代的인 法人에 適用될 수 있으며 이들 法人이 어느 정도까지 調整機構로서의 意味를 갖고 있는가?

한들린 : 規模를 어떤 方式——資本, 賣出額, 利潤, 從業員數——으로 측정하든간에 1930년대에 巨大한 法人과 1980년에 정상에 있는 法人과는 다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事態가 발생했는가?

최근 10년간 모든 企業들이 法人形態를 가지고 있었지만 法人設立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保護壁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法人화된 企業은 個人企業의 경우 존재하지 않을 취약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20년 전 혹은 戰後의 大規模法人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될 정도로 法人이 너무 大規模化했다고 하는 주장을 부

정할 수 있는 反證이 없으면 나의 主張은 분명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질문 : 나는 法學者가 아닌 歷史家로서 神學的인 疑問點을 가지고 있다. 法人을 묘사함에 있어서 당신은 法人이 創案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묘사를 시작했는데, 歷史的 見地에서 볼 때 확실히 法人은 실질적인 힘을 가지면서 성장해 온 것처럼 보인다. 法的인 보호를 없애버려도 法人이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헨들린 : 法人이 創案된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싶다. 法人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게 되었거나 오랜 發展過程의 단순한 產物이지도 않았다. 個人들의 意志와 意圖에 호응하여 어떤 변화가 발생한 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法人이 創案된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法人은 다른 모든 창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주위 여건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했다. 모든 창안의 對象은 그것이 주어진 時間과 場所, 그리고 發展過程의 흐름에 의해서 制約된다.

질문 : 귀하가 묘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建國初期에 法人의 창설을 호려했던 意圖的인 決定이 내려진 적이 있는가?

헨들린 : 法人의 증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意圖的인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질문 : 法人設立이 더 이상 政府의 特權이 아니게 됐을 때 法人設立이 가지는 利點은 무엇이었는가?

헨들린 : 法人設立은 매우 편리한 活動方式이 되었다. 그것은 활동방식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效率의이기도 했다. 예컨대 만일 20명이 한 企業에 투자할 경우 20명 모두 同業者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同業者 중

한 사람이 죽을 경우 전체 同業者關係에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는 달리 20名이 한 사람의 受託者 또는 2~3名の 受託者를 選任하여 20名 全體를 대신해 활동하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利用될 수도 있었고 실제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역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政府와 관계없는 法人設立의 利點은 예컨대 持續性을 들 수 있는데 法人은 持分所有者에게 무슨 일이 發生해도 계속 존속할 수 있었다. 앞의 예에서 20명의 持分所有者가 모두 죽는다 해도 法人은 계속 존속되며 지분소유자의 權利는 相續人에게 承繼된다.

그리고 法人은 有限責任을 갖는다. 이것은 어떤 法人이 債務를 辨濟할 수 없을 경우 債權者가 個別投資家에게 訴訟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個別投資家들은 자신들의 投下資本만을 상실할 뿐이며, 더 이상의 것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法人은 法人自體의 印章과 法人格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유리함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法人設立이라는 방식은 사업을 전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편리한 방법의 하나이며 法人制度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편의성은 더욱 증가된다.

질문 :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偶發的 事件이나 便宜性의 問題가 아니고 반드시 自覺된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의식된 이데올로기상의 變化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中世의 英國에서는 法人이 政府에 의한 特許에 의해서 設立되었고, 法人은 公共利益에 대한 責任이 있었다. 法人은 公衆에 有益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特許되곤 했었다. 이는 東印度會社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신이 서술한 美國에서의 事態推移는 法人이 갖는 公益的 性格에서 個個人的 便宜性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個人的 책임을 有限化하는 組織原則의 새로운 초점이었다. 美國에서 法人을 둘러싸고 발생한 事態推移를 일반적인 美國의 自由主義 이데올로기와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34 法人의 發展過程

헨들린 : 公共의 利益이라는 말을 본래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싶다. 英國에서의 特許法人 중에는 이튼, 럭비, 해로우 등 公立學校로 불리워지는 것들이 있었다. 이들 學校의 기능은 통상적으로 特許狀에 規定돼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公的’이라는 것은 모든 個人에게 開放돼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學校들이 國家機關들과의 關聯에 힘입어 어떤 特權的인 地位를 가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特許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무도 본래적 의미에서의 公衆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9世紀 後期에 가서 美國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도 약간은 公共의 이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消費者集團을 상대하는 法人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이질적인 消費者集團의 이익을 의미하게 되었다. 넓은 公共의 利益이라는 觀念은 사라져 버렸으며 아무도 실제로 이 말을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概念인 새로운 環境이 등장했다.

질문 : 具體的인 事例를 하나 들어도 좋은가? 美國의 해밀턴銀行의 設立은 넓은 의미의 法人설립을 의미하고 결과는 새로운 觀念을 시현하는 것이 아닌가?

헨들린 : 그렇다. 그러나 해밀턴의 계획에서 볼 때, 다른 銀行은 없었어야만 된다. 美合衆國銀行만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해밀턴銀行이 운영되고 있던 1820년대에 많은 州立 및 地方銀行들이 이것과 경쟁하고 있었다.

질문 : 法人의 初期 特許狀에 神學的인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헨들린 : 英國의 特許狀에는 약간의 格式을 갖추기 위한 용어 사용이 있었

다. “제임스 1 세는 神의 은총에 의해……”와 같은 文句가 쓰여지곤 했다. 外國의 特許狀에도 異教徒를 改宗시키는 내용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特許狀에서 내가 발견하는 범위 내에서의 宗教的 用語들이다.

질문 : 法人 發展過程에서의 차이를 規定하는 事例들을 귀하는 어떻게 특징 지우겠는가? 예를 들면 이러한 事例들이 倫理의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營利·非營利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인지, 혹은 銀行들이나 아니면 각종의 法人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의 伸縮性을 부여해주는 公的인 認可權限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로 다른 私的法人들간의 투쟁에 속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 중의 하나인가, 아니면 이들의 複合體인가?

헨들린 : 그러한 것들의 複合體에 가깝다. 예를 들면 營利法人의 성격을 정착시킨 중요한 事例들은 營利事業과 關係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트머스大學(Dartmouth College)의 경우인데 웹스터와 같은 막강한 法律家가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政府가 이미 發付한 特許狀의 內容을 변경할 수 있는 權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特許狀은 政府와 法人設立者間의 契約이며, 따라서 特許가 일단 부여된 경우 政府가 契約의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러한 결론은 최초의 事例로서 대학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종류의 營利法人에도 역시 적용되곤 했다. 이보다 몇 년 앞서서 있었던 事例로서 敎區의 財產所有權과 관련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 경우도 역시 확대해석에 의해 營利法人에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다루기 힘든 개념인 營利·非營利概念은 20世紀까지 提起되지 않았으나, 營利法人으로 規定된 法人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 非營利法人들에게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考案된 立法이 등장하면서 이

들 概念도 본격적으로 區別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구별은 所得稅法改正이 이루어지고 利潤追求 企業인가 아닌가를 判定하는 國稅廳이 등장할 때까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질문 : 計劃에 의한 成長과 非計劃的 成長間에 效率性에 대한 優劣判斷을 내릴 수 있는가?

현들린 : 19세기에 美國에서는 實行段階에 들어갈 때는 이미 낡은 것이 돼 버리는 형태로 計劃을 세우곤 했기 때문에 計劃이라는 것이 與件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해도 拘束用재킷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우리 社會가 급속한 成長과 大規模의 擴大를 시현하는 상황하에서 계획이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거나 정태에 발생할 사태를 상상해 본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게다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計劃立案用 分析道具들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鐵道에 대한 대부분의 計劃들은 東에서 西로 달리는 鐵道를 예견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계획에 따라 大陸橫斷 鐵道가 건설되었다. 이들 計劃 중 많은 것들은 매우 낭만적인 것이었다. 計劃을 地圖上으로만 볼 때는 흥미로운 것이었다. 실제로 19세기에 가장 收益性이 높았던 鐵道들은 南北으로 달리는 것이었지만, 地圖上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흥미로운 것이 되지 못했다. 鐵道歷史에서 가장 收益性이 높은 單線鐵道는 아마도 일리노이 센트럴鐵道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카고에서 南北으로 달리는 鐵道이었다. 計劃立案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路線은 미시시피江水路 및 그것의 모든 支流水路와 경쟁해야만 했었던 것이었고 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路線은 돈을 벌어들이게 하였다.

法人의 分類

오스카 핸들린
Oscar Handlin

나는 法人을 분류하여 설명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0세기 초에 法人은 美國에서의 발전과정에서 보듯 政府에 대해 對立的인 입장에 서 왔다. 양자의 관계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法人은 때로 政府가 하고자 하는 일과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政府의 입장에 서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인 발전의 노선을 걸어왔다.

法人이 나타나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자. 法人은 國家에 의해 승인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政府의 허가를 받지 않고 登錄만으로도 활동할 수 있었다. 어떠한 法人도 등록할 수 있었으며 政府는 어느 法人이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法人들은 등록할 때 몇 가지 일반적인 規則들을 준수해야 했다. 이 규칙들은 다른 모든 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이 규칙들은 法人이——營利法人, 慈善法人, 學校法人, 또는 財團인가를 불문하고——내부적으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設立 당시의 定款에 의해 정해진 準備委員들이 있으며, 이들은 成文化된 定款의 절차에 따라 理事를 선출하고 理事會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 理事會는 執行部를 선임한다. 이러한 5단계의 과정을 통해 法人이 성립되며, 또한 오늘날까

지 이런 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法人의 規模

法人의 類型分類의 한 기준은 그 規模이다. 巨大法人뿐 아니라 小規模 法人도 존재하며 이들은 또한 역사상의 공동의 뿌리에서 갈라져 내려온 동일한 규칙들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5만 명 또는 그 이상의 成員을 가진 法人도 일련의 규정에 따라 理事들을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理事會와 經營陣과의 관계 그리고 經營陣과 構成員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성원이 4, 50명 또는 그 이하인 法人도 존재한다. 이 法人들도 역시 스스로에게 적합한 일련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規模에 따른 구분은 모든 法人에 적용된다. 작은 營利法人은 작은 財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小規模法人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法人의 운영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理事會의 意思決定 과정에도 친숙하고 따라서 經營陣 또는 執行部와 접촉을 계속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巨大法人에서는 사람들의 流出入이 빈번함에 따라 構成員이 유동적이며, 理事들을 선출하는 과정도 구성원들에게는 거의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 理事會는 理事들을 해마다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互選(co-opt)으로 선출하고 있으며 構成員들에게 새 理事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간혹 執行部는 理事會와 構成員들 사이에서 獨自性を 획득하기도 하며, 理事會와 構成員들에게 최소한의 만족을 지속시켜 주는 한 執行部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도 한다.

公法人과 私法人

法人分類의 두번째 기준은 法人의 목적과 소유권으로서 公法人과 私法

人으로 나눌 수 있다. 초창기의 法人의 경우 이것은 의미있는 구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든 法人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公的 目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法人의 定款과 規定을 정당화하였다. 大學의 설립이건 은행의 창설이건간에 이들 조직은 정관에 公共의 目的과 公共福祉를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을 성분화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國家로부터 特權을 받을 만하였다.

그러나 政府에 대한 이러한 連繫가 약해지자 法人들은 점차 私有化되었다. 즉 國家와의 분명한 連繫없이 구성원들의 자의적인 結社體로 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法人들은 지난 50년 동안 점차 증가해 왔다. 이들은 때때로 私法人들과 法人 目的上 하등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政府가 재정지원을 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公的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巨大規模 公的 法人體는 뉴욕港灣廳(The Port of New York Authority)이다. 이는 특별한 상황에 부응하여 출현하게 되었다. 뉴욕항만청은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주의 3州에 걸쳐 있는데 모든 항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法人體를 3州 중 어느 한 州에만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法人體는 各 州別로 독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憲章, 독자적인 행동방식을 가지는 특별한 定款을 갖춘 法人體로 발전되었으며, 各 州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의미에서 州의 產物이다. 理事들은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州 政府에 의해 임명되며, 州 政府와 民間部門 사이의 경계영역에서 활동한다.

法人體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州 政府의 직접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뉴욕 州知事는 몇 사람의 理事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그가 항만청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간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항만청은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재정지원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機關들은 보통 州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社債發行 등을 통

40 法人의 分類

하여 얻어지는 私金融에 의존한다. 그리고 社債 보유자의 신뢰와 資金借入能力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機關들은 政治的 干渉은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실제로는 자율적이나 前述한 의미에서 公的인 公的 法人들의 수가 최근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公法人들은 많은 나라의 유료도로, 다리, 터널, 공항의 운영과 행정을 맡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投資家와 使用者들이 다같이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나 政府가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원하기는 하지만 순수 民間私法人에게 맡기기에는 곤란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위와는 대조적으로 法人구성원들이 직접 理事들을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私的인 성격을 갖는 法人들이 있다. 이들은 皮相的으로 보면 公·私의 구별이 힘들게 된다. 다리에서 당국에 料金を 지불하는 사람은 지하철에서 당국에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과 동일한 입장이며, 또 완전히 私企業인 그 레이 하운드 고속버스에서 차표를 사는 사람과도 동일한 입장이다. 顧客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다. 財政의 입장에서 보아도 私法人, 公法人 모두 경쟁적인 資本市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

公法人은 公債發行을 통해, 私法人은 株式發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한다. 公債는 고정된 일정 利率을, 株式은 덜 고정적이며 불규칙적인 配當金을 약속한다. 이 두 證券은 投資家가 미래에 대해 갖는 신뢰감의 增減與否에 의해 市場價格이 騰落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다른 데에 있다. 즉 經營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公法人에서의 경영도 언제나 거대한 營利法人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유지적인 官僚制的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오히려 州나 政治制度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 하는 데 있다. 公法人에 있어선 政府가 理事들을 임명하게 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法人의 政策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私法人은 아무 간섭 없이 自律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세번째 구분기준은 營利와 非營利의 구분이다. 이 구분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가장 명료하다. 말하자면 非營利的으로 움직이는 병원, 박물관, 대학을 생각해 보고, 營利을 위해 움직이는 제너럴 모터스 또는 웨스팅 하우스社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보면 이 구분은 몇 가지 제한된 측면을 제외하고는 그리 분명치 않다. 대규모의 非營利法人들도 때로는 대규모의 營利法人과 같은 행동양식을 보인다. 營利法人은 配當金을, 非營利法人은 구성원들에 보여줄 수 있는 業績과 成果를 통해 구성원들의 만족과 관심과 참여의식을 유지 자극한다. 또한 兩 法人들은 구성원들과 理事會와의 관계, 그리고 理事會와 經營陣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현 사회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法人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營利追求 法人들부터 살펴보자.

利潤은 고전적 용어로서 단순한 개념이다. 즉 所得에서 消費를 뺀 것이다. 그러나 巨大企業의 貸借對照表는 수자들의 집합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보다 많은 사항을 함축하고 있다. 企業의 운영방식이나 企業會計體系를 고려해 보면 貸借對照表는 단순한 損·益의 합계뿐만 아니라 減價償却率,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社內留保金과 같은 神學的 概念¹⁾들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일단 損益明細가 배당금으로 환산될 때 명세표의 잔액과 株式所有者에게 돌아오는 배당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배당금은 每會計年度의 損益計算 결과와는 거의 무관하다. 계속적으로 赤字를 내는 會社들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며 어떤 會社는 黑字를 내면서 배당금

1) 여기서 神學的 概念이라 함은 減價償却率이나 社內留保 등이 十一條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축한 것이다.

42 法人의 分類

을 주지 않기도 한다. 社外分配率(rate of pay out : 會社가 稅 控除 후 當期純利益을 어느 만큼 配當으로 돌리고 있는나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配當率(dividend rate)은 1株當 이익 배당액을 그 액면금액과 대비하여 산정한 것이다.)은 어떤 의미에서든 회사의 利潤率에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979년의 걸프(Gulf)社의 利潤은 前年度에 비해 배로 늘었으나 걸프 株式所有者에게 돌아가는 配當金은 큰 變動이 없었다. 이 한 해 동안 배당금은 그대로였으나 株式時勢는 배로 뛰었다. 바로 이 점이 좁은 의미의 利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最善이란 즉각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아니라 會社의 미래에 대한 期待感이다. 經營陣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經營陣의 임무는 주어진 시점에서 많은 利潤을 分配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長期的으로 會社株式의 展望에 대한 신뢰감을 투자자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非營利法人에는 배당금 제도가 없다. 그러나 이 조직의 미래에 대한 신뢰감은 營利法人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는 法人이 수행하는 일의 重要도와 法人이 장래에도 계속 發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의 확신감에서 나타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法人活動의 모든 측면에 다 적용되며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사이의 미묘한 유사성이 된다. 예를 들어 병원 또는 박물관의 홍보부와 營利會社의 홍보부 활동간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大規模 私營利法人

企業法人에 대해 일반적이며 概略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여기에 제시하여 본 3가지 二分法의 組合(combination)이다. 즉 企業法人은 대규모적이며 막대한 자본과 많은 株式所有者, 그리고 비인격적인 官僚經營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企業法人은 私的이며 다소 분명하게 公的 부문으로

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은 의미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企業法人의 巨大性, 私的 性格, 營利性이 우리 會社의 미래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私營利法人의 經營陣들은 그들의 취약성 특히 政府로부터의 간섭에 대해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政府와 대규모 私營利法人 사이의 관계는 비묘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많은 점에서 對立的인 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規制의 全體系는 巨大企業의 구성원, 즉 주식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이는 1930년대의 證券法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立法은 일차적으로 內部會計公開와 公共監査에 대한 企業의 節次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이 立法은 企業으로 하여금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하여, 會社 內部的 經營에 대해 높은 信賴感을 제공해 주었다. 지구상의 어떤 大企業에 대해서보다도 美國에 있는 大企業의 내부 사정이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投資家들이 이 企業들에 대해 얻은 정보의 質을 의식하는 경우가 드물게 되었다.

政府는 소비자 보호하고 巨大企業들 상호간의 去來規則을 제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租稅制度가 이 巨大企業들의 기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徵稅者는 기업이 어떻게 자본을 調達하고,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며,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非營利法人들이 상당한 행동의 자유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이다.

지금까지 주로 法人들이 美國 內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社會의 산물로서 성장하여 온 과정에 대해 설명하여 왔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多國籍企業에 대해 한 마디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논문들이 그들의 활동을 밝히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알려진 점이라고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美國 경제의 어느 부문보다도 이 多國籍의 企業에 관한 부문에서 학자들이 밝힌 사실과 대중이 알고 있는 사실과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은 이상하다고 하겠다.)

多國籍企業

多國籍企業은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뚜렷하게 美國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美國이 이러한 法人體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또한 이들이 출현하게 된 이유도 美國의인 특수한 사정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法人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울러 최초로 美國에서 해외활동을 하게 된 會社는 파리에 지점을 설립한 뉴욕의 寶石商 티파니會社(Tiffany and Company)이다. 이것은 적어도 상징적 측면에서나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寶石商이자 銀細工業, 그리고 후에는 유리 製造業體가 된 티파니 같은 會社가 왜 파리에 지점을 설치하였는가? 이미 파리에도 많은 寶石商이 있었으며 美國 국내 寶石市場이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또 사실인즉 寶石商間의 경쟁은 美國에서보다 파리에서 더욱 치열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두번째로 해외에 진출한 會社는 19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Singer 縫紉機(Singer Sewing Machine)會社이다. 1900년 경에는 유럽 도처에, 그리고 조금 후에는 세계 각지에 縫紉工場이 세워졌다. 세번째는 수확기와 여타 農業機械를 만드는 인터네셔널 하베스터(International Harvester)會社이다. 이 뒤를 이어 IT&T(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또는 스탠다드 石油(Standard Oil)會社가 해외로 진출하였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 1914년 경에는 이런 회사들 중 대부분이 스스로 組織과 行動樣式에 있어 국제적이 되고 있음을 밝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무엇이 이러한 모험을 하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기 중 상당수가 아직도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먼저 그 외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帝國主義的 膨脹원인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들은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 美國 투자자들은 低開發地域으로 나아가지 않았었다. 美國 投資

의 主對象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西歐, 캐나다, 멕시코 등이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는 투자가 없었다. 이 지역으로의 資本流出 중 가장 큰 것은 宣敎使節團과 慈善團體의 후원을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多國籍企業은 투자지역에서 천연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스탠다드 석유會社의 해외투자 목적도 원유수입 판매에 있었다. 왜냐하면 주요 천연자원이 그 당시 美國에서는 과잉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스탠다드 石油會社가 中國에 진출하였을 때 中國燈에 넣을 기름을 팔기 위해서였지 기름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이 企業들은 해외로 진출하였을까?

海外 進出의 動因

티파니會社는 파리에서의 경쟁을 위하여 파리에 전시장을 개장하였다. 티파니社 社員들은 그들이 美國에서 최고의 寶石商임을 자부했고 西歐 최고의 會社와 경쟁하기를 원했다. 이들은 관념적인 계산가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경쟁적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등의 인간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新興産業國家의 市民으로서 이들을 움직인 動機 중의 하나는 西歐의 보석상들과 같이 경쟁하고 보다 우수제품을 보다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었다.

이러한 사업가 중의 몇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윌리엄 해리만(William H. Hariman)은 지구를 돌 수 있는 交通體制의 建立을 희망하였다. 그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 러시아, 西유럽을 횡단한 다음 증기선을 타고 바다 건너 뉴욕으로 돌아오는 세계일주 路線을 개척하려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經濟的·政治的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리만은 生涯를 여기에 바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넣었다.

多國籍企業은 巨物 기업가들 시대에 탄생하였으며 이들 企業家精神의 일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美國은 물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動因은 간단한 것이다. 이들 企業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에서 시작하였다.

약간의 기술적 우수성이 요구되는 이들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두번째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재봉틀조차 수십 개의 작은 부품을 가지고 있다. 獨逸에서 재봉틀을 팔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재봉틀 수선기술자와 部品供給者를 필요로 하였다. 農機具, 電話器, 昇降機 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美國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된 財貨와 함께 기술적 능력, 수선 능력, 때로는 복제품을 생산할 능력도 수출할 것이 요구되었다.

1次大戰 後의 포드(Ford),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社가 해외로 진출했을 때, 또한 2차대전 이후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社, IBM社가 진출했을 때, 이러한 진출은 기술의 수출과 더불어 그들 제품의 質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품을 단순히 해외로 보내기만 해서 이 제품의 성능이 외국의 購買者의 수준에서 잘 보존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海外 進出의 擴大

위의 會社들이 최초로 침투한 지역——西歐와 캐나다——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政府를 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企業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外國 政府와의 접촉은 해외에 나가 있는 美國 事業家들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英國과 獨逸 企業들은 정부와 밀접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美國 企業은 자신의 本國 政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출해 있는 現地國政府와의 관계 역시 밀접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美國 會社들의 多國籍의 성격은 더욱 강조되게 된다. 이 점이 多國籍企業

이란 개념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다. 즉 美國의 海外企業들은 英國 또는 獨逸企業과는 달리 政府의 前衛가 아니라 獨自的 행동단위이다. 이들은 우연히 본사를 뉴욕에 가지고 있는, 그러나 활동에 있어서는 多國籍的인 자유로운 입장의 기업들이다.

2차대전 이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西유럽과 美國 인접지역을 넘어서 확대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생산품에 대한 需要가 폭발적이었다. 종전에 英國, 프랑스, 獨逸에 의해 공급되던 市場들이 공백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이 전쟁으로 시달리고 자신들의 需要조차 제대로 供給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경제적으로 北美보다는 유럽에 더욱 밀착되었던 南美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위 지역들이 유럽의 植民地로부터 벗어나자 美國의 多國籍企業들에게 市場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특히 近東지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관계의 逆現象이 발생하였다. 즉 美國 企業들은 원료를 수출하던 戰爭 前과는 정반대로 기름이나 코발트 등의 원자재를 제 3 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美國 企業들은 해외로의 진출을 요구하는 무거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 압력은 企業측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으나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종전 후 트루먼 大統領의 戰後開發計劃(Point Four Program)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低開發國들을 개발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美國의 임무로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多國籍企業들은 즉각적인 이익이 없더라도——대개 그러하였다——低開發國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도록 하였다. 政治的인 압력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느 要因보다도 우선하는 네번째 要因이 있는데 이는 2차대전 이후 웬델 윌키(Wendell Willkie)가 쓴 조그만 책자『하나의 世界(One World)』에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즉 이 개념은 교통과 통

48 法人의 分類

진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하나의 地球統一體가 이룩된다는 가정이다. 이 통일체 안에서 多國籍企業은 세계에 美國의 생산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통일된 경제체제를 제공하는 것이니,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구 여러 곳에서의 政治的 相異性을 平準化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一體感 형성, 단일 생산체제에 참가하고 있다는 共通意識의 발전은 모든 정치적 차이의 중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하나의 세계라는 개념의 확산은 多國籍企業의 해외진출에 매우 고무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상은 1980년대에 法人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한 매우 간단하고도 개략적인 설명이다. 생동하는 社會의 다른 組織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잊혀져버린 원인으로 인해 출현하였다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殘餘物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 자신의 推進力과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여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수행하였던 기능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討 論

질문 : 귀하는 法人의 발전과정에서 美國의 독특한 경험은 法人이 국가의 통제 또는 특권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였다. 美國의 이러한 경험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이나 여타 지역에 있는 法人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혹은 거꾸로 美國이 영향받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가?

헨들린 : 실제로 美國의 영향은 거의 없다. 西歐의 法人들은 여전히 정부에 연계되어 있으며 戰後 발전의 결과로서 초기보다 더욱 밀접하게 연계된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뒤퐁(Dupont)社와 英國 화학회사인 ICI社 또는 獨逸의 I.G. 파벤(Farben)社와 비교해 보자. 이들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일련의 연계를 가지고 있다. 즉 企業을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美國의 뒤퐁이나 유니온 카바이드社가 갖지 못하는 市場 확보를 위한 온갖 종류의 특진을 준다.

크라이슬러(Chrysler)에 대한 정부의 緊急融資 같은 것은 美國의 경우 가장 밀접한 유착관계를 보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西歐에서는 정상적인 관행이다.

우리가 私企業이라 볼 수 있는 많은 西歐 企業들이 우리의 私企業보다는 뉴욕港灣廳과 같은 公企業에 가깝다는 것을 덧붙여 말해 두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르노(Renault)는 자동차會社이지만 실제로는 國家에 의해 운영되는 公企業이다. 또 프랑스의 경우 거대한 市中銀行 理事들의

50 法人의 分類

일부는 國家가 임명하며 거대한 이탈리아 企業들 역시 國家가 理事들을 선임한다.

西歐에서는 企業과 國家와의 밀접한 유착관계가 굳어져 왔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 희귀한 예를 제외하고는 경험하지 못하였다. 日本은 美國과 좀더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질문 : 귀하의 입장에서 보면 財團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해들린 : 일반적으로 財團도 法人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財團에서도 대소가 있으며 美國에만도 문자 그대로 크기가 다른 수천 개의 財團이 있다.

財團도 항상 理事會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理事陣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經營上 큰 變化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포드財團에 새로운 會長 선출이 있다면 理事會는 회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상업무 수행에 있어 理事會는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經營陣이 업무를 처리하고 정규적인 理事會에서 승인을 얻어내며, 중요한 결정들만이 理事會에서 이루어진다.

財團이 비록 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國家가 財團經營에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않으며 財團의 활동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는 점에서 財團은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때로는 財團이 설립 취지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鑑査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도 영리적인 이유에서는 아니며 財團의 經營과 租稅當局과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財團의 稅金賦課 與否는 國稅廳이 정한 財團의 성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財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에 기초하여 그 자체의 성격을 가진 哲人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질문 : 美國의 法人과 日本의 法人을 비교해 주었으면 한다.

헨들린 : 日本의 法人은 美國이 日本을 점령한 적도 있고 해서 美國 法人과 유사한 점이 많다. 日本은 營利法人뿐 아니라 州立大學校와 수백 개의 私立大學을 가진 美國의 대학교육 체제와 견줄 수 있는 대학교육 체제를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日本에서 이들 수백 개의 사립대학들은 宗教財團에 의해 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美國과 같다.

日本에도 財團이 있으나 우리보다는 政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日本 政府는 특정 자동차 또는 철강회사를 보호해 주지는 않으나 外國과의 경쟁에 대해 보호벽을 쌓아 주기도 하며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大企業의 파산을 방관하기도 한다. 또한 勞使關係에 전혀 새로운 家族制的 經營形態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日本法人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질문 : 아시아 여타 지역에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헨들린 : 프랑스는 中國의 일부를 식민지로 하였었다. 즉 上海 일부 지역은 프랑스 소유였다. 그리고 프랑스 企業들은, 自國의 植民地에서 英國이나 네덜란드 企業들과 마찬가지로 1949년까지 활동하였다. 이렇듯 母國企業의 식민지 진출은 西歐 植民地體制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금세기 초부터 몇 개의 협정들, 예를 들어 英國과 네덜란드 사이의協定과 같은 것들이 체결되었다. 로얄 더취 셸(the Royal Dutch-Shell)은 1차대전 직전에 출현하였는 데, 이는 英國系 會社와 네덜란드系 會社가 각자 독립성을 보유하면서 공동경영 및 카르텔과 유사한 체제를 규정한 협정에 의해 성립되었다.

兩次大戰 사이에 이런 종류의 카르텔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레버 브라더스(Lever Brothers)社는 英國, 네덜란드 사이의 식민지 소유에 입각한 또 다른 合作會社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多國籍企業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은 英國-네덜란드系였으며, 합작이 편리했을지라도 國籍에 있어선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52 法人의 分類

1차대전 이후 美國 多國籍企業을 모방하여 수많은 多國籍企業들이 출현하였는데 대부분 스위스 네슬레(Nestle)社와 같은 會社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美國的 의미에서의 多國籍企業은 아니었다. 이들은 스위스 會社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며 스위스에 의해 경영되며 스위스에 의해 통제되는 會社들이었다.

질문 : 法人의 概念化에 비추어 크라이슬러社의 緊急融資가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가 ?

헨들린 : 이것이 緊急融資의 첫 사례는 아니다. 과거에도 政府와 企業이 밀접하게 상호협력하는 지역이 있었다. 소규모 個人企業이 자발적으로 탱크를 제조하여 國防省에 끌고 가서, 팔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美國에서 가장 큰 탱크 제조회사이며 국방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해 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상호연관 관계가 존재하여 왔으며 그런 일은 수년 전에 미사일을 만드는 록히드會社(Lockheed Corporation)에도 있었다. 이들은 신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政府 保證등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두 사례가 선례를 만들 것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것은 의미있는 형태로 발전의 시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逸脫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질문 : 맥주산업을 놓고 볼 때 불과 20년 전에는 수십 개의 群小會社가 시장 정탈전을 벌였으나 지금은 6개 회사가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귀하는 이러한 美國 資本主義의 獨占化라는 역사적 추세가 급세기 말까지도 계속되리라 생각하는가 ?

헨들린 : 獨占이란 매우 과장된 표현이다. 한때는 독점이 매우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政府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에게 “오직 당신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곧 獨占이었다. 그러

나 지금은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제한된 수의 會社가 市場의 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 시장에 6개 정도의 會社가 존재한다면 獨占이라고 할 수 없다. 각 마을에 하나씩 맥주會社가 있었던 시절에는 독점의 피해를 겪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물론 독점에 가까운 美國電信電話會社(American Telephone & Telegraph Company)와 같은 사례도 있기는 하나 이것도 완전독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美國에는 大都市에 로체스터(Rochester)와 같은 會社를 포함하여 언제나 私企業 電話會社들이 존재하여 독자적인 전화망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더우기 지금은 通信手段의 변화로 AT&T社의 역할이 감소되어 모든 장거리 전화통신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 많은 私企業들이 진출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에 AT&T社는 지금까지 또 다른 事業領域으로 헤 온 衛星通信 같은 업종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AT&T社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엑손(Exxon)은 지금 타이프라이트된 것을 장거리로 전달하는 퀵(Quip)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엑손의 활동이 한때 AT&T社가 누렸던 것과 같은 獨占的 지위에서 밀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분야의 技術이 날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변화가 市場의 지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형 항공회사가 3개——보잉, 록히드, 더글라스——만 있다고 하자. 만약 群小會社들 도외시한다면 이들이 全美國 市場을 석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會社들이 항공기의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航空機의 상당 부분을 下請하기 때문이다. 모터는 이쪽에서, 항공장치는 저쪽에서 만들어 가져온다. 한때 보잉社는 항공기 여러 부품을 위해 만 천 개의 下請會社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下請業者에게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

이 자신들에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었다.

정상에서 보면 3개의 會社만 있으나 항공기 실제 제조과정에 들어가면 수천 개의 群小會社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自動車 業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포드社가 미시간州에 리버 루즈(River Rouge) 工場을 건설하였을 때, 사람들은 自動車 製造工場으로서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巨大 自動車會社들은 자동차 제조를 企劃 組立, 그리고 전체적인 調整으로 생각하지, 自動車 部品 전체를 자신들이 生産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50개의 大型 自動車會社들이 있었던 192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은 단지 4개 會社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 수천의 제조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통제는 더욱더 小數의 사람에 의해 좌우되나——이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이것이 단순한 獨占의 문제만은 아니다.

질문 : 法人이 複合企業化(conglomerate; 업종상 상호관련이 없는 산업을 다수 지배하는 多産業企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자회사가 식료품 생산회사나 스포츠 용품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내지 多國籍企業化되는 추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헨들린 : 複合企業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부분적으로는 租稅政策의 결과로 인하여 성공적인 企業들이 利潤의 대부분을 聯邦政府에 넘겨지는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剩餘資金을 企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쪽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두번째로 聯邦政府의 ‘反트러스트政策’으로 인해 企業이 수평 팽창하기에는 극히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모빌石油社가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이 會社가 더욱 팽창한다 하더라도 엑손, 텍사코 또는 다른 石油會社를 合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反트러스트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會社의 업종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만약 모빌 石油社가 몽고메리 워드(Montgomery Ward)社를 매입한다고 해서 아무도 에너지의 獨占을 피한다고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째로 대부분의 企業은 무엇보다도 유능한 經營을 원한다. 그러나 때로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주저하기만 하는 官僚制가 나타나기도 한다. 合併은 때때로 企業을 쇠신시키고 과거보다 더 훌륭한 成果를 낳게 하는 方法일 수도 있다.

네째, 거의 獨占에 가까운 業種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때 단 하나의 전국 규모 렌트 카會社인 헤르쯔(Hertz)社가 市場을 석권하고 있었다. 群小 렌트 카會社가 헤르쯔社에 도전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ITT社가 아비스(Avis)社를 인수하여 강력한 뒷받침을 하게 되면서 헤르쯔社에 심각한 도전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헤르쯔社는 RCA社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複合企業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치열한 경쟁이 당분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組織體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현상은 특정업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자본력과 經營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多國籍企業들은 國有化된 企業과 같이 政府에 의해 그 속성장 쉽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國境 內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하고 서로 主權을 가지며 상호배타적인 國家들이 있는 세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多國籍企業은 이런 세계에 분명히 위협이 된다. 多國籍企業을 하나의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政府도 하나의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이다. 두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多國籍 石油會社를 놓고 보자. 텍사코, 모빌, 엑손, 걸프를 經營하는 經營陣은 株式의 이동, 資本의 적절한 운용 등등을 통하여 政府規制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多國籍企業에 대한 공격은 美國民에게 좀더 이익이 되도록 美國 政府가 多國籍企業을

56 法人의 分類

유도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이때 美國 政府가 多國籍企業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多國籍企業은 리야드(Riyadh), 카라카스(Caracas)에서 경영되며, 나아가 모든 나라에 맞는 옷을 입되 내심으로는 美國民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 國民의 利害關係에도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國家의 權威 아래 진적으로 흡수되어서는 안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企業도 교육, 종교, 또는 여타의 것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이 政府統制下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企業이 어떤 경우에도 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질문: 귀하는 크라이슬러와 록히드의 파산을 막는 조치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런 조치는 주요 企業에서뿐만이 아니라 뉴욕시와 같은 도시를 파산으로부터 막아 주는 都市後援團體에서도 볼 수 있다. 公·私企業의 구분, 그리고 유럽의 公企業과 美國 私企業의 구분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이러한 구분은 현실보다 과장된 것이 아닌가?

헨들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危險負擔을 社會化시키는 것은 保險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동차 사고의 위험, 질병이나 幼兒死亡 등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험은 이러한 사고를 평균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재앙이 닥쳤을 때 이 짐을 덜기 위해 매년 얼마씩 保險料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緊急融資 문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긴급융자는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補助金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하는 데, 만약 緊急融資가 여러 번 용납되게 되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긴급융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어 예외로서 인정되는 원리의 의도와는 달리 일반화되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緊急融資가 일시적 고통을 범추게 하는 대신 습관화된다면 이는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뉴욕 또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조만간 파산할지 모른다. 이 경우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임기응변식 대처만을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긴급융자와 같은 조치에 병행하여 根治를 위한 재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순간적인 도움은 되지만 依存性만 심화시키는 조치는 百害無益할 따름이다.

企業과 自由主義 秩序

폴 W. 맥크라켄
Paul W. McCracken

어감상으로도 神學者와 經濟學者間의 對談은 이전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자아낼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聖經은 富에 대해 상당히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고, 經濟學者들은 아마도 富의 領域에 속하는 것들에 沒頭함으로써 그들 수입의 상당부분을 벌고 있다.

그렇지만 經濟學이 진공소제기를 판매하는 방법이나, 株式市場에서 富者가 되는 방법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通俗的인’ 先入見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이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부유한 經濟學者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기업에서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경제학과 출신을 기용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인생의 物質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지만 물질적인 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立場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담 스미드(Adam Smith)의 『國富論』은, 탐욕을 노골적으로 합리화시킨 책이라고 잘못 간주될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26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宗教的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 위대한 英國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은 『經濟學原理(Principles of Economics)』의 第1版 서문에서 “倫理的 영향을 받지 않고서 금전상의 이익을, 빈틈없고 정열적으로 그러나 機械

的이고도 利己의으로 추구하는 ‘經濟人’의 행동에 관한 抽象的 科學의 定立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¹⁾라고 이 문제가 고찰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學의 ‘素材’는 시인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아내지는 못했다. 워즈워드(Wordsworth)의 다음과 같은 詩句를 기억할 것이다.

…至高하신 神께서 혐오하는 學問이 있으니
이는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치밀한 學問이로다.

이 詩의 둘째 行은 經濟學의 本質을 거의 파악한 것처럼 보인다. 이 학문은 최소성 아래에서의 合理的 전략에 관하여 연구한다. 어떤 家計가 休暇費用을 절약하여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인가? 어떤 企業이 새로운 설비에 2억 달러를 지출하고자 하는데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조달만이 가능할 때 어떻게 支出削減對象을 결정해야 하는가? 敎會가 음악관계 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보수를 적게 주어도 될 목사를 추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훌륭한 설교를 기대해서 音樂豫算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만약에 당신이 앞서 말한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며, 敎會가 예산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經濟學者에게 물을 경우 그는 모른다고 말하거나 또는 말해야 할 것이다. 經濟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행해질 수 없는 경우에 最適決定에 도달하기 위한 論理와 原則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經濟學이 본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최소성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事實인 것이다. 우리는 生産의 문제는 해결

1)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New York: Macmillan, 1925), p. vi.

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分配問題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을 수 있으나 이는 물론 뉘센스이다. 經濟가 보다 생산적이게 됨에 따라 貧國과 低所得層의 물질적 生活水準은 개선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기를 싫어하며 이 점이 아마도 經濟學者들에 대해 시인들이 혐오감을 가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워즈워드가 그의 詩에서 분개한 것이나, 토마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의 ‘어두운 學問을 하시는 존경스런 교수님들’이라는 암시가 이러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至高하신 神이 이러한 학문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욕구하는 것이 항상 이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능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느 욕구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욕구를 보다 크게 충족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반드시 적번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답이 구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經濟學은 파타를 망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經濟學이 아니었으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과 國民所得

〈表 1〉에서, 統計資料를 얻을 수 있는 最新年度인 1978년에 美國의 國民所得은 1조 7,240억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해 國民所得의 61%가 企業法人에 의한 것이었다. 이 비중은 1929년에는 53%였으나 〈表 1〉의 統計가 말해 주듯 반세기 동안에 걸쳐 완만하게 증가해 왔다. 평균해 보면, 企業法人의 比重은 대체로 10년에 1.5%포인트씩 증가했다. (非法人企業의 比重 減少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물론 2% 가량에 달하는 농가의 비중감소로서 설명된다.)

우리나라 國民所得의 5분의 3을 생산하는 이러한 조직체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들 組織體가 우리 경제 안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의 지위를 누려 왔었는가? 企業이 일반 대중의 利益에 기여하도록 하기

〈表 1〉 美國의 國民所得 1929—1978 (단위 : 10억 달러)

年 度	國 民 所 得	法 人 企 業 이 占 하 는 比 重		價 格 指 數(a)
		額 數	國 民 所 得 에 의 한 比 率 (%)	
1929	84.8	44.6	52.6	51.3
1940	79.7	42.2	52.9	42.0
1950	236.2	130.2	55.1	72.1
1960	412.0	233.6	56.7	88.7
1970	798.4	470.9	59.0	116.3
1978	1,724.3	1,051.3	61.0	195.4

註 : 1978년의 國民所得은 價償却과 租稅가 控除돼 있음. (a)는 消費者 物價指數 (1967=100)

資料 : 美國商務省, 勞動省

위해서 企業과 經濟組織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일부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틀림없이 생각해 보았을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확실히 國家的 次元의 討論에서 절실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現代企業에 있어서의 政府와 株主의 役割

現代 企業의 근본적인 正當性과 合法性에 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은 그 성격상 대부분이 지나치게 論爭的이며 片斷적 요인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이 점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 왔으므로²⁾ 여기서는 간단히 검토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企業이 어떤 이유에서도 무엇인가 의존하여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근본적으로 企業이 國家에 의해 설립되고 특정한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들 企業은 國家로부터 모종의 '讓許'를 얻었고, 따라서 企業은 자주 거

2) Robert Hessen "Corporate Legitimacy and Social Responsibility". *Hastings Law Journal* 30 (1979. 5) pp. 1327-1350을 참조.

론되듯이 ‘所有者와 經營者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公益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企業에 대한 이러한 觀念은 20세기 초 最高裁判所가 표현한 바 있지만, 이것은 王이 어떤 단체에 貿易의 獨占權——예컨대 어떤 식민지에서의 무역——을 부여하고 王은 이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받았었던 오랜 관행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受權機構는 機構自體의 利益뿐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정의되었던 의미에 있어서의 ‘公益’을 중시해서 운영되었다. 公共事業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認可와 같은 경우 국가가 인가를 받는 기구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예컨대 일정한 주파수로 방송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정지역에 전파를 판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을 부여해 주는 ‘自然獨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競爭的 市場에서 경영되는 現代 企業에 있어서 特權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이 자주 거론된다. 첫째, 企業의 책임은 무한하지 않으며 소유자 개인의 의무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同業者가 죽으면 종결되는 파트너쉽과는 달리) 기업운영에 대한 특허장은 무한히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기업은 지속적인 생명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업은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그 자체에 하나의 實體的 存在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왔었다.

이러한 것들이 企業의 자선적인 활동을 할 어떤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한다면 이는 빈약하고 피상적인 것이다. 國家는 企業에게 영구적인 생명을 부여해 주지 못한다. 지금은 파산이라는 묘지의 미명에 들어있으나 한때는 有名企業이었다는 것이 企業의 時間的 有限性을 입증해 준다. 한때 명성을 드날렸던 企業인 크라이슬러社의 불확실한 장래는 企業設立 特許狀이 영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責任의 有限性이라는 점에서도 企業主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債權者나 第3者에게 유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개인은 누구나 용이하게 기업을 提訴할 수 있다. 이처럼 소송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企業의 個別持分所有者 모두가 訴訟해야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 선견지명이 있는 債權者나 權利者들이 會社에 信用供與를 擴大하거나 아니면 會社와 訴訟을 할 때 責任을 會社自體에 두는 것과 持分所有者들 중에 두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 선택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실은 國家가 會社設立 許可를 發付함으로써, 效率的 經濟運行에 기여하는 個人間的 關係를 인정하는 데 불과하다. 이는 보다 效率的인 社會運行³⁾에 기여하는 개인간의 관계에 대한 形式的 承認인 結婚許可의 發付가 特權의 수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무한한(만드시 永久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存續可能性은 역시 法律事務所나 公認會計士 組合과 같은 다른 사업조직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이다.

會社概念에 대한 또 다른 근본적인 비판은 그것이 전혀 의도되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 변모해 버려서 經營者가 所有者로부터 統制權을 빼앗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돌프 버얼(Adolph Berle)과 가디너 민즈(Gardiner Means)는 그들의 著書 『現代會社와 私有財産(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에서 이 問題를 분명히 함으로써, 會社가 所有者와 經營者만이 아니고 會社 全體에 기여해야 한다는 結論을 이끌어 냈다.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어느 때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大規模인 會社는 비틀거리며 삭감해 가는 모습이 公衆의 一種과 점점 흡사해 보인다”고 結論짓고 있다.⁴⁾

왜 이러한 結論이 나올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現代 會社가 과거에는 美國의 民主的인 주위여건이 회사를 단순히 經濟的인 組織體로만 인식했으나 이제는 會社가 같은 정도로까지 社會的이고 政治的인 組織體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그러한 組織體답게 기능할 것을 요구하기⁵⁾ 때문이다. 더우기 모든 組織體가 주위여건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3) 위의 책, pp. 11-12.

4) Irving Kristol, *Two Cheers for Capitalism*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9) p. 69.

있다. 이들은 당장의 발전을 지나치게 증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들(政府와 敎會도 포함해서)에 대한 大衆의 신뢰가 극적으로 저하돼 왔기 때문에 우리 社會의 주요한 組織體들은 대부분 오래 존속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추락은 會社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會社의 英雄들에 대한 호화로운 傳記를 게재한 『아메리칸 매거진(American Magazine)』의 時代는 우리의 歷史에서 분명히 초기단계에 속한다. (정확히 얼마나 초기에 속한 단계인가는 여러분 중에 한때 대중적이고 광범하게 구독되었던 『아메리칸 매거진』을 모르는 분의 수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워싱턴에서 이에 관련된 論爭과 所聞을 듣고만 있어도 會社의 概念 자체가 보다 비판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를 더욱 엄밀히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會社에 反對하는’ 경우는 보다 불분명해진다. 만일 經營者들이 所有者들로부터 統制權을 빼앗았다면 所有者들은 이에 불만을 품을 것이고 상실된 그들의 特權을 되돌려 받기를 바랄 것이다. 실제로 所有者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랜스틴輿論調查會社에 의해 실시된 조사에서 株式所有者들에게 株式購入目的의 세 가지——즉 所得의 增大, 資産의 增殖手段, 經營에의 참여——중 우선적인 것을 선택하게 한 결과(〈表 2〉參照) 확실히 經營에의 참여는 株式購入者의 意思決定에서 중요하지 않은 副次的 목적임이 분명하다. 10%로 經營參與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肉體勞動에 從事하는 株式所有者들(blue-collar shareowners)이었으나 이 경우도 다른 두 가지 目的을 합하면 應答者의 79%가 이 두 가지 目的을 肯定的으로 평가한 것이 된다. 확실히 株式所有者들은 經營者가 ‘그들의’ 會社와 그들의 投資를 經營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勞動組合, 消費者運動團體, 環境保護論者, 少數民族 등, 利益集團의 대표자를 理事會에 참여시키려는 聯邦政府의 지혜에 대한 株式所有者들의 意見도 역시 調査되었다. 이러한 聯邦政府의 要求에 대한 관심은 教育水準과 逆의 相關關係를 보였다. 勞動組合의 代表參席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인 肉

5) 위의 책, p. 70.

〈表 2〉 株式을 購入하는 주된 理由 (단위 : %)

株式所有者別區分	所得増大	資産増殖	經營上의 意思決定에 참가	기 타
개인기업 및 회사 전문經營人	14	76	5	6
세일즈맨, 화이트 칼라	16	74	6	6
블 루 칼 라 가 경 주 부	17	69	10	8
停 年 退 職 者	19	72	8	4
	34	60	6	4

註 : 기타에는 無應答도 포함되고 있음.

資料 : “株式所有者의 意見調査”(Princeton, N. J. : 輿論調査會社, Study 63068, 1978).

體勞動에 종사하는 株式所有者 集團도 이러한 要求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株式所有者 意識의 構成이 가지는 또다른 意味가 무엇이건간에 所有權의 流用에 대해 비분강개하고 있음을 입증할 근거가 별로 없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會社의 經營過程에 政府가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더우기 이것들을 모두, 선택된 부유층이나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들의 部分的인 見解라고만 무시할 수도 없다.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株式所有者들이나 高等學校 이상의 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意見表示’는 政府의 그러한 行爲에 반대하는 편이 압도적이며 經營參加에도 압도적인 數가 무관심하다. 이 점은 부연하면, 退職할 때마다, 年金基金에 의한 普通株所有가 확대됨으로써 株式會社가 광범한 大衆에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

企業과 公益

그러면 소위 ‘株式會社 美國’은 金錢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前述한 調查結果가 의미하는 것의 전부인가? 이러한 조사결과는 株式所有者들의 設問調查結果와 아울러 그와 같이 해석될 수는 없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바는 보다 큰 共同體의 利益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과 통상적인 많은 討論이 의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會社員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會社들은 예컨대 女性이나 少數民族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經營陣과 理事會의 要員으로 과감히 채용하고 있다. 會社沿革의 初期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會社들의 內部 慣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社會的 慣行이 바뀌었다는 점을 더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黑人들은 오랫동안 競爭市場에서(예컨대 프로스포츠의 分野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왔는데 이는 競爭이 支配하는 곳에서는 業績이 成功에로의 關鍵이 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週日中 人種差別이 가장 심하게 행해지는 時間이 일요일 오전 11時(예배시간)라는 점은 아직도 사실이다. 어느 黑人大學校 幹部가 내게 말한 바에 의하면, 이 黑人中心大學校의 教會牧師가 그 地方牧師會 會員이 되기 이전에 이 黑人大學校는 그 地方 商工會議所 會員이 되었었다고 한다.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분야에서의 會社의 努力은 社會가 줄곧 요구해 온 바에 주저하면서 억지로 추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問題에 대한 社會自體 내의 認識變化에 대응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會社들은 寄附金豫算을 가지고 있고 많은 會社가 寄附金關係 小理事會를 두고 있으며 會社의 基金은 社會團體의 資金뿐만이 아니라 미술박물관, 대학교, 병원, 기타 慈善活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會社經營者들은 市民的인 事業에 시간과 정력을 쏟도록 기대되고 있다. 반세기 전 이들의 先任者들은 그들의 後任者들이 時間을 어떻게 보내고, 會社資金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던 정말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過去의 經營者들이 특별히 미개한 罪人들이고 現代의 經營者들이 開化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會社의 理

想이 過去의 世界觀을 반영했던 것과 꼭 같이 현재의 훌륭한 會社組織構成員 資格의 要件은 現代의 世界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會社가 公益에 寄與해야 한다는 命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會社의 支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는 훌륭한 사업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會社가 제공할 支援의 대상과 支援規模에 대해 '단장일치'로 적절하다고 규정해 놓은 目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누가 決定을 내려야만 하는가? 버얼과 민스가 주식소유자의 權利流用을 우려하여 慈善的인 方向으로 會社의 財源을 利用하도록 제안하였던 것은 오히려 사실상 이들이 애초에 우려하였던 株主權利의 流用을 유도한 것 같으며, 이는 逆說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共通分母 目錄 이상의 것에 대해 어떤 것을 支援하는 데 株主들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本人같은 경우에는 公共政策研究를 위해 美國企業研究所(AEI)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끼는 神學校를 크게 지원해 줄 것을 바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事例는 會社의 所有者들이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서(會社의 成長을 위해 必要한 이상으로) 會社의 所有者에게 돌아갈 所得을 다른 데에 支出하게 하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事例가 된다.

그러나 討議過程에서 看過하기 쉬운, 보다 근본적인 점이 있다. 가장 基本的인 意味에서 會社는 '公益'에 기여해야 한다. 企業의 가장 기본적인 機能은 生産을 위해 勞動과 기타 生産要素를 이용하고, 일련의 生産物과 用役을, 개방된 競爭的 市場에 자유롭게 표현된 고객들의 選好에 對應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大衆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表現에 企業이 호응하지 못하면 企業은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특히 知的인 領域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大衆에 의해 表現되고 會社가 이에 호응하고 있는 바의 大衆의 選好가 바로 우리의 분노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會社를 너무나 자주 비판한다. 이러한 選好를 表現하고 있는 사람들은, 自由主義 社會에서 그들의 所得을 그들이 選好한 方式대로 消費하는 데에 있어서 知的이고 文化的인 엘리트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選好가 갖

는 內在的 正當性을 꼭 같은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정당하게 反論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公益을 무시하는 會社는 존속할 수도 없고 존속해서는 안된다.

이 점은 우리 經濟가 아직도 競爭에 의해 規律되는 經濟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이에 대한 反對意見에 피상적인 미사여구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競爭의 原理는 계속 설득력 있는 것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世界의 產出物에서 國際貿易으로 移動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競爭原理는 확실히 강화되어 왔다. 더우기 政府가 개입한 경우(예컨대 1級 郵便에 대한 郵便서비스의 獨占)⁶⁾를 제외하고는 美國 國內市場이 보다 集中的이고 獨占的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다.

會社와 利己心의 啓蒙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會社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財貨와 用役을 市場에 내놓기 위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조직하고 生産資源을 모으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會社란 초기의 村落經濟的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資本과 勞動을 필요로 하는 經濟活動을 존속 가능케 하는 수단이다. 이와 동시에 企業은 일정한 環境 내에서 조직의 一部로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企業의 利潤追求 및 被雇傭者의 所得追求는, 이 기업이 財貨나 用役의 特性과 그 價格面에서 購買者의 選好를 충족시켜야만 達成될 수 있다. 會社는 그 成果에 의해서만 成功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神學者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 會社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私的 이익을 존중하고자 한다는 假定에 입각해서 작동하는 經濟體制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러한 努力이 一般的 厚生에 기여함으로써만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經濟體制가 구성돼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利己心 없이 他人의 요

6) Yale Brozen, "Are U. S. Manufacturing Markets Monopolized?" in *Is Government the Source of Monopoly* (San Francisco: Cato Institute, 1980)를 보라.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가정되어 있는 세계는(이 경우에도 어려운 論理的인 問題들이 제기되지만) 머릿속의 관념上으로는 어느 면에서 더 매력적일지도 모르나, 이처럼 숭고한 利他主義보다 못한 것이 사람들의 行爲動機가 된다고 가정할지라도 一般的 厚生에 기여하는 體制를 가짐으로써 만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經濟學이 利己主義와 唯物論을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만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케인즈世代的 현명하고 才氣넘치는 經濟學者인 로버트슨(D. H. Robertson)은 經濟學의 基本假定에 대해 論하면서 이 문제에 論評을 가했다.

이러한 信條들 중의 하나는 人間의 흥동과 관계되며 내가 자주 기억하게 되는 마샬의 문장 속에 결정돼 있다. “進歩는 人間本性 중에서 <가장 숭고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이 社會的 財貨의 증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나 이용되었는가에 주로 달려 있다.” 이것이 냉소적인 것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원숙한 성격을 가지며 올바른 判斷을 조장하고, 각성을 앞당기기 위해 배려된 냉소임이 틀림없다.⁷⁾

會社는 우리의 體制에서 支配的인 組織單位이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自由主義的 市場組織經濟의 발자취와 그 흥망을 같이한다. 이의 역도 아마 참일 것이다. 혹자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會社가 그 정당성을 잃는다면 우리의 自由主義的이고 市場에 의해 조직된 經濟體제도 역시 말기에 접어들어 있을 것이다.

市場經濟體制 對 國家管理經濟體制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던 바와 같이 會社는 우리의 많은 經濟活動이 이

7) D. H. Robertson, "The Economic Outlook," in *Utility and All That* (New York: Macmillan, 1952), p. 45.

루어지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會社의 運命은 會社가 基本單位를 이루는 自由主義的 市場經濟體制의 발자취에 크게 의존한다. 우리가 잠시 동안 한걸음 물러서서, 世界經濟의 모습을 본다고 하자. 개괄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世界에는 經濟活動을 조직하는 두 개의 선택적인 體制가 존재한다. 國家에 의해 組織된 經濟體制와 自由主義 또는 市場에 의해 조직된 經濟體制가 그것이다. 각각의 범주에는 물론 광범한 變種이 존재하며 각각의 體制는 서로 다른 體制의 要素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蘇聯의 食糧의 중요한 部分은 私有地에서 재배되고 自由市場에서 販賣된다. 그러나 蘇聯은 당연히 그것이 國家管理經濟라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日本, 프랑스, 캐나다의 經濟도 政府의 개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매우 다양한 要素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기 나라가 自由主義的 市場組織經濟의 범주에 속한다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머리 속으로 세계를 조감해 보던 우리는 自由主義 市場經濟體制 國家들에게서 발견되는 經濟的 成功事例가 많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말이지 現代世界는 중요한 變數인 人種이라는 變數를 常數化할 수 있는 실험장을 제공해 준다. 두 개의 獨逸이 있으나 그중 獨逸聯邦共和國(西獨)이 經濟的 成功事例를 제공하고 있다. 韓國의 경우도 분명히 南韓이 經濟的 成功事例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臺灣,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中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結果를 예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는 自由主義 開放經濟가 分明한 戰略上의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전체로서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知識과 創意性을 自由經濟가 보다 效率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전의 地質探査會社(텍사스 인스트루먼트社)가 集積回路——現代電子產業의 基礎이다——를 開發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당시의 運輸產業에 아무런 배경도 없었던 헨리 포드(Henry Ford)가 自動車分野를 개척한 것이 論理的인가? 自由主義 經濟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도해 보라.

대부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有用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당신의 아이디어가 成功한 자의 것이 된다면 당신은 상당한 報酬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自由主義經濟는 보다 나은 새로운 것을 經濟全體로 확산 또는 전파시키는 힘과 手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방된 競爭市場에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할 경우 만일 消費者와 顧客들이 이것을 선호하면 이 새로운 것이 支配的인 것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開放된 市場에서 기존의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것이 통상적으로(때로는 심각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내일에 있어서는 표준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體制는 現狀打破主義를 지속시키는 內在的이고 論理的인 과정을 自體 내에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國家管理 經濟體制는 內在的으로 不利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誘因이 약하여, 現狀打破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國家管理 經濟體制 내에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앞으로 전진하도록 허가를 내려주어야만 하는 것은 現狀(status quo)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는 革新과 進歩에 당면할 경우, 공을 뒤따라가 잡는 경기단을 계속 연출할 것이다. 이들 經濟의 문제는 그들이 前衛的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機能上 극단적으로 답습적이라는 데 있다.

自由主義 經濟에는 여기서 거론할 가치가 있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自由經濟는 그 自體의 內在的인 論理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보다는 消費者에게 특별한 配應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自動車를 통해, 行人들은 自動車를 利用하는 顧客層으로 변했다. 뒤퐁(Dupont)社는 모든 女性을 실크스타킹을 신는 部類로 만들었다. 페니(J. C. Penney)나 크레스지(Sebastian S. Kresge)가 自動車利用顧客을 대상으로 거대한 商品販賣活動을 전개했다면,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故鄉都市를 벗어나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20年前 크레스지社(Kresge Company)가 또 하나의 부룩스 브러더스會社(Brooks Brothers)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크레스지社는 기껏해야 몇몇 都市에 몇 개의 店舖를 가지는 데 그쳤을 것이다. 이 대신에 크레스지社는 K 마트(K Mart)社가 되기로 결정하고 低마

크업(mark up) 마진과 大量販賣戰略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이 會社는 無名의 雜貨會社에서 美國 第2의 小賣商會社로 변신했으며 이러한 過程에서 現在의 消費者物價指數가 몇 %포인트 정도는 덜 상승하도록 할 수 있었다. 大量販賣市場을 목표로 한 것은 단순히 유익할 뿐만 아니고 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히 말해서 國民所得의 대부분이 이 市場 가운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걸음 나아가, 自由主義 市場經濟는 制限된 資源을 매우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와 선호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下向式 經濟에서는 消費者에게 制限된 範圍의 財貨들을 별다른 變化가 전혀 없이 계속 공급하기만 하는 경향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自由主義 經濟에서는 高速用모터로 特裝한 自動車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고급의복을 원하는 사람의 욕구도 충족되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지적될 만한 가치가 있는 非經濟的 차원의 문제가 있다. 自由主義 經濟는 業繼——黨員이라거나 어떤 家門 또는 種族에 태어났다는 事實이 아니고——이 성공에의 길이라는 기본적인 立場에 그 본질적인 倫理性을 가지고 있다. 美國에서 市場은 教會보다도 앞서서 일방적으로 피부색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 經濟過程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과도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더우기 政府管理經濟는 순수히 인습적인 의미에서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쉽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經濟에서 예기되어진다. 命令, 認可, 許可, 法令 등으로 이루어지는 經濟에서는 어떤 官僚나 公務員의 意思決定이 엄청난 價値를 갖게 되므로 당연히 여기에는 치러야 할 代價가 있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經濟는 금행료나 暗市場이 없이는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會社의 費用支出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밝혀진 경우 그 受取者가 政府이거나 政府의 公務員을 포함하고 있음은 고려될 가치가 있는 사실이다.

콘솔리데이티드食品會社의 有能하고 패기에 찬 젊은 會長인 브라이언

(John H. Bryan)은 밀셴스大學(Millsaps College)의卒業式演說에서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을 하였다.

本人 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충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바로 매우 높은 價値基準을 의식적으로 제발하고 항상 이에 따르라는 것이다. …… 實業界는 모든 복잡한 去來 및 關係와 더불어 誠實性에 근본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확실히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누드러진 특성은 個人의 性格이다.⁸⁾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類型의 消費者選好를 갖는 民間經濟보다 軍事的인 計劃이 보다 쉽게 政府에 의해 위로부터 管理될 수 있기 때문에, 國家管理 經濟體制를 가지는 나라는 또한 軍事權力의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軍事的인 計劃을 위한 生産이 보다 손쉽게 이러한 體制에 ‘適合한 것으로 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주위를 한 번 더 조감해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軍事的 混亂은 世界的으로 볼 때 國家管理經濟나 命令經濟(command economies)에서 발생하고 있다.

결국 自由主義的이고 민주적인 政治體制는 분명히 國家管理經濟나 命令經濟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물론 自由主義 經濟秩序가 自由主義的인 政治秩序를——臺灣이나 韓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도 광범한 정도의 經濟的 自由가 존재한다.

즉 財貨의 購入과 일자리의 選擇, 事業의 營爲에 있어서 더욱 광범한 選擇可能性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國民들이 누리는 經濟的·政治的 自由의 總和는 政府管理經濟를 가진 國家의 國民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이는 後者에서는 經濟的 自由와 政治的 自由가 모두 없기 때문이다.

8) John H. Bryan, "The World You Enter Today", Commencement address, Millsaps College, 1980. 5. 11.

美國 內 經濟管理의 將來

이러한 보다 일반적인 결론적 評價들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였을 지 모르나 우리의 주제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推移를 보면 美國經濟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政府의 管理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美國企業研究所가 發刊하는 雜誌인 『레귤레이션 (Regulation)』에 따르면 이러한 政府의 規制와 管理에 관련된 사람의 수자가 매년 20%씩 증가했다.⁹⁾ 國際적으로 보아서 확실히 이러한 政府管理의 增加는 經濟活動의 硬直성과 保守性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事態는 실제로 발생해 왔다. 美國經濟도 지금 實質所得을 增加시켜 줄 역량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며, 生産性 增加率에 있어서도 數年間に 걸쳐 自由世界의 主要 工業國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영향력있는 利益團體들은 社會·經濟政策에 대한 그들의 戰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서인할 수 없기 때문에 責任을 ‘企業’에게로 전가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처럼 經濟的 實績의 惡化를 초래하는 過剩 規制는 더욱더 많은 規制를 초래하는 경향을 가져왔다.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民主主義가 어떤 현혹적인 불빛에 눈이 멀어 포기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은 아직도 그리 커다란 위협으로 부각될 정도는 아니다. 진정한 위협은, 市民들 자신이나 그들이 뽑은 代表도 統制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官僚體制의 統制下에 그들의 생활이 점점 더 엄매이게 될 때, 몇몇 직책의 후보자를 놓고 投票所에서 두 사람 중 어느 하나를 선출하는 기회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市民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政府라면 당연히 教育機關에 대해서도 教育內容을 지시하게 될 것이라 사실에 대하여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도록 허용된다면 中央當局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들 規制目錄에 宗教까지도 포함시킬지 모른다고 의

9) *Regulation* (1980. 3. 4), p. 8.

심하는 것은 억지만은 아닐 것이다. 消費者保護當局의 業務를 확장함으로써 사람들을 質이 낮은 說教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예컨대 자신의 官僚體制帝國을 확장하기 위해 열심인 聯邦去來委員會에 의해서 사람들을 教會의 文獻에 나오는 根據없는 주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討 論

질문 : 귀하는 會社가 인정하는 몇가지 社會的 責任에 대해서 언급했다. 會社의 社會的 責任은 가능한 최대의 利潤을 버는 데 있다는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견해에 동의하는가?

맥크래켄 : 밀턴 프리드만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그러한 表現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여 會社의 주된 社會的 責任은 競爭的인 經濟體制의 脈絡 속에서 가능한 최대의 利潤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競爭相對를 쓰러뜨리는 것과, 利潤追求에 도움은 되나, 一般的 厚生을 해치게 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本人은 밀턴 프리드만과 本人의 見解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가 또는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하고자 한다. 즉 會社의 基本的인 責任은 분명히 利潤追求에 있고,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競爭的인 與件의 脈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利潤이 높아질 유일한 方途는 費用을 節減하거나——다른 말로 표현하면 生産性이 보다 높아지거나——새롭고 더 나은 財貨와 用役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革新的인 데 있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이 事態의 進展이 여의치 못할 때 우리는 동전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經濟諮問委員會(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의 年次 經濟報告書에 나오는 하나의 表——統計는 파리의 OECD에서 나온 것이

다——를 보면 지난 5년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生産性——勞働者 1人當 產出量으로 정의된다——의 增加를 실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말하는 7大國——캐나다,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日本, 英國, 美國——을 비교해 보면 과거 수년간 生産性增加에 있어서 美國은 英國보다도 낮은 최하위의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生産性增加의 둔화가 의미하는 동전의 다른 측면은 經濟가 實質所得을 증가시켜 줄 역량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점이 이제까지의 經濟的 成果와 대응시켜 생각할 때 달라진 현재의 狀況이다. 歷史적으로 볼 때 비록 현재는 그렇게 잘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實質所得이 平均적으로 보아 每年 2.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上昇率——10년마다 최소한 3분의 1이 上昇하는 水準——은 歷史적인 平均値였다. 또한 各 個人은 一生을 통해 所得增加를 경험했을 것이다.

實質所得의 측면에서 조금도 나아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예상할 때, 이러한 사태가 사람들의 계획과 그들 자신이 經濟的 문제에 미치는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 보자. 本人의 생각으로는 이 점이 家計에 非正常的이고 예상치 못했던 형태로 所得增加를 위한 第2, 第3의 勤勞所得者를 증가시키는 하나의——그러나 유일한——要因이다. 실질적인 면에서 所得이 증가되어야 할 정상적인 과정이 더 이상 効果적으로 作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홀레트 패커드社(Hewlett-Packard)나 K-마트(K-Mart)社 또는 다른 어떤 會社이건간에 이들의 기본적 공헌은 그들의 사업을 效率的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本人이 말한 데 대해서 변명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거론이 됐으니 K-마트社에 대해 더 언급해 보면, 商品小賣에서의 그러한 革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所得水準이 現在水準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消費者物價指數는 현재의 수준보다 2~4% 정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상정해 볼 수 있다. 달리 표현하

면 우리의 物質的 生活水準은 그만큼 낮아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도 本人은 會社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事業이나 公益事業의 進보적인 성격에 대해서, 보다 保守的인 의미에서 감명을 받았다. 25년 전만 해도 利潤의 몇 %를 寄附金으로 내야 한다고 會社의 理事가 주장했다면 株主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寄附行爲가 비록 合法的이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몇몇 會社의 理事職을 맡고 있는데 우리들이 寄附金豫算에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해서 어떤 異論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것이 現在의 상황이고 또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상황이 더욱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변할지 本人은 모르지만 狀況은 결코 不變인 체로 있지 않을 것이다.

질문 : 그러면 당신의 경우 會社의 理事로서 그대에 가서 寄附金豫算分野를 확충하고자 할 것인가?

맥크래켄 :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묘한 문제이다. 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大學教授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本人의 의견은 그러한 方向이었으며 이것이 나의 偏狹한 테트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時代의 조류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러한 사업을 支援하기 위해 예컨대 共同基金이 할당돼야 하는가, 아니면 株主들이나 사람들 각자가 責任을 져야 하는가라는 問題가 발생하게 되는 局面이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教育機關에 대해 행하는 寄附와 같이 會社들이 보조를 같이 하는 慣行이 어느 정도로까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연하게도 이러한 慣行은 어떤 실질적인 利點을 갖는다. 이러한 慣行은 예컨대 하버드大學에는 돈이 모일 것이고 예일大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決定을 하는 짐을 덜어준다. 우리가 그러한 選擇을 하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주는 것과 같은 보조를 취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일을 수행하는 데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教育機關이 教育에 공헌한 만큼 寄附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 教育機關은, 사람들이 희망하듯이, 企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 貴下는 많은 産業分野에서의 生産性低下를 政府規制에 관련시켰고, 西方産業國家들에서의 상황과 비교했다. 이것은 貴하가 政府의 規制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맥크래켄 : 그것이 理由의 全部라는 인상을 줄 의도는 아니었다. 政府에 의한 세부적인 經濟活動의 管理가 보다 大規模的이고 보다 具體的인 것으로 변화한 것이 여기에 하나의 要因이 되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런 方向으로 推進해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本人은 規制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本人이 앞에서 프랑스, 日本, 기타의 國家들이 근본적으로 自由主義 經濟이지만 政府介入의 정도가 다양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이 主題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지만, 本人은 美國經濟가 低投資 經濟가 되어버렸다는 核心的 事實을 강조하고 싶다. 經濟學者들이 말하는 資本形成, 즉 새로운 機械와 設備·施設을 裝置하는 활동의 속도가 美國經濟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經濟活動分野에서, 특히 高成長經濟인 日本 및 獨逸이나 심지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비교할 때에도 느리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대부분 政治뉴스만을 들어온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탈리아가 政治的 危機를 전전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탈리아經濟가 그렇게 과도하게 나쁜 실적을 보여온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지만 그들은 거기에 잘 適應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生産的인 資本스톡의 增加分이 總經濟活動 중 차지하는 比重은 國民總生産의 10% 内外에 불과하지만, 日本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2~3배에 달하여 증가율로 따지면 최소한 25%이며, 獨逸의 경우 15~18%에 달한다.

이 점은 農村生活의 차원에서 보아도 명백하다. 農夫가 數年마다 小規模트랙터를 大規模트랙터로 交替한다면 하루간에 이 農夫가 일을 해 낼 수 있는 에이커 數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過程이 정지될 경우 農業生産性에 주는 의미는 자명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最新 技術의 導入이 새로운 設備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低投資經濟의 경우 새로운 技術을 經濟에 도입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技術이 있을지라도 設備을 새로이 도입하기 전에는 도입될 수 없는 기술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資本스톡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全體的인 過程을 통하여, 우리의 生産能力이 주어진 技術水準의 限界 내에서, 다른 나라들만큼의 生産能力에 미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큰 변동이 없는 한 1990년경까지는 日本의 1人當所得이 美國보다 아마도 약간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예측한다. 日本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臺灣, 韓國,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는 太平洋沿岸地域의 1人當所得도 일반적으로 2000년경까지는 北美地域의 1人當所得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北美地域의 水準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 趨勢에서 벗어난 枝葉的인 傾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요한 차이점들인 것이다.

질문: 귀하가 論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理論은 本人 생각으로는 무리한 假定에 입각해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우리가 成長의 軌跡에서 世界經濟情勢를 계속 論議할 수 있는가? 둘째로, 소위 말하는 外部性이나 環境效果는 어떻게 되는가?

맥크래켄 : 먼저 外部性에 대한 특정한 問題와, 보다 적은 量의 資源을 投入함으로써 同一한 水準의 環境改善을 달성할 수 있는 작업을 위해 經濟學이 이용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一定한 投入資源으로 環境을 보다 改善시키는 方向으로 더욱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예를 들면 大氣의 汚染問題를 들어 보면 중요한 것은 大氣의 汚染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든간에 우리가 적당한 수준을 달성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資源은 稀少하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資源을 投入한다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보다 生産的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을 資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政府는 大氣의 汚染問題에 어떻게 대처해 왔었는가? 政府는 어떤 지역의 모든 會社들에 대해서 汚染排出을 몇% ——90% 또는 50%, 혹은 規制內容이 어떤 것이건간에 ——로 줄이도록 요구해 왔다. 이 경우 經濟學者들은 이러한 방식이 이 問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조잡한 것임을, 즉 浪費的인 것임을 本能的으로 깨닫게 되는 법이다. 이들 工場의 一部는 費用은 거의 들이지 않고 汚染排出을 90% 줄일 수 있으나 반면에 다른 工場들은 1%만 줄이는 데에도 많은 費用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겠지만 —— 汚染物質을 排出할 權利를 販賣해서는 안된다는 법도 없지 않은가? 汚染排出이 50% 減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汚染排出의 半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된다는 것을 달리 表現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K-마트社는 아마도 空氣中에 내보내는 粉塵이 극소량이므로 단 몇 푼의 돈으로 汚染排出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해 費用을 支拂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汚染防止對策의 경우 汚染排出 減少에 매우 큰 費用이 들게 됨을 깨닫고, 그 權利를 購入하여, 다른 會社들로 하여금 그들의 汚染物質 排出을 50%까지가 아니라 90%까지 減少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 : 그럴 경우 그러한 權利들의 價格이 市場外部에서 決定되지 않겠는가?

맥크라켄 : 특정의 오염방지시설이 단일 일반적인 要求일 경우에는 가격이 市場 內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地域社會가 이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는 生産費用이 全國的인 市場規模에 있어서는 經濟性이 없는 수준에까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本人이 經濟諮問委員會의 議長을 맡고 있을 때 납(鉛)含有 가솔린問題가 제기되었었다. 이때 가솔린으로부터 납을 제거하자는 제안과 납含有 가솔린에 높은 稅金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다. 그러나 同委員會는 다른 接近方法을 제안했다. 즉 납을 使用하는 가솔린에 稅金을 賦課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솔린에 사용되는 납에 稅金을 賦課하자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이러한 조치가 가솔린에 사용되는 납의 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촉진제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기술적 근거에 의하면 가솔린으로부터 납성분이 75% 감소될지라도 나머지 납성분이 당초에 납성분이 달성할 수 있었던 機能의 75%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經濟에 교란을 주거나 精油施設을 고치는 엄청난 費用의 부담 없이 대기 중에서 납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進전을 이룩할 수도 있었다. 분명히 이 제안이 아주 높은 평가를 얻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結果를 달성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外部性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그러한 外部性에 따른 費用이 內部化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資源配分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小道具의 生産이 地域社會에 심각한 汚染을 가져다 줄 경우 오염이라는 費用을, 産業에서의 平均利潤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當該企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地域社會住民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즉 주민들이 이 小道具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결과가 되며

이러한 사태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小道具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經濟的 費用을 부담해야 한다.

外部性を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經濟的 文獻은 무수히 많으며, 外部性を 다루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經濟組織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 成長問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맥크라켄 : 어떤 면에서 本人은 經濟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편의 見解를 유지하면서도 1人當所得의 增加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는 經濟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經濟學의 基本的인 論理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環境保護論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本人은 알아채지 못했다.

질문 : 나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것은 資源의 制約이라는 問題인 것이다.

맥크라켄 : 資源은 언제나 制約되어 왔다. 사실 美國歷史에서 移住民들이 처음 美國에 상륙했을 때 이상으로 基本的인 經濟資源이 制約되어 있던 적은 없었다. 미국에는 우라늄과 기타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初期에도 이들의 대부분이 死藏되어 있었다.

資源은 항상 制約되어 있었고, 이것이 實質所得과 實質產出物을 결과할 總體的 生産能力을 서서히 擴大시켜가는 進歩를 가능하게 해줄 技術의 發展을 도모하게 만드는 압력의 일부로 작용했다.

우리 經濟가 實質所得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는 能力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能力喪失의 중요한 충격이 低所得階層에게 미치게 될

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마음 속으로 美國에서 臺灣을 거쳐 印度에 이르는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매우 高所得인 國家에서 中間所得 國家로 그리고 低所得 國家로 여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貧困한 國家로 갈수록 所得分配가 점차 不均等해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다.

질문: 本人은 貴下의 주장으로부터, 西方世界에 속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최대의 自由가 주어지는 作業室 속에서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즉 최소한 자기 다른 會社들이 競爭下에서 物品을 購入하고 努力을 投資하는 데 있어 가능한 最大의 自由를 가지는 데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점에 충분한 確信을 갖지 못하고 政府를 통한 規制를 계속 추구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많은 問題를 야기할 뿐인 것이다.

당신은 또한 기본적인 게임規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되고, 그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問題點들은, 예컨대 단순히 會社들을 없애야만 하는가와 같은 것에 관련된 問題가 아니고 이러한 規則을 制定하는 데에 관련된 것 이라고 보여진다. 會社들이 지금까지 事業을 영위해 온 방식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社會로서, 우리들이 長期的 見地에서 볼때, 經濟的으로 健全하고 社會的으로 有益한 데로 나아가는 過程을 매우 깊이 洞察할 수 있게 해왔었는지에 대해 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귀하는 아이오와 出身이다. 아이오와의와 같은 中西部地方에서는 都市의 發展으로 주요한 農耕地들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消滅되어 가고 있음을 本人은 알고 있다. 經濟的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食糧의 費用이 더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公益會社나 住宅開發業者 또는 기타 經濟成長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農耕地의 保存을 지원하기 위한 게임規則을 公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本人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의 社會로서 우리가 보다 일찍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면, 長期的으로 볼 때 그것이 經濟的으로 有益할 것이라는 점을 本人은 알 수 있다. 아마도 우리들은 게임規則을 새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農耕地域 내에 市場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農民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土地開發業者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住宅用으로 開發된 地域 내의 市場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住宅開發業者를 위한 것이고 農民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러한 事業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의 게임規則에 따라 行動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利益을 얻기 위해 다른 源泉을 찾아 들어가는 강력한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公共政策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들 모두의 長期的 利益이나, 貧民 기타의 사람들의 短期的 利益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企業을 規制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統制하는 데 우리 중의 다수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맥크래켄 : 귀하는 정말이지 많은 問題를 제기했다.

都市化 目的 때문에 農耕地가 이처럼 消滅되는 것이 農業生産을 制約하고 一般物價水準에 비해 食糧價格을 상승시키는 성격의 食糧不足事態에 우리가 직면하게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本人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태는 물론 발생할 수도 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道路와 都市地域에 의해 占據된 지역의 비율은 지금보다 낮았고, 물론 이러한 추세가 무한히 연장된다면 어떤 시점에 가서 耕作地가 소멸되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우리 중의 대부분은 그러한 정도로까지 논리를 연장시키고자

하지는 않는다. 本人이 經濟學者로 활동해 온 동안에 충분한 農業生産能力的 不足보다는 農業生産의 過剩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많았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모든 빈곤한 국가에는 食糧問題가 있고, 모든 부유한 국가에는 農家問題가 있다고 다소 警句的으로 표현한 사람이 시카고大學의 테드 슴츠(Ted Schultz)이었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設備, 보다 좋은 種子, 보다 나은 肥料——일반적으로 나은 土地經營——과 관련해서 技術은 에이커당 產出量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다. 물론 이것이 問題로 등장하는 때가 올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귀하가 거론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市場메카니즘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앤 아버(Ann Arbor)에 갔을 때 2분의 1 에이커에서 3분의 2 에이커에 이르는 垆地를 어느 정도 적절한 價格에 購入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다. 오늘날 住宅開發을 위한 전형적인 土地利用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만일 구입하려 할 경우, 과거 내가 購入했던 당시로서는 생각하기조차 싫었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垆地에, 내가 몇 달러를 주고 購入했던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많은 人口를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또는 기타 각종의 방법으로, 동일면적의 土地에 受容할 수 있는 방법이 利用되고 있다.

앞으로의 土地用途를 결정해 줄 企業들이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즉 우리는 土地開發業者들이 土地를 보다 중요한 다른 用途에 쓰지 않고 先占해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開發業者들이 土地를 개발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政府가 수행할 기능의 하나이며, 本人은 區劃整理規定(rules of zoning)을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土地開發業者들이 새로운 住居單位들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人口增加에 충분한 수의 子女를 두고자 決定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子女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地域社會는 더이상 확장해 가지 않을 것임을 決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住宅價格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알 것이다. 이 경우 더 이상의 새로운 供給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住宅의 價格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土地利用計劃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決定을 디트로이트 에디슨社(Detroit Edison)나 컴먼웰스 에디슨社(Commonwealth Edison)가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市場 그 자체——政府와 더불어——가 여기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귀하는 株式所有者에 대한 國民輿論調查 結果를 인용했다. 이러한 輿論調查가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適當한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가 또한 중시해야 될 다른 어떤 傾向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즉 財團, 大學, 大學教授의 年金基金(예컨대 TIAA-CREF), 州나 市の 年金基金 중의 어느 것이든간에 이들 機關投資家들은 그들이 投資하는 會社에 진지한 業務上의 주의를 쏟지 않을지라도 피상적이거나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 會社가 갖는 社會的 責任이나 會社가 초래하는 社會的 損失을 部分的으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機關投資家들이 보일 경향이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한다.

本人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향이 그 輿論調查結果를 압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러한 경향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勞動組合年金計劃 가운데서 어떤 관심의 물결이 1980년대에 있게 되지 않을지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投資家들이 갖고 있는 準則들과는 다른 엉뚱한 集습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맥크래켄: 年金基金이나 信託持株 기타 이러한 性格의 機構에서 10년이나 20년 전에 일반적으로 支配的이었던 절차는 아마도 어떤 所有者가 그 株式를 싫어하거나 그 會社가 하는 일을 싫어할 경우 株式를 매각하는 것이 常例였기 때문에——이것은 우연히도 강력한 原則이었다——단순

히 株主總會 代理權에 서명을 하거나 아마도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들 機構들이 보통 거의 완전히 被動的인 입장을 취하게끔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귀하의 의견은 옳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株式을 매각할 경우 株式의 價格은 하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변했고 信託業務 擔當部署나 年金基金 등은 훨씬 더 能動的이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러한 基金들이 보다 많은 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어떤 종류의 誘因報償計劃(incentive compensation plan)을 추진하는 경영에, 아주 가까이 反對票를 던질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으며 거기에는 아무런 의문점이 없다. 年金基金의 受託者들은 그 自體가 하나의 企業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認識(social awareness)이 널리 확대되기 시작하면 受託者들은 그들의 '株主'와 더불어 年金基金이 하는 일을 더욱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위 社會的 領域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얼마나 더 강화될지는 그만큼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年金基金, 또는 어떤 것이든지간에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合意가 더욱더 減少될 것이다.

그러한 傾向이 강화되어 왔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本人은 항상 傾向이 線形이라는 점(linear trend)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귀하가 그러한 傾向을 推定하여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경향은 하늘까지 치솟게 될 것이다. 이것은 1990년이나 2000년경에는 내가 共通分母目錄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本人은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企業이 당연한 일로서 하고 있는 일들의 目錄에는, 25년 전이나 아니면 10년 전만 해도 論難이 많았을 것들을 오늘날의 우리들은 目錄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질문: 귀하는 企業世界의 獨占은 유일하게 政府가 介入할 때만 발생한다고 말했는데, 本人의 견해는 그와 정반대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옳다면 政府가 長期的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해야만 한다.

맥크라켄 : 國際貿易의 增加率은 各國經濟의 生産增加率의 약 두 배 수준을 유지해 왔다. 本人은 제너럴 모터스社(General Motors)가 50%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고 있던 20년 전보다, 현재의 美國自動車市場의 集中度가 훨씬 약화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지금 귀하가 自動車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다른 種類의 自動車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을 것이다.

本人은 獨占을 강화시켜 주는 效果를 낳기 쉬운 政府의 措置들이 있음을 암시했었다. 그러나 本人은 이것이 다음과 같이 해석되기를 원치 않는다. 즉 政府가 하는 일은 어느 것이나 經濟를 더욱 獨占的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다. 나는 우리가 확실히 反獨占綱領을 必要로 한다는 것을 자주 言及하고 記述해 왔다.

이에 부수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또 하나는 反獨占 措置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기록을 누군가가 검토해 보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러한 종류의 分析은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다.

이와 반면에 本人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정도로 政府의 措置들이 獨占的인 狀況을 강화하거나 創造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本人은 1級郵便物의 郵便業務 獨占事例에서 시사했었으며,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農業에서의 市場秩序는 어떠한가? 價格上昇 외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經濟諮問委員會의 의장이었을 때 하늘의 매와 같이 지켜보지 않으면 안되었던 部署가 農務省이었다. 農務省에서는 보다 獨占的인 價格 狀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종류의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었다.

좋은 政府는 작은 政府라고 생각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기를, 本人은 원치 않는다. 그것은 확실히 옳지 않다. 政府의 適合한 役割을 形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觀念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政府의 役割이 지나칠 수도 있고, 經濟分野에서 生産에 逆效果를 주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변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경우가 사실임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히 누적되

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귀하는 우리가 가진 문제의 근원 중 하나가 資本形成을 이루지 못하는데 기인하며 이것이 나아가서 實質所得 增加問題로 연결됨을 지적했다. 귀하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즉 資本形成이 정체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종류의 心理的인 근본적 이유가 존재하는가?

액크래켄 : 부적당한 資本形成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귀하는 이 理由가 있게 된 原因을 묻고 있는가? 減價償却費用을 經常費用으로 會計處理하지 않는 부적합한 會計慣行 때문에 不足한 資本形成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會計專門家에게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어떤 企業이 10년간 존속될 施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減價償却하는 데 여러가지 方式이 있다. 다음 해부터 10년간 每年 10만 달러가 費用으로 상각한다고 하자. 7년 내지 8년째에 가던 달러의 價値가 인플레이션에 의해 50% 下落할 것이라고 假定하자. 다시 말하면 物價水準이 2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假定하자는 것이다. 이 假定은 현재의 통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사태이다. 經濟學者라면 當該年度에 減價되는 資本의 價値는 20만 달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減價되는, 즉 生産過程에서 '消耗되는' 資本의 經常價値이다. 따라서 生産物의 費用에는 費用에다 20만 달러, 즉 當該年度의 產出生産物에서 소요된 經常價格으로 20만 달러에 상당하는 經常資源의 價値만큼이 追加되어야 한다.

그러나 會計士들의 낡은 會計慣行 때문에 利潤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왔으며, 따라서 企業利潤과 稅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企業利潤에 대한 比率로 평가할 때 높아지게 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大統領의 經濟報告에 따르면 지난 해에 企業利潤稅率은 2% 減少되었으나, 인플레이

선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企業利潤에 대한 比率로서의 企業利潤稅率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慣行은 國民所得計定에서 실제로는 減價償却을 低評價한 것인 資本消耗充當金이라고 불리우는 정상적인 推定項目이 있을 정도로——현재 每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會計業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질문 : 나 같은 關外漢에게는 그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초보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맥크래켄 : 이 問題의 해결에서 제일보통 담당해야 하는 것은 議會의 豫算委員會(Committee on Ways and Means)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問題의 解決에는 立法이 필요하고 이러한 입법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결국 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가고 있고 次期 議會會期 중에 이 문제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本人은 예상한다.

질문 : 수차에 걸쳐서 低投資經濟는 궁극적인 障礙物로 취급되어 왔다. 왜 당신은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가?

맥크래켄 : 여기서 稅金에 대한 우리의 論評은 매우 중요하다. 귀하가 단일 다음 年度의 資本예산——즉 새로운 施設과 機械에 지출하려고 하는 額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理事會에 참석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예산에서 핵심이 되는 항목은 그 회사의 소위 말하는 內部留保資金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留保資金은 稅金, 配當金, 그리고 물론 減價償却費 등을 제하고 남은 留保所得이다.

그런데 이러한 稅金問題가 留保所得을 크게 減少시켜 왔던 것이다. 實質國民所得은 10년 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實質價值上的 法人

留保額은 10년 전보다 낮은 水準이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要因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理由 때문에 우리는 다소 低貯蓄 社會가 된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 稅金控除 後 個人所得의 정상적인 總貯蓄率은 약 6~7%이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 15%, 日本은 20~22%이다. 資本市場에로의 이와 같은 貯蓄의 流入이 다른 사람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借入할 수 있는 資金이 되는 것이다.

질문: 우리 社會의 貯蓄率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大企業의 經營者들은 留保所得으로 다른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資金을 物理的 工場設備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용도에 再投資하지 않는가?

맥크라켄: 어떤 경우에는 다른 企業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停滯狀態의 經濟가 보여주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일단 株式市場에서 企業의 價値가 정체되어 버리면 企業의 분해된 物理的 價値가 企業의 實去來價格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회사들은 그들의 帳簿價値 이하의 費用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행히도 이러한 현상은 아직 그렇게 진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럴 可能性은 있다. 利率이 1980년초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財務省證券(Treasury Bill)을 사는 것이 훨씬 有利했다. 게다가 信用提供에 따른 危險負擔도 절대로 없었다.

이외에도 社會保障, 기타 所得補助裝置에 의하여 貯蓄性向이 저하되었다는 몇몇 증거도 있다. 예를 들면 日本과 같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도로 발달된 所得補助裝置와 같은 것을 어느 것도 갖고 있지 못하며, 이 점이 일생을 통해서 日本의 家計가 美國의 家計보다 所得 중 훨씬 많은 部分을 貯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에 경험했던 매우 낮은 貯蓄——수치로 보면 3%까지 내려갔다——은 내 생각으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의 函數이다. 미시간大學校

의 調査에 의하면 사람들이 “物價는 아직도 계속 상승할 기세이므로 우선 소비하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금년에는 經濟的 곤란과 더불어 이러한 물가에상에 의한 購買熱도 사라졌다.

질문 : 이것은 神學에 가까운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자신의 生活에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價値가 변화할 경우, 극적인 經濟的 結果가 뒤따른다. 이러한 사실은 企業들이 環境 속에서, 그들 자신이 처한 위치를 이해하는데 무력해 왔던 한 局面이라고 本人은 믿고 있다.

本人은 언젠가 “당신은 오늘 설 만하다”라고 美國人에게 말하는, 그러한 선량한 체코 출신 移民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맥도날드社(McDonald)의 레이 크록(Ray Kroc)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확실히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와 같이 믿기 시작한다면 社會體制가 붕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해가 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선 불건을 사고 나서 나중에 支拂하고, 도피하며, 즐기는 것을 가르치는 사악한 역할을 기업이 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神學的 觀點이지만, 企業은 사람들의 心理狀態와 價値體系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장래의 토대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크래켄 : 귀하는 企業이 사람들에게 우선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그 어떤 것이나 購入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귀하가 어떤 雜誌 또는 어떤 다른 샘플의 廣告를 전부 검토해 볼 경우 무엇을 발견하는가? 각종 상반되는 性格의 廣告의 엄청난 混沌狀態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5백 달러에——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信用으로 調達하고——새 自動車를 購入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自動車 仲介商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당신에게 貯蓄을 강요하는 貯蓄 및 貸付會社의 廣告가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本人은 廣告에서 모든 종류의 意思傳達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이러한 方向을 제시하고 다른 것은 반대의 方向을 제시한다. 더구나 本人은, 有能한 企業經營者들이 비록 자신의 職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貴하가 지적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들이 조장하고 있어야만 하는 點이 무엇인지 확신시켜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믿고 있지도 않는다.

잘라 말해서, 價値의 問題는 神學者들의 職務에 속한다. 貴하가 社會에서 보고 있는 속된 價値判斷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本人은 다른 어떤 組織體보다도 敎會에 더 큰 責任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本人은 이에 대해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싶다. 企業들이 社會의 적절한 價値가 어떤 것인지를 決定할 責任을 가진 것처럼 외람되게 행동하는 것을, 本人은 원치 않는다. 企業들은 意思決定에 참여할 뿐이며 本人은 企業들이 社會에서 進行되고 있는 것에 민감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을 넘어설 경우 企業의 幹部들은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벗어나 있다고 本人은 생각한다. 똑같은 原理에 입각해서 大學敎授나 神學者가 企業을 經營하는 것을 本人이 바라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企業이 우리 社會에서의 價値의 形成 및 創造過程에 대해 중추적인 責任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것이 企業과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企業의 중심적인 機能은 아닌 것이다.

教會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티모시 스미드
Timothy Smith

汎基督教 企業倫理委員會(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의 執行委員으로서 나의 임무는 企業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 정열을 쏟고 있는 170개 天主教區와 17개 新教派들의 聯合體인 ICCR에서의 나의 직책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教會들이 로마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神學에 입각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ICCR의 成員들도 많은 시간을 美國 企業의 태도에 대한 神學的 考察을 위해 그리고 社會와 個人의 權利를 침해하는 정책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10여 년 동안 美國 宗教機關에 있어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나는 이 討論에 있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사고와 경험이 매우 유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분 중에 企業의 分析에 있어 나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신 神學者나 經濟學者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專門家로서의 나 자신의 견해가 이 討論場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企業이라 불리는 經濟의 產物에 대한 教會의 자세와 태도, 입장과 행동, 분석과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나는 지난

10여 년 동안 經濟的 문제 그리고 企業倫理 문제에 대해 教會에서 나온 공식적인 견해를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되풀이도 그 나름의 유용성이 없지 않으나 나 자신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입장에서, 企業倫理에 대한 教會의 몇가지 입장을 말하는 것이 훨씬 흥미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教會의 公式聲明들은 그것이 의미있는 계획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公式的 聲明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또는 ‘목청만 돋구웠지 아무 의미도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慈善修女會(the Sisters of Mercy), 聯合長老教會(the United Presbyterians), 예수會(the Jesuits), 聯合監理教會(the United Methodists), 博愛修女會(the Sisters of Charity), 聯合基督教會(the United Church of Christ)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들 조직들은 美國 企業의 弘報室에서 견해차를 보였는가, 고통을 경감시켰는가, 豫言者的 목소리를 하였는가, 아니면 이들은 社會의 묵인은 받으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企業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등키호테가 될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가?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에 대한 教會의 態度

먼저 기업윤리 문제에 教會가 관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왜 教會는 宗教에만 전념하고 企業들은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되는가? 修女들, 聖職者들은 미국 巨大企業들의 내부사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던 말인가? 왜 教會는 企業이나 重役室에 참여하여야만 하는가? 왜 教會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대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끼는가를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前提들에 대해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ICCR 을 구성하는 天主教區와 新教派는 民衆의 생활과 유대를 갖기 위해서는 민중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體制와 組織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美國 企業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생활

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前提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美國 企業들의 힘을 무시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채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 타조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教會는 企業이 강력하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企業의 社會的 責任 문제를 提起하려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教皇 요한 바오로 Ⅱ世는 최근 브라질 여행 중 生計를 위해 土地를 경작하는 사람이 土地所有權을 가져야 한다는 內容을 포함하는 改革을 촉구하였다. 즉 “基督敎的 世界觀에서 보면 財產權은 社會的 목적을 위해 行使되어야 한다. 共同善의 추구가 財產所有者의 안락과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勞組 결성의 權利를 지지하였고 正義롭지 못하며 또 그럴 의향이 없는 社會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 속에 몰아 넣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양심을 가진 民衆과 이들의 自由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天主敎의 발언권을 사용함으로써 天主敎가 正義를 수호하도록 촉구하였다.¹⁾ 이것은 분명히 社會正義를 실천하라는 명령이며, 위의 權利를 침해하는 어느 企業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상은 教會가 企業의 責任문제에 관여하게끔 한 神學的 思考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聯合基督敎會(the United Church of Christ)는 이의 理論的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企業組織도 인간의 必要와 慾望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발전하여 왔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볼 때 企業 또는 여타 組織은 社會에 봉사하여야만 하며 社會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企業은 쇠퇴하고 종국에는 사라져 비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企業은 社會에 유용하고 民衆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目的, 手段, 方法에 대한 지속적인 評價와 再評價를 포함하고 있다. 良心과 行動에 대한 그러한 검토는 모든 經濟活動이 宗教的 視角에서 수행될 때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教會는 企業經營이 영향

1) Warren Hoge, "Pope, in Brazil, Hints the Poor Should Be Given Land," *New York Times*, 1980. 7. 8, p. 2.

98 教會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을 줄 수 있는 문제를 宗教的 視角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하며, 企業經營陣을 설득하여 社會的으로 바람직한 政策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

聯合長老教會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를 통한 人間의 和合이라는 命題에서는 “豊饒의 세계에서 貧困의 奴隸가 된다는 것은 神의 創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예수는 자신을 가난하고 겸박받는 者와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貧者의 大義는 곧 그의 제자들의 大義이다. 貧困이 正義롭지 못한 社會構造의 산물이건, 自然資源의 不足에서 오건, 技術의 缺乏에서 오건, 빠른 人口增加에서 오건간에 教會는 貧困을 용납할 수 없다. 教會는 家族의 生計와 共同福祉 증진을 위하여 神이 주신 선물로서의 各 個人의 才能, 所有物, 技術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人間社會에서 生存條件의 改善에 대한 희망을 고무시키며 좋은 生活을 영위할 기회를 주는 諸要因들의 힘을 강화시킨다. 貧困에 무관심하거나 經濟的 事件에 대한 責任感을 회피하거나 한 특정 階級에만 개방되어 있거나 혹은 教會의 慈善에 대해 사람들이 고마와하기를 바라는 教會는 和合을 조롱하며 神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만을 올린다.³⁾

좀더 실제적인 면에서 教會는 美國 企業들의 부분적인 所有者, 즉 株式所有者이다. 教會 寄附金, 年金資金, 여타 所有資產이 教會를 美國의 주요 機關投資家가 되게 하였다. 예를 들어 聯合長老教會의 年金資產은 약 5억 달러 정도이다. 聯合基督教會의 年金資產은 약 3억 달러이다. 聯合監理教會의 年金資產은 5억 달러 이상이다. ICCR 에 속하는 教區와 教派의 投資額은 아마도 60억 달러 이상일 것이다. 教會는 “所有權은 經營權을 주장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따라서 教會는 투자에 대한 財政的 收益뿐만 아니라 社會 下流層에 대한 보살핌을 위임받은 것이다. ICCR 은 한쪽에는

2) United Church of Christ, Report to the Twelfth General Synod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on 1977-7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ons*, New York, 1979.

3) United Presbyterian Church, Committee on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anual*, New York, 1979. 5.

株式一覽表가, 다른 쪽에는 教會倫理가 놓여져 있음으로 해서, 최근 10년간 美國 教會에서 자주 보이는 精神分裂症을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教會는 人種과 性別의 차별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왔는데, 教會에 의해 투자된 企業의 經營陣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번 보여 주었다. “兩邊은 서로 만나야 한다”라는 명제는 倫理를 教會活動의 모든 수준에 적용한다는 일관성의 문제이다.

더 나아가 教會도 상당한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教會도 역시 多國籍企業이다. (신지어는 超領土的 企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多國籍企業의 구성원으로서 教會는 南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여러 사람들, 南美에서 保健事業에 참여하는 사람들, 法曹系에서 專門家로 활동하는 사람들 등과 매우 긴밀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專門知識을 얻는 것은 選擇이 아니라 義務이다. 이러한 직접 報告는 우리의 일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오전대 수년 동안 教會가 개발한 투자방침은 企業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教會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義務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問題에 대한 教會의 參與

이러한 확신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걸쳐 教會를 기묘한 입장에 놓이게 하였다. 1971년, 최초로 教會가 후원하는 株主들의 決議案이 제너럴 모터스社(General Motors Company)에 제출되었다. 英國聖公會(the Episcopal Church)의 主教가 이 決議案을 제출하기 위해 株主總會에 참석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社의 會長 제임스 로셰(James Roche)가 단상에 앉아 있었으며 聖公會 主教인 존 하이네(John Hines)가 1번 마이크席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聖公會 祈禱書의 改編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社 자체문제와 이들의 南아프리카 投資문제

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즉 教會는 經濟的인 問題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 중이었다.

세계 饑餓에 대해 教會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주요 분야는 開發途上國에서 성행되고 있는 어린이 乳兒食 會社의 營業활동이다. 研究報告書들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다. 가난한 어머니들도 會社 廣告의 영향으로 아기들에게 母乳을 먹이지 않고 牛乳를 먹인다. 그런데 이들 어머니들은 충분한 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종종 粉乳를 아주 값게 해서 먹이게 된다. 실제로 어머니들이 어린이에게 영양가를 높여서 먹이기 위한 粉乳가 아니라 영양실조 심지어는 餓死로 이끄는 粉乳를 종종 사용하는 것이다. 海外에서 부당하게 어린이 粉乳판매를 촉진하고 있는 美國系, 스위스系, 日本系, 西歐系 會社들의 상투수단에 분명히 도전해야 한다. 이 問題는 아메리칸 홈 프로덕트(American Home Products), 아보트(Abbott), 브리스틀 마이어즈(Bristol Meyers), 네슬레(Nestle), 그리고 보덴(Borden)社 등의 經營陣과 오랜 논쟁을 야기시켜 왔었다. 수년 전 株主決議案에 대한 브리스틀 마이어즈社의 명백한 일련의 허위진술에 분노하고 경악한 天主敎團은 同會社를 法庭에 고소하였다. 寶血修女會(Sisters of Precious Blood)와 브리스틀 마이어즈社 사이의 이 訴訟은 쌍방간의 合意에 의해 법정 밖에서 해결되었다.

教會가 1970년대에 사용해 온 다른 接近法과 戰略들은 企業 經營陣과의 대화, 政策討論會에서 教會 立場의 발표, 株主決議案에 대한 후원, 기관 投資家로의 성장, 選舉民 敎育의 고취, 不買運動의 후원, 挑發會社에 대한 경고로서 教會所有 株式의 매각, 그리고 企業術策의 조사 등이다. 이러한 接近方式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對話〉 教會가 企業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接近法의 하나가 對話이다. 이는 會議室 탁자에 企業經營陣과 둘러앉아 문제를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의 특정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試圖의 초기에는 많은 企業들이 會社의 弘報담당 職員을 통하여

對話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특정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決定權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代表가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對話들은 많은 유익한 결과들을 낳았다. 이는 會社들이 이러한 對話를 유익하다고 간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해 제너럴 모터스社 會長인 토마스 아퀴나스 머피(Thomas Aquinas Murphy)는 남아프리카에 대한 株主決議案을 토의하기 위해 教會측 인사를 초청하였다. 이때 그는 이러한 對話를 갖는 것이 제너럴 모터스社와 教會 양측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會社가 갖는 몇가지 관심사를 제시하면서 教會측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共同의 協議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政策討論〉 두번째의 接近法은 公共政策에 영향을 주는 시도이다. 예를 들면 教會는 乳兒食 産業의 행동규약을 토론허기 위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世界保健機構 會議에 代表단을 파견하였다. 教會대표자들은 乳兒食 産業의 第3世界 進出의 例와 活動報告書를 제출하였으며 이 産業의 폐해를 막는 規約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教會는 UN에서 또는 議會에서 증언할 代表단을 파견해 왔었다. 事業에 영향을 주는 公共政策 분야에서도 教會 측은 발언권을 갖고 있다.

〈株主決議案〉 세번째 接近法은 大衆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株主決議案 제출이다. 만약 聯合長老教會, 慈善修女會 또는 다른 教會가 證券去來委員會 規約에 의해 어떤 會社의 株式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 株主의 토론과 투표에 붙여질 決議案에 대해 후원 또는 반대할 수 있다.

〈機關投資家〉 여타 다른 投資家, 즉 캘리포니아州 政府, 포드財團, 하버드大學, 大學教授 年金財團, 코네티컷 生命保險會社 등과 같은 機關投資家の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案件들을 지원함으로써 教會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教會가 이러한 案들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政府는 웰스 파고(Wells Fargo)銀行이나 BOA (Bank of America)

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더우기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결의안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義務感을 갖고 있는 機關投資家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企業社會에서의 市民의 責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株主가 됨으로써 企業에 참여한 것이다. 그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희망사항을 민주적으로 經營陣에 밝힐 의무감을 느낀다. 教會는 제너럴 모터스社 또는 브리스톨 마이어즈社 등에 株主決議案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機關投資家들이 教會가 제출한 決議案의 토론에 참여케 한다. 우리는 機關投資家들 사이의 논쟁이 그 동안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1980년대에 있어 가장 흥미있는 흐름 중의 하나는 勞動組合 年金基金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勞動組合 年金基金에 축적되어 있으며 이 富의 상당부분이 勞動組合이나 勞組구성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受託者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勞組運動에 있어 노조원을 위해 年金基金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며 또한 反勞組的인 태도를 취하는 J.P. 스티븐스社와 같은 會社들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도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勞動組合 年金基金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自動車勞組 또는 鐵鋼勞組의 受託投資者는 J.P. 스티븐스社에 대한 투자가 勞組의 年金基金이나 勞組運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려없이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다.

株主決議案의 지지, 機關投資家로의 접근, 表決의 요구, 그리고 株總에의 참석은 教會의 意思를 전달하는 방법들이다. 때때로 전문가들을 이러한 회의에 보냄으로써 教會의 意思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修女, 聖職者 代表 또는 教會官僚로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技術과 專門性을 가진 專門家이다.

〈選舉區民 弘報〉 企業의 責任문제에 관련하여 教會가 수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活動은 選舉區民의 啓蒙이다. 이러한 활동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

들이 經濟문제에 관련된 教會측의 의견발표에 대하여 매우 懷疑的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教會측의 발언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나는 南아프리카 문제나 核武器에 대한 教會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 意見を 나타낼 수 있는 教會측의 權利는 매우 중요하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本人은 이러한 것이 최근 10년 동안의 매우 중요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不買運動〉 또 하나의 接近法은 상품에 대한 不買 또는 選別購買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실례는 乳兒食 문제로 인한 네슬레 製品의 전국적인 不買運動인데 이는 教會측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이 운동에 참여한 團體는 消費者 不買運動을 지지한 적이 없는 南長老教會(the Southern Presbyterians)를 비롯, 天主教團과 여타 宗派 그리고 勞組, 醫療團體들까지 망라되었다.

J.P. 스티븐스社에 대한 不買運動 같은 경우를 포함한 그러한 不買運動이 市場에서 消費者들로 하여금 구매를 거부하게까지 하는 데는 教會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賣却〉 教會 戰略으로서 消費者 不買와 관련된 것은 株式을 처분, 公開發賣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 있는 美國 루터 教會派(The American Lutheran Church)는 南아프리카 共和國에 대한 資金대여 문제와 관련하여 심사숙고해 오던 끝에 최근 시티뱅크(Citibank)측 입장을 용인할 수 없다 하여 2백만 달러어치의 시티뱅크 有價證券을 매각처분하였다. 教會는 株主일 뿐만 아니라 많은 銀行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지난 몇 달 사이 聯合監理教會와 全國教會協議會(National Council of Churches)는 南아프리카 문제와 관련, 시티뱅크 구좌로부터 6천 5백만 달러를引出하였다는 公式聲明을 발표하였다. 資金引出이 발표되었을 때 全國教會協會의 議長은 시티뱅크측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리 하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 즉 “시티뱅크가 남아프리카 共和國에서 종전과 같은 事業을 계속 하는 한 수많은 教會와 貴 銀行의 여타 고객들은 貴 銀行과 종전과 같은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調査研究〉 마지막 接近方法으로서 나는 현장에 나가서 특정 社會問題에 대해 事實資料 수집을 하고 있는 教會의 調査研究를 들고 싶다. 예를 들면 『企業現況』이라 불리는 時事通信誌 같은 것이다. 이 雜誌는 企業의 社會的 責任感을 제고시키기 위한 教會의 활동 내용을 매달 보고하고 있다.

1980년대의 論爭點들

1980년대에 教會측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教會측의 주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우선 약 10여 개의 爭點들을 꼽을 수 있겠다. 여기에는 美國의 에너지政策, 銀行 및 保險會社의 特定對象에 대한 貸出制限(redlining; 貸出機關이 投資價値가 하락하고 있거나 投資價値가 없다고 생각되는 特定對象을 붉은 줄로 表示한 후 이들이 融資擔保 등을 거의 받을 수 없게 하는 貸出慣行), 工場閉鎖費用,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수반하는 倫理問題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第3世界에서의 乳兒食 남용문제도 포함된다.

또 安定的 投資問題도 중요하다. 최대의 社會的 配當을 얻기 위해서는 教會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地域發展을 촉진하는 모델로서 자주 거론되는 시카고의 사우드쇼銀行(South Shore Bank)과 같은 창조적인 기관들에 教會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위와 같은 資產運用은 확실하고 신중한 투자일 뿐 아니라 社會的 기여를 가져오는 투자이다. 核武器, 軍備競爭, 軍縮에 관한 爭點도 역시 포함된다. 예를 들어 聯合長老教會는 軍縮과 軍備競爭이 教會가 미래에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教會는 또 벤딕스(Bendix), 몬산토(Monsanto),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뉘퐁(Du Pont), 유니온 카바

이드(Union Carbide), 록 웰(Rock Well)社 등이 모두 核武器 部品을 제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질문할 수 있다. 이 會社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責任을 가지는가? 여기에는 단지 政府가 企業에 다가가 “우리는 당신이 계약에 입찰하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을 때 政府에 응하는 責任밖에 없는 것일까? 이들이 하나의 企業體로서 스스로 결정하는 倫理的 判斷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결정은 美國 政府에 의해 이루어진, 기본적으로 國家安保에 관련된 결정일 뿐인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은 教會가 株式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會社들과도 관련되는 것들이다.

균등한 雇傭機會 문제와 여타 문제에서처럼 性差別과 人權差別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올해 教會측이 제기하였던 또 다른 문제는 作業場의 위험요소들, 특히 작업 중 특정 化學物質에 노출되어 있는 女性들에게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칠레에 進出해 있는 企業들의 확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南아프리카 共和國에 대한 投資와 銀行貸出에 대한 문제제기도 또한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海外에 진출해 있는 美國 企業뿐만 아니라 國內 企業에 있어서의 勤勞者의 勞動權 문제이다. 教會가 관심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뉴욕과 같은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나아가 食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유독한 化學쓰레기에 대한 문제이다.

企業世界에서의 教會活動

지금까지 教會活動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개관하였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그 결실이 알찬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南아프리카 共和國에서의 人種主義〉 지난 10년 동안 ICCR 이 발표하였던

주요문제 중의 하나는 人種差別 國家인 南아프리카에 대한 銀行借款문제이다. 이는 南아프리카의 教會가 美國 教會에 제기한 문제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南아프리카의 人間解放 투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들은 美國 政府의 政策과 美國 企業들의 行態와 政策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美國 政府와 美國 企業의 政策과 行態는 南아프리카 民衆을 노예상태로 머물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自由를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호소로 美國 教會는 그들이 행한 投資, 그들이 가진 諸手段, 그리고 政府와 企業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줄 수 있는 教會의 主張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우리 (ICCR)는 우리가 행한 調查에서, 그리고 美 上院과 다른 團體에서 행한 研究를 통하여 南아프리카 共和國에 대한 大銀行의 資金貸出과 그 代理者들이 南阿共和國 少數 白人 統治의 근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자료들은 政府메이스 借款은 통제될 수 없으며 특히 收支均衡 目的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그러한 借款들이 南阿共和國의 戰略武器 購入 여유를 제공하여 武器輸出禁止 精神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한다.

南아프리카 共和國 政府에 대한 借款은 그들이 外部世界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케 하는 것이다. 教會가 특히 중시해야 할 사항은 南阿共和國 政府가 스스로를 白人, 基督敎, 反共 西歐社會의 一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教會들과 少數 白人 支配階級 양쪽 모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세계의 教會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할 특별한 義務를 가지게 된다. 즉 美國人이자 敎人으로서 우리들은 南阿共和國에게 더 이상 종전 같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특별한 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借款을 계속 대어하고, 借款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美國 銀行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銀行들에게 金融業 分野에서 人種差別 政策 때문에 南阿共和國 政府와 그 추종자들에게 借款을 거부기로 한 여러 銀行들 즉 뉴욕의 체이스 맨하탄銀行

과 케미컬銀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로테르담 銀行, 英國의 미들랜드 銀行 등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教會의 超國家的 성격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南아프리카 共和國의 우리 동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즉 美國 銀行이 제공하는 借款의 효과를 研究調查해야 하며, 우리가 株主 또는 顧客으로서 이들 銀行과 갖는 關係 및 우리 教會와 集會에 모인 사람들 특히 銀行 任職員들에 대한 우리의 關係에 대해 再點檢해야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하였던 여러 接近方式과 戰略을 사용하여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많은 銀行들이 教會측의 良心의 호소에 의해서건 教會측도 가담한 大衆 壓力에 의해서건 南阿共和國에 대한 借款政策을 바꾸어 왔다. 金融業界와 企業界에서의 어떤 문제도 중요한 懸案문제로 등장되기 위해서는 가끔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公共의 反對와 그로 인한 사업실패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많은 銀行들은 南阿共和國에 대한 借款들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道德的 판단이며 훌륭한 事業的 판단인 것이다.

〈과테말라에서의 勞動權〉 우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다른 사례로는 과테말라에 대한 코카콜라 會社의 관여이다. 우리 관심은 코카콜라 會社의 株主로서의 입장과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동료로부터 듣고 있는 教會로서의 입장, 즉 과테말라 抑壓의 와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祈禱만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다시 부각된다.

우리는 코카콜라 會社가 과테말라에서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합작회사는 工場 내의 勞組結成을 저지하기 위해 아주 不合理한 方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테말라의 코카콜라 會社 勞組를 조직하여 勞組指導者로 등장한 사람들은 협박에 시달리거나 피살되거나 투옥되어 왔다. 또한 우리는 現地 合作會社가 公開的은 아니지만 勞組員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勞組를 파괴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코카콜라 會社에 수차에 걸쳐 위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國際食糧勞働者 聯盟(International Food Workers Union)도 이 문제에 관여하였으며, 코카콜라 會社로부터 적절한 반응을 얻지 못하자 5개 西方國家에서 不買運動을 일으켰다. 코카콜라 會社는 재빨리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와 그들의 現地 合作主에게 ‘會社를 팔고 勞働문제와 勤勞者 權益에 대해 보다 肯定的인 事業主를 물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다.

〈에너지〉 教會가 관여하고 이에 따라 많은 논쟁을 가져 온 세번째 分野가 에너지 문제이다. 에너지 문제와 美國의 에너지 政策方向에 대해 수많은 教會 聲明書가 있어 왔다. 그런데 많은 가톨릭 教區와 新教派들은 자신들이 가진 株式持分이 美國 核發展企業의 주요 株主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教會는 이 문제에 理論的 研究를 한 다음, 政策聲明書를 教會 內에서 調整한 후, 이 문제에 대한 專門知識을 일반사람들에게 환기시키며, 株主決議案을 통해 12개 核發展會社에 간단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 內容은 차후 核發展所 建設을 중단하고 代替에너지 資源과 이의 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決議를 접수한 위스콘신(Wisconsin)에 있는 한 會社는 단순히 決議案 때문은 아니지만 새로운 核發展所 建設計劃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核發展會社들은 이러한 조치를 격렬하게 반박하였으며 이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여전히 教會가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예를 들어 이 地域의 聯合監理教 女性會를 이끌고 있는 75세의 할머니가 데이턴 파워 앤드 라이트(Dayton Power and Light)社의 株主總會에서 政策의 修正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논쟁에 있어 社會의 다른 部門으로부터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支持票의 쇄도에 대해서 감동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企業의 責任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3~5% 得票를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주요 機關投資家들이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經營陣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또 일반 株主들은 意思表示를 하지 않

은 채 投票用紙를 반송하게 되며 이 경우 자동적으로 經營陣의 찬성표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核發展會社 株主總會 몇 곳에서 10~12% 得票를 얻었을 때, 經營陣에게 의견이 개진되었다. 추측컨대 개개의 市民들은 자신이 가진 核發展會社 株式의 작은 몫에 대해 “이것은 내가 支持하고자 하는 에너지문제의 未來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투표하였던 것 같다. 만약 이 10%가 진정으로 속고하는 사람들에 의해 투표되었던 것이라면, 經營陣은 적어도 자기 株主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인식해야 될 것이다.

〈特定對象에 대한 貸出制限〉 美國의 住宅抵當 公開法(Home Mortgage Disclosure Act)하에서 銀行들은 預金과 貸出이 이루어진 場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때 이 法律의 확대실시가 고려되었으나, 美國 銀行家協會는 이 措施가 美行政府가 강요하는 煩文纏禮의 또 다른 실례라고 주장하며 反對하였다. 株主로서 우리는 많은 銀行——BOA(Bank of America), 시카고의 몇몇 銀行, 케미컬 銀行,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의 노스웨스턴 銀行 등의 은행——에 접근하여 그러한 資料公開은 公共의 利益뿐 아니라 銀行측에도 진실로 利益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銀行측에 “그러한 資料가 없다면, 貸出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銀行 내부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顧客들에게 特定對象에 대해 貸出을 制限하지 않는 營業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놀랍게도 BOA는 심사숙고 끝에 발표에 동의하였으며, 이 法案의 확대실시를 支持한다는 뜻을 銀行家協會에 알렸다. 이후 많은 여타 銀行들이 美國 銀行家協會와 보조를 달리하여 이 法律의 확대실시에 대해 中立을 지키거나 실질적으로 支持를 표하였다.

확실히 美國 도시들에 대한 銀行貸出의 效果는 도시의 健全성과 發展에 비추어 회의적이다. 特定對象에 대한 貸出制限은 敎會가 都市問題에 대해 효과적인 主張을 개선할 수 있는 한가지 事例이다. 住宅抵當 公開法에 대한 支持는 조그마한 事件이지만 훌륭한 행동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教會活動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분노한 일부 企業은 때로 역습을 가하였다. 한 企業體의 會長은 우리뿐 아니라 聯合基督教會를 마르크스-레닌主義 組織이라고 비난하였다. 1980년 6월 16일자 『포춘』지는 「企業 혐오자들」이라는 題下의 記事를 실었는데, 이 記事는 全國教會協議會가 反資本主義 運動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르크스主義者들이 기독교의 깃발 아래서 自由企業體制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쓰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教會가 수십억 달러의 금액을 美國 企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기독교 깃발 아래 活動하는 共產主義者로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응수하였다. 분명히 企業측의 그러한 主張들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대한 教會의 信賴性을 훼손시키려는 행동들이었다.

그러나 他方面에선 다른 反應도 있었다. 콘트롤 데이터(Control Data)社 會長은 능동적인 基督教 平信徒이자 콘트롤 데이터社가 聯合基督教會를 포함한 상당수의 教會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同社와 教會는 南阿共和國에 대한 컴퓨터 輸出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미네아폴리스에서의 都市開發計劃에 共同投資하였다.

위와 유사하게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社의 토마스 머피會長은 최근 聯合長老教會에 제너럴 모터스社 株主總會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教會측의 입장에 찬사를 보내는 서한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株主로서, 有關機關으로서, 社會의 발언자로서 현재 진행중인 문제에 대한 教會측의 參與權利를 인정하고 있다.

教會活動의 效果

企業의 社會的 責任문제에 대해 教會가 사용할 諸接近法은 經濟的 壓力뿐만 아니라 對話와 良心에의 호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는 美國뿐만 아니라 基督教 實業家의 組織을 통하여 對話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世界教會協議會(World Council of Churches)도 마찬가지이다. 교

회가 說得과 壓力을 同時에 병행하는 것은 “機關이란 자신의 利害가 위협 받을 때에야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니버(Niebuhr)의 假定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企業의 경우에 있어 企業의 利害는 언제나 財政的인 問題와 관련을 갖는다.

教會가 어떤 變化를 가져왔는가? 우리는 분명히 變化가 있었다고 믿는다. 우리의 主張이 승리한 것 중에는 南阿共和國에 대한 銀行 借款政策의 再檢討, 乳兒食會社의 行動을 變化시키려는 運動, 證券去來委員會 規則의 개방적 修正, 均等機會 부여에 대한 關心의 환기, 에너지 논쟁의 擴張, 選舉民들의 關心 촉진, 그리고 여타 機關投資家들로부터 이더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支持의 획득 등을 들 수 있다.

일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美國 重役室에서 豫言者的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權力에 대한 教會측의 眞理說教 사례로서 이해하기도 하고 일부는 즉각적인 善·惡, 正·邪의 판단이 불가능한 倫理의 灰色地帶에서 企業의 특정 決定들이 社會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再檢討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教會가 하나의 倫理的 試金石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주장은 教會의 發言이 단지 倫理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데 불과하다.

企業의 社會的 責任문제에 대한 지난 10년 동안 教會의 능동적 參與결과로서 내가 분명히 믿게 된 것은 教會는 계속해서 특정 企業의 眞정인 社會에 미치는 영향을 注視, 指摘하리라는 점이다. 이 발언은 重役室에서 企業과의 對話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公共政策의 變化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譏諷이 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選別購買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株主總會에서의 끈질긴 주장일 수도 있다. 教會의 이러한 活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展開될 것이지만 결국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욱 확대될 것이며 教會가 眞理를 말할 때 사람들은 경청하고 유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討 論

질문 : 귀하는 설리반(Sullivan) 原則들의 적용이 원래 의도하였던 目的을 성취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스미드 : 그 원칙들은 南阿共和國 社會를 변화시키려는 설리반博士의 희망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확실히 이 원칙들은 工場의 작업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教會가 이 활동을 시작한 70년대 초 모빌社와 南阿共和國 문제를 토론했을 때 주요 논쟁점 중의 하나는 作業環境과 모빌社의 많은 흑인 被雇傭人에게 주어졌던 饑餓線上의 賃金이었다.

이러한 事實은 모빌社에게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들은 財務狀態는 점점했으나 作業場環境은 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教會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年內에 모든 單純勞動者들의 賃金이 生計費나 그 이상의 水準으로 改善되었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改善은 설리반의 9개 原則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질문 : 貴下는 教會 구성원인 敎人들의 敎育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個個人的 責任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ICCR 각 부분의 共同參與가 있는가? 또 ICCR 은 敎人들에게 자신들이 加入해 있는 保險會社의 投資活動을 注視하도록 요청하였는가? 이들은 敎人들에게 자신들의 投資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關心을 갖도록 요청하였는가? 이들은 南阿共和國에 투자를 하고 있는 會社, 즉 제너럴 모터스社와 포드社가 敎人

자녀들에게 주는 獎學金을 거부하도록 요청하였는가?

스미트 :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 分野에서 教會가 취약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個個人的 작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면 長老教 또는 監理教의 聲明들은 教會 자체의 責任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法人資格으로 개개 敎인과 教會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이 會社의 株式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나는 이 保險會社에 在職하고 있다. 어떻게 내가 會社 投資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다.

질문 : 나는 ICCR의 南阿共和國에 대한 입장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바는 敎인들이 個人資格으로 이러한 중요한 會社的 문제들을 직시하고, 個人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ICCR이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스미트 : 좋은 지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점은 또 문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南阿共和國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個人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한될 것이다. 만약 費下가 버팔로(Buffalo)에 살거나 나이가가라 폭포와 러브 커널(Love Canal: 뉴욕의 화학폐기물 處理工場) 近郊地域에 거주하고 있다면, 갖가지 特色과 背景을 가진 敎會들은 유독성 폐기물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 있으며, 市民들은 전국의 敎會가 후커 효과(Hooker's impact)에 대하여 옥시덴탈 페트롤륨(Occidental Petroleum)社에 문제를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들은 地方的 次元에서 組織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健康과 未來를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갖가지의 다양한 接近方法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中央的-地方的 또는 全國的-地域的 聯合을 형성하여 대처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이다. 물론 이때 聯合의 指導權은 일반대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러한 組織들은 주목할 만

한 매우 중요한 모델들이다.

질문 : 貴下는 발표에서 ICCR, '教會'를 더 많이 언급하였다. 나는 로마 가톨릭 平信徒인데 로마 가톨릭 信徒의 대부분은 教會가 主體가 되는 모든 일에 호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ICCR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教會'를 대변하기보다는 ICCR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의 管區는 ICCR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ICCR에 속하는 몇몇의 管區와 敎區는 貴下가 거론한 政治的, 社會的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낙태와 같은 個人倫理 문제나 女子들에 대한 聖職 授任式과 같은 敎理上의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教會'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平信徒들은 貴下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들이 異敎徒의 위치에 서게 되는 한 貴下가 '教會'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은 貴下의 개개의 提案들이 사소한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인 폰다(Jane Fonda), 톰 헤이든(Tom Hayden), 또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 커먼 코스(Common Cause)의 提案과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教會'라는 表現이 貴하의 주장에 다른 利益集團보다 한 단계 높은 道德的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분위기를 더하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귀하는 貴하의 주장의 특색이 戰術戰略的으로 좀더 신중하고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즉 宗教的이라기보다는 政治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대답하겠으며 그리고 貴하만큼 혹은 貴하보다 더 敎會傳統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貴하는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왜 貴하가 '教會'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스미드 : 나는 '教會'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敎會는 多元的 組織이다. 만약 聯合長老敎의 한 牧師가 議會의 한 委員會에서 敎會를 대표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는 지금 聯合長

長老教會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長老教會 總會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의된 長老教會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總會는 民主的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늘 나의 이야기는 總會의 이야기이다.”

물론 우리들 중의 어느 누구가 어떤 문제의 특정 측면에 대해 全教會를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것이 教會集會時에 가졌던 태도이고, 教會가 投資家로서 취했던 태도이며, 教會가 참여하여 발표한 研究資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資料를 研究하는 데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방치해 버릴 수도 있다. 내가 ICCR 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ICCR 이 17개 新教宗派와 약간의 管區, 170여 개의 教區로 이루어진 教會代表들의 聯合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加入團體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행동한다. ICCR 은 이들 全體를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이들을 調整·仲裁하는 일이다. 우리들은 직무를 좀더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超教派的으로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團體들을 위하여 일하는 직원들이다.

간단히 말해, 나는 다양한 教會들의 動向과 見解, 그리고 態度를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것이 나의 일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거나 또는 어떤 활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선량한 長老教 不信徒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聯合長老教會가 企業의 社會責任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 總會를 되풀이하여 개최할 때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教會活動에 보다 많은 支持를 받을 수가 있었다.

질문 : 特定對象에 대한 貸出制限의 정당성 與否의 문제와 같은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貴下와 견해를 달리하는 전형적인 基督教 實業人이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스미드 : 나는 基督教人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모두 意見を

일치시켜 행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教會 內의 多元性을 긍정하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때때로 반대할 수 있는 權利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組織體로서의 教會, 또는 지역적 水準에서의 教會, 個個人의 基督敎徒 水準에서의 教會 역시 모두 행동할 수 있는 能力과 힘과 義務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社 또는 2-4-5-T社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우(Dow)社의 株主인 聯合長老教會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教會의 立場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投資家로서의 教會가 다우 케미컬(Dow Chemical)社를 경영하는 長老敎 平信徒들에게 개인적으로 不誠實하고 非基督敎的이며 물지각하다고 몰아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낙태와 같은 全國的 문제에서나 企業의 社會的 責任 문제에서도 基督敎人이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는 것이다.

질문: 귀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러 代案들에 대해 概略的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차례로 말해 주기 바란다.

스미드: ICCR의 成員인 教會들은 항상 그러한 방안들을 고찰하여 어떤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려 노력한다. 討論과 對話는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機關投資家들이 표결에 참가하는 것과 함께 株主行動과 決議案들이 계속될 것이다. 不買運動은 企業이 對話에 응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일어날 것이다. 選舉區民敎育은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하나의 育成分野는 조직망의 구축인데 불원간 우리는 敎人들이 全國的이건 地域的 수준에서건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이와 관련된 다른 組織 構成員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南阿共和國 문제에 있어서

黑人議會委員會(Black Congressional Caucus)와 各州와 各地方의 사람들이 教會 및 勞動組合들과 함께 행동하였다. 乳兒食 문제만 해도 이에 관련 하여 여러 組織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保健 專門家들, 乳兒問題 專門家들, 婦人會, 饑餓 추방에 노력하는 團體 등이 포함된다. 團體 성격에 관계없이 이러한 여러 組織間의 聯合活動은 80년대에 틀림없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질문 : 教會나 教會대표들의 그러한 활동이나 임무는 豫言者的인 聖職者들의 주동하에 이루어진 것 같다. 나는 田園목사들의 여러 가지 接近方式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그룹을 대표해서 나왔다.

나는 南部長老教會에서 직책을 맡아 왔었기 때문에 教會가 대개 企業에 反對되는 입장을 취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敎人들은 多國籍企業 또는 巨大企業들을 敵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敵은 또 일부 敎人들에 의해 운영된다. 敵으로서만 상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새로운 接近方法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누군가가 그들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 그들에게 “나는 너의 敵이다”라고 미리 宣言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스미드 : 貴下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거론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중요한 解決策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企業을 敵으로 定義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企業을 敵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우리는 敵을 만났는데 敵은 바로 우리들이었다.”

‘우리들’ · ‘그들’, ‘좋은 녀석들’ · ‘나쁜 녀석들’이라고 二分化해서 말하는 失手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는 어떤 企業이 가장 責任感있게 행동하여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解明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상황개선을 위하여 유익하고 평화로운 解決을 모색하는, 한 方法으로 對話를 이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러한 討議들이 매우 生産的이었던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나는 教會가 취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行動 가능성에 대해 들은 바 있다. 教會가 企業의 經營者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事業家로서의 방어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입장이 되도록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마 教會와 같은 中立的 장소에서 非公開의 非敵對的인 討議가 행하여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教會活動의 倫理的 社會的 차원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업에 종사하는 敎人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말하는 도움이란 濫情主義的 도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또 教會가 해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문제에 직면하여 문제해결 方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서로 對話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教會는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내가 목격한 좋은 사례들은 대부분 地域單位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는데 創意的인 牧師들이 企業活動倫理 분개를 갖고 討論會를 組織하여 활동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질문 : 당신들——적어도 ICCR 과 그 支那의 教會들——은 우리들이 組織의 일부분이라는 前提 아래 행동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이 점이 하나의 教會로서의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점이다. 지금은 크라이슬러(Chrysler)社 理事가 된 勞組指導者 더글라스 프레이스터(Douglas Fraster)의 경우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프레이스터와 勞組間에는 난카로운 대립이 있는데 이는 몇 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教會가 企業의 株式을 소유하고 있을 때 企業과의 利害關係 對立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바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아마도 실제로는 서로 相反된 作用을 하고 있거나, 서로 대립하고 있는 2개의 서로 다른 良心은 없는 것 같다. 아마 우리는 株主決議案에 때로는 단지 修辭的 유희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진정으로는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教會 內에도 다양성이 있는 것과 같이 企業에도 다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企業의 良心을 명백히 규정할 수 있겠는가?

스미드 : 1980년대에 있어 하나 또는 두세 가지의 良心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 자신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많은 곳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다. 틀림없이 러브 커널(Love Canal)에 감동된 사람은 즉시 후커 케미컬(Hooker Chemical)에 대해 良心의 소리가 된다. 틀림없이 株主로서 教會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政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教會가 超國家的 法人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第3世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마치 勞組가 다음과 같은 非理를 폭로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 “한 會社가 臺灣에서 젊은 婦女子를 고용하여 3년 동안 혹사시킨 후 作業場에서 쫓아 내는 非倫理的 行위를 하고 있다.”

良心의 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良心의 인도가 우리를 어떤 점에서 일치시키거나 또는 비슷한 의견을 갖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組織 內에 자리잡고 있는 教會가 조직을 개혁하려 함으로 해서 생기는 利害對立의 분체는 매우 많은 논쟁거리를 유발하였다. 예를 들어 長老教 또는 監理教의 集會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社會的 利益이 생기리라 믿고 있는 投資를 위하여 教會財團이 약간 收入의 감소를 무릅쓸 수 있는가라는 質問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討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신중한> 사람이 다른 投資財團처럼 教會도 그 收入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또 “教會는 순전한 投資收益提高 觀點과는 다른 基準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거저 내버리는 投資나 전혀 分別없는 投資가 아닌 한 社會的 目的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120 教會와 企業의 社會的 責任

손해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이 教會가 조직에 얽히게 되어 때로는 創造的인 活動을 규제받게 되는 단적인 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는 여러 試圖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들은 매우 실제적이다. 法的 制限, 財政的 制限 외에도 타산적인 사람들은 “社會的 利益이 어찌 되었든 우리의 돈을 손해보기 쉬운 곳에는 投資하지 말자”라고 말한다.

질문 : 맥크래켄(McCracken)博士가 언급한 社會에서의 企業의 역할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貴下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스미드 : 우리는 오래 전부터 政府가 經濟計劃, 經濟統制, 企業規制 등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 왔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함축하는 바를 誇張하고 싶지 않다. 맥크래켄博士도 역시 政府 역할을 모두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만약 企業이 責任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떠한 解決策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는 企業은 社會에 봉사할 義務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業界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아다 일반적인 論旨로서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企業이 社會에 공헌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無責任한 행위를 하고 社會의 한 분야에 害를 입힐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解決方案은 무엇인가?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 즉시 강력한 政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입장도 아니며 ICCR 會員團體들의 견해도 아니다.

한편 묘하게도 企業倫理運動(Corporate Responsibility Movement)은 企業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감시하며 法이나 政府에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관행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점에서 保守的이다. 최후의 方便으로서 社會가 政府를 통하여 자극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또한 政府의 經濟計劃 수립에, 企業이 民間사이드에서의 計劃過程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이 計劃과 構想은 우리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하여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유 에스 스틸(U. S. Steel)社가 오하이오州 영스타운(Youngstown)에 있는 製鐵工場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 社會的 影響을 끼친다. 이것은 하나의 經濟計劃인데 美國 政府가 아닌 유 에스 스틸社가 계획하였다. 나의 이야기는 美國政府가 계획의 立案者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政府만이 經濟를 計劃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企業이 우리 生活에 影響을 주는 經濟上의 計劃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分明하기 때문이다.

질문: 맥크래킨博士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K-마트(K-Mart)社가 가능한 최선의 K-마트가 되는 것이 社會와 企業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貴下의 논평을 듣고 싶다.

스미드: 맥크래킨博士의 그 말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K-마트가 가능한 최선의 K-마트이며, 또 K-마트가 社會的 利益을 극대화하면서 社會的 損失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맥크래킨박사는 企業이 社會에 財貨와 用役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社會的 害惡의 극소화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K-마트가 企業의 입장에서 최선의 K-마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할 때, 이것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婦人들과 小數者들을 위한 최선의 K-마트 상태가 되도록 하는 行動計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K-마트 또는 여타 會社가 그들의 사업을 수행할 때 언제나 肯定的 行동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매사를 創造的인 方法으로만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明白하다. 아마 대부분의 美國 企業은 항상 肯定的이며 創造的인 行동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 행해지지

않거나 또는 歷史의 흐름에 뒤쳐진 사례는 많다. 따라서 나는 企業의 責任感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진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 첫째, 貴下는 發言하고, 討議하고, 株主決議案을 작성할 때, 告發 또는 傳統 그리고 共同善 또는 人間條件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둘째, 이러한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貴下의 關心分野에서는, 예를 들어 美國 企業과 勞動者의 生産性 減少 또는 美國 職業現場의 효율성 減少 등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單語들이 이 방면의 문제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스미드 : 우리는 여러團體의 聯合體이기 때문에 用語문제에 대한 貴下의 質問에 대한 답변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표현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慈善修女會측의 修女라면 자신의 株主總會 참석이 宣敎와 基督教의 사회참여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聖公會측은 그런 접근보다는 共同善에 관해서 또는 세속적 論理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것이 論理的 接近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方法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論理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 할 것이다.

聖公會측은 또 南阿共和國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에 1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企業은 그 사업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업에 대해 신중히 再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 決議案 자체에 대해 討論할 때 아마도 教會는 決議案을 실천할 수 있는 方案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基督敎的 觀點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福音傳道 과정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用語로 표현된 解決方案의 표결에 참가할 사람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方法으로 문제를 討議하는 시도인 것이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은 그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企業 經營陣들은 生産性뿐만 아니라 레지널드 존스(Reginald Jones)가 수차례에 걸쳐 저술하였던 美國社會에서의 創造力의 결핍과 새로운 것을 고안하여 만들어 내는 創意性의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이것은 그동안 教會가 중점적으로 언급해 온 분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教會는 과거에 수차례 作業環境의 質에 대해 거론하였다. 특히 60年代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터를 보다 人間的으로 또는 보다 生産的인 與件으로 만들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서 環境은 生産性提高와 관련되어 있었다. 제너럴 모터스社는 어떻게 하면 로드스타운(Lordstown) 工場을 보다 생산적인 공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研究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그곳 勞働者들의 精神健康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生産性和 創意性을 위해서이다. 만약 사람들이 일을 쾌적하게 느낀다면 틀림없이 보다 效率的이고 創意的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 國家들의 제도 및 정치체제의 정비 등은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있었기에 마살 援助는 4년만에 종결될 수 있었고, 얼마 후 西獨은 資本輸出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을 第3世界에로의 끝없는 富의 供與 및 受援國이 軟貨借款조차도 償還困難을 겪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라.

이상과 같이 볼 때 최선의 여건하에서조차도 원조가 第3世界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근거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자본이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때 자본의 이용도에 대한 推定 및 國民所得에 대한 資本費用節減額과 援助額의 比를 비교해 보는 것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조가 개발에 역효과를 준다는 평가는 각종의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 예를 들면 많은 第3世界 政府들은 그들의 債務, 심지어는 다수의 初期債務 免除과 인플레이의 결과로 적당한 만큼의 부담은 대체로 없어져 버리는 軟貨借款조차도 償還하지 못했다. 이 예에는 가나국이 포함되는데 가나의 경우 초기의 상당한 원조와 코코아로부터 大規模所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계속 債務不履行상태에 빠졌었다.

역효과에 대한 평가는 수십 년 동안의 원조를 받아 온 많은 受援國들이 처해 있는 상황——매우 낮은 生活水準, 잦은 기근, 交換經濟의 와해, 公衆의 안전과 衛生의 파괴(때로는 非開發(disdevelopment)이라고 불리워짐) 등——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이것은 援助擁護論이 원조의 목표를 개발에서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援助의 효과는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움으로 실증적 근거에 입각해서 확고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통계적 근거들은 상충한다. 어떤 연구결과는 援助와 受援國 國民所得의 成長間에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피어슨委員會(Pearson Committee)의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비록 원조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開發間에 모순없이 높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停滯가 아니다. 많은 第3世界國家들은 최근 십수 년간에 美國이나 英國보다 훨씬 급속히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貧困도 아니다. 많은 第3世界 國家들 특히 東南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西方의 어떤 큰 그룹보다 부유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兄弟愛도 아니다. 이는 印度와 파키스탄, 모로코와 알제리아,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 기타 등등에서와 같은 受援國間의 敵對關係와 갈등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對外援助는 東西間의 정치적 갈등을 대신해서 등장한 南北間의 경제적 갈등에서 南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가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西方世界는 南側에 南側 內部的 갈등을 낳게 하였다. 개별적인 第3世界 國家는 西方世界에 중립적인 경우가 많고 우호적이기조차 하다. 그러나 조직되고 뚜렷한 형태를 갖춘 第3世界는 언제나 西方에 적대적이다. 東西間의 정치적 갈등은 休止狀態에 있지 않았다. 東側은 西側의 산물인 南側에 의해 강화되어져 왔다. 南側의 등장은 東·西間의 갈등에서 오히려 西側이 불리해지도록 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분명한 사실이었다.

第3世界 혹은 南側世界の 創造 以外에도 원조가 가져온 보다 중요한 政治的 결과는 第3世界の 생활을 정치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公的 援助의 도움을 받은 이러한 政治化는 많은 第3世界 國家에 갈등과 긴장을 초래케 해왔다. 援助는 또한 第3世界 政府들이 西方의 市場經濟 社會보다는 소비에트 블록에 보다 동조적이게 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했다.

援助는 단순히 하찮은 것에 불과하므로,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 자주 제기된다. 그러나 公的 援助가 일으키는 광범한 政治的 反響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명백히 근거없는 見解이다. 더우기 西方世界에서조차도 援助의 經濟的 의미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援助供與國의 國民 所得에 비해 원조의 크기는 작은 것이지만 원조는 이들 나라에서의 國際收支나 財政收支의 적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1978년의 경우 美國의 對外經濟援助는 經常赤字의 약 半水準이었다는 데서도

이 점이 나타난다. 이 해에는 世界經濟의 基軸通貨인 달러貨의 약세가 주된 국제적 관심사였고 西方國家政府들은 달러 價値 하락에 대해 집요하게 美國을 비난했다. 동시에 이들 國家들은 美國이 第3世界에 더 많은 經濟援助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근 美國의 經濟援助는 聯邦政府赤字의 6분의 1 정도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對外援助가 西方世界에서 갖는 의의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원조의 원초적인 중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광범한 政治的 結果에 있는 것이다.

援助와 開發

덜 부유한 者에 대한 원조를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母性愛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對外援助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西方世界 납세자들의 돈을 멀리 떨어진 國家의 政府나 公的인 國際機構에 移轉해 주는 것이다. 원조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력하게 하는 동시에 政策의 效果를 미리 판단하게 하며, 정책의 실체를 불분명하게도 한다.

원조의 供與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견해는 중대한 原則들을 야기해 왔다. 많은 西方援助는 석유가 풍부한 OPEC 國家들에게 供與되어 왔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當事國 兩側——印度와 파키스탄,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 탄자니아와 우간다, 알제리아와 모로코——에 모두 供與된 경우도 자주 있었다. 아직도 大規模援助가, 예전대 농장의 強制的 集團化,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집단의 逐出, 사적인 무역과 산업의 탄압, 資本流入 制限 등의 조치로 그들의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飢餓화시키고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政府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對外援助가 國民所得을 현저히 증가시켜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성장을 훨씬 더 지연시키는 것 같다. 政府와 企業이 자금을 生産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해외에서 借入할 수 있다. 따라서 對外援助가 國民所得의 성

장이라는 의미에서 開發에 줄 수 있는 최대의 寄與는 기껏해야 원조액만큼의 借入費用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겠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 말에 印度에 대한 외부의 원조는 GNP의 3% 정도였다. 資本費用을 연간 20%로 높이 책정한다고 할지라도 원조가 無償이고 條件없는(untied) 것이라 할 경우 경감되는 借入費用은 공식적으로 추계된 GNP의 0.6%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조의 일부는 附帶條件이 있고, 償還義務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印度 같은 나라에서의 GNP가 美國에서의 GNP推計와 비교가능한 기준으로 평가됐을 때, 사실상의 GNP수준은 공식적으로 추계된 GNP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개발에 대한 기여의 최대한은 더욱 작아짐이 분명해진다.

投資資金의 비용절감에서 오는 사소하고 한계적인 이익은 원조의 逆效果로 인해 그 이상으로 상쇄되고 남는 것 같다. 이러한 역효과들은 두 가지 면에서 원조가 주는 이익의 최대한과 非對稱的이다. 첫째로 원조의 역효과는 원조가 國民所得에 비해서 낮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受援國의 歲入이나 外換收入(foreign exchange earning)과 비교해도 결코 큰 규모가 되지 못할 만큼 援助額이 소액인 점에서 야기된다. 그러나 원조가 政府에 집중적으로 供與되므로 의미있는 액수가 된다. 둘째로 投資資金 費用節減에서 약간의 極大利益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資金의 量은 경제개발에서 주요한 인자가 되지 못한다. 개발의 기본적 결정요소는 人的·社會的·政治的 인자들인 것이다. 그런데 援助의 逆效果는 바로 이 基本的 決定要素에 작용하는 것이다.

公的 援助는 受援國政府의 資金力, 保安能力, 支配力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政府의 여타 社會에 대한 支配力을 강화시켜 준다. 이리하여 援助는 第3世界에 있어서의 손해막심한 생산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權力掌握을 위한 투쟁을 격화시킨다. 대부분의 第3世界 國家들, 특히 多民族社會에서 이러한 사태의 결과로 갈등이 야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

는 정력과 관심을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정치적 영역으로 향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활 또는 經濟的·物質的 生存조차도 政治 내지는 行政上的 결정에 좌우되게 되기 때문이다.

對外援助는 여타의 각종 형태로 國家統制經濟를 조장한다. 國家의 經濟統制는 또 다시 政治化를 초래하고 對外的인 접촉과 自國 내의 稼動性을 저하시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의 전개를 지연시킨다.

公的 援助는 換率을 하락시키고, 과대평가된 換率을 지속시키게 하며, 通貨供給을 증가시키도록 함으로써 受援國의 國際經濟上的 지위에 손상을 입힌다. 또한 收支의 악화가 援助要請의 효과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경솔한 財政政策을 조장케 하는 경향도 있다. 원조는 第3世界의 개발이 외부로부터의 요인에 의존한다는 사고방식을 강화시켜 주며 부적합한 외국의 모델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開發政策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탈레던 그 나라 국민들이 통상 여행도 하지 않고 그러한 航空路線을 거의 이용하지도 않는 나라에 公營 항공노선이 개설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對外援助는 受援國의 물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원조가 개발에 주는 최대한의 기여가 借入費用의 절감, 즉 投資資金의 일부분을 절감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러한 資金의 量은 經濟的 進歩의 기본적인 決定要素가 못 된다. 國民所得의 작은 부분을 占하는 이러한 費用節減은 최선의 여건에서라고 할지라도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公的 援助의 주된 역효과들은 개발의 기본적 決定要素에 작용하기 때문에 원조가 개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원조는 물질적 진보를 촉진시킨다기보다는 방해하며, 설혹 촉진한다 할지라도 그 密與度는 미미한 것임에 틀림없다.

戰後 美國에 의해 西部유럽에 제공된 마샬 援助의 사례를 갖고서 援助問題를 論議함은 위와 같은 측면을 불분명하게 해준다. 마샬 援助와 第3世界에 대한 公的 移轉問題 사이에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 戰後 유럽에 안겨진 과제는 開發이 아니고 再建이었다. 당시 유럽 國民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 國家들의 제도 및 정치체제의 정비 등은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이 있었기에 마살 援助는 4년만에 종결될 수 있었고, 얼마 후 西獨은 資本輸出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을 第3世界에로의 끝없는 富의 供與 및 受援國이 軟貨借款조차도 償還困難을 겪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라.

이상과 같이 볼 때 최선의 여건하에서조차도 원조가 第3世界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근거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자본이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때 자본의 이용도에 대한 推定 및 國民所得에 대한 資本費用節減額과 援助額의 比를 비교해 보는 것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조가 개발에 역효과를 준다는 평가는 각종의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 예를 들면 많은 第3世界 政府들은 그들의 債務, 심지어는 다수의 初期債務 免除과 인플레이의 결과로 적당한 만큼의 부담은 대체로 없어져 버리는 軟貨借款조차도 償還하지 못했다. 이 예에는 가나국이 포함되는데 가나의 경우 초기의 상당한 원조와 코코아로부터 大規模所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계속 債務不履行상태에 빠졌었다.

역효과에 대한 평가는 수십 년 동안의 원조를 받아 온 많은 受援國들이 처해 있는 상황——매우 낮은 生活水準, 잦은 기근, 交換經濟의 와해, 公衆의 안전과 衛生의 파괴(때로는 非開發(disdevelopment)이라고 불리워짐) 등——에 의해 보장된다. 또한 이것은 援助擁護論이 원조의 목표를 개발에서 다른 것으로 바꾼 것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援助의 효과는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움으로 실증적 근거에 입각해서 확고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통계적 근거들은 상충한다. 어떤 연구결과는 援助와 受援國 國民所得의 成長間에 상당한 相關關係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피어슨委員會(Pearson Committee)의 연구를 포함한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비록 원조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開發間에 모순없이 높은

相關關係가 발견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기껏해야 受援國에서 자본이 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기껏해야 그 정도라는 것은 投資資金의 流入과 기타 개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모두 자기 다른 時差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어 後者의 效果로부터 前者를 분리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한 第3世界의 所得推計에서 오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援助資金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전체적인 효과에 있어서 매우 생산적이었음이 확실히 立證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資金은 해외에서 상업적으로도 調達 가능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원조가 개발에 준 최대한의 기여는 역시 借入費用節減 정도라는 것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원조의 개발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때때로 행해지는 대규모의 回歸分析은 무의미한 것이다.

貧困의 救濟

貧困의 救濟라는 목표는 援助의 훨씬 高尚한 목표이며, 명백한 도덕적 색채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公的 援助는 貧民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원조의 施行을 주장하는 선전문에 나오는 뼈단 앙상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원조의 極貧層에 대한 배려는 支出政策 決定時 고려되는 사항 가운데서 優先順位가 매우 낮고, 그것의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利害判斷에 의해 支出政策을 결정하는 이들 빈민층의 지배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被支配者의 빈곤을 이유로 지배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疲弊化政策을 沮止하는 것이 아니고 助長하는 것과 같다. 많은 第3世界 政府들은 少數民族集團——예컨대 베트남과 인도지나의 中國人이나 東아프리카의 아시아人——과 같은 가장 생산적인 집단을 추방했다. 貧困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들 國家의 所得水準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政府는 보다 많은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西方世界의 제3세계,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公的援助는 極貧層의 分配를 크게 악화시키

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광범하게 유지시켜 왔다.

援助供與의 기준으로서 1人當 國民所得에 의해 평가된 貧困은 또 다른 많은 불합리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인해 貧民의 더 많은 수가 죽을수록 1人當 所得은 상승하고 이것은 援助額을 삭감할 분명하게 왜곡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富와 貧困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욕구, 즉 물리적·사회적 생활조건에 달려 있다. 이 점은 물리적 조건의 경우 기후를 보면 매우 분명해지고, 사회적 조건의 경우도 慣習과 價値觀 등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因習이나 公的인 政策의 변화로 여성들이 報酬를 받는 勞動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의 疲弊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所得의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援助를 증가시키는 적합한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그것들을 例擧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公的 援助를 직접 極貧層에 供與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아니면 受援國 政府의 정책을 통제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회피해보려는 시도는 第3世界 政府들에 의해 반발을 받고 거부당할 것이다. 비록 이러한 반발은 무마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치리 곤란한 문제들이 등장할 것이다.

極貧者들은 그것이 全體社會이건 아니면 한 사회 내의 극빈한 계층이건간에 보다 부유한 자들과 같은 정도의 經濟的 成就動機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援助의 목표로서 貧困의 救濟와 개발의 촉진에 현저히 다른 이유이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별개의 것인데, 이는 거지에게 베푸는 施惠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별개의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환자에 대한 補助와 사업에서 입신할 청년에 대한 貸付가 별개인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第3世界 國家들에서 극빈층은 물질적인 野心이 없는 사람들이기가 쉽다. 만일 受惠者를 원래의 빈곤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 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지는 公的 施惠는 무한히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한 사람은 救貧對象者로 전환되고 社會全體가 救貧對

象者化할 수도 있다. 수십 년간 美國政府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은 나마호족 인디언(Navajo Indians)들이 잘 알려진 예가 될 것이다.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의미가 있고 적절한 최근의 사례는 美國의 信託統治領인 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에 대한 大規模 救貧事業인데, 이는 1978년 7월 27일자 『워싱턴 포스트』紙의 기사에 생생하고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많은 미크로네시아人들은 美國政府가 供與하는 施惠로 편히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農業, 漁撈와 같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 버렸다. 援助가 초래하는 이러한 결과는 經濟的 成就에 必要한 태도와 기능을 퇴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곧 經濟的 成就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차후에 다시 습득해야만 한다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따라서 원조의 결과는 非開發이라고 불려우게 된 것이다.

貧困의 救濟를 위한 援助는 이렇게 해서 쉽게 救貧院 內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貧民에게 주는 세계적 규모의 救助가 된다. 救貧활동의 결과는 영구적인 빈곤이며, 이러한 빈곤은 또 다시 무한정의 원조를 합리화시켜 준다.

援助供與者가 援助受惠者에게 經濟的 成就에 요구되는 요소를 주입시킴으로써 영구적인 救貧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第3世界 社會에서 그러한 시도는 가장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포함해서 土着的 信仰과 가치관의 전면적인 改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도는 援助受惠者들에 대한 광범위한 強制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제도를 개혁한다거나 농업을 근대화할 필요성과 같은 불투명한 文句 때문에 분명히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當面課題로 제기되는 것은 어떤 부문 혹은 활동의 近代化나 改革이 아니고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혁이나 근대화이며, 信仰과 價値觀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도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혁이나 근대화인 것이다. 變革되어야 할 것은 사람, 즉 어떤 活動이나 어떤 部門, 또는 制度와 같은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고 개개인 또는 개개인의 집단인 것이다.

援助가 가치관과 태도의 強制的 變革을 의미한다면 많은 受援國들의 國民大多數와 受援國政府들이 援助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한 政策들은 貧困을 救濟하기보다는 빈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그러한 政策들은 뿌리깊은 반발을 유발하게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자 할 경우 國民들의 활동력과 진취성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公的 援助가, 貧困의 救濟를 실현하기 위해 것처럼 극단적인 대책을 충분히 施行해 보지 못한 채로, 동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援助와 雇傭

援助가 輸出增進을 통해 雇傭機會를 창출한다는 근거로 옹호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商店이 強盜를 당하더라도 강도 당한 것 중 일부가 그 상점에 支出된다면 商店主人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援助資金으로 구입되어지는 輸出商品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구입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納稅者가 국내에서 支出할 수 있는 여력은 감소된다. 直接的인 國內 雇傭補助金 支給이 費用을 보다 적게 들게 하고 보다 效率的인 것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過程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主張에 대한 다른 側面에서의 해석에 의하면 援助가 援助提供國의 經濟에도 有益하며, 受援國의 長期的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雇傭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충분한 검토없이 援助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援助에 관한 문제를 조급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또한 援助로 표현되는 資本의 다른 利用可能性이나 보다 生産的인 용도를 무시하고 있다.

西方世界の 公的 援助는 第3世界가 소비에트路線에 합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온다. 漸增하는 대규모의

公的 援助는 多國間 베이스의 것이다. 즉 援助는 국제기구를 통해 配分되고 있다. 援助의 배분에 있어서 이들 기구들이 援助供與國의 政治的 利害關係를 고려하는 행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더우기 소비에트圈도 이들 국제기구에 대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금면에서 원조액이 적을지라도 多國間 베이스의 援助配分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受援國의 행동이나 政治的 重要性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二國間 베이스의 援助에 있어서도 政治的 利害關係는 대체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많은 受援國들은 西方의 援助供與國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일삼고 있다.

再分配와 損害賠償

援助는 종종 세계적 차원에서의 再分配를 위한 수단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對外援助에 의한 재분배는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국내의 再分配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對外援助는 政府에서 정부로 이전되며, 納稅者와 援助受惠者의 個人的 여건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는다. 援助供與國의 納稅者들은 援助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受援國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貧困하다. 나아가서 再分配 目的의 課稅는 그것이 施行되는 지역 내에서의 여건의 기본적인 類似性 즉 要求의 類似性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世界的 次元에서 볼 때 이러한 要求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기후에 의해 決定되는 物理的 要求의 경우를 보면 명백하다. 그리고 이것은 政治的·社會的 측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 국가의 정책이 그들의 所得을 하락시키고 印度처럼 國民들이 動物을 죽이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많은 모슬렘社會에서처럼 여성을 報酬勞動에 종사시키기를 거부하는 政府를 위해 美國人들이 과연 稅金을 부담해야만 할 것인가?

더우기 國家間的 所得隔差는 各國 國民의 特性, 倫理, 制度, 政治的 秩序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所得隔差의 축소도 일시적인 것으로 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기본적 因子들이 즉시 다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治的으로 조직화된 再分配가 무한히 지속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 정책은 生産性이 높은 國民들로부터 낮은 國民들에게로의 移轉을 의미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資源의 生産性을 하락시킨다.

援助에 관한 또 하나의 매우 색다른 주장은 원조가 西方世界의 過去 또는 現在의 과오에 대한 損害賠償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진실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貧困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결코 진실일 수 없으며, 오히려 西方世界와의 접촉이 第3世界의 물질적 진보의 주된 因子로 되어 왔다. 第3世界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진보된 사회나 지역들은 西方世界가 가장 빈번하고, 다양하며, 심화된 접촉관계를 수립해왔던 곳이다. 東南아시아, 西部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換金作物 生産地나 貨物集産 港口들이 그러하고, 아프리카, 中東의 鑛物 生産地가 그러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海,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와 항구들이 그러하다. 물질적인 진보의 수준은 西方世界에 의한 충격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저하된다. 가장 빈곤하고 후진적인 사람들은 외부와 거의 혹은 전혀 접촉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며, 土人들이 이의 극단적인 경우이다.

西方世界는 19세기와 20세기에 第3世界와 광범하고 다양한 경제적 접촉을 확립했을 때 이미 현재의 第3世界보다 物質的으로 훨씬 진보해 있었다. 인적·물질적 자원, 기술, 자본, 물질적 진보 자체의 아이디어를 포함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西方世界에서 第3世界로 流入됐던 것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였다.

최근에 와서 第3世界의 經濟的 진보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대외적 접촉의 역할은 이전의 유럽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유사한 접촉들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우선 일례를 들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人間이 생활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점증적인 環境 統制力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질적 진보에 대한 觀念 자체가 西方世界에서 나온 것이다. 第3世界의 사람들은 西方世界 사람과 접촉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고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베리(J. B. Bury), 크리스토퍼 도슨(Christopher Dawson)과 같이 서로 다른 哲學的, 政治的 信念을 가진 학자들도 물질적 진보에 대한 觀念이 西方世界에서 淵源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오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에 西方世界가 현재의 第3世界와 다원적인 접촉을 전개했을 때 西方世界와 이들 지역들의 經濟的 수준의 차이는 매우 컸으며, 과거 다른 지역들 사이에 그와 같은 접촉이 있었을 때의 차이보다 훨씬 컸다. 따라서 접촉관계의 확립은 양측 모두에게 보다 큰 가능성을 제공했고 이 가능성은 지난 200년간의 交通 및 通信의 발달로 더욱 확대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西方世界에 의해 확립된 상업적 접촉은 다른 어떤 측면보다 第3世界의 많은 지역 특히 東南아시아의 물질적 여건을 개선해 왔다. 中東의 일부도 이에 해당하고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특히 西部아프리카와 東部 및 南部아프리카가 이에 해당하며, 멕시코, 과테말라,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도 이에 해당한다.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빈곤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보를 촉진했었다는 것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損害賠償이라는 觀念에 대해서는 몇 개의 관찰결과를 갖고 이 주장을 보충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西方世界의 植民主義가 第3世界의 후진성의 원인이라고 자주 주장된다. 사실은 대부분의 후진적인 第3世界 國家들, 예컨대 티벳, 리베리아 등은 西方世界의 植民地가 아니었다. 오늘날 부유한 많은 西方世界 國家들도 식민지를 갖지 않았거나 美國,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식민지였었다. 그러나 西方世界의 植民主義가 第3世界의 빈곤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植民地戰爭에서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 植民主義者들에 의해 토지를 강탈

당한 토착농민 등과 같이 植民主義의 희생자는 많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공여할 방도가 없다. 世界銀行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전염병과 풍토병, 종족간의 전쟁, 公共安全의 결여가 만연되어 있던 植民地時代 이전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환경 속에 태어나지 않고 植民地나 植民地 이후의 세계에 태어남으로써 得을 보았다. 실제로 植民地支配와 더불어 도입된 西方世界의 기술과 관념들 특히 醫藥과 공공의 안전 등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사망했어야 할 수백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남았다. 설령 植民主義가 植民地化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결국 손해를 준 것으로 판명된다 고 할지라도 西方世界의 원조가 그들의 과오에 대한 損害賠償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주요 援助供與國들은 植民地나 특정한 보호령들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선조가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지도 모르는 植民主義 強大國들의 경우에도 損害賠償理論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범죄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어느 때로 정해야 되는가? 어느만큼 歷史를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할 것인가? 백 년, 천 년 아니면 그 이상인가? 범죄자와 희생자의 후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든 歷史的 犯罪가 문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西方世界에 의해 저질러진 것만이 문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보다 정확히는 現在 西方世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조들이 第3世界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저지른 것이 문제되어야 하는가?

몽고인들이 中央아시아에서 왔으므로, 현재의 外몽고가(아니면 이의 支配者가) 폴란드, 헝가리, 터키, 기타 여러 OPEC 國家들에게 수세기 전의 약탈에 대해 보상해야만 하는가? 蘇聯이 지난 수세기에 걸친 시베리아의 러시아 植民地化 과정에서 이주시키거나 죽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보상해야만 하는가? 美國이 현재의 아프리카國家들의 政府를 위해, 美國의 흑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美國 奴隸商人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아프리카國家들에게 지불해야만 하는가? 인디언들의 조상에게 저질러진 인디언 탄압의 과오가 발생했던 시기보다 훨씬 늦게

美國에 移住해 온 사람들의 후손이 美國 納稅者의 대부분인데 오늘날의 美國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상해 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역사적 과오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原則의 설정은 정당성 이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된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援助方式의 改革

허튼 말, 특히 公開討論에서 허튼 말은 해롭지 않은 경우가 없다. 따라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오도된 개념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치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나는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몇 마디 언급하고 싶다. 특히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貧困救濟와 經濟開發 促進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公的 援助는 이러한 目的들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해왔다.

窮乏救濟는 자발적인 기구들, 특히 政治化되지 않고 宗教的이며 醫療施術을 해주는 자선단체 등에 일임해야 한다. 이들의 다수가 이미 南側世界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公的 救濟는 이들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災害復舊에 한정되어야만 하는 公的 移轉의 課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들 기구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窮乏의 救濟를 慈善機構에, 특히 非政治化된 자선기구에 맡기는 것은 많은 利點을 갖는다. 西方世界 國家들과 비교해도 환경이 많이 다르고 第3世界 자체 내의 國家間에도 환경이 서로 다른, 멀리 떨어진 社會의 現地狀況에 대해 西方世界 政府보다는 이들 기구가 훨씬 잘 알고 있다. 순수한 慈善機構들은 第3世界의 支配者들보다 極貧層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慈善機構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생활의 政治化를 촉진하거나 政治權力에 수반되는 利權을 증대시키지도

않으며, 정치적 긴장을 악화시키거나 해롭고 억압적이며, 비인간적인 정책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자발적인 기구들이 지금까지의 公的 援助를 대신하여 第3世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 자발적인 기구들의 援助活動은 第3世界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支配者들의 權力을 약간이나마 축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서 자발적 기구의 援助는 인류를 돕기 위한 자금을 자진해서 寄附하는 사람들의 헌금에 의해 충당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公的 援助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稅金에 의해 충당된다. 많은 第3世界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감지하며 援助가 人類愛的이고 利害關係를 떠난 동기에 의해 고무된 것이라는 주장에 회의를 품는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1976년 6월 스위스에서는 第3世界 政府를 위해 公的 機構인 國際開發協會(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그 자금을 제공하자는 그들 政府의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제안은 언론매체, 교회, 대학, 기타 학교 등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憲法上的 규정 때문에 이 제안은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했다. 국민투표에서 ——西方世界에서 對外援助에 대해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이다. ——이 제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스위스는 자발적으로 많은 금액을 第3世界 慈善機構들뿐만 아니라 이태리의 地震 犠牲者들에게 寄附했다. 이 自發的 寄附의 사례는 公衆이 자발적 慈善과 公的 援助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자발적 기부의 사례는 또한 원조가 자선의 문제가 아니고 權利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第3世界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해준다.

第3世界の 빈민을 돕기 위한 自發的 慈善은 公的 援助보다 훨씬 바람직하지만, 豫想 밖의 結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상당한 注意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일시적인 災難의 救護가 아니고 長期的인 施惠의 과정으로 認識되게 되면 영구적인 救貧活動으로 변해버리기 쉽다. 또한 公的 援助의 경우에서도 자주 나타나듯이 供與者에게 우월감을 불어넣어 주고 受惠者에게 依타심을 불어넣어 주기 쉽다.

이제 開發문제에 들어가 보자. 西方世界는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가 많

은 對貧國 輸入障壁을 완화함으로써 第3世界의 開發을 매우 촉진시킬 수 있다. 이 장벽들이 開發, 投資, 雇傭에 장애가 되며 따라서 南側世界가 外部와의 접촉에서 얻는 이익을 감소시킨다. 對外貿易은 아시아 특히 極東, 東南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一部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변혁시켜 왔다. 貿易障壁의 완화는 이러한 과정을 확대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對外貿易은 經濟的 進步를 위한 효과적인 자극제가 된다.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것에 수반되는 자금은 公的 移轉이나 이의 配分者보다 현지 실정을 훨씬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잘 적응하고 있다. 상업적 접촉은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公的 援助와 이것의 옹호자들에 의해 자주 지지를 받는 강제적인 近代化, 그리고 이에 따른 大規模 財産沒收 試圖보다 政治的·社會的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훨씬 적다. 對外貿易은 현지의 貿易業者, 企業家, 기타 市場過程을 통한 개발에 관심을 가진 자립심이 강한 집단을 부각시켜 준다. 이들은 公的 移轉에 고무된 社會主義 經濟의 指導者들이나 다른 엄격한 統制經濟의 지도자들보다 西方世界에 훨씬 더 우호적일 것이다.

貿易障壁의 완화는 그것에 의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반발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 援助資金의 일부가 轉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도 역시 각종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 가능할 경우, 계속적으로 增加하는 公的 移轉과 함께 점점 더 강화되는 貿易障壁과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함이 피해가 적을 것이다.

아름든 公的 移轉은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던 문제는 公的 移轉이 어떻게 改善될 수 있는가이다. 우선 援助는 費用과 收益이 일치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이 방식은 商品協定과 같은 資源移轉의 間接方式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移轉의 결과는 좋은 것이 못되며 총체적인 효과가 평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획은 어떤 형태의 上院이나 下院의 통제에로 羈束되지 않는다. 移轉은 조건이 없는 現金贈與여야 한다. 條件附 援助(tied aid)는 그렇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상품을 投賣한다는

인상을 주는 외에도 수출입자에 대한 보조금과 受援國에 대한 贈與를 혼동하게 만든다. 軟貨借款은 통상적으로 많은 量의 贈與的 要素를 은폐하고 있어 投資와 贈與를 혼동하게 한다. 부연하던 供與者는 이것을 贈與로 보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受惠者는 債務로 보는 것이다. 現金贈與는 납세자들 즉 실질적인 贈與者들이 선출한 대표가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도록 二國間 배이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二國間 贈與體制下에서는 비인간적인 정책이나 供與國에 극히 적대적인 정책이 다소 용이하게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贈與가 과거나 현재의 파오에 대한 배상이나 세계 차원의 平等主義 추구 수단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西方世界의 供與者로부터 受援國政府에로의 직접적인 이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損害賠償이나 再分配라는 등의 名分이 배제되지 않는 한, 西方世界는 援助가 끝없는 압박의 재물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公的 援助는 國民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 및 政府의 基本任務 遂行과 自由主義 經濟政策의 추구에 의해 福利를 증진시키는 政府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援助가 생활의 정치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 주며, 빈영을 촉진시키고, 갈등을 해소시켜 줄 가능성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援助의 方式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국제적인 富의 移轉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全體主義 體制를 계속 고무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원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다수의 인자하고 자비심 많은 사람들을 계속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것이다.

討 論

질문 : 對外援助를 반대하는 귀하의 주장은 第3世界에 供與될 수 있을 만큼의 오일달러를 축적하는 OPEC國家가 對外援助를 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바우어 : 아랍國家들이 第3世界政府들에게 자금을 供與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그것이 受援國 국민들의 물질적 진보를 촉진해 주지도 못할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OPEC 國家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목적은 주로 UN에서 票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다. 또한 그것은 아랍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危險分散의 한 방식이기도 한다. OPEC 國家들은 그들 자산의 일부는 美國달러로, 일부는 英國 파운드貨로, 일부는 實物不動産으로, 그리고 일부는 그들이 자금을 提供하는 國家의 政治的 好意로 보유하고자 한다.

질문 : 귀하가 援助와 개발에 대해서 제시한 많은 사례들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귀하의 다른 글에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예로서 홍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이 옳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開發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러한 사례에서 어떤 유용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겠는가?

바우어 : 홍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견해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흥미가 있다. 물질적 진보는 자연자원이나 외부로부터의 贈與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발에 필요한 人的·사회적·정치적 결정요소, 즉 사람들의 성격, 동기, 윤리관,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점은 현재의 사실에서 보나 역사상의 사례에서 보거나 분명하다. 나는 홍콩을 극단적이면서도 뚜렷한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질문 : 이야기가 경이적인 성공사례에 관한 것으로 옮겨지게 되면, 나는 第3世界の 빈곤을 植民主義, 新植民主義, 多國籍企業의 세 가지 체계적인 원인으로 분류해서 본 美國基督教教會協議會(America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견해를 생각해 내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세 가지 요인 모두를 고려해 보아도 오류라고 논박하는 실증적 근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귀하는 지식총과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教會協議會의 견해같은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바우어 : 第3世界 全體를 통해서 가장 빈곤한 國家나 社會는 외부와의 접촉이 가장 적었던 곳이다. 평화적인 외부와의 접촉은 사람들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물질적 진보를 촉진시켜 준다. 低開發世界 全體를 통해 볼 때 經濟的 成就度의 수준은 西方世界の 충격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多國籍企業들이 피그미族이나 사막에 사는 부족 또는 土人들을 착취해 왔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더우기 第3世界에서 가장 빈곤한 國家들은 植民地가 아니었다. 예컨대 네팔, 부탄, 티벳, 리베리아, 이디오피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많은 植民地들은 그들이 식민지이었을 때 급속히 성장했다. 예컨대 말라야, 黃金海岸(Gold Coast; 현재의 가나), 나이지리아, 기타 많은 지역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美國,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植民地이었었고 植民地下에서 번영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질문 : 美國教會協議會에서 종교적인 요소가 사라져 온 이유는 무엇인가?

바우어 : 그들이 기력을 상실해 왔던 것이다——물질적인 번영은 모든 예상의 뛰어넘을 정도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문제가 분명히 정신적인 영역에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사태는 일면 놀라운 것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英國의 경우조차도 家口當 1.5 轟의 TV 를 가지고 있다. 英國사람들은, 英國이 과거 어느 때보다 번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불황과 경제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극도로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 있다.

물론 문제에 대한 대답은 물질적 번영이 그로부터 기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教會들은 시대의 문제가 정신적 측면의 문제라고 말하는 대신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勞動當局, 職業紹介所, 福祉機關들과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教會 자체가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질문 : 귀하의 對外援助에 대한 분석을 美國이나 英國의 福祉制度에 적용하는데 어떤 중요한 제약이 있다고 보는가?

바우어 : 국내의 福祉制度와 對外援助間에는 명백히 유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제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요한 受惠者들인 점이다. 그러나 兩者間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본다. 국내의 복지제도의 경우 혜택은 個人과 家口에 귀속되는 반면 對外援助는 政府에 귀속된다. 그리고 국내의 복지제도는 물질적 여건, 특히 기후조건과 사회적 관습이 같은, 특정한 한 나라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 차원에서는 기후조건, 사회적 관습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各國民들의 욕구가 서로 같을 수 없다.

질문 : 나는 教皇 요한 바오로 2세의 브라질 방문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읽

은 적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紙에 寄稿하는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전 인구의 80%가 가난하고 多國籍企業이 들어온 이래 그들의 所得은 감소돼 왔으며, 나머지 20%의 사람들도 전보다 낮은 所得과 購買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多國籍企業의 등장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우어 : 우선 첫째로 지적돼야 할 것은, 과거 12년간에 1인당 기준으로 본 브라질의 大衆消費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로, 과거 12년간 브라질에 있어서의 所得分配는 이전보다 더 불균등하게 되어 왔다——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고 나는 확신하지만——는 점은 사실일 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단지 빈민들의 사망률이 감소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돼 왔다.

所得問題를 거론할 때 平均壽命, 자녀의 數, 건강 등과 같은 인자들이 소득이나 복지의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것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제외돼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분야의 모든 통계에 변칙적인 결과를 갖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살아남는 것은 1인당 소득의 감소로 기록되는 반면 암소가 살아남는 것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기록되는 것 등이다. 이것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빈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所得分配가 ‘惡化’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이것이 발전인가 아니면 퇴보인가?

사망률의 감소로 브라질에서는 급속한 人口增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西方의 언론매체들은 브라질 東北部지방에 대한 記事, 즉 판자촌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다. 판자촌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을 때 모여사는 곳이다. 이와 같은 판자촌은 매우 안정된 공동체인 경우가 많다.

東北部 지방은 90% 이상의 주민이 흑인이다. 그러나 그들이 유럽인, 포르투갈인의 후예, 日本人, 레바논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사

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브라질은 빈 손으로 흘러들어 왔지만 지금 현재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中部유럽 및 日本人 移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당신의 질문이 암시하는 것은 南部아프리카, 西部유럽, 브라질, 기타 어디에서건 부자의 所得은 어느 정도 빈자의 것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빈자는 擄取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考察할 때는, 모든 창조가 자연상태에서 이루어졌듯이 각종 사람들의 각종 富의 수준도 사실상 빈곤, 즉 자연상태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혹은 큰 폭으로 빈곤상태로부터 벗어나 富를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발전을 촉진시켜 왔다.

질문: 나는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질문은 對外援助를 관리하는 慈善機構들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供與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들의 租稅負擔이 경감될 것이고, 현재 기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慈善機構에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귀하는 사람들이 第3世界 國家들을 돕는데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두번째 질문은 인류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귀하는 인류의 처지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바우어: 개인적인 寄附에 의해 조달되는 慈善金額의 규모에 관해서, 나는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매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스위스가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큰 규모의 금액을 예로 들었었다. 물론 문제는 대부분 당신이 말한 바의 필요한 量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목적에 쓰여지느냐에 달려 있다. 公的인 贈與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바

와 같은 이유 때문에 貧困의 救濟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美國의 납세자들로부터 第3世界 國家 政府에로의 단순한 富의 이전에 불과하다. 非政治的 慈善機構들의 활동은 빈곤을 구제하는데 직접적으로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함정이 많다. 당신 질문의 背後에 있는 論點은 우리가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出捐하기만 하면 빈곤의 구제라는 목적이 저절로 달성될 것이다 하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기본적으로 供與者의 정신적 태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援助供與가 受授國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처지에 대해 悲觀的인가 또는 樂觀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의 처지라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이며, 第3世界의 소득이 매년 2~3% 정도 증가한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문제라는 점이다.

印度 사람들이 動物의 생명을 빼앗는 데 대한 그들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물질적 진보를 크게 진전시킬 것임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같은 논리에 의해 印度에서 우리가 動物을 학살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精神論理의 와해를 초래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多次元的인 문제들이며 나는 확실히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해답은 經濟學者에게 있지 않고 哲學者나 神學者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 귀하는 印度에서 정신적 측면에서 動搖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對外援助가 受授國의 종교적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우어 : 종교적 입장에 대한 援助의 영향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것이다. 원조가 遂行해 온 것은 政治的 緊張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낳게 하는 생활의 정치화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질문: 귀하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開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라는 與件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주에 머스키 國務長官이 美合衆國의 信義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니카라과에 대한 援助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짐바브웨에 대한 즉각적인 援助를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예들을 보면 정치적인 동기가 귀하가 세운 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귀하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援助를 供與할 필요성이나 供與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바우어: 對外援助가 美國의 정치적이거나 전략적 수단의 하나라고 하는 주장은 단순히 이 정책을 美國의 대중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援助擁護論은 援助가 美國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 준다고 주장한다. 원조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려던 원조가 多國間 베이스가 아니고 2國間 베이스로 供與되어야 하며 受援國의 행동이나 수원국의 정치, 군사적 중요성에 대응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의 援助供與는 있어 온 적이 없다. 대규모의 2國間 및 多國間베이스 援助가 美國을 가장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많은 第3世界 政府들에게 供與되어 왔다.

질문: 나는 종교적인 요소의 退色化에 관한 문제로 되돌아 가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인들이 터무니 없는 것을 믿으려 하는 태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지난 10년간 美國은 시민의 권리, 경제적 正義, 부와 소득의 再分配 등등의 문제에 사로잡혀 왔었다.

귀하는 이러한 현상과 종교적 요소의 퇴색화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부와 소득의 再分配에 사로잡혀 왔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偶像崇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神 대신에 神的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어떤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신앙심 있는 기독교도라고 假定할 때, 우리 사회의 不平等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經濟的 正義라는 주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바우어 : 그와 같은 질문들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인 것 같다. 파스칼의 광세에는 다음과 같은 文句가 있다. “노력하자. 보다 훌륭한 思索을 위하여서 여기에 道德의 原理가 있다.” 소위 知的 不誠實(intellectual sloth)은 이 논의의 전 분야에 내재되어 있다. 이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분명히 해보자.

不平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나는 불평등(inequality)이라고 말하지 않고 所得隔差(difference)라고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이는 적차라는 말이 中立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불평등이라는 표현으로 논의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암묵적으로 문제에 대한 事前的인 價値判斷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不平等(inequality)이 不公正(inequity)과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고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再分配라는 말도 달리 표현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약한 개념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직접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所得分配가 所得創出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이른바 소득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분배되어져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創出했던 것, 즉 여러분이 생산했던 것이다. 所得創出과 분리된 所得分配는 있을 수 없다.

再分配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그룹 사람들의 所得을 거둬들여 다른 그룹 사람들, 주로 소득을 거둬들이는 대상자들이나 이러한 移轉이 支持者 및 管理者들보다 못사는 사람들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다.

再分配가 이와 같은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論理展開의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나는 경제·사회적 정의가 均等한 소득, 즉 통상적으로 측정된 소득의 균등을 의미해야 한다는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社會的 正義는 均等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득의 흐름(flow)에 적게 기여한 사람이 많이 기여한 사람보다 적은 所得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 불평등한 것인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간단한 논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逆說的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질문 : 아더 오쿤은 年間 平均所得의 半 이하 水準의 所得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所得隔差가 좁혀지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바우어 : 年間 平均所得의 60% 이상 所得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向上시켜 주기 위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이에 대한 근거를 결코 찾아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건간에 실제로 貧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이유를 발견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도와 줄 道德的 義務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을 均等化하는 것이나 소득격차를 縮小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실제로 체계적이고 정치적으로 계획된 再分配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다 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로 移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으로 또 다른 여러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된다. 所得隔差의 축소와 貧困의 救濟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상호 모순되는 政策目標이다.

오쿤의 공식은 전적으로 恣意的인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만일 최신 뉴스의 기사와 통계에 현혹되지 않고 약간의 教養을 갖추고 있다면 토크빌이 이미 15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음을 알 것이다. 그는 『舊制度(L'ancien Regime)』라는 저서의 제 2장에서 사회·경제적 隔差가 축소될 때 이에 무관한 사람들은 특히 생활에 단조로움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격차의 축소가 불만이나 불행을 解消

또는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神話的인 것에 불과하다.

질문: 귀하는 公的 援助가 아닌 자발적 원조가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이 寄附합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公的인 援助가 좋지 않은 이유를 고려해 볼 때, 나는 같은 논리를 公的 援助가 아닌 원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公的 援助가 아닌 원조도 공적 원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람들——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敎人들——을 民衆의 次元에서 정치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은 貧困이 自然狀態라고 말했는데, 나는 빈곤이 자연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절벽의 끝에 서 있으며, 귀하의 주장을 계속하려 한다면, 우리들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 移住民이며 우리들 중의 일부는 그들의 조상이 보다 유리한 출발점을 提供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람보다도 절벽의 끝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바우어: 내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다. 당신의 견해가 정당하며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自然的이다’는 말 대신에 ‘根源的이다’ 또는 ‘出發點이다’는 용어를 사용했어야만 했다. 내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장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貧困의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빠르고 큰 발전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는 自發的인 원조는 좋은 것이고 공적 원조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문제의 범주가 그렇게 단순하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던 것은 부의 移轉이 갖는 명분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즉 貧困의 救濟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원조가 공적 원조와 비교할 때 어떤 有利한 점을 갖는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원조도 그 自體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 원조는 분명히 공적 원조처럼 政府에서 政府로 직접 移轉되지는 않으며, 受援國 支配者의 被支配者에 대한 支配力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거나, 權力鬭爭을 위한 도박을 증가시켜 주지 않는다. 자발적 원조는 受援國의 與件에 적합하도록 조정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

질문: 귀하는 序頭를 第3世界가 對外援助와 더불어 생겨났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다. 나중에 귀하는 빈곤지역에서의 富의 증가가 西方世界와의 接觸에 의해 향상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귀하는 모든 지역사람들의 일반적인 富의 증가는 있지 않았었고, 特定地域, 즉 西方世界와의 접촉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많은 부분은 植民地이었어야 했던 지역의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만이 富의 증가가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앞에서 귀하는 直接援助가 갖는 不利益의 하나로 원조가 受援國政府의 손에 들어가고 빈민층의 손에는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즉 이들 國家政府와 많은 빈민층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나는 1차대전 전, 즉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서 西方世界가 다른 世界와 가져왔던 접촉과 현재 서방세계에서 오는 援助조차 그들의 빈민에게 배분해 주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 나라들의 狀況間에 어떤 관련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바우어: 가나와 나이지리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코코아나무 같은 것은 1880년대 당시 한 그루도 없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모든 코코아나무는 아프리카인에 의해 植木되고, 소유되고, 관리되어 왔지만 코코아 生産을 지원해 주고 생산된 코코아를 판매해 주었던 상인들의 活動에 힘입어 그러한 것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켜 온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東南아시아에서도 현재의 스리랑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19세기 후반까지는 한 그루의 고무나무도 없었다. 고무나무의 식물학적 명칭은 *Hevea brasiliensis*이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東南아시아의 고무나무 재배지역의 반 이상은 말라야人이나 中國人의 것이며, 이들은 商業的 需要에 대응하여 耕作해 왔다.

이것이 對外援助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環境, 制度, 道德, 生産資源과 결합된 상업적 접촉들인 것이다. 第3世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발전되어 있거나 발전하고 있는 지역들은 西方世界와 가장 광범한 상업적 접촉을 갖고 있는 곳들이다.

西方世界の 罪와 第三世界の 貧困

P. T. 바우어

P. T. Bauer

오라, 그 비난(非難)의 눈빛을 나에게 머물게 하라.
나는 비난을 갈망하노라.

—W. B. 에이츠

西方世界の 罪

위에 인용한 에이츠의 시구는 西方世界가 第3世界——즉,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광범하게, 어느 정도 환영하기까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쓰여졌는지도 모른다.

第3世界の 後進性에 대한 서방세계의 책임 문제는 UN 과 그 산하기관들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것은 西方世界, 특히 美國의

*여기서 第三世界는 日本,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시아의 대부분, 白人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를 의미한다. 産油國들의 分類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第三世界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공식대표들에 의해 公認된 國際會議에서 제 3 세계와 共產블록의 代辯者들이 환영하는 주제가 되어 왔으며, 또한 大學, 教會, 범세계적인 言論媒體를 통해서도 광범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第 3 世界の 貧困에 대한 책임이 서방세계에 있다는 끈질기고 틀에 박힌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방세계의 罪意識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죄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면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소비에트블록이나 제 3 세계에 대한 西方世界の 外交를 약화시켜 왔고, 따라서 서방세계는 資源도 별로 없으며 실질적인 힘도 없는 나라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西方世界の 대중들이 第 3 世界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적인 이유와 그리고, 보다 확대되어져 가는 西方世界の 죄의식이라는 부분적인 이유 때문에, 西方世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西方世界の 責任과 第三世界の 貧困

몇 개의 전형적인 예가 西方世界の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주장을 설명해 줄 것이다. 우선 大學에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보기로 하자.

스탠포드大學의 經濟學 教授였던 故 폴 A. 바란(Paul A. Baran)교수는 매우 존경받는 開發經濟學者였다. 美國經濟學會(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발간한 『現代經濟學 概觀(Survey of Contemporary Economics)』에 경제개발에 관한 내용을 기고했던 그는, 현대 개발경제학의 초기에 서방세계의 죄를 탁월하고 설득력있게 설파한 사람이었다. 바란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産業化 前段階社會를 특징지워 주는 停滯性이라는 무거운 짐 위에 설상가상으로 獨占資本主義의 모든 制約的 衝擊이 부가되어졌다. 후진국에서 독점적 재벌 기업체에 의해 획득된 거대한 규모의 經濟的 剩餘는 생산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

는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기업에 再投資되거나 다른 사업의 개발에 쓰여지지도 않는다.¹⁾

그러나 위에 인용된 표현은 전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低開發世界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대규모 農業·鑛業·商業·工業團地들은 利潤의 現地再投資를 통해 세워져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탁월한 英國의 貧困問題 專門學者인 에섹스(Essex)大學의 타운센드(Peter Townsend)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被擄取國家들의 貧困은 근본적으로 國際階層化에 기인한다고 했다. 즉 被擄取國家들의 빈곤 원인을 어떤 나라의 부가 다른 나라의 빈곤과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연결되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크게 다른 세계의 각 國家들 간의 階層構造에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체제가 植民地 支配의 시대에는 공공연하게 作動했고, 오늘날에도 비록 방법이 교묘해져서 포착하기는 힘들어졌지만 貿易, 教育, 정치적 관계, 군사적 동맹, 企業들을 통해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²⁾

그러나 위의 인용문도 역시 사실일 수 없다. 가장 빈곤하고 가장 후진적인 국가들은 최근까지 외부와 경제적인 접촉을 갖지 않았고 西方世界の 植民地이기도 않았던 나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後進性은 植民地支配나 國家間 階層化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차드, 부탄, 부룬디, 네팔, 시킵 등과 같이 第3世界에서 개발이 가장 뒤진 나라들(소위 第4世界)에서는 산업화된 기업이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 대학의 학생들은 그들의 善導者들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외친다. 약 10년 전에 케임브리지大學의 한 학생그룹이 제3세계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의 글은 그 책자의 핵심 부분이다. “우리들은 말라야로부터 고무를 가져오고, 인도로부터는 차를 가

1)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57), p. 177.

2) *Concepts of Poverty* (New York: Elsevier), pp. 41-42.

져오며, 기타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원료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代價를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100년 전 영국이 아마존 정글에서 고무나무 씨앗을 가져올 때까지는 말라야나 기타의 아시아 지역에 한 그루의 고무나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대규모의 고무産業——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아시아인 소유이다——은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茶栽培가 印度에 도입된 것도 이보다 약간 일찍이 英國에 의해서였다. 茶栽培의 기원은 茶의 식물학적 명칭인 카멜리아 시넨시스(*Camellia Sinensis*)나 ‘中國의 모든 茶’라는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前 全美國學生聯盟 會長이었던 찰스 클라크는 1976년 12월에 행한 그의 연설에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英國의 産業은 해외의 低開發國들로부터 富를 수탈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산업은 저개발국가들에서 富를 수탈하기는커녕, 수탈당한 부도 가지고 있지 않은 第3世界의 광범한 지역에서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켰듯이, 低開發國에 부를 창조해 주는데 기여했다.

西方世界의 教會와 慈濟團體들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는 저명한 美國의 宗教指導者이다. 영향력 있는 改新教 雜誌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발전 억제행위에 대해서 “발전된 서방 세계가 제3세계 경제의 목을 계속 졸라 왔다”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飢餓와 不正義가 전적으로 2억 1천만 美國人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모든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奴隸制度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체제의 참여자인 것이다.”³⁾ 이러한 말들은 분명한 환상이다. 제3세계의 기근은 주로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된 지역에서 발생한다. 서방세계와의 접촉은 제3세계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기는커녕 第3世界 사람들의 평균수명

3) “How We Oppress the Poor” *Christianity Today*, 1976. 7. 16.

을 장시간 연장해 주었고, 그 이면에서 제3세계의 빈곤에 대한 비판과 軌를 같이하는 비판자들로부터 人口暴發이라는 죄명으로 개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경우가 매우 많았다.

많은 자선단체들도 서방세계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좇아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옥스팜(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ly Relief)의 略語, 1943년 英國에서 시작된 자선단체)의 1972년 선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 우간다와 같이 빈곤한 開發途上國에서 재배된다. 그러나 美國과 같이 부유한 나라들은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만큼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들임으로써 이들 빈곤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고, 이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貧國이 가지는 약점 때문에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들 빈국들이 우리로부터 사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工產品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의 회생 위에 부유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인 것이다.

비슷한 宣傳文句가 코코아에 대해서도 나왔다. 두 선전문이 모두 실질적인 그리고 잠재적인 寄附金 出捐者들의 항의에 부딪혀 곧 철회되었다. 이들 문구의 주장은 대체로 무의미하며 현실과 관계없는 것이다. 커피와 코코아의 世界市場 價格은 실제로 1970년대에 매우 높았다. 그리고 그것은 市場機構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西方世界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輸出國에서, 農民들은 市場價格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는데 이는 농민들이 매우 높은 輸出稅 및 같은 정도의 政府公課金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서방세계가 생산자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한다고 주장하면서 現地 生産者에 대한 課徵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상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西方世界の 가혹한 행위에 대해 서방세계의 죄를 주장하는 문헌들이 가지는 관심의 두 가지 예에 불과한 것이다.

大學이나 教會의 바깥에 있는 지식인들도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시릴 코넨리(Cyril Connolly)는 「**흑인의 짐(Black Man's Burden)**」이라는
題名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그들에게 가지는 것보다 더 철저한 혐오감을 갖지 않는 점
이 이상하다. ……어떤 나라를 놓고 볼 때도 탐욕적으로 위선적인 가면을 쓴 채
로, 파렴치하게 원주민 탄압이 가해졌다. 잔인성, 탐욕, 자만……등 착취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⁴⁾

이것이 옳다면 第3世界 國家들은 현재 西方世界와 접촉하기 이전보다
더 빈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빈곤을 초래해 왔다는 주장은 집단적인 자책감
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 자체도 서방세계에서 기원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經濟的 不平等은 變則的인 것이며, 不正義한 것이고, 착취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이듯이 마르크시즘 역시
서방세계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제3세계 사람들 특히 서방세계와
접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西方의 유명한 학자나 기타 지식인들에게서
들은 것을 쉽게 믿었고, 그러한 이념이 자신들의 의향과 이익에 합치했기
때문에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다.

빈곤이 서방세계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고무되어 第3世界 政治家들은
西方世界가 그들의 국가를 擄取해 왔고, 지금도 착취하고 있다고 버릇치
럼 의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그들의 틀에 박힌 去來手段이
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제3세계에서 중요 人物인 앙크루마(Kwame
Nkrumah)가 이러한 태도를 대변해 주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서방세계의 자본주의를 “소위 문명국의 일단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
해 지구인구의 광범한 대다수가 資本的으로 隸屬되고 식민지적 활동의 대
상이 되며, 擄取의 대상이 되는 世界體制”⁵⁾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앙크루마 박사가 등장할 때까지 가나(과거의 黃金海岸)는

4) *Sunday Times* (London), 1969. 2. 23.

5) Kwame Nkrumah, *Towards Colonial Freedom*(London: Heinemann, 1962),
p. 40.

가장 부유한 집단인 코코아재배 농부 및 가장 빈곤한 집단인 自給自足 農民으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 서방세계에로의 코코아 수출로 번영하고 있었다.

탄자니아의 大統領인 니에레레 박사(Dr. Nyerere)는 1975년 英國 公使訪問 중 런던에서 “富國이 貧國의 희생하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면 세계의 빈국들은 변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방세계가 19세기에 현재의 탄자니아인 탕가니카와 실질적인 접촉관계를 확립했을 때 이곳은 아랍 奴隸商人들에게 개방돼 있었고, 部族으로 구성된 낮은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이었다. 그 후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진보는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의 업적이었다. 니에레레 박사는 특히 美國과 英國에서 거의 숭배될 정도로 매우 존경받는 세계적 인물이다. 탄자니아와 다른 제 3 세계 國家들이 그들의 貧困은 서방세계의 책임이라고 하는 집요한 주장에 입각해서 그가 도덕에 호소하는 비판을 자주 내놓은 것은 罪意識을 가진 서방세계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책임감을 일깨웠다. 그가 권위를 누림에 있어서 이것이 그 한 요소가 되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⁶⁾

서방세계가 제 3 세계를 착취해 왔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은 소련 및 기타 공산국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所論의 판에 박힌 주장이다. 소련의 유명한 아프리카 문제 권위자인 故 I. 포트킨(I. Potekhin)의 主張은 소련의 경제관계 문헌들이 서방세계의 대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인용할 가치가 있다. “아프리카에 왜 자본이 거의 없다시피 한가? 대답은 분명하다. 축적자본의 원천이 되며, 進歩의 物質的 基礎로 이용되는 國民的 所得의 상당부분이 아무 代價 없이 아프리카 외부로 流出되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사실상 아프리카가 외부에 대가없이 유출한 것은 없으며, 아주

6) 런던 *Observer* 紙의 아침조석인 人物評欄에서 니에레레는 ‘聖 올리우스’로 表 現되었다. *Financial Times* 紙의 記事(1975년 8월 11일자)에서도, 니에레레를 “아프리카의 最高 政治家이며, 높은 知性을 갖춘 人物”로 묘사되고 있다.

7) I. Potekhin, *Problems of Economic Independence of African Countries* (Moscow: Academy of Science, 1962), pp. 14-15.

빈곤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가없는 외부 유출이라는 논리로 資本蓄積의 저수준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아프리카가 공급한 자원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제 3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번영하고 있는 지역은 서방세계와 가장 깊은 상업적 접촉을 가진 곳들이다.

西方世界와 第三世界의 進涉

말라야(현재의 말레이시아)의 變化는 서방세계와의 접촉이 제 3 세계에 준 영향을 잘 설명해 준다. 1890년대에 이 나라는 말레이인 촌락과 어촌으로 구성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다. 1930년대에 이 나라는 대규모 도시와 훌륭한 通信施設을 갖춘 고무와 朱錫産業이 세계적 중심지가 되었고, 말레이인, 중국인, 印度人들이 그들의 출신국이나 말라야에서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살아 왔던 것보다 더 부유하고 장수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많은 地域의 變革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서방세계와의 접촉과 함께 이루어졌다. 1890년 이전에 黃金海岸이나 나이지리아에는 코코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매우 소량의 棉花와 落花生이 생산되고 있었으며, 소량의 팜油和 팜열매가 수출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르러 위의 品目들은 모두 아프리카인에 의해 대량 생산되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무역의 주종품목이 되었는데, 이는 근원적으로 公共安을 확립해 주었고 근대적인 運輸와 通信手段을 도입해 준 서방세계 사람들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할 資本財와 大衆消費財의 수입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政府歲入, 文盲率, 進學率, 公衆保健, 平均壽命, 幼兒死亡率, 기타의 指標에 반영되고 있다.

統計 그 자체는 이 기간 동안에 서부 아프리카와 제 3 세계의 다른 지역

에서 이루어진 광범한 변화를 모두 나타내어 줄 수 없다. 예컨대 서부 아프리카의 奴隸貿易과 奴隸制度는 19세기 말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奴隸貿易은 거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야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되었다. 19세기 전기간을 통해 서부 아프리카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던 많은 최악의 전염병과 풍토병도 2차대전 무렵에 가서야 소멸하게 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 있어서도 역시 유사한 변화를 초래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물질적 진보에 있어서 서방세계와의 접촉이 수행한 역할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는 근대적 사회 경제생활의 모든 기초와 구성요소는 19세기와 20세기 동안에 서방세계 사람들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公共安全, 法律, 秩序 등과 같이 기본적인 것이다. 車輛交通 및 自動車 運送(근육의 힘—아프리카의 경우 거의 전부가 인간의 근육에 의존했었음—이 아닌 증기와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운송), 道路·鐵道 및 人工港口, 경제활동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응용, 많은 빌딩이 들어찬 도시, 정상적인 上水道 및 下水道施設, 공중보건의·병원 및 전염병과 풍토병의 예방, 정규 교육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발전은 외부와의 평화적인 접촉으로부터 結果된 것이다. 이러한 商業的 接觸關係의 定立이 가져오는 중요한 부산물의 하나는 그러한 접촉이 地中海의 奴隸貿易을 소멸시키는 것, 즉 아프리카로부터 中東에로의 노예무역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키고, 아프리카 내부의 노예제도를 소멸시키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평화적인 상업적 접촉이 地中海 奴隸貿易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에 대한 서방세계의 책임問題를 다루는 글에서 奴隸貿易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地中海 奴隸貿易이 소름끼치며 파괴적인 것이었지만, 이것이 아프리카 後進性에 한 원인으로서 정당하게 주장될 수 없다. 더욱이 제3세계 빈곤의 한 원인으로서 더욱더 주장될 수 없다. 아시아는 奴隸貿易과 전혀

관계가 없다. 中央 아프리카와 南아프리카 內部地方 및 東部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과 같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은 대부분 노예무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중해 노예무역에 가장 많이 관련되었던 지역들 특히 서부 아프리카가 근래 수십년간 블랙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이 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南東部 나이지리아의 식민지 이전 시대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노예무역에 의해 촉진된 경제적 발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노예무역이 이 지역의 충분한 經濟發展을 가져왔다”는 것과 그리하여 19세기 초에 收益性 있는 靑油 貿易이 등장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⁸⁾

아프리카와 中東간의 노예무역은 地中海 奴隸貿易보다 수세기 앞서 시작되었고,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서방세계의 죄에 대한 근래의 정치적 토론으로서 적절한 것이다. 노예제도는 지중해 노예무역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 全域에서 토착적으로 존재했었고, 궁극적으로는 서방세계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다. 아랍인들과 아프리카인들은 奴隸貿易과 奴隸制度에 罪意識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서부 유럽인들과 美國人들은 자주 죄의식을 느낀다. 죄의식은 거의 패타적인 서방세계의 특권인 것이다.

非西方世界の 移住者들——특히 中國人, 印度人, 레반트인들인데, 이들의 대규모 이주도 서방세계가 주도한 것이다——의 도움을 받은 西方世界の 활동이 第3世界の 많은 地域에서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켜 온 경우도 가끔 있다.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해서, 지난 100년간 제 3 세계 전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物質的 進歩만이 획일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역들, 특히 第3世界の 내부에 있는 지역들은 西方世界와의 접촉을 거의 갖지 못했었다. 또한 제 3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정치적·

8) David Northrup, *Trade Without Rulers: Pre-colonial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ern Asia* (Oxford: Clarendon Press, 1978), p. 176.

社會的·個人的 決定要素가 경제적 성취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정책들이 經濟的 成就와 進歩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취에 방해가 되는 態度와 道德率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며, 이를 물질적 안락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행동보다 기꺼이 선호하려 한다. 이러한 선호는 不當한 것도 아니고 비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면을 고려하는 것이 西方世界와의 접촉이 제 3 세계의 진보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왔다거나, 아니면 제 3 세계의 빈곤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결코 보증해 주지 않는다. 가장 빈곤하고 후진적인 나라들은 그러한 접촉이 없었던 나라들이다. 현지의 여건이 그것을 허용했던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서방세계와의 商業的 接觸을 통해 최악의 질병을 소멸시켜 왔고, 飢饉을 완화시켰으며, 平均壽命을 연장시켜 왔고, 生活水準도 向上시켰다.

繁榮과 貧困

第 3 世界の 貧困에 대한 西方世界の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인이나 집단, 사회는 항상 보다 덜 부유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 이룩된다는 신념의 반영이다. 즉,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所得은 그러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빼앗은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다. 실제로 몇가지 명백한 예외(서방세계와 제 3 세계와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는 있지만 소득은 所得受取者가 벌어들인——생산한——것이고, 착취에 의해——다른 사람들이 가졌거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빼앗음으로써——획득한 것이 아니다. 주로 美國式 用法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빈곤한 자로부터 收奪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빈곤한 자를 수탈당한 자로 표현하는 관행에 의해 이러한 간단한 사고도 불분명해진다. 그러나 美國人이나 스웨덴인의 소득이 파푸아의 토인이나 砂漠民, 아프리카의 피그미로

부터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들로부터 누가 그리고 무엇을 수탈한단 말인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회가 서방세계에 의해, 그리고 國籍을 상실한 西方世界人들에 의해, 특히 東南亞의 중국인이나 아프리카의 아시아人, 西아프리카의 레반트人과 같이 빈곤으로부터 성장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민족적 소수집단에 의해 착취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발언권 있는 集團의 信念이다. 이러한 오도된 관념의 호소력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관념은 실현해 줄 수 없는 번영을 약속한 정치가들에게 특별히 유용하다. 이러한 관념은 또한 그 관념에 의해 고무된 政策, 특히 풍부한 소수의 해체나 몰수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현지의 영향력 있는 집단에게 유용한 경우가 많다.

상대적 번영은 착취를 의미한다는 생각은 두 개의 영향력 있는 사조에 의해 최근 수십년간 누적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 첫째 사조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이고, 둘째가 사람들의 역량과 동기가 어느 곳에서도나 같다는 그럴 듯한 신념, 즉 억지 平等主義를 내세우는 思潮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私有資本에 대한 어떤 報酬도 榨取를 의미하며, 서비스産業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外國資本이 얻는 수입과 서비스산업에서 外國人이나 民族的 少數集團이 얻는 소득은 착취의 형태가 된다. 나아가서 신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정의에 의하면 榨取되고 있으며 착취되기 때문에 貧困한 階層——의 개념을 제 3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켜 왔는데, 실제로 제 3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경작자들이다.⁹⁾

經濟的 力量과 動機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신념도 역시 서방세계의 責任이라는 관념을 강화시켜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습관과

9) 마르크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擴大는 예컨대, 蘇聯學者인 Potekhin (前述한 註 7 參照)의 文章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 命題들은 政治的인 目的을 위해 고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된 Potekhin의 小冊子에 나오는 文章은, 아프리카에 있는 西方世界 企業들을 沒收해야 하며, 經濟活動은 集團化해야 한다는 指畵——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指畵이다——에 곧바로 연결된다.

동기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데, 어떤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풍부하다면 이것은 보다 풍부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착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西方世界の 대중들은 제 3 세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방세계가 제 3 세계의 빈곤을 초래했다는 관념이 널리 인정되었다. 우리들의 문제는 無知가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명제가 너무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萬民平等主義의 등장이 西方世界の 搾取라는 관념을 강화시켜 준다. 이러한 관념은 내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慣行, 즉 貧困하거나 後進的인 社會를 수탈당한 또는 權利를 못누리는 사회로 묘사하는 慣行의 支援을 받아 더욱 강화된다.

植民主義와 貧困

第3世界の 貧困에 대한 西方世界の 責任이라는 관념의 배후에 있는 주요한 가정은 변형이 일반적으로 착취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변형이나 여기서 유도된 주장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고무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들 중의 하나가 植民主義가 아시아·아프리카의 貧困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植民主義에 대한 적대감이 강한 美國에 있어서 이 주장은 특별한 호소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실제로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이 주장은 가장 앞선 脫植民主義 勢力인 英國에서도 罪意識을 불러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때가 자주 있다.

植民主義의 의미가 무엇이든지간에 제 3 세계의 빈곤을 植民主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가장 후진적인 국가들 중의 일부는 결코 植民地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티벳, 네팔, 리베리아가 그렇다. 이디오피아는 아마도 훨씬 더 효과적인 예가 될 것이다(이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단지 6년 동안만 이태리의 식민지였다). 더우기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식민지 통치하에서 매우 급속도로 발전했고, 같은 지역의

獨立國家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현재 소수의 유럽 식민지 중의 하나가 홍콩이다. 홍콩의 번영과 발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알려질 것이다. 서방세계의 번영은 植民主義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가장 풍부하고 발전된 나라로서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식민지를 갖지 못했었다. 어떤 나라들, 예를 들어 北아메리카, 호주는 다른 나라의 植民地이기도 했으며, 植民地 狀態에서도 이미 크게 번영하고 있었다. 서방세계의 번영은 다른 지역들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고 自國民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그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식민지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최근에 植民主義가 제 3 세계의 빈곤을 초래해 왔다는 비난은 확장되어 <모든 形態의 植民主義>를 겨냥하게 되었다. 外國人 投資, 多國籍企業의 活動,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과 貧困한 지역 및 집단 간의 모든 經濟關係를 포괄하기 위해 <經濟的 植民主義(economic colonialism)>, <新植民主義(neocolonialism)>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는 學術的 文獻과 言論媒體 모두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빈곤과 공식적인 政治的 主權의 不在를 의미하는 식민지 상태를 혼동케 하고 있다. 제 3 세계 貧困의 원인으로서는 <모든 형태의 植民主義>를 다루는 것이 UNCTAD 會議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념이 직접적으로 公式化(정상적인 경우, 學術文獻이나 公式文獻에서 훨씬 더 우회적인 形式으로 표현된다)되어, 英國의 자선단체인 워 온 윈트(War on Want)에서 발간하는 『貧困과 權力(Poverty and Power)』誌의 1978년 6월호 게재 소논문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제 3 세계의 빈곤을 과거의 植民地的 掠奪과 현재의 新植民主義的 收奪의 결과라고 본다.”

西方世界에 의한 第 3 世界の 擄取라는 주장이 新植民主義나 經濟的 植民主義로 이행한 것은 레닌주의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레닌주의에 의하면 식민지적 상황과 外國人 投資는 그 용어의 정의상 擄取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소련학자 포트킨의 저서에서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한 移行의 배후에 있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政治的 植民主義의 消滅과 西方世界, 특히 美國을 비난하는 자들이 기존 용어의 利點을 살리면서 동시에 비난의 새로운 근거를 찾아낼 필요성이었을 것이다.

外國人投資와 多國籍企業의 활동은 제 3 세계에 기회를 확대해 주었고, 所得과 政府收入을 증가시켜 왔다. 경제적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언급은 모두 용어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진실을 왜곡한다.¹⁰⁾

外部와의 接觸과 第 3 世界の 進歩

第 3 世界の 交易條件이 불리한 상태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가무역의 전개가 제 3 세계에 손실을 주도록 서방세계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데 있다고 한다. 또한 交易條件의 악화는 제 3 세계의 대규모 外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결과 중의 하나인 世界貿易에서 第 3 世界の 비중 감소와 같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무의미하며 근거가 없고 사실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교역조건은 제 3 세계의 빈곤과 관련이 거의 혹은 전혀 없다. 가장 빈곤한 지역들은 對外貿易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後進性의 원인이 국내적인 요인에 있으며, 외부와의 상업적 접촉은 이익이 됨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제 3 세계에서 交易條件은 그들 발전의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因子이지만 그것이 불리하거나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사태가 곧 對外貿易이 제 3 세계에 손실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보다 유리한 交易條件下에서 얻을 수 있

10)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근의 例가 야아틀라 호메이자가 1979년 1월에 행한 發言이다. “우리 國民들은 그것(植民地 支配)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우리들의 例를 본받아서 다른 나라들도 植民地的 束縛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Daily Telegraph*, 1979년 1월 10일자에서 引用했다. 이란은 오랜 歷史 가운데서 西方世界の 植民地이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는 만큼의 큰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3 세계 국가들은 交易條件上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對外貿易이 없다면 더욱 빈곤해질 것이다.

제 3 세계는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모두의 交易條件을 集計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 제 3 세계 國家들이나 國家群들의 交易조건은 다른 國家들의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변하며 또 간혹 반대방향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잘 알려진 예로는 OPEC의 油價 引上이 많은 제 3 세계 국가들에게 큰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품의 生産費用 변화, 輸入品の 種類와 品質, 交易量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된 交易조건의 변화가 그 나라의 福祉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交易條件의 變化가 발전과 후생에 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1單位의 國內 資源으로 구입 가능한 輸入品の 量인데, 이것은 輸入品과 輸出品の 價格比로는 측정될 수 없다. (專門的인 表現을 쓰자면 경제적 후생과 발전에 대해 의미를 갖는 비교는 單純商品 交易條件(crude commodity terms of trade)이 아니고 要素 交易條件(factorial terms of trade)이라는 것이다). 더우기 <불리한 交易조건>과 같은 표현은 交易條件 論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의 고려없이 는 무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십년 간 제 3 세계 국가들의 單純商品 交易條件은 이데적으로 유리했었다. 生産費의 변화, 수입품의 구성과 품질의 대폭적인 개선, 交易量의 대폭적인 증가가 고려된다면 제 3 세계 수출품의 對外的 購買力은 전체로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있고 아마도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태는 정부가 使用料, 輸出稅, 法人稅의 증대를 통해 수출에서 얻은 수입의 보다 많은 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 많은 제 3 세계 국가에서 이러한 엄격한 稅金은 가격의 상승과 함께 增加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보면 그들의 생활수준은 차치하고라도 한 나라의 交易條件이 사람들의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것이 대외무역의 목적이다)을 결정하는 전적인 요소가 아

나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또한 제 3 세계의 交易條件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주장은 교역조건의 악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나 경과 또는 交易條件의 惡化가 지속되었던 기간을 상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마도 이러한 사태가 교역조건이 제공수준으로 하락하기 이전에 반드시 종식되기 때문일 것이다.¹¹⁾

世界貿易에서 한 국가 또는 일군의 국가들의 占有率 減少는 그것이 다른 지역의 경제활동과 무역의 확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다른 지역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占有率이 하락한 국가에 손실이 아니고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보면 1950년대에 日本의 對外貿易 대폭 증가, 유럽의 재건, 유럽 域內貿易의 自由化가 英國·美國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의 世界貿易에서의 占有率을 하락하게 했다. 더우기 외부환경과 무관한 국내적인 발전——예컨대 기존에 수출하던 품목의 국내이용 증가, 국내의 인플레이션, 수출업자에 대한 특별과세, 保護主義 政策의 강화 등——도 한 국가 또는 일군의 국가들의 占有率을 하락시킨다. 최근 수십년간 總世界貿易에서 제 3 세계의 占有率은 실제로 다른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해 왔다. 물론 그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현재의 제 3 세계를 구성하는 지역들이 西方世界の 支配를 받아 對外貿易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역시 대폭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만일 國際貿易이 제 3 세계의 국민들에게 손실을 준다는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제 3 세계의 세계무역에서의 占有率 감소가 제 3 세계에 이익이 될 것이며, 제 3 세계가 최소한 서방세계와는 對外 經濟關係를 갖지 않게 되었을 때 궁극적인 經濟的 幸福이 달성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해야 하는 것이다.

제 3 세계의 外債는 제 3 세계에 공급되는 자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제 3 세계 정부들의 經常負債는 軟貨借款이며, 매우 조건이 좋은 軟貨借款

11) 이러한 主張들을 지지하기 위해 외형상 그럴 듯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論議의 對象이 되고 있는 總額이나 期間에 변동이 있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Dissent on Development*의 第6章 “A Critique of UNCTAD”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인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각종의 援助協定에 의해 그리고 直接的인 贈與에 의해 보조를 받는 경우도 많다. 제 3 세계를 포함한 세계적인 物價騰貴에 의해 이들 通貨차관의 부담은 크게 감소되어 왔다. 負債償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은 외부의 착취나 交易條件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된 자본의 낭비적 이용이나 부지합한 財政金融政策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제 3 세계 국가들의 고질적인 收支赤字는 西方世界에 의해 그들이 착취되고 있거나 폐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빈국이든 부국이든 혹은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든 정체하고 있는 나라이든 지간에 어떤 나라가 過大評價된 換率을 유지하면서 自國의 資源制約 이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인플레이 政策을 추구할 때는 그와 같은 赤字가 불가피하다.

외국으로부터의 저렴한 競爭財 수입에 따른 특정한 경제활동의 몰락——예를 들면 18세기 印度의 纖維工業과 같은 경우——이 對外貿易의 害毒事例, 즉 서방세계의 책임으로서 인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주장은 한 경제활동의 몰락과 전체로서의 경제의 몰락을 동일시하고 있다. 저렴한 輸入品은 빈곤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選擇의 범위와 經濟活動의 機會를 확대시켜 준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경제활동의 확대 및 발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3 세계 국민들이 이러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頭腦流出, 즉 제 3 세계에서 유능한 인제가 서방세계로 이주하는 것이 제 3 세계의 貧困, 停滯에 대한 서방세계의 책임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들보다 다소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비난을 유효한 것으로 하지는 못한다. 대다수 이주자들에게 대한 교육은 서방세계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 더우기 個人的인 貧困이나 經濟的 後進性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定規教育은 불가결한 수단도 아니고 중요한 수단조차도 되지 않는다——實例로서 많은 제 3 세계 국가들에서 교육받지 못하거나 文盲인 사람들이 급속한 속도로 부유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제 3 세계 정부들이 모험적이고 재능있는 사람들(경제적으

로 가치있는 자격을 갖춘 많은 정칙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을 강제로 出國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추방시키는것, 그리고 少數民族 集團과 種族集團을 차별하거나 외국인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 등이 두뇌유출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에 장애가 된다. 더우기 移住者들 중 다수는 그들의 정부가 그들의 능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 3 세계의 사회로부터 생산적인 人的 資源을 유출시키는 것은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政府인 것이다.¹²⁾

西方世界와 제 세계의 접촉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적인 견해는 西方世界가 민족적 차별을 통해 第3世界에 손실을 주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방세계인에 의해서 그러한 차별이 이루어졌던 국가들이 바로 서방 세계와의 접촉에 의해 物質的 進歩가 시작되고 촉진되었다.

第3世界에서 가장 후진적인 집단들(土人, 砂漠人, 遊牧民, 기타 部族民들)은 유럽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民族差別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반대로 불리한 民族差別이 자주 행해졌던 共同體——東南아시아의 中國人, 東南아시아의 印度人 기타——들은 크게 발전해 왔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피부색, 종족에 의한 차별은 유럽인들이 발명해 낸 것이 아니고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특히 印度에서 수세기 내지는 천 년의 기간에 걸쳐 토

12) 1979년 7월 22일자 런던 *Observer* 紙의 한 記事——「보우트 피플(boat people)의 '頭腦流出'이 베트남에 損失을 주다」라는 題下의 記事——에서 베트남으로부터의 難民들은 그들이 새로운 社會主義 秩序에 적응할 수 없다는 利己的인 非愛國的인 이유 때문에 떠나왔고, 예컨대 美國과 같은 다른 地域에서 더 많은 收入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自發的인 탈출은 頭腦流出의 한 例로서 그들 국가(베트남)가 醫療活動 기능을 포함하는 經濟的 機能들을 상실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실제로는 잔인한 大量 追放인 이 事態를 묘사함에 있어서 이 記事는 脫出, 喪失——분명히 오도된 언어 사용이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렇지만, 難民들이 단순히 海外에서의 보다 높은 收入에 매력을 느꼈다면 그들은 보다 일찌기 아주 위험없이 떠났을 것이다. 실제로 이더한 성격의 難民이 수십만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大量 飢饉은 잘 알려져 왔고 政府조차도 인정해 왔다. 뿐만 아니고 難民의 많은 數가 脫출과정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Observer* 紙 記事의 시사점은 위양만 그런쌀 뿐이고, 실제로는 애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우연하게도 과거 印度支那에서의 醫學教育은 대부분 프랑스에 의해 조직되고 시행되었던 것이다.

착각으로 있어 왔던 것이다. 유럽인에 의한 어떤 民族差別도 많은 독립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들이 種族集團이나 部族集團에 대해서 가했던 대량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탄압과 비교하면,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외부와의 商業的 關係가 제 3 세계 사람들의 발전과 생활수준에 해롭다는 주장은 變則的이고 倒錯的이기조차 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輸出市場을 열어주고 대량의 다양한 輸入品을 공급하며, 人的資源, 金融資源의 유입과 새로운 思考方式, 方法論, 耕作法의 유입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제 3 세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특히 오늘날 최근 수십년간에 있어서 世界貿易의 급속한 팽창과 서방세계에 있어서의 技術發展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物質的 利益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관계가 해롭다는 주장은 이러한 관계의 정도와 다양성의 공식적 제한을 위한 그럴듯한 변명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것이다.

서방세계와 제 3 세계간의 經濟關係가 갖는 기본적 현실은 정부 및 엘리트(특히 소위 말하는 進步的인 政府와 엘리트)와 전체로서의 국민을 혼동하는 慣行——현대의 開發理論 文獻에 자주 등장——에 의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많은 제 3 세계 정부들과 그들의 현지 협력자들은 실제로 국민들의 對外的인 商業的 接觸을 제한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며, 국가에 의한 經濟統制를 시행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보면 對外的인 商業의 制限은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들에 대한 統制力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해주며, 지배자들에게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현지의 발언권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들도 역시 제 3 세계 經濟에 대한 統制를 組織化하고 管理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익을 누린다. 이러한 현실은 어떤 주장, 예컨대 西方世界가 第 3 世界 國家들에게 수입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폭로된다. 물론 여기서 그들의 국민이 요구하는 輸入을 반대한 것은 지배자들인 것이다.

對外貿易,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해롭다는 주장은 일반대중에 대한 알파하게 위장된 오만이며, 그들에 대한 경멸이기조차 한 것이다. 국

민들은 물론 수입을 원한다. 만약 그들이 수입을 원치 않는다면 수입품은 판매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국민들은 輸出을 위한 生産을 할 準備가 되어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輸入品에 대한 對價 支拂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해롭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選好가 그들 자신의 생활을 組織化하는 데 아무 중요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西方世界 活動의 衝擊

서방세계 사람들의 존재나 일상적인 활동이 단지 그 자체로서 제 3 세계에 해로우며 종종 극단적으로 해로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된다.

西方世界에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고, 第3世界 사람들에게도 이용가능한 저렴한 消費財들은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展示效果에 의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제 3 세계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은 발전의 기준으로서의 消費水準과 選擇可能性의 확대를 간과한 것이다. 그러나 經濟發展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구체적인 展示效果의 피해라는 관념은 또한 개발의 수단으로서 외부와의 접촉이 수행하는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消費財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勞動, 貯蓄과 投資의 증대, 販賣를 위한 生産의 準備 등과 같은 보다 개선된 경제적 업적이 요구된다는 사실을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간략히 말하면 그것은 보다 높은 消費水準과 보다 다양한 소비가 물질적 진보의 기본적 正當性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보다 나은 經濟的 進歩에로의 誘因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¹³⁾

13) 公的인 次元에서 有害한 國際的 展示效果가, 公的 資金에 의해 資金이 調達되는 전시용 프로젝트와 부적합한 技術의 採擇을 조장함으로써 發生할 수도 있다. 그러나, 國際的인 展示效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想定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第3世界 政府들이 부적합한 外國의 모델을 援用하는데 대해 西方世界를 비난하는 것도 역시 부당한 것이다.

國際的 展示效果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견해는 西方世界 消費財가 제 3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서방세계의 營利活動에 의해 발생한 文化的 從屬性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시사하는 것은 제 3 세계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소득을 최선의 방식으로 지출할 방도를 결정할 능력이 없고 외국인에 의해 마음대로 조종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 3 세계에서 서방세계의 財貨가 無差別的이 아니고 選別的으로 수용되며, 이들 재화는 제 3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어 왔다.

第 3 世界の 文化的 從屬性에 대한 비난이 特許法에 의해 서방세계의 기술이 제 3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제 3 세계에 손실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더욱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리하여 서방세계의 財貨供給과 통상적인 서방세계 財貨의 保有가 모두 해로운 것으로 주장된다.

서방세계에서 통상적으로 주장되는 바, 浪費的 消費習慣과 環境의 汚染 및 破壞는 놀라운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테올로기적인 목적에 어거지로 이용되어 왔다. 美國의 1人當 食糧 및 에너지 소비는 印度의 數倍에 달하며 따라서 美國의 소비자는 그 배수만큼의 印度人을 대량으로 掠奪하고 있다는 것이 標準公式이다. 예를 들면 開發理論家 그룹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인 티버 멘디(Tibor Mende)교수는 “어떤 추정에 따르면 미국인은 각자——소비자와 오염 발생자의 한 사람으로써——인도인의 25배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썼다.¹⁴⁾

어린이들조차도 서방세계의 罪意識을 고무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부른 배를 가진 어린이의 사진은 잘 알려진 것이다. 「초부호들의 탐욕」이라는 題下의 런던 『선데이 타임즈(Sunday Times)』紙記事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美國 어린이 한 사람은 印度 어린이의

14) *Newsweek* 1972년 10월 23일자에서 引用. 美國人 개개인을 生産者가 아니고 消費者와 汚染發生者로 서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것. *Newsweek*의 표현에 따르면, 멘디教授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世界的인 權威者의 한 사람”이다.

50배에 달하는 世界資源을 소비한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의 밀 수요는 유럽 국가들이 가축 먹이로 매년 사용하는 밀의 20분의 1이면 충족될 수 있다.”¹⁵⁾

서방세계는 지금 食人들과 다름없는 대규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유명한 프랑스 農業經濟學者이며 國際機構의 고문인 르네 뒤몽(Rene Dumont)教授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肉類를 過剩消費함으로써 그들을 구할 수도 있었던 穀物을 낭비해 버렸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아프리카 사헬,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의 어린아이들을 먹어 왔던 것이다.”¹⁶⁾ 이 괴상한 주장은 서방세계에서 광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켜 왔다. 『가디언(Guardian)』紙의 유명한 寄稿家인 질 트위디(Gill Tweedie)의 글을 인용해 보자. “世界人口의 4분의 1은 나머지 4분의 3을 죽임으로써 분자 그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¹⁷⁾ 『가디언』紙에서 특종 기사로 크게 다루어진 또 다른 기사에서 “人類의 4분의 3은 그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富가 美國, 유럽, 日本의 소수 계층인 階級과 런던, 뉴욕 기타 西方世界에서 豪商의 지위를 누리는 돈장사들——이들은 세계의 農民과 勞働者들로부터 약탈한 이윤으로 살아가고 있다——을 먹이고 임히며 보호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구걸과 빈곤, 죽음에 직면하여 왔다.”¹⁸⁾ 이처럼 냉소적인 표현은 이외에도 다수 더 인용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수준 높은 言論媒體에서의 그러한 표현은 현재의 지적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西方世界는 第3世界의 기준을 초래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거래가 없는 後進地域에서 발생해 왔다. 對外貿易上의 연결관계가 없는 것이 이들 지역의 후진성의 한 측면이 되는 경우가 많다.

15) 1978년 8월 20일자.

16) *Commentary* 誌의 1975년 3월호의 「反撥에 직면한 美國」이라는 글에서 Daniel P. Moynihan 이 引用한 文句이다.

17) 1977년 1월 3일자.

18) 1979년 6월 11일자. Ngugi Wa Thiang'o 가 쓴 글이 케냐에 대한 특별한 譏刺報告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때때로 그것은 貿易業者들 특히 土着民이 아닌 무역업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간혹 私有財産에 대해서조차도 적대적인 지배자들의 정책을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빈약한 通信施設과 公的인 무관심 및 적대감 때문에 사헬 지역의 일부에 대한 緊急 物資供給의 分配가 곤란에 처했었음이 밝혀져 왔다.¹⁹⁾

이 節에서 지적된 각종의 주장과 비난들은 서방세계의 소비활동이 對外 援助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외 투자와 자체의 消費資金을 조달하는 서방세계의 生産活動으로부터 더 많은 代價를 요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서방세계의 1인당 소비뿐 아니라 1인당 생산도 대부분의 第3世界보다 높은 것이다. 높은 수준의 소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생산한 것을 약탈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第三世界の 政治化

서방세계는 실제로 일반적인 주장과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제3세계의 빈곤 구제에 기여해 왔다.

2차대전 이후에 西方世界の 활동은 제3세계의 경제생활을 政治化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英國의 植民地 支配가 끝나는 시간부터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부의 전통적인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적 통제를 위해 포기되었다. 이러한 政策變化의 결과로 極東과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英國 植民地에서는 기존의 정부 統制經濟의 골격을 가진 또는 독재적인 국가가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원조를 지지하는 어떤 기질과 원조의 分配 基準에 의해 강화된 西方世界の 第3世界에 대한 공적 원조 시행은 역시 제3세계 생활의 政治化에 기여해 왔다.

19) 西方世界가 이러한 地域들의 人口를 영구적으로 扶養하려고 시도한다면, 西方世界の 消費者와 納稅者들이 지불할 費用과 이에 대한 그들의 反撥은 별도의 것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扶養試圖는 이들 地域에서 農業發展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統制는 자원을 낭비해 왔고 社會·經濟的 稼動性과 외부와의 접촉을 제약해 왔으며, 격렬한 정치·사회적 투쟁을 자극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빈곤과 커다란 고통까지도 야기시켜 왔다. 많은 第3世界の 獨立政府들은 經濟의 政治化가 支配者의 권력을 크게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아마도 그들의 經濟를 광범하게 政治化 하려고 시도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西方世界の 영향과 援助가 없었다면 최근에 그들이 성취한 만큼 전진하지 못했거나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서방세계의 罪意識을 설명하는 주장들을 유효하게 하여 주지는 못한다. 植民地 支配와 서방세계의 제3세계와의 접촉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비판은 광범한 經濟的 統制와 제3세계에서 다른 형태의 생활의 정치화를 증점적으로 강조해 왔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이 사실은 植民地 政府와 西方世界の 影響力이 그러한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해 왔었다.

第三世界에 대한 讓步

제3세계의 빈곤에 대한 서방세계의 책임을 집요하게 되풀이하여, 추궁하는 주장은 비록 근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어 왔다. 이러한 효과가, 西方世界 政府들이 第3世界 政治人들의 근거없고 공격적인 발언들을 지지해 주고 시인해 준 이유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後進的 國民들로 구성되고 희박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대표적 성격도 없는 경우가 보통인 정부에 것처럼 빈번히 고개를 숙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西方世界の 責任과 罪意識에 대한 주장은 第3世界에 대한 양보와 밀접히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특색이 없고 획일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무리들로 투영된 第3世界の 이미지가 이러한 양보의 한 요소를 이룬다. 그것은 제3세계의 개인과 사회의 主體性, 個性, 人格, 責任能力을 부정하는 판에 박힌 전형적인 모습

을 반영하고 있다. 제 3 세계는 서방세계나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일단의 西歐化된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정의되기 때문에 第3世界가 모두 대동소이한 세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罪意識을 가진 商人들은 제 3 세계를 무차별하고 어찌할 도리없이 환경의 지배하에 그리고 강력한 서방세계의 처분에 맡겨진 피동적인 존재로 거듭해서 과악하고 있다. 내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글에서 시린 코넨리는 極東까지 포함하여 아프리카—아시아도 마찬가지로—를 西方世界에 의해 착취당하는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와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서 말하는 것은 수백만의 사람들, 특히 대다수의 印度人, 中國人, 아랍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케임브리지의 팜플렛에서도 “세계 인구의 반은 아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땅에서 생존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조소적이고 保護者然하는 표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논리들이 성립된다. 유일한 가치있는 교육은 서방세계의 定規教育밖에 없다. 그러한 교육이 없이는 사람들이 文明化되지 못하고 경제적 희망도 가질 수 없다. 中國과 印度의 문화, 또는 많은 第3世界 국민들의 진보는 西方世界の 교육이 없다면 進歩 역시 없었을 것이다.

第3世界는 宗教, 文化, 社會制度, 個人的 개성과 동기, 政治體制, 經濟的 態度, 物質的 成就, 進歩의 速度, 기타 다른 많은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는 사회들의 방대하고 다양한 집합이다. 물질적 성취도의 측면에서 第3世界는 아프리카의 砂漠民에서부터 아시아의 부유한 企業家나 라틴아메리카의 영악한 産業家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파푸아 사람들이나 다른 많은 地域의 토인들의 석기시대 문화에서부터 아시아, 中東의 대표적인 고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東南亞의 中國商人, 인도네시아의 농민, 印度의 村民, 아프리카의 部族社會, 풍부한 기쁨을 가진 中東의 아랍人,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도시 주민 등을 한 덩어리로 묶는 것은 保護者然하는 戲畫化이다.

나아가서 西方世界の 罪를 주장하는 견해의 대변자들은 第3世界の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경제적 상황이 서방세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호자처럼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과거의 서방세계에 의한 착취가 제3세계의 後進性を 설명해 주고, 서방세계에 의한 國際貿易의 조작과 다른 형태로 서방세계의 비행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심화돼 가고 있는 貧困을 설명해 주며, 제3세계의 경제적 미래는 주로 西方世界の 援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대체로 우리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며, 이점이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질 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罪와 讓步의 이상한 혼합은 많은 第3世界 政府의 잔인한 정책에 대한 容認이나 支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3세계의 지배자들은 그들이 서방세계에 의해 주어진 전례를 따를 뿐이므로 실제로 罪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第3世界の 支配者도 국민도 그들 자신의 의지나 의견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서방세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被造物로 파악되며 기껏해야 주위환경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이 그들은 모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잘못을 그들이 報償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만 한다. 경제원조는 또한 어린이를 양육하는데도 역시 필요하다. 같은 논리에 의해 제3세계의 가장 공격적이고 근거없는 발언들은 진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것들이 단지 第3世界の 發言(이는 서방세계의 그들에 대한 지지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온 변혁장이다.)이기 때문이다.

西方世界の 對外援助 문제는 서방세계의 罪를 다루는 최근의 文獻에서 주요한 테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對外援助가 保護者然하는 것과 관계되든 혹은 아니든간에(관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서방세계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그것 하나만으로는——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援助의 供與를 실시하도록 주장할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

다. 이러한 주장은 援助가 受援國에 주는 영향과 受援國 政府의 행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게 만든다. 이 주장은 이러한 西方世界의 援助가 가져올 가능한 정치·사회·경제적 결과를 윤곽만이라도 검토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주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원조가 주는 효과가 아니고 서방 세계의 자원을 방기하는 데 있다.

西方世界의 죄에 대한 반복된 주장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責任感과 罪意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에 의해 고무된 정책이 초래할 효과가 아니고 자신들의 정서적 상태와 그들의 동료 시민들의 정서적 상태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西方世界의 죄에 대한 주장의 배후에 있는 주된 觀念, 즉 서방세계가 第3世界의 희생자에 번영해 왔다는 관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특히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 해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討 論

질문 : 現代社會에서의 宗教의 쇠퇴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귀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하가 설명한 '보다 작은 權利밖에 누리지 못하는 少數'에 대한 對外援助와 그들에 대한 國內의 補助에 관해서 행한 설명간에 어떤 관련, 즉 貧者를 위한 福祉라는 것이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 귀하의 원칙과 설명을 무대를 바꿔 國內의 (貧者에 대한) 補助에 적용해 줄 수 있겠는가?

바우어 : 무대를 바꿀 수 없다. 對外援助와 國內적인 福祉制度 간에는 확실히 많은 類似性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美國의 福祉制度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과 納稅者 등은 대체로 비슷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對外援助는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원조가 정부간 移轉으로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외국정부에 돌아간다. 福祉制度上的 지분은 福祉制度 受惠者들에게 돌아간다.

차이점은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앞에서 가장 生産性이 높은 시민들을 추방하고 부인들이 보수를 받는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물의 신성한 생명을 빼앗는 것을 꺼려하는 나라의 정부를 돕기 위해 미국의 남녀 시민에게 稅金을 賦課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다. 印度에서 소를 神聖視하는 것은 단지 극단적인 예일

뿐이다.

세계 전체를 볼 때 사회·정치적 그리고 물리적 상황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생활상의 욕구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복지제도와 對外援助가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對外援助를 단순히 국내 복지제도 세계에로의 연장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질문 : 귀하는 對外援助가 換率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誘發한다고 말했다. 또한 援助가 경제에 대한 國家統制를 초래하고 그들 국민에 대한 政府統制를 크게 강화시켜 준다고 말했다. 귀하의 논리를 국내의 상황에 국한시켜 볼 때 國內 福祉, 즉 권리를 적게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補助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정부의 經濟統制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지 않는가?

바우어 : 그렇다. 여기서도 양자 간에 또 다른 명백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또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내적인 福祉制度의 경우 외부와의 換率 같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稅金은 달러로 거둬들여지고 福祉 受惠者도 달러로 받거나 食糧卷으로 받는다. 通貨의 交換問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규모 福祉費用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질문 : 귀하는 세계의 절대적인 富와 貧困에 초점을 맞추면서 西方世界가 第3世界의 빈곤을 초래하지 않았다——그 이유로, 서방세계와 접촉을 갖기 이전과 이후의 제3세계를 보면 그때에도 실질적으로 서방세계가 더 풍부했음을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주장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의 실제로부터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게 만드는 抽象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

귀하의 논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類推의 하나를 보자. 그것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최초 출발점이나 다른 상대적인 출발점과 비교할 때

오늘날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보다 경제적 기회의 측면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 대한 그와 같은 평가는 기존의 상황을 변혁시키는 전적으로 새로운 북아메리카의 生活構造가 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귀하의 그러한 주장은 남아프리카共和國의 흑인들이 就業機會, 保健管理, 住宅 등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타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고 있다——이 점은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共和國 白人들의 주장과도 역시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문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나 남아프리카共和國의 흑인들이 그들 자신을 이전의 그들 최초의 출발점이나 다른 아프리카의 흑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때보다 혹은 남아프리카共和國 이외의 黑人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경제적 지위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經濟構造와 그들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세계의 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귀하의 절대적 貧困에 대한 주장에서는 비교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인 正義와 不正義가 무시되고 있지 않은가?

바우어 : 나는 서방세계와의 접촉이 第3世界 사람들을 황폐화시켰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에 언급했다. 특히 墾職者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방세계와의 접촉이 제3세계 사람들을 황폐화시켜 왔고 그들의 물질적 진보를 방해해 왔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이 신증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해 왔다. 또한 서방세계의 접촉은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친절을 가장한 傲慢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러한 주장이 제3세계 사람들이 서방세계의 財貨를 구입하거나 서방세계로 가는 輸出品을 생산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3세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서방세계의 변영에 분개하지 않는다. 서방세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다. 이러한 주장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즉, 미국인의 번영과 아마존 인디언의 번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디에 부정의가 존재하는가? 아마존 인디언들은 우리들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곳에는 왜 選擇의 여지가 없는가? 그곳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體制에 참가하고자 할 것이고, 우리와 交易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들과 交역을 하고 西方의 商業體制에 서서히 참가하는 것을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가를 외부에서 들여다보면 분간하기 어렵다.

黃金海岸에 처음 코코아나무를 심은 뒤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서부 아프리카 식민지의 수백만 에이커의 땅에 아프리카인들이 코코아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1880년대에는 거의 없었다. 코코아나무는 수확기에 이르기까지 6년이 필요하며 따라서 코코아나무를 심는 사람은 누구든 6년 앞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西方世界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시야를 갖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질문 : 나는 귀하가 방금 말한 것에 동감인데, 이는 귀하의 주장이 최근에 내가 읽은 바 있는 칼 라너(Karl Rahner)의 권력의 보다 정당한 사용과 덜 정당한 사용에 관한 어떤 神學理論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 가능성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권력의 사용인 것이다.

나는 귀하가 植民主義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앞에서 말한 바를 도미니카共和國의 多國籍企業, 즉 걸프(Gulf & Western)社의 특정한 경우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걸프사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우리 敎團은 1940년대 이후부터 도미니카共和國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와 知면을 갖게 된 사람들 중의 일부는 지각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植民地 歷史 때문에 걸프社는 최적 이하의 환경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집권정부는 독재적이고 억압적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정부와 걸프사는 어떤 연결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많은 經濟的 利益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걸프사는 資本投資額의 일정한 比率만을 本國에 송환하도록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이 섬에 대량으로 投資하는 것은 자유롭게 방치해 두었다. 그런데 걸프사는 도미니카共和國의 경제와 관련시켜 볼 때 매우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의 완전한 투자는 이투자가 없었다면 왕성하게 발현되었을지도 모르는 土着의인 事業家들의 主導權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당시 식량소미로 쓰여졌어야 할 사탕수수 栽培, 換金作物 栽培, 土地의 이용 등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었다. 코코아나무를 기르고 西方世界와 거래하는 南아프리카共和國의 農民들은 누군가에게 雇傭돼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仲介機構를 통해서 거래해야만 했다. 도미니카共和國의 농민들은 걸프사에 고용되어 있었고 이 회사의 주택에 살기조차 하며, 이 회사의 상점과 거래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다.

이와 같은 시간상의 우연의 일치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지배적인 상황 때문에 多國籍企業은 그 자체의 존재가 經濟活動의 밑바닥에서 國民의 自由를 제한할 수 있었다. 여기에 貧困의 內部化가 가세한다. 귀하는 앞에서 貧困한 사람들은 성공하고자 하는 경제적 충동과 성취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태가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면에선가 무력하고 資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도미니카共和國에서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福券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權力을 장악한 獨裁者의 호의를 사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多國籍企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우어 : 많은 第3世界 國家에서 내가 내 자신의 食糧을 직접 栽培하는 대신

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食糧作物 대신에 換金作物을 栽培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소액에 불과하지만, 月給을 벌어서 商店에서 식품을 구입함으로써 내가 자신이 직접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잘 살고 있다. 西部 아프리카의 코코아 생산자와 東南아시아의 고무 생산자들은 食糧作物 耕作에 종사하는 것보다 이들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훨씬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귀하는 결프르가 도미니카共和國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광범한 가능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 나의 질문은 罪意識을 유발하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깊은 죄의식을 반영하는 주장에 대해서 서방세계 사람들이 민감한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귀하의 설명에서 그러한 주제가 계속 등장하는데 충격을 받았으며, 그것이 美國 文化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종교적인 국민으로서의 미국인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럽다.

세계의 종교 중에서 基督教精神이 罪 그리고 깊은 罪意識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주 언급되어 왔다. 귀하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죄의식의 정상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우리의 정서적 태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심애의 호소가 갖는 실제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하게 취급되고 있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깊고 심원한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는가?

바우어 : 이 문제는 개인적인 責任意識 및 罪意識의 쇠퇴와 결부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집단적인 죄의식과 이러한 감정의 일반적이고 내용 없는 정상화는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의 쇠퇴에 의해 초래된 공백을 메꾸려 해 왔다.

질문 : 多國籍企業이 그들의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국민들의 기회의 자유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지의 억압적인 정부를 다루는 전략을 세

우는 데 있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착상력이 부족했었다고 귀하는 생각하는가?

바우어 : 대규모 多國籍企業들은 현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활동은 그들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정당하다.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부당한 정치적 간섭자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귀하의 질문과 그 질문의 배후에 있는 비판적 논점은 다국적기업이 항상 비판대에 올라 있다는 것의 한 가지 예가 된다. 多國籍企業은 정치에 관여해도 또 그 밖에 서 있어도 非行을 저지를 것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다.

多國籍企業과 世界經濟發展

R. H. 존스

R. H. Jones

組合教會派(Congregationalist persuasion)의 활동적인 平信徒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삶과 직업의 宗教的 價値를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는 나 자신이 항상 成功해 온 것은 아니었지만 노력만은 진지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기업의 重役으로서, 계급으로서의 기업가 특히 대기업가들을 비난하는 宗教團體들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런 단체들의 代辯者들 중 일부는 자기들의 마음 속에 아무런 寬容심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독선적인 위엄을 과시해 왔다. 내가 道德的·宗教的 觀點에서 현대 기업들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려는 데에는 基督教徒로서 또 教會의 표적으로서의 두 가지 이유가 있다.

營利行爲는 邪惡한 것인가

누구나 한두 번 씩은 영국의 전원묘지에 있는 옛 무덤의 墓碑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碑石에는 단지 “나는 아프다고 말했는데”라고만 쓰여 있다. 그 슬픈 碑銘은 教會 조직의 일부 구성원들과

다수의 大企業 重役들 사이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예로서 며칠 전 인디애너폴리스發 1980년 4월 17일자 뉴스기사에 의하면 감리교회 총회에서 데일 화이트(Dale White) 主教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開途國에서와 마찬가지로 先進國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인질이다.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욱 빈곤해지도록 운명지워져 있는, 잔악한 구조의 거대한 政治·經濟 體制에 붙잡힌 인질…… 이런 체제는 매우 확산적이며,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부패시키고, 강력하며, 건전한 인간생활을 파괴하고, 다루기 힘들 정도로 자기 방어에도 능하기 때문에 호메이니(Khomeini)가 자주 사용하는 <邪惡한(satanic)>이라는 용어만이 그런 체제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解放神學(liberation theology)'을 추종하는 교회계층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종종 듣고 있다. 이런 성명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나는 데일 화이트 주교가 소비에트식 全體主義 體制나 쿠바식 체제, 東歐 및 아프리카니스탄에서의 소련 식민지 체제도 그의 비난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소련이나 쿠바, 東歐 등에는 그의 관찰구민이나 지지자들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主教의 비판대상은 미국이나 서구, 캐나다와 같은 자유민주국가의 비교적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政治·經濟的 제도가 너무나 부패하고 잔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업적들이 <사탄의 作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들 한다.

지금 나는 그렇게 뿌리깊은 편견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만약 내가 제너럴 일렉트릭社에서 일해 온 41년간의 경험에 비취 말한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오는 가운데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업적이 사탄의 소산이라는 주장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좀더 安樂하고 生産的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들을 발명하고 제조해 왔으며, 대다수의 피고용인들에게는 성취감을, 약 40만 가구에게는 직장을 제공해왔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내야 할 세금과 자선기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어떠한 사회에서도 시민의 의무로 할당된 몫을 이행해 왔다. 나는 나와 나의 40만 관련자들이 전념해 온 활동들이 사악하고, 잔학하고, 파괴적이며, 생활수준을 저하시키거나 혹은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믿을 수 없거니와 우리의 정치·경제制度가 그와 같이 혹독하게 다루어지기도 바라지 않는다. 信徒會衆의 대다수가 경험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현실세계와 우리들의 업적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오해가 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영리행위에 대해 갖는 거리감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그에 대한 비난이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해 왔다. 사실 영리행위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勞組指導者나 정부의 관리, 經營大學院 教授 등 企業界와 항상 어떤 접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영리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영리행위에 대한 가장 비타협적인 비난은 주로 學界와 宗教團體의 비판인데 그들은 기업들과 거의 접촉이 없으므로 기업계에서 실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기회도 거의 갖지 않고 있다.

偏見과 이데올로기적 확신, 同類그룹(peer-group)의 압력에 의해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 나는 내 경험에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자들이며, 그들은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증거와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계와 종교계 인사들에게 진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企業人들과 좀더 접촉하여 그들의 동기와 價値觀에 대해서 좀더 잘 아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下位文化(subculture)를 대표하고 있지만 두 방향에서 상호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 본인은 기업과 정부, 기업과 勞組活動, 企業과 대학, 기업과 대

중매체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론보다는 내가 41년 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아는 나의 회사를 논하는 것이 有用할 것이다. 나는 多國籍企業으로서의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社가 開途國들과 갖는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사

먼저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장고나 電球, 기타 전기제품 등 우리 회사가 만든 소비재를 통하여 우리 회사를 알고 있지만 이런 소비재는 우리 회사의 판매고 중 4분의 1도 되지 않으며, 電氣·電子部門은 회사 전체의 절반도 안된다. 우리 회사는 인공 및 天然資源을 포함하는 原資材 部門과 함께 광범위한 用役과 다양한 수송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産業資本財의 주요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대략 우리 회사의 업무 중 3분의 1 가량이 국제적 성격을 띠며, 美國 내에 있는 공장들로부터 약 30억 달러 정도가 수출되어 미국의 國際收支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회사는 多業種 기업으로서 에디슨(Thomas Edison) 시대 이래 주로 생활수준 향상의 기초가 되는 技術發展에 주력해 왔다.

1878년 創業 이후 19세기 말까지는 美國의 電化 및 工業化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開途國이 工業化 및 經濟開發 과정을 밟고 있으므로, 日本, 英國,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高度技術企業들과 경쟁하면서 開途國의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責任이고 기회인 것이다.

우리 회사는 거대하기는 하지만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할 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 및 용역을 가장 필요로 하며, 우리를 공정하게 대접해 줄 국가에 대한 판매 및 투자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치(Global Reach)』와 같은 책이나 TV 쇼에서 볼 수 있는 巨大企業에 대한 이미지는, 뉴욕이나 동경, 런던 등의 아성에 들어 앉은 거대 기업들이 힘없고 작은 나라들에게 그들 製品을 싸게 팔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따위의 정말 너절한 것들뿐이다. 기업에 대한 그러한 접근방식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企業成功을 위한 基本公式

우리는 오래 전부터 어느 나라에서든 기업성공의 열쇠는 그 나라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의 의견 및 일반 대중의 필요에 대해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는 민간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알아 왔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아내라. 즉 그들의 우선순위, 국가계획, 긴급한 필요, 그 나라 경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참여의 룰(rules) 등을 알아내라. 그런 다음에 회사가 갖고 있는 能力, 製品 및 용역을 그러한 필요와 規程에 맞추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라. 만약 기업이 이런 기초작업에 땀을 쏟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기업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多國籍企業과 現地國(host country) 모두 투자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업과 국가 사이의 관계는 대기업의 급작스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갑자기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나아간다. 첫 번째의 접촉은 우리 회사의 수출 입무를 도와주는 現地 代理人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주요 수출품은 그 나라의 經濟的 下部構造(economic infrastructure)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전력, 수송, 통신 및 보건계통의 장비들을 제공한다. 開途國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나라가 경제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高度技術裝備 및 建設用役을 판매하는 일이다.

일단 우리가 그 나라에 輸出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그 나라는 우리 회사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인력운 필요로 하게 되며, 우리는 技術移轉

(technology transfer)의 초기형태로서 현지 기술지도를 포함하는 국제적 용역·정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지국에 생산설비를 건설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自國化法(local content law)〉이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예를 들면 機關車 같은 것)을 그 나라 공장에서 조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지 공장들이 점차로 그 나라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모든 나라들에 그와 같은 生産設備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안정으로 해서 우리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生産設備를 건설하고 있다.

그 밖에도 他企業과의 경쟁, 市場性, 金融上의 특혜여부, 현지 정부 및 국민들의 태도 등등 그러한 海外投資의 決定에 수반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低開發國 開發에의 參與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제너럴 일렉트릭

우리와 가장 오랫동안 생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몇몇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 있다. 브라질에 있는 子會社(affiliate)인 브라질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do Brasil)사는 리오데자네이로, 사우파울루, 캄피나스에 주요 생산설비를 갖고 있는데 이제껏 브라질의 經濟的 下部構造에 필요한 重機械設備의 주요 공급원이 되어왔다. 대형 工業用 原動機, 制御裝置, 스위치기어, 發電機 및 산업도로망 등이 그 나라의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확대되어 가는 브라질 시장을 위해 다양한 소비재도 생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양의 완제품 기관차를 수출했지만,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내에서 사용되는 기관차는 브라질 내에서 조립될 것을 요구하는 自國化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펜실바니아와 이리(Erie)에 있는

기관차 공장에서는 코도기술부품만 생산하고 브라질 現地工場에서는 단순 부품만 생산, 조립하고 있다. 브라질은 독자적인 수출산업의 육성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최근 우리는 브라질 정부에게 몇 가지 현지사업(機關車部門을 포함하여)을 확장시키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후 브라질의 輸出産業에 대해서 약 7억 달러의 投資를 12년간에 걸쳐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석유 수입대금 지불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브라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개도국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미국 國家計劃委員會(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報告書에 잘 요약되어 있다.

브라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外國企業들 중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돋보이는 존재이다. 브라질 내 섬유나 식품가공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대규모 제조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처음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브라질인들에게 현대적 産業技術 및 經營技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유능한 브라질인들을 經營 및 技術上의 責任者로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항상 先導者가 되어왔다. 거의 반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同社의 製造·販賣·技術活動의 다양화 및 확대는 브라질 經濟 全般의 다양화 및 확대에 자극을 주어왔고 또한 자극을 받아왔다.¹⁾

그 보고서는 거의 20년 전인 1961년에 발간되었지만 브라질 제너럴 일렉트릭社의 목표를 잘 요약하고 있다. 나는 브라질의 놀라운 잠재력 개발에 기여할 우리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좀더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 우리가 완성시킨 막대한 비용의 사업계획, 곧 브라질의 鐵業會社(브라질이 투자자의 51%를 소유)와 제휴하여 산지로부터 산맥을 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200마일 밖의 新建設 港口까지 철광석을 운반하려는 야심만만한 鐵鑛 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 및 美國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나라는 남쪽의 이웃 멕시코이다. 1896년 이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활동은 멕시코 經濟의 일각

1) Theodore Geiger, *General Electric Company in Brazil* (Washington, D. C. :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61).

을 차지해 왔다. 오늘날 멕시코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Mexico)社는 램프, 家電機器, 産業用 電氣電子部品, 送配電設備 등을 생산하는 멕시코의 주도적 電氣製造業體이며 강력한 멕시코 기업이다. 500명 이상의 직원 중 미국인은 0.5%에 불과한데, 이 점이 유럽 企業들과 대조적인 美國의 多國籍企業이 갖는 특성이다. 우리는 現地 子會社를 가능한 한 빨리 그 나라 국민들의 손에 넘겨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지국 사람들을 미국에 데려와 교육시키는 한편, 現地國에도 많은 훈련과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子會社가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에 있지만 우리 회사가 직접 製造活動을 하지는 않고 있다. 現地 製造業體에 라이선스(license)를 제공하여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에서 TV 수상기를, 칠레에서 變壓器를, 에콰도르 및 엘살바도르에서는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는 현지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매우 신속적으로 業務를 處理하고 있지만 본래의 基準과 原則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다빈아메리카의 몇몇 國家에서는 뇌물수수나 횡령이 너무나 깊게 뿌리박고 있어, 製品과 價格 조건의 우월성을 기초로 기업활동을 추구한다는 우리 회사의 기본정책과 원칙을 조화시켜 나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특히 건설업에서 심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國家들에서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기획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내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의 많은 競爭 企業들이 “로마에서는 로마인이 하는 대로 하라”는 속담을 원용하면서 전혀 良心의 責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태껏 나는 다른 나라 정부가 의심스러운 代金決裁, 人權, 環境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 法的 制裁를 취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본 적이 없다.

農村 電化事業

多國籍企業이 最貧國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본보기로서 제너럴 일렉트

력사가 도미니카공화국의 農村 電化事業을 도와준 경험을 살펴보자. 1970년대 초반 도미니카의 작은 마을인 라구나 드 니시본(Laguña de Nisibon)에서는, 農民들이 추수한 벼를 그냥 햇볕에 말리고, 노동자들은 유치한 방법으로 콘크리트 벽돌을 만들었었다. 電化되지 않은 160여 개 農村 마을의 전형인 그 마을에도 역시 그때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1971년 도미니카 정부는 야심적인 農村電化計劃에 착수하였다. 전화사업에 있어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맺었던 이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도미니카 정부는 그들의 火力發電設備 확장 계약을 우리와 맺었다. 한편 우리 그룹의 이태리建設會社인 사데-사델미(Sade/Sadelmi)社가, 발전소로부터 불과 삼림과 산을 넘어 전기가 없는 마을까지 전선을 가설하는 어려운 작업을 맡았다. 그 사업은 성공리에 끝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같은 종류의 일을 더 많이 맡게 되었다. 이러한 電化事業은 라구나 드 니시본 마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력으로 콘크리트 벽돌을 만들며 마을 협동조합에 저장된 벼를 곡식건조기로 건조시키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수은등이 거리를 밝히고 밝혀진 교실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이 야간수업에 참석하며, 텔레비전은 外部 世界의 뉴스를 알려주고 병장고는 음식물과 항생제의 부패를 막아주고 있다.

미국 농촌전화 행정당국은 라틴아메리카의 두 나라 즉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최빈국들 중 단지 5% 정도의 농촌마을만이 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10억의 농촌 주민들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 라구나 드 니시본은 電化로 거둘 수 있는 긍정적 사례의 하나이며 우리 회사도 그러한 전화사업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간부진들 중 몇몇은 미국에서의 주요한 개발 목표의 하나가 농촌전화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1930년대와 40년대 중 電線이 전국 각처로 확대되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지구상의 많은 나라를 전화시킴으로써 거둘 기회 및 이익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내가 다른 대륙에 있는 開途國의 사업으로 이야기를 옮기려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와 같은 아프리카 諸國에 상당한 經濟的 下部構造를 제공해 왔다고 확신한다. 또한 아시아의 韓國,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아시아의 세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스스로 산업화에 관심을 갖고 企業家들을 복돋우고 있는 이 나라들이 多國籍企業의 도움으로 經濟的 奇蹟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駐韓連絡事務所 매니저인 톰 스네데커(Tom Snedeker)는 “최근의 新聞 表題들은 이 나라에서의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좀더 중요한 것은 20여년 전의 폐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經濟, 즉 1977년 불변 GNP 약 250억 달러에, 꾸준히 늘어나는 中産層을 갖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 韓國이 浮上한 것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나무껍질을 벗겨 먹었고, 지금 고층빌딩이 늘어서 있는 서울의 거리는 진흙탕 길이었는데, 오늘날 한국은 연간 10~11%의 실질경제성장으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東南아시아의 여타 나라들과 비교하여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온 싱가포르와 대만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인도가 社會主義의 혼란 속에서 침체해 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광포한 共產政府하에서 파괴되고 있을 때 韓國, 대만, 싱가포르는 경제적 곤란 및 빈곤을 탈피하여 비교적 短期間 내에 세계무역국가들 중 선두에 나섰다. 그 세 나라는 연료 및 原資材의 공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經濟開發을 이룩한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효율적인 부가가치적 (value-added) 經濟, 즉, 천연자원을 수입하고 수입된 천연자원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높은 가격으로 輸出해 왔다. 이와 같은 치밀한 經濟

戰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經營管理 능력을 가진 높은 知識水準의 人力——주로 中共땅을 떠난 華僑들——을 유치해 왔다. 그 세 나라는 근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所得 중의 상당부분을 고도기술 개발에 재투자해 왔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세 나라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民間企業의 活力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구현해 왔다는 것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세 나라 모두 美國보다 좀더 中央統制的 國家이기는 하지만, 權威主義의 政府(authoritarian government)라는 겉껍질 속에는 企業家와 技術革新者들의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고, 이러한 신축성이 그 나라 經濟成功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상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어떻게 모든 대륙의 모든 나라 발전에 중요하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설명이 될 것이다. 우리의 事業戰略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나라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외국기업의 自國經濟 參與에 대해 어떠한 規則과 規程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고, 그 나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하여 유연하고 創造的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通俗的인식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려내는 帝國主義的 多國籍企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이상이 우리 같은 大企業이 세계 여러 나라 住民들의 生活 向上을 위한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실제로 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노동의 세계

종종 社會主義者들로부터, 多國籍企業이 저개발국에서 낮은 賃金과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루살이와 같은 會社인 경우에는 그런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같은 大企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 會社 직원들의 긍지 및 열의

가 나타내고 있듯 우리는 美國 本土에서와 같은 勤勞條件을 海外的 工場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에 우리 회사는 몇 개의 제조공장들을 푸에르토리코에 세웠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고용주가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도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租稅誘因에 이끌려 진출하였다. 그러나 그 租稅誘因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이룩한 일반적인 성공과 성과에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처음 우리가 후아나디아즈(Juana Diaz)에 가정용 배선용구 공장을 세웠을 때 주차장도 함께 세웠었다. 처음 그 주차장에 5~6대의 자동차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나는, 2년 후 그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후아나디아즈를 재차 방문하면서 그 주차장이 가득 차 있고, 現地 雇傭人들의 자동차도 곳곳에 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회사는 주차장을 더욱 크게 늘렸다. 이런 사례야말로 우리 회사가 現地 고용인들을 착취하거나 혹은 低賃金으로 부려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회사가 금융상의 곤란에 부딪혀 베가알타(Vega Alta)에 세운 공장에서 손을 떼야만 했을 때 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그 공장을 떠날도록 주선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공장은 가히 혼란투성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조명시설 및 에어컨과 함께 더 좋은 기계설비를 장치하고, 허리 높이까지는 진한 녹색, 그 위로는 연한 녹색으로 새로 페인트 칠을 하였다. 공장이 문을 연 지 두 달 뒤, 현지 고용인 대표가 노무담당 매니저를 찾아와서 여성근로자들이 제복을 입는 것에 대해 회사가 반대하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우리는 반대할 아무 이유도 없다고 말했지만 제복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대표자인 젊은 여자도 자기는 회사가 제복 값을 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가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다고만 말했다. 그 결과로 여성근로자

들은 상후안(San Juan)에서 옷감을 사와 상의는 연한 녹색에 하의는 진한 녹색의 어울리는 색깔로 제복을 만들어 입었다. 현지 고용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뜻있는 일이다. 나는 때로 차를 몰아 그들의 밝고 시원한 직장과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손수 제복을 지어입기까지 한 여성 근로자들을 만나보러 가기도 한다.

美國 聖公會 출판부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며 階級戰爭(class war)을 옹호하고 資本主義를 배격하는 어떤 최근의 간행물을 뒤적이면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동의 세계는 괴로운 시련의 장소'라는 표제를 발견하였다. 만약 그 필자가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의 공장을 보고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하면서 얻는 個人的 充足感, 社會的 身分에 대한 느낌, 친목, 자부심 등을 알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궁금하다.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괴로운 시련이 아니라 차라리 救援(salvation)인 것이다. 사람들이 정년 퇴직할 때는 병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외로와지게 마련인데,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강제 퇴직을 없애도록 압력을 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에게(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사기를 고의적으로 해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말이야말로 무책임하며 非基督敎的인 것이다.

사람들은 物質的 進歩를 원한다

物質的 進歩를 비웃는 經濟學의 한 사상적 계보——허버트 슈타인(Herbert Stein)이 우드스톡學派(Woodstock school)라고 부르는——가 현재 유행하고 있다. 그 파는 우리들에게 高度技術을 포기하고 田園的 생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貧者는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가난을 좋아하지 않으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약 4년 전, 조지 갤럽(George Gallup)은 6대륙에서 거의 70개 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사상 최대의 輿論調查에 대한 報告를 발표하였다. 그 설문서에는 생활에 있어서의 기대와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先進國과 低開發國 사이에는 〈人間的 幸福〉이라는 용어에 있어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갤럽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북미, 서구, 호주 등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거의 바라지 않고, 스스로도 貧國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生活이 더 재미있고, 걱정할 것은 더 적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의 가정생활, 祖國, 지역사회, 教育 및 스스로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 하고 있는 반면, 조사에 응한 라틴아메리카 사람의 28%, 아프리카 사람의 8%, 印度 사람의 6%만이 자기들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이 産業社會를 거부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 反對로 그들은 産業社會를 매우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 갤럽에 의하면 “제 3 세계 주민들의 95% 이상이 그들의 나라가 산업화되길 원하고 있다”²⁾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점은 매우 政治的이면서도 社會적인 문제이다.

나는 教會指導者들이 富의 再分配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해 왔지만 그것은 문제의 解決策이 되지 못한다. 人類 歷史의 대부분은 歷史上 한 집단이 몰려나면 다른 집단이 권력을 쥐는 과정을 반복해 온 것 같이, 한마디로 富의 再分配 역사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상 부의 再分配 중 어느 하나도 稀少性(scarcity)과 貧困(poverty)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조건을 바꾸지는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은 바로 富의 創出——文明化에 필요한 剩餘의 창출——이다. 케네디(John F. Kennedy)가 말했듯이 “파도가 높아지면 모든 배들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2) George H. Gallup, "What Mankind Thinks about Itself." *Reader's Digest* (1976. 10.). pp. 132-136.

빈곤은 원시적이거나 전통적인 사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곤경이며, 産業資本主義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회도 심각한 빈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와 유대-기독교적 職業重視 價値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産業資本主義가 오늘날에 와서 解放神學의 추종자들에게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만약 교회가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나는 이것이 분명 우리들의 宗教的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理論的 社會主義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대신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실제적용 결과로서 많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직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에서 社會主義革命이 일어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련은 아직 食糧自給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경제발전은 民主資本主義(democratic capitalism)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북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그다지 인상적인 것이 아니다. 開發國들 중에서도 비록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즉 企業家精神과 民間企業을 고무시켜 주는 나라는 앞으로 전진하며, 社會主義 노선을 채택했던 나라는 發展이 좌절되었다. 多國籍企業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 하며, 商去來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政治·經濟 체제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觸媒的 役割(catalytic role)은 民間企業原理를 긍정하는 나라에서 가장 効果的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公的으로 주어지는 特權

내가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 대부분의 다른 기업 重役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우리들의 公的 特權(public franchise; 公共當局에 의해서 개인이나 회사에 주어지는 特權)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理事會나 株主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면서 公共大衆에 대하여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 大衆은 市場, 法律, 輿論의 압력을 통하여 企業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 성취 이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우리는 道德的 價値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大衆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973년 1월 내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된 후 첫번째 갖는 經營協議會에서 우리 회사의 經營陣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가장 귀중한 國家資源 혹은 세계자원의 일부를 맡고 있는 公僕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업의 하나이며 독특한 資產形態이다. 이러한 자산은 진실로 인류발전에 중요한 것이며, 낭비되거나 잘못 관리되거나 사회적 파멸로 유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적 특권을 인식하면서 또한 그것이 얼마나 쉽게 상실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종교단체들은 最高權威(하느님)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만 또한 合法性(legitimacy)과 公共責任이라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종교단체 역시 공적 특권을 갖고 있다. 만약 어떤 교회의 신도들이 다른 教會 牧師들을 따라간다면, 그 교회는 오래 존속할 수 없는 법이다. 左翼活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教派들은 信者가 줄어드는 반면 傳統的으로 규정된 社會活動과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福音主義的 教派들은 활기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주목하고 있다. 나는 이런 추세가 美國 教會協議會 및 世界教會協議會와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教會指導者들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표류하고 있음을—— 즉 그들의 信徒會衆과 접촉을 끊고 또한 그들의 봉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그런 교회지도자들은 예언자적 역할과 혁명가적 역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잃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를테면 猶太의 律法先生과 같은 機能(rabbinical function)에 대하여 안목을 상실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노트르담(Notre Dame)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임스 구스타프슨(James Gustafson)이 말한 것

처럼, 교회는 道德形成機構였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는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 중역들 중 대중의 태도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듯 (이런 사람들은 기업 중역들 중에서도 원시인 같은 존재다), 뉴욕의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475번지에 있는 汎敎派 센터(Interfaith Center;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團體간의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함)의 敎會指導者와 敎職者들 중에는 신도들의 낙후성에 대해 참지 못하고 여론을 경멸하는 자들을 볼 수 있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범교파센터에서 호의적인 말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企業 특히 大企業에 대하여 이야기되는 것들은 대부분 널리 유포된 기업의 罪와 실수들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군림할 千年王國(millennium)은 아직 가까이 있지도 않고,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그런 복된 세상에서나 이를 完全(perfection)이라는 기준에 아직 도달하고 있지도 못하다. 우리들 중에는 宗教的 罪人도 있고 背敎者도 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이 기업을 완전이라는 기준(그런 기준은 宗教界에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에 묶어 두려는 것은 불공평하고 약간은 위선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電子敎會(electronic church)에 대한 글을 실고 있는 『포베스(Forbes)』라는 잡지에 의하면 電子 福音 傳道師들이 작년에 약 6억 달러를 모금하였는데 이 금액은 10년 전에 비하여 12배나 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성공적인 성장기업으로 여길지 모르나, 대부분의 電子福音主義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이 당황할 정도로 우둔함을 보여 주고 있다. 電子福音主義가 광복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대중의 깊은 종교적 필요를 만족시켜 주고 있는 다른 기존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는 극좌파들 중에서 民主資本主義 體制에 대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교인들의 활동을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기독교적 동기에서 어떻게 그런 극단적 증오심이 나올 수 있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善意에

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옥에 이르는 길도 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의 自由를 희생시키고 全體主義者(totalitarians)로 하여금 그들의 거친 손길을 온 지구상에 뻗치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야말로——그와 같은 것은 解放神學者와 그의 追從者들이 하는 일 같다——나에게는 최악이다. 그런 상황은 도처에서 좀더 겸손해야 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神의 가호가 없으면 그 최선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고 聖靈(Holy Spirit)이 활동하시도록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완전치는 못해도 하느님의 왕국을 향하여 좀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討 論

질문 : 귀하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기업의 의무에 대한 귀하의 관심을 이야기하였고,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때 기업활동의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불행하게도 브라질에서처럼 강압적인 정부가 종종 安定을 누리기도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安定性和 利潤性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존스 : 좋은 질문이다. 그것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귀착되며 특정 低開發國의 상황의 문제로 돌아간다. 투자기준 중 하나가 정부의 안정성인데, 질문자는 정부의 불안정으로 그 다음날 投資金額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나라에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정된 저개발국 중 다수가 權威主義的인 政府를 갖고 있는데——그 한 예로서 브라질을 들 수 있다——브라질같이 상대적으로 權威主義的인 政府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얻은 實用主義的 觀察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低開發 상태의 文盲社會가 植民主義——혹은 봉건주의——로부터 곧장 民主主義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識見있는 投票(informed voting)를 할 수 있는 有權者들이 있어야만 한다. 만약 어떤 나라가 權威主義的인 정부의 통치하에서도

그 기간동안 개인의 權利에 대한 合理的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런 나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李光耀(Lee Kuan Yew) 수상 영도하의 싱가포르는 세계 어느 지역 못지
않은 權威主義的인 정부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싱가포르 국민들은 대체
로 자기네 생활에 만족하면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생활을 누
리고 있다.

그러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나
는 브라질의 벽지까지 살살이 여행했는데 내 견해로는 브라질 國民의
대다수가 현단계에서 民主主義 社會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리오테자네이로, 사옹파울루, 벨로호리존테 등의 지역에는
학식있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으며, 건전하고 선량한
企業家 및 學者 등의 폭넓은 中産階級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
면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확실히 다가오
고 있다고 본다.

두 달 전 사옹파울루에 있는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났다. 정
부 法令에 의하여 파업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은 관심을 끌 만
한 것이었다. 그때 노동자들은 나에게 “우리는 파업을 원하지는 않지
만 이 너석(제너럴 일렉트릭사물 가리킴)은 현지 고용인들을 공정하게 대하
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났다”고 말했다. 두세 사람의 고약한
고용주 때문에 사옹파울루 모든 급속가공 산업체들이 철수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 회사의 노동자들은 자기네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대해서는
결코 불쾌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사옹파울루의 記者會見에서 “당신은 파업을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 당신은 어쩔 작정인가, 철수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받았었다. 여기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는 세계 도처의
공장에서 파업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물론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매우 중요한 투자를 수반하는 약 7억 달러의 새로운 수출계획

을 발표했던 것이다.

나는 인권문제뿐 아니라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에서 존재하는 극심한 貧困問題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음으로써 그곳에 없는 것보다 좀더 효과적으로 빈곤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 전 날 밤 내 동료 중 한 사람이 사옹파울루의 변화가를 걷고 있을 때, 세 사람의 청년이 다가와 그를 때려눕히고 돈지갑을 뺏아 갔는데도 그 결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정도로 범죄가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난 때문이다. 건전한 경제 구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의 빈곤은 점점 줄어들 것이며 우리 모두가 人權問題를 빨리 개선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네가 브라질의 수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피구에레도(Figueredo) 대통령은 나에게 파업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 왔다. 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브라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질문: 귀하의 답변은 열정에 넘친 진지한 것이기는 하나, 귀하가 그 질문에 대하여 정말 객관적으로 대답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귀하의 회사 활동이 帝國主義의 한 변형이라는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스: 나는 民主資本主義를 신봉하지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만큼 개발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좋은 일자리나 그들의 경제수준을 높이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도 훨씬 덜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누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만약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50%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資本主義를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고 또한 經濟水準을

향상시킬 만큼 정부가 안정되어 있다면, 한 나라씩 차례로 우리에게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키워나갈 좋은 기회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질문: 안정적이긴 하지만 強壓的인 정부들이 종종 저지르는 人權侵害에 대하여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같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존스: 브라질에서 人權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철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中産層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그들 자녀들은 식견이 넓은 유권자가 될 것이다.

질문: 그 나라에 머물면서 보다 나은 현실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생각은 인정하나 어떤 가치를 심겠다는 것인가?

존스: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價値體系를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教會가 도와줄 수도 있고 기업이 도와줄 수도 있다. 美國에는 政治構造, 經濟構造 및 文化·倫理構造가 있어 이 세 가지 구조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지만 어느 한 구조가 다른 두 구조를 지배하도록 허용되지는 않고 있다. 즉 상호간에 상당한 獨立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나라들에 우리의 價値·倫理規範 전체를 수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닌데, 그런 것이야말로 公正去來法(Fair Practices Act)과 같은 것을 입법화하려는 것처럼 그릇된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價値·倫理規範은 받아들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들 자신이 독자적 경제구조를 수립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한나라 한나라씩 그 일이 이루어질 때 倫理構造와 政治構造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資

本主義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닌 民主主義 社會에서 번성할 것이므로 그들의 政治, 經濟 및 文化·倫理構造는 우리들의 構造와 양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귀하는 사회가 民主資本主義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을 갖는 방향으로 사회구조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것 같다. 인간정신의 구조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삶이라는 織物의 특성 문제이듯, 사회구조도 사회생활이라는 직물의 특성 문제가 아니겠는가? 만약, 귀하가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은 이익추구라는 경제적 충동, 그리고 기업의 결합력과 정열의 원천인 자기도취적 사명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그러한 기업의 자기 이미지화가 새로운 사회의 特性化라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결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존스: 귀하는 지극히 중요한 요소인 特性(character)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41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얻어진 한 가지 흥미있는 결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모든 주요 기업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를 갖고 있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나는 가끔 무엇이 이런 문화를 형성케 했는지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어떤 일단의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나 일단의 政策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무엇이 기업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特性, 그 자신의 獨特한 文化를 개발토록 하였는가? 왜 기업은 그런 氣質을 갖고 있는가? 누구나 알다시피 어떤 일이 기질에 맞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질에 맞지 않으면 조금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企業文化라는 것이 高位經營陣에 의해 발전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고위경영진은 직접적으로 特性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업문화가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것도 유의할 필요

가 있다. 기업문화는 혁명적이기까지는 앞서라도 대단히 動態的이다. 이와 관련되는 逸話를 한 가지 말해 보겠다. 1950년대 중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사우선드(Thousand) 군도에 聯合島(Association Island)라고 불리는 섬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고위경영자들이 거기에서 회합을 가졌다. 찰리 윌슨(Charlie Wilson)은 독실한 신자로서 주일학교 교사이며,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서부터 차례로 승진하여 우리 회사의 社長이 되었다. 그 섬의 모임에서 찰리 윌슨은, 웨스팅하우스사가 2배나 큰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웨스팅하우스사 경영자의 말을 전했다. 윌슨은 연단 위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번창하리라! 그들의 자녀들도 번창하리라! 그들의 손자들도 번창하리라!” 그때 악단이 「十字架 軍兵들아(Onward Christian Soldiers)」를 연주하였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깃대가 있는 곳으로 행진하였다. 星條旗가 게양되었고 뒤이어 社旗가 게양될 때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30년 후인 지금도 나는 매년 한번씩 큰 호텔에 모여 우리 회사의 고위경영자들과 그런 모임을 갖는다. 나는 그 일화를 우리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당신들은 매우 지성적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나를 비웃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말을 들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관리와 특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회사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고용인들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고용관계에서의 濫情主義(paternalism)가 아니라, 고용인이라는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통하여 회사에 공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經濟的 生活——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 등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인들의 經濟的 生活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성취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이를 이해하며 또 협력해

주고 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特性問題에 대한 것이며,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와 구별짓고 또한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企業文化(company culture)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勞使 서로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라고 우리 전 직원은 생각하고 있다.

질문 : 귀하는 회사 간부들을 힐책하지 않고 간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것 발 주위를 행진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는 귀하는 산꼭대기에 서서 12방향을 가리키고 첫 기도를 올리는 편을 더 좋아할 것 같다. 귀하는 유대의 律法學者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몇 가지 특성을 충분히 표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떤가? 내 말은 찬사로 하는 것이다.

존스 : 그렇다고 생각한다. 칭찬해 줘서 고맙다.

질문 : 나는 귀하의 발언의 중심 요소로서의 特性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하고 싶다. 왜냐면 우리의 문화는 約束, 名譽, 善意, 일반적 評判과 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資本主義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資本主義가 특히, 非資本主義 영토에 들어가 있는 多國籍企業들이 개인문화, 가정문화, 나아가서 전체문화 속에서 貪慾, 利己心, 物質主義와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30년간 우리 美國에서는 教會와 국가가 분리되어 공공사업에 있어 종교적 감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 教會와 企業의 분리같은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기업 내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가? 企業家로서 또 당신은 개인적이긴 하지만 한 기업의 대표자로서 株主들의 종교적 감정이나 가치에 호소할 수 있는가?

존스 : 당신이 질문하면서 이미 알았듯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연단 위에서 공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래 전 뉴올리안즈

사무소에서 카견 구역 담당 매니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販賣會議를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축도로 회의를 끝마치곤 하였다. 그는 진실로 자기 세일즈맨들의 감정을 놀랍도록 잘 이용하였는데 오늘날 누구도 공적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신이 언급한 敎會와 企業의 분리가 실제 존재하지만, 개인적인 대화와 토론에서는 생활수준과 각자에 대한 관심이 분명 그 통합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내가 알고 있는 고용인들의 미망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을 잃은 고용인들에게 한두 통의 편지를 직접 쓰는데 매 편지마다 나의 종교적 신념이 깃들어 있다. 나는 위안 및 위로의 유일한 원천(즉 하느님)에 대하여, 그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일마든지 말할 것이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 내에서 나와 내 가족이 평생 동안 교회활동에 열중해 왔다는 사실은 모든 경영자가 알고 있다.

질문: 앞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귀하는 경제 부문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좀더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존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정부를 이끌고 국민에게 봉사할 대표자를 국민이 선출하는 정부체제에 관해서들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를 말할 때는 私有財産 原則과 그로부터 얻는 보수의 인정 위에 세워진 경제체제에 관해서들 이야기한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 구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生産手段이 개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國家統制主義(statism; 국가가 政治體制뿐만 아니라 經濟體制까지도 통제하는 상황)로 돌아설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나는 國家統制가 일어나는 시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文化·倫理體系에 대하여까지 간섭하게 되면 國家統制도 멀지 않은 것이다. 마치 共產主義 국가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일단 국가가

당신들의 종교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당신들 宗敎人들은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企業活動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政府統制를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國家統制主義의 추세에 대하여 만족해 왔지만, 지금은 그들도 역시 학문적 생활에 대한 정부의 강요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다.

질문 : 일반적으로 資本主義보다 社會主義가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더 잘 먹혀들어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존스 : 몇 년 동안, 나는 젊은이들한테 資本主義를 전파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資本主義神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왔다. 사회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떠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쓴다는 사회주의에 끌리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신학을 갖고 있지 않다. 아담 스미드(Adam Smith)는 『國富論』을 쓰기 전에 앞서 『道德情操論(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쓰기 시작하였지만 『國富論』의 저술은 끝마쳤어도 『道德情操論』은 결코 끝을 맺지 못하였다. 우리는 열심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資本主義 神學體系를 계속 찾아왔다.

질문 : 귀하도 企業批判者들이 범했다고 비난했던 실수와 똑같은 것들을 몇 개 스스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귀하는 美國 企業活動의 비판자들을 모두 解放神學者와 革命論者로 무자비하게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귀하도 알다시피 어떤 敎會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사나 제너럴 모터스사, 엑손(Exxon)사의 株式을 몇백만 달러어치나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敎會와 企業間의 대화에 손상을 줄 만큼 모든 교회측 비판자들이 현재의 企業體系를 뒤엎고 새로운 체계를 형성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공경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企業部門에 多元主義(pluralism)가 존재하듯, 教會 내에도 多元主義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스: 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이 말은 해야겠다. 즉 귀하의 말은 과장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만약 내 자신의 입장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는 식견있는 대화들 나눌 수 있는 共同의 광장을 찾지 못할 것이다. 公式的인 教會集團과 대변인들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한 것 중에는 매우 도발적인 것이 있으며, 누군가가 그들의 과오를 비판해야만 한다.

나는 단순히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株式會社 美國을 위하여 변론하고 있다. 한편 나는 분명히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종사하고 있는 존스라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나를 어리둥절케 하는 것은 앞서의 대변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신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敎階制度(church hierarchy)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우리는 이 점에 대한 論議를 많은 企業界 종사자들도 포함시켜 進行시켜야만 한다. 企業界 人士들 중에는 南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위대한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미국도 그 나라를 올바로 인식하고 충실한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앨리저니 루드럼(Allegheny Ludlum)사나 홀레트 팩커드(Hewlett-Packard)사의 몇몇 인사들 말만을 인용하면서 마치 미국 기업 전체가 남아프리카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우리들 사이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확실히 파악되어야 하며 토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애매모호한 곳이란 곧 신랄한 질문이 나오고 어려운 企業意思 決定 및 도덕적 결정을 해야 하는 곳이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

존스 : 귀하도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그러한 대화를 갖고자 해왔다.

질문 : 우리는 그런 기회를 고맙게 생각한다. 제너럴 일렉트릭社は 어떠한 敎會投資家에게도 분노를 개방해 왔다. 앞서 귀하의 말 중에서, 귀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해외사업 목표가 이윤의 추구뿐 아니라 그 나라의 經濟·社會발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나는 그러한 목표와 많은 성공담을 들었다. 귀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해외투자로 이익을 얻고 現地 雇傭人들에게는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주었지만, 그 나라의 經濟·社會발전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던 事例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귀하가 말한 전화사업의 예는 참으로 극적인 것이며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참여로 인해 그 지역에서의 공동이익은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開途國에 진출할 때 실제로 박해를 당한 사례가 정말 있었는가?

존스 : 그렇다. 우리는 카스트로(Castro)한테 재산을 빼앗기고 쿠바에서 쫓겨났으며 중국에서도 毛澤東政府 수립 초기에 재산을 불수당하고 쫓겨났다(지금에 와서야 약간의 보상을 받고 있지만). 이 경우 우리는 그 나라 국민경제의 구성 요소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밀려나 버린 것이다.

질문 : 그렇다면 한 나라에 10년 내지 20년 동안 머물면서 이익을 얻고, 現地 雇傭人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사회구조 때문에 귀하의 회사가 이룩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 더 이상 계속 낙관할 수 없던 사례도 있었는가?

존스 : 그렇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주 우리는 짐사육고 끝에 전원 이란인들로 구성된 우리 회사의 테헤란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몇 달 동안 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전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에게 봉급을 지급해 왔는데 마침내 그런 상태의 持續은 더이상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결정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박한 결정이었다. 그 이유는 그 이란인들이 현재 어떻게 그들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인도를 도울 수 있었는가?

존스: 우리는 약 50~60년 동안이나, 인도에서의 활동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일찌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서 몇 가지 소규모 판매활동을 하였으며, 인도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그곳에 공장 2개를 세웠었다.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법령과 규정이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이었으므로 두 공장 모두 차례차례로 문을 닫았다. 그래서 지금은 인도에서 완전한 廢業狀態에 있다.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같이 보인다. 우리는 인도 내 事業活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도 오랫동안 적당한 기회를 기다려 왔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고 만 것이다.

질문: 美國 내 斜陽産業의 유지를 위해서 聯邦政府나 혹은 州정부의 도움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존스: 나는 사양산업을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누구나 성공할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自由가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社 역시 몇 가지 사업에서 실패했고 지금 그런 사업에서는 손을 떼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크라이슬러사가 그냥 그대로 파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 또한 당신과 나뿐만 아니라 더욱 生産的인 國民經濟를 위해서

도 훨씬 비용이 덜 버히는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몇 단계에 대비한 합법적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크라이슬러사의 生産性 높고 最新式인 공장들이 결국 外國企業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 공장들은 크라이슬러사 관리하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現地 고용자들을 더욱 만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라이슬러사의 다른 부문, 즉 船舶事業 부문 및 기타 부문은 새로 構成된 크라이슬러사의 체제하에서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당신은 또한 함트람크(Hamtramck;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自動車工業 都市)에 있는 것처럼 남아빠진 설비와 폐물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훈련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필요하다면 어떤 家口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일이(비록 그들에게 오랜 기간 보상을 계속해 줘야 할지라도) 크라이슬러사처럼 병든 회사의 전체 上層構造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덜 들 것이다. 나는 곤경에 빠져있는 어떠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도 위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對外競爭에 직면하여 미국은 比較優位原理(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에 의거하여 활동을 하거나 自由貿易(free fair trade)을 신봉하는 데 있어서 몇몇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한때는 自由貿易의 보부였던 노동조합이 오늘날 保護貿易主義(protectionism)의 주도세력이 되고 있다. 레인 커크랜드(Lane Kirkland)가 한 번은 西獨의 勞組指導者들에게 自由貿易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들은 “그 定義는 쉽다. 단지 美國市場을 개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커크랜드는 시장이 상호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말이 맞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非關稅障壁(non-tariff barrier)으로 자기네 시장을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점이다. 동경라운드(Tokyo Round; 196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한 保護貿易主義의 경향을 拂拭하고자

1973년에 西方頂上들이 日本 東京에 모여 新國際經濟秩序를 출발시키는 데 동의한(宣言) 이후 우리는 계속 貿易行動規程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그를 통해 각국의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自由貿易 노선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응징하고 아마도 일종의 보복을 가하는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保護貿易主義에 반대한다. 일단 우리가 국제무역에 있어 保護貿易主義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훨씬 빈곤해질 것이다.

질문 : 오늘날 企業指導者의 역할은 무엇인가 ?

존스 : 企業의 辯護者가 아니라 企業을 위한 鬪士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이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시간 중 절반을 대외적인 일에 소비한다. 왜냐하면 만약 美國人들이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란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힘은 거대하고 우리의 公的 特權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재화와 가치있는 상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公的 特權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견해와 목적들을 公共大衆 및 워싱턴의 兩院議員들에게도 전해야 하며,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樹立에서 建設的인 役割을 맡아야 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一般大衆한테 이 점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體制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1960년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오늘날의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기업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open minds)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또한 나는 워싱턴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약속을 한 뒤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신용을 얻는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회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이다.

질문: 개인적으로 나는, 기업이 승부가 없는 狀況(no-win situation)에 처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부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서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 그런 맥락 속에서 만약 우리가 진실로 대화와 신뢰를 갖고자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美國教會協議會와 財界 巨物級 모임의 共同 후원을 받는, 기업과 종교에 관한 연구단체는 왜 눈에 띄지 않는 것인가? 이런 단체는 훌륭한 연결망을 제공해 줄 것이며, 그 연결망은 불신을 없애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진실로 누가 敵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비록 대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전도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겠지만 우리가 그런 연결망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체제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 企業과 宗教에 관한 연구단체는 關聯人士들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귀하가 말했듯이 모든 企業은 개성을 가지며 高位級 경영이 그 기업의 색조(tone)를 결정한다. 나는 귀하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 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귀하의 도덕관 형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귀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면서 基督敎的인 道德觀을 계발시켜 왔고 그러한 道德的 發展으로부터 귀하는 成就感을 길러왔을 것이다. 지금 귀하는, 해외사업을 통해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나라의 經濟發展을 도우며, 때가 되면 政治發展으로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존스: 제 3 세계의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와 道德을 갖고 있다. 최근 리야드에서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Yahmani) 석유상과 오랫동안

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문화 및 종교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回教徒 및 그들의 宗教와 文化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요르단인,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들과 만났을 때에도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나는 카터(Carter)大統領이 回教指導者들에게, 미국인들은 宗教上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각 종교의 교리나 방법, 수단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느님을 崇拜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미국은 결코 聖戰(holy war)이나 미국의 宗教를 수출하려는 어떠한 시도 혹은 宗教問題에 관한 어떤 방식의 투쟁에도 관계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 한 나라씩 지식층이 형성되고 정치체제가 변하는 것을 귀하는 차례로 보고 있다. 베네주엘라를 보라, 지금 景氣沈滯를 뚫고 나가기 위한 단련을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민주정부와 함께 경제를 보다 견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통화공급을 줄이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들의 道德·文化體制를 소개하는 일에 있어 선을 긋고자 한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볼 수는 있지만, 그들 자신의 종교와 문화의 범위 내에서 獨自의 方式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럼 귀하가 질문한 기업과 종교에 관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대화가 제도화될 때 그 질차와 日程이 늘어남으로 해서 종종 의심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질문 : 기업법인으로서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상호이해의 다리를 놓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존스 :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회사 구내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

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管理者들에게 회사 구내에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대학교수들을 뉴욕 주 크로톤빌(Crotonville)에 있는 우리 회사 교육관으로 초빙한다. 한 주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教授陣을 초빙하고 다음 주에는 人文科學에 관한 교수진을 초빙한다. 그들을 초청하여 우리의 관심사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助言과 諮問을 구하기도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은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公共團體뿐 아니라 私立大學에도 기부를 하고 있지만 私立大學들은 특히 재정난에 빠져 있다. 우리는 제너럴 일렉트릭 재단의 기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학계에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가치있는 연구계획들이 많이 있다.

나는 우리 會社가 매우 이기적인 부분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美國 經濟體制 방어에 관련된 계획, 경제체제의 보다 폭넓은 이해 기반을 제시해 주는 연구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은 비단 經濟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政治學, 社會學, 人文科學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學者들이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기업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질문 : 귀하는 企業의 理事會에 勞組의 대표와 公共大衆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스 : 우리는 企業運營(corporate governance)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年次報告書를 발간하였다. 그런 제안에 대하여 나는 매우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理事會에 특정 利害集團의 대표가 참가한다고 해서 理事會가 개선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이사들이 특정 利害集團만을 위하지 않고, 오직 모든 주주들에게만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나는 프레이저(Doug Fraser)를 크라이슬러社의 이사로 앉히려는 생각은 매우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은 매우 정직하고

노동자들의 利益擁護에 앞장서 왔지만 그의 存在가 특별히 이사회를 生産的인 討論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의 이사들은 선거로 뽑히며 大銀行家, 大企業家, 中小企業家 몇몇과 RPI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所長, 유명한 8大 會計法人의 前職代表, 저명한 女流人士, 黑人 前職判事, 前職財務次官補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건설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討論에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接近方法에 있어 한가지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매우 독립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특정 利害集團이 아닌 모든 株主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오늘날 워싱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강력한 兩黨 政治體制의 퇴락 및 특정 이해집단 정치의 대두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특정 利害集團을 위한 파벌이 의회 내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法律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정회한 의회는 앞으로 연휴 동안 열리지 않을 것인데, 輸出入銀行 支出豫算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會計年度의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출입은행은 1980 會計年度의 支出豫算案을 갖고 있지 않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의회 내에 기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企業에 대하여 특정 이해집단식의 접근을 한다면 실력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기업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非效果的으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둔감하고 지각이 없으며 특정 이해집단의 생각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數會集團이나 環境保護論者, 消費者保護論者들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들의 말하는 바를 알고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그런 말을 해줄 勞組 및 공공대중의 대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나는 어떤 특정 利害集團을 대표하는 理事가 있을 때 그가 스스로 “자기가 株主들의 적만 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그들을 위해 일해 온 것이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 사회는 반대와 찬성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누구나 주식의 51%를 갖게

되면 다수가 될 수 있다. 意見合致(consensus)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日本에서는, 의견합치가 특정 利害集團들의 싸움을 통하지 않고 서서히 이루어진다. 대기업들은 政治가 흔히 적대적이듯이 그렇게 서로 물고 뜯는 상태에 있지 않다. 즉 대기업들은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意見合致 사회를 이루고 있다. 나는 집무실에 앉아서 얼렁뚱땅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무조건 명령만 할 수는 없다. 혹시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렇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理事會에서 그 소식을 듣고 으레 그렇듯이 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 지 않으면 파면이다”고 말할 것이다.

몇몇 예외가 있지만 기업의 최고 간부진에서 일어나는 해고 사태는 그가 다른 이익을 좇거나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해서 현직에서 자기가 물러나려고 하기 때문이라들 쓰고 있다. 그러나, 농담하지 마라. 그 사람은 解雇를 당한 것이다. 大企業 최고간부진으로부터의 몰락은 다른 사람들이 실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이다. 大企業에서 서로간에 참고 관용하며 합의를 도모하는 의견합치적 접근방법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며, 企業의 임원들에 대한 가장 큰 명에는 바로 같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완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企業에 對한 社會主義的 批判

버나드 머치랜드
Bernard Murchland

精神的인 것은 모두 物質的 基礎를 지니고 있으며 물질적인 것에는 모두 정신적인 充足狀態가 존재한다.

—조지 산타야나

워커 퍼시(Walker Percy)의 작품 『영화팬(The Moviegoer)』에 나오는 주인공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잡지를 보러 지방 도서관에 들르곤 했다. 그는 먼저 모든 진보적인 잡지를 읽고 나서 또한 모든 보수적인 잡지를 읽는다. 그는 兩者間의 생생한 對決과 相互間의 敵意를 보면서 기운을 되찾고는 하였다. 그는 그것을 이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生命의 신호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社會主義—資本主義 論爭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다. 여하튼 그것은 生命力이 펼쳐 내는 놀라운 장관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그것이 우리 時代의 극히 중요한 論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으로 論爭에 참여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로 資本主義 특히 企業에 대한 社會主義의 반박을 하나의 全體像으로 그려내고, 둘째로 그러한 主張들에 對해 批判

할 것이며, 제재로 近代企業의 實體를 哲學的—神學的 觀點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宗教社會主義者들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者의 증오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표현되었고, 또한 우리의 知的 風景畫의 뛰어난 한 부분이어서, 아마도 여기서는 그에 관하여 별로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命題를 재검토할 必要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企業의 神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宗教社會主義者들'에게 나의 주제를 국한시키기로 한다. 20세기에 들어와 상당수의 宗教思想家들이 社會主義를 選好해왔다. 英國에서는 그러한 傳統이 19세기 중반의 聖公會 牧師 프레데릭 모리스(Frederik Maurice), 소설가이며 聖公會 목사인 찰스 킹슬리(Charles Kingsley), 그리고 "社會主義는 19세기 基督教 大革命의 진정한 特徵"이라고 주장한 존 루드로우(John Ludlow)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보고, 資本主義의 自由放任의 競爭과 利己主義를 비난했다. 그들은 많은 社會主義 단체조직을 主張했으며, 이어서 그 실현을 보았다.

후에 켄터베리 大主教가 된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은 1908년 『이코노믹 리뷰(Economic Review)』誌에 寄稿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했다.

사도 바울은 에페소書에서 그의 敎理의 完成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그는 進化論的 社會主義의 모든 基本的인 觀點에 관하여 인간의 思考가 미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體系를 설파하고 있다. 社會主義는 기독교 福音의 經濟的 實現이다. …… 그 選擇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社會主義 아니면 異敎——우리는 그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

1) Charles Luther Adams, "Christian Socialism," *Encyclopaedia Britannica*, 1972, p. 701.

2) Herbert Aptheker, ed., *Marxism and Christianity* (New York: Humanities Press, 1968), p. 203.

1930년대에 基督教 自由教會 左派(the Free Church Christian Left)는 哲學者 존 맥머레이(John MacMurray)의 指導下에서 ‘社會主義 成취를 위한 勞働者階級의 宗教的 使命’을 主張하였다.³⁾

1966년에 公表된 슬랜트 宣言(Slant Manifesto)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곧 社會主義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論題가 진지하게 論議되었다.⁴⁾ 슬랜트 宣言 作成者들은 資本主義가 “人間生活에 必須的인 共同體의 性格의 강탈”(p. 23)이고, “예술에서 表出되는 人間感情과 에너지를 무시하는 것”(p. 32)이며, 勞働의 疎外, 文化의 低質化, 그리고 여타 관련된 問題點을 トレ하는 것으로 비난하였다. 어떤 作成者는 教會를 “社會主義 社會의 象徴”(p. 148)이라고 표현하였다.

美國에서의 宗教的 社會主義 傳統도 같은 時期에 유래한다. 1849년 헨리 제임스 1세(Henry James, Sr.)는 기독교와 社會主義의 目標을 同一視하였다. 1851년 필라델피아의 스테픈 콜웰(Stephen Colwell)이라는 사업가 는 『프로테스탄트 성직者들의 새로운 主題들(New Themes for the Protestant Clergy)』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모든 社會主義 運動을 우리 時代의 가장 偉大한 事들 中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社會主義 著書者들은 資本主義에 숨겨져 있는 利己的 屬性들을 폭로해 왔다. 社會主義 者들은 단호한 증오심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利己性을 폭로해 왔으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주요한 義務이다.”⁵⁾ 南北戰爭 이후 聖職者들의 社會主義 活動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들 聖職者들 中에 代表的인 사람으로 조지 헤론(George D. Herron)이 있는데 그는 組合教會 牧師로서 “基督教 社會主義 運動에 있어서 가장 影響력 있는 劇的인 人物이며,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社會主義的 基督教의 가장 知的인 指導者”로 평가되었다.⁶⁾

3) Adams, “Christian Socialism,” p. 702.

4) Adrian Cunningham et al., *Catholic and the Left* (Springfield, Ill.: Templegate, 1966).

5) Catherine R. Harris, “Religion and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in Aptheker, ed., *Marxism and Christianity*, p. 221.

6) 위의 책, p. 223.

후에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를 美國의 ‘社會主義的 基督教의 진정한 창시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니버의 오해이다——는 ‘平等權의 基督教의 原則과 經濟力의 民主的 分配에 임각한 新秩序’를 主唱하였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라우센부쉬에게 크게 영향받은 니버는 基督教 社會主義協會의 지도자였다. 그는 스스로를 ‘기독교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고, 私有財産制度로 인한 權力集中을 民主主義의 可能性을 간소시키는 ‘不公平에의 招待’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니버는 마르크스주의의 批判者였으며 所有의 社會化에서 解決策을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러서는, 모든 형태의 所有權에 관한 問題는 權力이었고 權力은 本質的으로 부패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社會主義를 포기하였다.

基督教 社會主義者協會(the Fellowship of Christian Socialists)의 또 다른 저명한 會員으로는 폴 툴리히(Paul Tillich)가 있는데, 그는 第1次 世界大戰 후 獨逸에서 社會主義者가 되었었다. 툴리히는 “宗教社會主義는 근본적으로 資本主義 社會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을 기초로 세워져 있다”⁷⁾고 언급하였다. 그는 聖賢 箴言을 인용하여 資本主義體制를 惡魔的인 것이라고 하며, “社會와 각 個人에 대한 資本主義 體制의 영향은 所有의 典型的 形態 즉 所有당하는 形態를 취하여 그 성격은 惡魔的이다.”⁸⁾고 하였다. 社會主義는 한편 愛人자적 기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苦難의 歷史 地평에 새로운 社會를 바라본다. “愛人자적, 그리고 社會主義的 期待는 그 근본적인 開放性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다. 그것은 거짓된 超越概念에 항거하는 活氣찬 反抗이다.”⁹⁾——마틴 부버(Martin Buber)의 저작 『유토피아의 길 (Paths in Utopia)』과 기타 저작들도 다소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7) Paul Tillich, *Political Expect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p. 48.

8) 위의 책, p. 50.

9) Paul Tillich, *The Socialist Decis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1), p. 111. 1933년에 쓰여졌으나 1977년까지 번역되지 않았다. 아마 宗教社會主義의 가장 발전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루버의 社會主義는 ‘나와 당신의 對話(I-Thou dialogue)’에 입각하고 있으며, ‘나와 그것(I-It posture)’이라는 資本主義的 態度와는 兩立할 수 없는 것이다——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킬리히는 그의 『社會主義 決定(Socialist Decision)』을 예언자적인 서술로 끝맺고 있다.

野蠻主義로의 복귀로부터 유럽 社會를 구할 수 있는가의 問題는 社會主義의 成敗與否에 달려 있다. 社會主義만이 부르조아 時代에 創造된 世界의 技術支配에 대한 無制限의 可能性을 人間統制下에 두고, 人類를 위하여 奉仕할 수 있다. 社會主義만이 이런 가능성이 人間 自身の 파괴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또 社會가 人間의 本성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아 줄 수 있다.¹⁰⁾

킬리히는 비록 말년에 社會主義의 信念을 잃긴 했으나, 아마 지금도 知的으로 가장 날카로운 宗教社會主義者일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末期의 言行이 그의 사고를 총체적으로 反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비 콕스(Harvey Cox)는 예언자 아모스(Amos)에게 “正義를 불처럼 파도치게 하시고, 썩을 끊임없는 벉물처럼 흐르게 하소서.”라고 호소하였으며, 또한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는 그의 作品 『깨진 約契(The Broken Covenant)』에서 社會主義 目標와 道德的 批評을 결합시키면서, 기업 組織의 價値에 대하여 ‘共同體關係를 부정’하는 ‘잔인한 사회적 다윈주의’의 일종이라고 비판하였다.¹²⁾

그리고 로즈마리 로이더(Rosemary Reuther)는 ‘소수를 위하여 政治秩序를 조작하고, 富, 社會的 決定,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惡意的 分配를 行하는 體制로서 현재 군림하고 있는 資本主義 體制’를 통박하였다. 그녀는 ‘經濟的 民主主義——民主적으로 所有되고, 민주적으로 統制되며, 민주적으로 計劃되고, 민주적으로 分配되는 體制, 부자의 利潤을 위해서가 아니고 全體의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組織된 體制’¹³⁾를 호소하였다.

10) 위의 책, p. 161.

11) *Religious Socialism*, vol. 3, no. 2, p. 11.

12) *Religious Socialism*, vol. 2, no. 1, p. 8.

13) *Religious Socialism*, vol. 1, no. 2, p. 15.

또한 피터 스타인펠즈(Peter Steinfeld)는 “社會主義는 階級統治를 대신할 民主的이고 意識的인 選擇의 대상이며 社會的인 그리고 共同體的인 被造物로서의 모든 個人이 階級 또는 階級決定 體制 때문에 지금까지 留保된 여러가지 決定能力을 발휘하는 公共生活을 가능케 한다.”¹⁴⁾고 하였다.

또한 도로시 쉴레(Dorothee Sölle)에 의하면 “基督敎 신앙은 이 世界를 自由롭지 못하나 자유를 追求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신앙은 인생에 대한 모든 자연주의적인 解釋들과는 대조적으로 근본적이고도 包括的인 再生에의 意志를 뜻한다.”¹⁵⁾고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神學者인 호세 보니노(José Bonino)에게 있어서 社會主義는 ‘궁극적으로 約束된 사랑의 성질’이 實現될 수 있는 수단이다.¹⁶⁾

또한 『宗教社會主義(Religious Socialism)』의 편집자인 존 코트(John Cort)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價値面에서 利潤과 權力을 제일 위에 놓는 자들이 生産手段의 所有와 統制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疎外, 그리고 貧·富國間뿐만 아니라 國內의 貧者와 富者間에서와 같은 소킹한 隔差, 인플레이션, 失業 등과 같은 번번히 경험하고 있는 現象,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 하지만 그대도 언급되는 유대 基督敎的 價値는 말할 것도 없고 平和나 正義에 대한 관심으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¹⁷⁾

資本主義와 企業에 대한 社會主義的 批判 중에 가장 뛰어나게 정리된 것으로는 아더 맥거번(Arthur McGovern, S. J.)이 쓴 『마르크시즘: 美國 基督敎의 觀點(Marxism: An American Christian Perspective)』을 들 수 있다.¹⁸⁾ 맥

14) *Religious Socialism*, vol. 3, no. 2, p. 3.

15) *Religious Socialism*, vol. 2, no. 3, p. 1.

16) José Bonino, *Christians and Marxist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76), p. 105 등등 *Religious Socialism*, vol. 1, no. 2, pp. 111-112 에 이 책에 관한 Harvey Cox 의 論評을 보라.

17) John Cort, *National Review* (1980. 3. 31.)에 보낸 미간행서신

18) Arthur F. McGovern, S. J., *Marxism: An American Christian Perspective* (New York: Orbis Books, 1980).

거번은 킬리히와 같이 그 立場이 마르크스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近代的 企業들이 너무 獨占的이라고 주장한다. 200 개의 主要企業과 20 개의 大銀行에 있어서의 主要 意思決定者들은 불과 1,000 명도 안된다. 그들은 국가의 富와 計劃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둘째로, 企業들이 帝國主義的이어서 그들의 대부분의 利益을 對外膨脹으로부터 얻어낸다. 그 결과로써 企業들은 약탈적이 되며(특히 제 3 세계에 대하여) 國家에 대하여, 특히 對外政策 部門에서 不常한 支配力을 行使한다. 그는 “軍事費 支出과 社會福祉 지출이 政府 總支出의 75%에 달한다”고 指適하고, “이들 양 부분이 私企業의 利益에 기여한다. 福祉는 失業으로 야기된 불만을 진정시킨다. 軍事費 支出은 剩餘生産에 대한 배출구의 역할을 하며 利潤의 거대한 根源이다.”(p. 141)고 했다. 企業들은 貧困과 不平等을 낳고 物質的 價値를 강조하며, 勞動者들을 疎外시키고, 民主主義 自體를 위협한다. 결론적으로 맥거번은(찰스 린드블롬(Charles Lindblom)을 인용하면서) 私企業이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에 알맞지 않다”(p. 316)고 단정하였다. 맥거번은 獨占 資本主義는 “전혀 非基督敎的이다”(p. 321)고 主張하는 저술 著論에 同參하였다.

人間性에 對한 두 가지 觀點

社會主義者들은 宗教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간에, 一般的으로 總體的인 주제들을 취급한다. 그들이 提案하는 많은 目標들에 내가 同情的이라는 것을 밝혀야겠다.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이 말한 바와 같이 “社會主義는 가난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經濟體制를 創造하는 作業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人間的 目標, 새로운 형태의 精神生活을 창조하는 작업이다.”¹⁹⁾ 그 안에서 團結과 協同의 價値, 人間의 존엄성과 충만한 人間性, 全體를 위한 正義와 사랑의 날개에 의지하는 社會가 강조된다. 그것들 모

19) *Religious Socialism*, vol. 3, no. 4, p. 5.

두는 고귀한 價値들이다. 나는 그러한 것들이 實現되는 것을 보고 싶다. 도대체 누가 원하지 않을 것인가? 문제는 그 수단에 있다. 社會主義者들의 가장 참된 強點은 既存事態에 대한 批判과 비전이며 社會主義者들은 充足되지 못한 人間的要求에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經驗的 現實에 대한 확고한 파악과 계획의 실천이라는 點觀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자주 失敗한다. 많은 社會主義者들이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더 맥거번의 上記한 저서에 마지막 章을 보면 文學作品에서 우리가 보는 典型과 다를 것이 없다. “원칙적으로 分權화된 民主的 社會主義는 民主主義, 基督教, 그리고 傳統的인 로마가톨릭 社會思想과도 완전히 一致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理想 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經濟體制로의 전환이 어떤 方式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는 심각한 問題로 남아 있다.”(p. 320) 고 그는 말하고 있다.

혹자는 社會主義 體制가 民主主義와 基督教의 同一視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社會主義가 아마도 그 양자와 일치될 수 없는 概念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나는 특히 宗教社會主義者들이 그들의 目標과 유대 基督教 전통의 核心간에 同質性을 主張하는 안이한 태도에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傳統은 대부분 근본적으로 罪와 救援의 辯證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우리가 단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타락한 被造物이라고 주장한다. 예언자들은 특히 이러한 現實을 무시하지 않았다. 人間性은 세상 萬物 중에서 가장 거저되며,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다(예레미야 17:9).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主張한다. 우선 社會主義는 人間性에 대한 理想화된 概念 때문에 붕괴될 것이며, 둘째로 社會主義者들은 民主主義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며 民主主義에 대한 오류 때문에 企業의 性格에 관해서도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聖書的 도덕성과 古典的인 道德性的의 假定은 人間性을 바탕에 흔들리는 갈대로 파악한 점에서 동일하다.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불완전한 被造物로서 걱정과 私利私慾에 빠지거나, 자칫 幻想에 유인

되고 誠實性이 깨지며, 世上과 肉과 사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고 시험당하는 존재이다. 니체가 날카롭게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社會에서나 人間의 에고이즘의 영속적이고도 완고한 특성을 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에 人間性을 전혀 잘못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²⁰⁾ 聖書의인 그리고 古典的 道德性 분야에서, 自由와 사랑의 확인, 救援과 超越에 대한 우리 能力의 확인은 항상 人間의 行動 원천에 대한 否定的 評價에 의해 크게 制限받는다. 人間性의 限界에 대한 이와 같은 비관적인 견해는, 역설적으로 人間の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과 조화되고 있다. 道德的 現實主義는 절망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락한 被造物들이 아직은 영광스러운 行動을 할 수 있는 力量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道德이란 人間의 性格에 있어서 반대편의 갈등을 조화시키는 교묘한 것으로 보였다.

아더 러브조이(Arthur Lovejoy)는 그의 뛰어난 글에서 17, 8 세기의 偉大한 民主主義의 창시자들이 聖書的 그리고 古典的인 道德의 假定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²¹⁾ 그는 칼 베커(Carl Becker)의 『18세기 哲學者들의 낙원(The Heavenly City of the Eighteenth-Century Philosophers)』이라는 作品에서, 사람들이 “본래 謙하고, 쉽게 계몽되며, 理性과 常識에 따르려 하고, 관대하며, 자비스럽고, 인내력이 있으며, 충고에 따라 쉽게 인도된다”고 하는 主張을 확고하게 논박하였다. 러브조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낙관론이 그 시대의 대부분 哲學者들의 사고였다고 규정짓는 것은 <극단적인 역사적 오류>이다. 특히 영국 思想家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러브조이에 의하면 그 시대의 보다 典型的인 특징은 相互間에 해가 되는 것을 均衡을 이루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達成하

20) John Cort, “Can Socialism be Distinguished from Marxism?” *Cross Currents* (1979-80 겨울), p. 427에서 再引用. (이 引用文은 Niebuhr의 *Children of Light and Children of Darkness* 제 3장에서 인용한 것임.)

21) Arthur O. Lovejoy, *Reflections on Human Natur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1).

는 방식, 즉 平衡錘方式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均衡에 의해 行星이 그들의 軌道를 지키지 않으면 惑星들은 자기 獨立의으로 運行하여 우주에서 分解되고 말 것이라는 뉴턴의 宇宙力學에서 영향받았다. 政治理論家들은 유사한 모델을 채택, ‘서로 다투는 애고이즘들’을 均衡을 이루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社會的 目標를 달성하려 하였다. 러브조이는 말하기를 정치적인 勢力均衡方式 주변에 깔려 있는 두 개의 前提는 “人間들은 결코 私慾없는 理性的 動機에서 行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투기 힘들고 분산되어 있는 反目集團들을 교묘하게 혼합하고 견제시킴으로써 전체로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狀態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p. 42)는 것이다.

이것이 美共和國 創建者들이 직면한 과제였다. 그들은 우월한 道德論의 原則을 그들이 이끌어 나갈 政治組織에 적용시키려 했다. 매디슨은 특히『페더럴리스트(Federalist)』 第10輯(美國憲法 채택을 지지하여 Hamilton, Madison 및 Jay가 쓴 논문집)에 勢力均衡方式의 가정들을 소개하였다. 플라톤이 그랬듯이, 그는 大衆政府의 커다란 위험성이 파벌意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利益을 추구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일으킨다. 매디슨은 파벌의식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냈는데, 즉 그 原因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 結果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中前者를 선택하면 自由를 廢棄하고, 私益에 대한 市民의 權利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選擇은 인간 本性에 反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解決策은 權力의 效果的인 分散을 통해서 私利의 影響을 통제함으로써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方式으로 私益을 추구하는 個人들이 모두를 위한 봉사에 종사하게 되며 타락하고 분리된 意志들이 어느 水準의 조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매디슨은 인간의 合理性的의 위력을 그다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그의 동료들도 그러한데, 그들은 個人으로 활동하는 人民의 政治的 才能을 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共和政形態 政府의 우수성을 확고하게 믿었다. 알렉산더 포프와 같이 그들은 서로 <거슬리는 利益들>이 <잘 조화된 상태의 和音을 창조>할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政治學에서 그들의 위치는 經濟學에서의 아담 스미드의 위치와 비슷하였다. 특정한 메카니즘(그것이 市場 메카니즘이건, 權力의 構造的 分配 메카니즘이건간에)이 주어지면, 個人利益의 추구는 전체이익에 가까와질 것이다.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는 비슷한 歷史的 環境과 비슷한 人間性哲學의 產物이다. 이러한 일치가 주어진 狀態에서 社會主義者들이 그 兩立 不可能을 主張할 수 있는 유일한 方式은 人間性에 대한 理解를 다른 角度에서 發展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내겠지만, 그것은 近代民主主義가 出現한 實際의 歷史的 條件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聖書的인 그리고 古典的인 道德性의 순수한 내용을 크게 훼손시킴으로써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調和보다는 갈등의 가정이 民主主義 형성의 지표가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엄격한 制限을 둠으로써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管理者(政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社會主義者들은 그들의 어깨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올려 놓았다. 民主資本主義者들은 것처럼 의심적은 오를렛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제란을 왜 깨뜨려야 하는지 의아해 한다.

技術의 優越性

그러면 이제 批判의 角度를 옮겨서 民主主義에 대한 社會主義的 理解의 또 다른 어려움을 指摘하기로 하자. 실제 이러한 모든 論爭에서 빠뜨리고 있는 中心的인 用語는 技術(technology)이다. 이 用語가 社會主義者들로 하여금 또 다른 方式으로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간의 關係를 誤解하도록 하고 있다. 歷史적으로 볼 때 <技術>은 民主主義와 資本主義를 앞당겨 實現 可能하게 하였으며 우리 近代문화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남기고 있다. 近代 技術은 그것이 中世 수도원에서 비롯되었고, 데카르트나 베이컨 같은 近代思想의 개척자들에 의해서 哲學적으로 高揚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贗罪行爲(an imitatio dei)였다. 즉, 그것은 原罪의 참상을 보

상하는 手段으로 간주되었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은 에덴동산을 쫓겨 날 때 두 가지를 잃었다. 즉, 순진함(innocence)과 힘(power)이다. 前者는 믿음(faith)으로 회복되고 後者는 技術로써 회복된다. 近代技術은 根本的인 側面에서 볼 때 하나의 宗教的 現象이다. 社會主義者들이 資本主義를 공격할 때 실제로는 技術을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資本主義가 民主主義와 兩立 可能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가 技術과 양립 가능한가에 있다. 만약 技術이 民主主義와 資本主義의 必要條件이며 주요한 形成因子라면 前者의 發達이 後者の 作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정도 單純化하여 요약한다면 技術이 발전하는 만큼 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들 세 가지 분화적인 힘간에 존재하는 辨證法的 關係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者들은 때때로 직접적인 參與民主主義를 요구하면서 邑民大會같은 데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近代社會에서의 技術의 當당한 偉력에 대한 無知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觀點을 좀더 자세히 說明하기 위하여 돈 프라이스(Don Price)의 작품 『科學的 資産(The Scientific Estate)』을 인용하고자 한다.²²⁾ 프라이스는 19세기와 20세기에 있어서 科學的 技術의 발달은 세 가지 主要方式으로 美國 建國有功者들의 民主主義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 私的 部門과 公的 部門을 좀더 밀접하게 만들었다.
- 公共分野에 複合性的의 新秩序를 도입시켰다.
- 정부의 견제와 균형에 관한 최초의 구상을 변경시켰다.

프라이스의 첫번째 指摘은 오늘날의 모든 經濟가 混合經濟體制라는 事實을 注目게 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순수한 社會主義나 순수한 資本主義는 없다. 이는 거대한 規模와 고도로 정교해진 技術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2) Don K. Price, *The Scientific Estat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Langdon Winner의 *Autonomous Technology*(Cambridge, Mass. : MIT Press, 1971)에 나오는 Price의 이론에 관한 토론을 참조하였음.

우리의 國家政策은 政府가 政策的으로 資金을 支援하고 추진하는 技術發達로 부터 오늘날 수많은 新企業이 파생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動態的 産業의 大部分은 傳統的 市場과는 별로 유사성이 없는 종속 관계를 통하여, 政府와 함께 事業을 수행하는 데 거의 또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p. 15)

근대 技術은 새로운 形態의 協力과 人間에너지의 새로운 集中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生産樣式의 장악에 대한 많은 社會主義 論爭은 時代에 뒤떨어진 폐물이 되고 있다. 企業은 技術發達에 따른 産業의 당연한 반응이며 기술발달을 다른 식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政府는 그 自體가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經濟計劃 樹立의 완전한 파트너로 參與하는 하나의 企業이다. 逆으로 企業들이 다른 한편에서 政府가 맡아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프라이스는 技術社會에서 權力이 行使되는 方式을 ‘主權의 擴散’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政治的 權威는 이미 정부만이 유일하게 行使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政治(선출된 관료), 行政(私企業 및 公共企業의 經營者), 專門職(의학, 교육, 엔지니어링, 미디어 포함), 그리고 政府와 産業에서 純粹研究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科學階級 등 소위 ‘四階級’(four estates)’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프라이스는 指摘하기를, “책임있는 政策決定의 過程은……科學者, 專門職의 指導者들, 行政家들, 그리고 政治家들간의 相互作用過程이다. 궁극적 權威는 政治家들에게 있지만 이니셔티브는 우리 政府 內에 있는 科學者들을 포함하여 여타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다”(p. 18)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한 理由는 有權者들의 無觀心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가들로부터 더 이상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줄 것도 별로 없으며, 어쨌든 權力에 이르는 王道는 社會的 階級에 忠誠을 바치는 것이다. 兩黨制度나 예비선거 같은 傳統的인 정치의식이 한때 全盛期가 있었다는 것은 거의 사실이다. 나의 어떤 政治學者 동료들은 兩黨制度 없이는 憲法이 作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 또한 사실일는지 모른다. 科學의 中心的 役割을 受

用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憲法이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견제와 균형의 新體制는 政府 內에서뿐만 아니라 社會全體에서 작용한다. 이 점 때문에 권력과 財産, 그리고 민주주의와 資本主義의 성격에 關하여 우리가 앞서 논의한 개념은 그에 비례하여 변경되어 왔다. 프라이스에 의하면, “우리는 人民들이 所有하고 있는 財産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조작하는 專門技術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여러 형태의 人民들이 발휘하는 政治的 機能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p.69)는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이것이 갈브레이드가 말하는 ‘技術構造(techno-structure)’이다. 정치적인 그리고 産業的인 權力이 좀더 많이 각 階級에 移轉되어 왔다. 그것은 知識에 근거하며 知識集約的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知識의 新民主主義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者들이 그들의 大義를 위해서 이러한 權力源泉의 변화에 關心을 두지 않는 것을 보면 놀랍다. 企業構造를 통하여 富가 좀더 폭넓게 分配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전의 어떠한 企業 형태에서 보아도 近代企業에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고 있다. 앞서 나는 最上位 200大 企業과 20大 銀行의 주요 결정들이 불과 1,000명도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맥거번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치 大統領의 內閣이 人文大學에서 決定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意思決定에 관한 企業의 性格을 오해하고 있다. 실제 현대 組織社會에서 그러한 過程은 政府, 기업, 또는 教育機關을 막론하고 조직 내에 각종 다양한 利益을 代表하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企業이 共同目標을 위하여 友情을 쌓고, 선택하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어울려서 勞動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대의 共同體의 主要形態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社會主義者들과 가끔 논쟁을 하였는데 그것은 團結精神과 忠誠心을 낳고 權力을 分配한다. 요컨대 그것은 뜻깊은 民主的 美德을 實踐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프라이스의 ‘階級

(estate)' 개념은 政府와 産業이 技術에 적응해 오면서 형성해 온 기업 개념과 매우 잘 합치된다. 社會主義者들은 아직도 그러한 調整을 끝마치지 않았다. 그들은 기술적 필연성의 요구에 부딪칠 때마다 절절 맨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자. 최근에 나는 버나드 젠드론(Bernard Gendron)의 저서 『技術과 人間條件(Technology and the Human Condition)』²³⁾을 읽은 바 있는데 그는 토론과정에서 스스로를 읽매고 있었다. 한편에서 그는 명확하게 표현된 社會主義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장을 성공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회주의와 技術의 관계 정립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인정한대로 '에매하고 未完成된 形態'가 아니어서는 어느 곳에도 그러한 이론은 存在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혼란의 원인은 어떠한 社會主義 社會도 참된 것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낮익은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한편에서 젠드론은 “오늘날 참된 社會主義가 技術의으로 健全한 世界를 提供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듯하다”(p. 224)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 社會主義者들은 “참된 社會主義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歷史의으로 實行 可能하며 先進資本主義의 계승자로 出現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p. 252)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社會主義는 아직 논박되지 않았으며 技術과 社會에 관한 世界的 次元의 觀點 中에서 가장 유망하다”(p. 252)는 것이다. 젠드론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直觀, 信賴, 豫感, 그리고 希望 등을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인간 行爲의 믿을 수 있는 原動力들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난 것도 아니다. 젠드론은 궁극적인 구세주 부활을 기다리며, 歷史過程에 대한 참을성 있는 밤샘을 주장한다.

나는 社會主義가 根本的으로 두 가지 點에, 즉 인간성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또한 技術에 대한 오해도 포함한다. 만약 우리가 民主的 資本主義의 神學을 發展시켜 나가려면 우리는 技術神學을 부수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

23) Bernard Gendron, *Technology and the Human Con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7).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에 대한 유일한 예가 자크 엘룰(Jacques Ellul)에 의해 提供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놀라게 한다. 우리는 여타 社會主義 信念들에 대한 批判을 날날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려고 노력해 왔으며 나의 批判을 여기서 더 이상 계속하지는 않겠다. 그때신 내 스스로 설정한 第3의 問題로 초점을 돌려서 哲學—神學的(혹은 神學—哲學的) 용어로 근대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資本主義와 實存主義

내가 아는 한 우리의 近代 貨幣經濟는 세련된 中世期의 은총에 관한 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兩者는 부패한 인간성을 치유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의 共同目標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쓴 하느님의 은총에 관한 논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主要心關事가 人間性을 變形시켜 더 높은 目標를 향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가 말하는 은총이란 고결함, 힘, 舍目的性 등으로 파악된다. 하느님의 은총이란 우리의 天性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存在의 質을 變化시켜 인간을 自由에로 인도한다. 물론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은총을 超自然的인 것으로 說明하지만 그의 思想은 세속적인 언어로 옮길 수 있다. 실로 이것이 中世末의 경향이었다. 말하자면 免罪符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선택을 神聖화하려는 노력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靈的인, 그리고 人間的인 價値가 量的으로 구체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내가 富의 神學(그리고 기업과 같이 富를 淸淨하는 기관)을 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서 시작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면죄부 문제로 敎會와 충돌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왜냐하면 貨幣經濟는 그 당시 支配的이었으며, 종교 그 가치가 점차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켈빈(John Calvin)은 富를 얼버무리는 상징주의를 충

분히 알아차릴 만큼 빈틈이 없었지만, 오늘날 神學者들은 그 鑛脈을 캐내지 않으며, 우리는 發展된 貨幣神學과 같은 것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좀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나는 資本主義의 道德性和 實存主義의 어떤 기본적인 限目 사이에 밀접한 상응관계를 발견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더우기 많은 實存主義자들이 그들의 철학에 의해 社會主義로 유도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그들 중의 현저한 예로 장 폴 사르트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실 社會主義자들이기도 한 實存主義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르트르와 톨리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톨리히는 말년에 社會主義를 포기했으며, 사르트르는 實存主義를 포기하였다. 내가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 實存主義는 모든 근대 철학思想 中에서도 가장 傳統的인 것이다. 資本主義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聖典的인, 그리고 古典的인 道德性의 주요 教義에 뿌리박고 있다. 거의 보편적으로 看過되어 온 역사적 일치가 여기에 있다.

요점적으로 整理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資本主義 道德性和 實存主義間의 다섯 가지 일치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그들은 공동적으로 비관적인 인간관(a pessimistic anthropology)을 가지고 있으며 兩者는 人間性의 타락에 동의하고 있다. 資本主義는 私利私慾이 人間行爲의 主要 源泉이며, 우리 인간이 오만하고 혼란된 被造物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實存主義는 이것을 疎外, 부조리, 失郷性, 無存在, 無意味性和 같은 친근한 용어들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브리엘 마르셀(Gabriel Marcel)이 말했듯이 우리는 타락한 도깨미가 거주하고 있는 '破産된 世界'에서 살고 있다. 實存主義자들은 불확실한 존재의 모든 부분을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人間性의 原料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나 資本主義者和 實存主義者들에 있어서 인간성에 대한 비관주의는 현실에서의 낙관주의의 달성 및 鬪爭과 克服의 계기가 된다.

둘째는 自由의 철학(the philosophy of freedom)이다. 資本主義 옹호의 가

장 강한 명분은 자유이다. 에드워드 노먼(Edward R. Norman)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資本主義의 道德性은 무엇보다도 選擇의 道德, 즉 生産者나 消費者로서 經濟活動의 여러 代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關係가 있다. 그 自身の 勞動力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이다.”²⁴⁾

實存主義는 달리 말하면 自由의 哲學, 혹은 근본적이고 불가분적인 自由의 哲學이다. 사르트르가 어느 희곡의 한 대목에서 표현했듯이 “우리는 自由를 宣告받았다.” 나는 그의 哲學의 核心과 영원한 價値가 選擇의 dilemma와 自由에의 험한 길을 쉬지 않고 탐험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우리는 단순히 자유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다. 자유는 우리 天性의 속성이나 天性에 덧붙여진 어떤 特質은 아니다. 그것은 그 本質에 있어서 人間性을 구성하는 우리 存在의 재료 바로 그 自體이다. 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결정적인 힘들——유전, 환경, 他人들의 集團的 存在, 잠재의식 등——에 의해 포위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狀況 속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사르트르의 작품 『理性的 時代(The Age of Reason)』에서 마띠외(Mathieu)는 일어난 모든 事態가 갑자기 그 自身の 행위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인식한다. 사르트르는 “비록 그가 絶望 속에 내던져졌다 해도 또 비록 그가 낡은 石炭 부대처럼 내던져졌을지라도 이는 그가 그 自由의 파멸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는 자유롭다. 어떤 식으로든 자유롭다. 바보나 기계처럼 行動하는 것도 자유이며,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것도 자유이며, 얼버무리는 것도 자유이며, 결혼을 하는 것도 자유이며, 게임을 포기하는 것도 자유이며, 미래에 스스로 무거운 짐을 끄는 것도 자유이다. 그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에게 충고할 權利는 없다. 그가 存在

24) E. R. Norman, “Denigration of Capitalism,” in Michael Novak, ed., *The Denigration of Capitalism* (Washington, D. 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9), p. 8.

속에 끌어들이지 않는 한 그에게 혐이나 썩이 있을 수 없다”고 썼다. 알베르 까뮈는 神들에 대해 형세를 逆轉시키기 위해 그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한 시지프스의 모습 속에 實存的 自由의 絶對性을 극화하였다(비록 까뮈가 사르트르보다 좀더 선중한 자유를 선택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세제는 道德的 性格의 形成(the formation of moral character)이다. 같은 글에서 노만(Norman)은 인간의 도덕적 特質과 企業間的 關係를 지적하고 있다. “個人的 자질과 재능의 경쟁적 展開는 도덕적 自意識에 커다란 자극을 준다. 그것은 개인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감을 기르는데 개인의 용기를 잃게 하기보다는 북돋우며, 生活水準을 유지하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道德的 義務感을 부과한다.”(p.9) 實存主義者는 自由 안에서 不合理的 世界에 직면하는데, 그는 비슷한 자극을 받는다. 세상의 완고함은 개인의 독창력의 발휘를 어렵게하고 자질을 시험하고 우리의 선택능력을 요구한다. 키에르케골은 選擇과 道德的 特性간의 關係에 대하여 훌륭한 말을 많이 남겼다. 그는 말하기를 선택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획득하는 힘이다……인간이 잠깐 동안 그의 個性에 公백을 둘 수 있다거나, 엄격히 말해서 個人的 生活過程을 중지시켜 정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²⁵⁾는 것이다. 모든 실존주의자들에 있어서와 같이 그에게도 자기 힘을 낭비하거나, 自己開發의 기회를 놓치는 데 대해 일종의 淸教徒的 公포가 있다.

우리는 니체가 용기, 창의력, 독립심, 연민, 영웅주의, 경직, 인간에 대한 사랑, 정신력, 심지어 복종과 같은 舊式의 德目을 신봉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는 무엇에 대하여 反對하는가? 그것은 금지, 잔인성, 태만, 부자유 등이다. 사르트르는 自由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또한 모든 남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맡긴다고 선언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實存主義는 위험부담, 개인의 책임, 그리고 역경 속에서의 용기와 같은 강인한 道德을 강조하는 엄격한 個人主義的 道德律이다. 그러나 많은 다른 德目들도 선호된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 마르셀의 相互主觀性,

25) Robert Bretall, *A Kierkegaard Anthology* (New York: Modern Library, 1946), pp. 102-103.

마틴 부버의 너와 나(I-Thou)思想, 알베르 카뮈의 作品 속에 나오는 그렇게도 아름다운 共同體와 團結의 感覺 등이 그것이다. 實存主義를 단순히 個人主義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企業道德이 단순히 個人主義 道德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속에 共同體적인 가치를 위한 터전이 있다.

니체는 權力에의 意志(the will of power)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로 니체에서 發見한 가장 重要한 아이디어이다. 그는 이 世界의 本質이 權力에의 意志라고 확언하고 있다. 니체는 實存을 에너지의 발산과 인간 체험의 설계도라고 보았다. 우리 내부에서 들끓는 디오니소스적인 힘에 어떻게 적합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을까? 니체는 權力에의 意志를 통하여 답변하고 있다. 그는 權力에의 意志가(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종류의 맹목적인 軍事的 또는 政治的 支配를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그것은 전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精神的인 理想이다. 니체가 말하는 權力에의 意志는 아퀴나스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은 生命力的 隱喩이며 成長하고자 하는 모든 生物의 근본 誘引이다.

특히 니체가 權力에의 意志에서 뜻하는 것은 克己와 超越을 위한 鬪爭의 두 가지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보다 약한 부분과 싸워야 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理想을 드높이는 데 쏟아야 한다. 마침내 權力에의 意志는 우리의 選擇하는 힘과 일치한다. 우리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허하고도 숙절없는 主題 앞에 선 것처럼 實體(reality) 앞에 선다. 實體를 해석하는 것은 自身의 主觀性을 自由롭게 創意性을 갖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實體는 權力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意志의 함수이며 우리의 선택을 일관성있는 행동으로 조직하는 우리 각자의 능력의 함수이다. 우리의 知識과 가치는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實體의 原形으로 만든 창조적인 부산물과 거의 같은 것이다.

내가 말하는 바와 같이 만약 우리 現代人들이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방식으로 實體를 해석하고 우리 人間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약 企業들이 우리의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하는 科學時代의 修道院(monastery) 이라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면, 그들이 이러한 에너지를 열

마나 잘 유도해내며 인간의 경험에 얼마나 적합한 틀을 제공하는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視覺에서 代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社會主義 理想이 인간의 에너지를 얼마나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가? 나는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에 관한 최근의 글에서 그가 니체의 權力에의 의지를 예기한 것을 읽고 놀랐다. 그는 그가 추진시키고자 했던 貨幣制度를 正當化하였다. 그는 市場經濟가 인간의 분주한 성격을 일깨우고 발휘케 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그리하여 일상적인 노력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섯째이자 마지막 相應關係(權力에의 意志에 포함되고 있다)는 問題〈創造性(the theme of creativity)〉이다. 니체는 우리의 경험을 각색할 必要와 우리 앞에 놓여있는 存在의 原本에 상상적으로 加筆할 需要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것을 각색하고 가필하지 않는 한 존재의 原本으로서 人間의 인 의미를 갖는 것은 없다. 實存主義 文學에서는 存在의 不完全性이 創造의 行爲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主題보다 더 이상 시종일관한 것이 없다.

實存主義者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作品을 창조함으로써 절망과 허무주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유혹을 극복했다.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설명은 사르트르의 作品『嘔吐(Nausea)』에 나오는 로켓망(Roquetin)의 性格이다. 그 作品은 存在의 不條理性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讀者가 로켓망이 自殺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때, 그는 빠져 나오는 方法을 발견한다. 그 트릭은 ‘시간의 꼬리를 잡는’ 格이다. 우리는 우리의 生活을 영속적인 멜로디를 갖는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이런 일을 한다. 로켓망은 그때 “그가 그의 인생을 혐오감 없이 기억할 수 있고 그 自身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다.

資本主義는 풍부한 創意力, 獨創性, 革新 등과 같은 정신적 바탕 아래 옹호될 수 있다. 나는 나의 아이들과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끝없는 무지개 같은 색상과 모양의 비누, 곡물류, 기타 식품류의 진열에 기쁨을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 매우 즐겁다. 이것은 물론 사소한 예이다. 그러나 좀더

진지한 것을 인용할 수 있다. 나는 資本主義와 기술의 美學에 관하여, 즉 그 架空的인 次元, 순전히 外觀的인 표현에 관하여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文化圈 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組織을 통한 活動, 즉 教育, 政府, 産業部門 등을 통하여 창조에 참여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와 같이 企業의 基企이 藝術, 科學, 教育 부문에서의 많은 創造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최근의 『하퍼(Harper)』誌의 구출을 참고하라.) 이 점에서 社會主義的 理想에 대한 實存主義 批判은 몇 가지 意味가 있다. 칼 야스퍼스는 그 批判을 간결하게 表現하고 있다. “미리 完全히 熟考된 人生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고 흥미조차도 없다. 모든 競爭을 배제하고 모든 모험을 제거해 버린 倦怠, 거대한 싫증은 인생을 쓸모없고, 케케묵은 것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人間性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다.”²⁷⁾

결론적으로, 나는 企業과 企業經營者들에 대해 하나의 提案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평가를 위해 양심 판단의 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묵상에 잠길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은 다음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우선 적어도 그들의 敵만큼 이데올로기면에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精神的, 道德的, 哲學的 基礎를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다른 계급 사람들과의 對話에 參與하여야 한다. 물론 그들은 지금 政府 官僚, 勞組 指導者, 변호사 등과 어느 정도 대화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들이 아직 知識人 階層과 충분히 광범위하게 對話하지 않고 있다. (각 企業에 哲學者를 常住시키는 것이 그다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 것이다.)

끝으로 기업들이 점차 社會意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企業의 유일한 事業은 利潤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적도 없었고 현재도 그렇지 않다. 기업들은 때때로 환경주의자 등의 비판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내가 서두에 소개한 산타야나의 말을 결론 삼아 다음과 같

27) Charles F. Wallraff, *Karl Jasp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p. 71.

248 企業에 대한 社會主義的 批判

이 고쳐서 말할 수 있겠다. 즉 기업들은 이제까지 우리 文化의 物質的 基礎를 제공하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그러한 기초의 이상적 구현을 모색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더욱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討 論

질문: 本人은 賈下의 인간관이 지나치게 悲觀的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神學의 役割이 단순히 罪人의 救援에 관한 것이 아니라, 罪보다도 구원을 좀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존스는 미국 국회에 각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규칙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利益集團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그 自身の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共同善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神學은 그러한 問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아무도 絶對善을 지니지 못하여 우리 各者가 우리의 部分善을 탐색해야 한다는 事實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니버가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비관주의적 人間觀에서 나오는 우리 자신의 이익집단에 기초한 多元主義를 發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니버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罪와 相對的·部分的 眼目を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大學이나 教會에서 사람들을 教育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분적인 眼目を 갖고 있다 하더라도, 共同善의 理想을 향해 나가도록 努力하게끔 하는 것이 神學者의 役割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죄로 가득 찼더라도 우리도 또한 救援받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응할 수 있고, 우리 自身の 이익을 넘어선 좀더 큰 理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치랜드 : 동감이다. 죄와 구원의 변증법에서와 같이, 어떠한 변증법에서든지 항상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다. 즉 어떤 시대에는 긍정이 강조되고, 또 다른 시대에는 부정이 강조된다.

근대 〈技術〉이 17세기에 救援의 代理人으로서 무대에 튀어 나왔을 때 그것은 위대한 낙관주의 시대로의 길을 열었다. 지금은 〈技術〉이 봉착한 問題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좀더 悲觀的 局面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리가 共同善, 救援的 側面, 그리고 肯定的 側面을 강조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동감이다. 나는 企業 내에서의 合意에 의한 정책결정과는 반대되는 美議會 내에서의 이해관계에 얽힌 다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우리가 그런 對抗的인 政治體制를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양당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政治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政綱상의 鬭爭보다는 會社 운영에서 좋은 점을 배우고 또 합의에 의한 정치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개의 軸 중 어느 것이 강조되는가는 시대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技術이 중추적이 되고 科學이 중추적이 되면서도 원래의 救援的인 성격이 사라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批判되어야 한다. 현재 〈技術〉에 대한 부정적 비판은 매우 크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모두가 그 토대 위에서 작업중인 그러한 肯定的 側面을 지적해 낼 우리의 技術神學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질문 : 만약 당신이 批判과 逆批判의 전체 모습을 볼 때 실존주의의 哲學的 體系가 당신의 비판 概念에서 어느 정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體系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 당신은 그 批判이 틀림없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그것은 당신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哲學的 解釋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인가?

머치랜드 : 實存主義는 단순히 두 가지 서로 다른 영역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시켜 갈 수 있다는 실례로서 든 것뿐이다. 나는 그것을 흥미있다고 생각하며 또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과정적 접근방법이나 다른 어떠한 종류의 철학도 이용할 수 있다. 실존주의는 어렵고 매우 탐탁찮은 측면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또한 모든 實存主義者들은 피짜였다. 그러나 내가 추출한 점들은 유익한 것들이었다고 생각한다. 實存主義에는 중요한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 생각들이 價値있고 따라서 學生들은 그에 관하여 알아야겠지만, 大學生이 읽을 만한 實存主義 哲學作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어렵다.

질문 : 내 생각에 企業資本主義——經營資本主義——는 19세기와 금세기의 30년대까지를 지배해 온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形態의 資本主義가 아닌가 한다. 지금은 專門指向의 시대이다. 財産所有權은 더 이상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문제는 專門的으로 教育받은 技能과 그에 바탕을 둔 계층질서, 그리고 이들 기능의 발전과정 등이다.

나는 企業을 약간의 타당성을 지닌 일부 社會主義 批判에 대한 타협안이거나, 아니면 이를 종합하여 止揚하려는 노력의 산물인 것으로 본다. 구속받지 않는 資本主義가 모두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아마 인간은 것처럼 많은 自由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지적한 實存主義의 고민에 잘 나타나 있다.

본질적으로 企業은 人間의 自由를 크게 제한해 왔다. 기업에는 강한 온정주의와 그러한 온정주의에 수반해서 생겨난 많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 귀하의 코멘트를 바란다.

머치랜드 :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유만을 가진다는 귀하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企業과 같은 社會組織體들의 役割은 항상 自由에 방향을 두고 統制하며, 어떤 점에서는 자유의 에너지를 길들이는 것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그것이 사회주의가 예

언자적 傳統에 의지하는 데 대해 내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다. 나에게서는 豫言者的 傳統이 全體的 理想像에서 매우 적은 部分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차원이다. 왜냐하면 豫言者들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歷史的 環境에서는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한 自由를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豫言主義를 정치적 설계의 기초로 삼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自由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 價値, 必要的 價値로서, 그러나 절대적으로 제한된 가치로서 소중히 하여야 하며 自由 過剩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까뮈는 自由 過剩에 대하여 『反抗的 人間』이라는 아름다운 소설을 썼다. 그러한 過剩은 필연적으로 政治的 武器로서 학살과 살인을 유도한다. 까뮈의 이 책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질문 : 技術에 관한 社會主義者들과 사회주의의 태도를 비판한 당신의 코멘트를 흥미있게 들었다. 또 다시 우리는 社會主義가 技術에 대한 提案이나 解決策을 제시하기보다는 批判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 東西 兩陣營에 權力의 集中, 技術의 集中과 같이 일종의 억압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억압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머치랜드 : 그런 特色을 지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技術을 自由의 도구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技術이 集中化와 計劃樹立의 道具라는 것을 알게 된다. 레닌은 革命의 大義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西歐의 技術을 훔쳐야——내 생각으로 훔친다는 말은 레닌 자신의 표현이다——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과 같다고 본다.

〈技術〉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反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正統派 決定論으로 社會全體의 技術的 장치를 포함한 生産樣式이 社

회의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急進的이고 硬直的인 決定論인 것이다. 또 하나는 좀더 온전한 입장으로 <技術>을 中央集權的 政府와 集權的 經濟體制를 包含한 共產主義 目標들을 수행하는 手段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美國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技術을 革命으로 發展시키는 手段으로서 解放을 위한 것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技術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各者가 자기네 뒤뜰에 發電機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物質的 요구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社會主義者들이 필연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그리고 宗教的인 社會主義者들은 그것을 거의 완전히 빠뜨리는 것 같다——은 <技術>의 절대성, 近代技術의 性格, 近代技術의 大規模性, 近代技術의 순수한 창조성, 그리고 技術의 知的·學問的 基礎 등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나, 보잉 항공기회사들 어떻게 民主的으로 계획하고 民主的으로 통제하고 民主的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보잉항공기는 어떤 개인 집의 뒤뜰에서 제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民主的 平等에 대한 社會主義的 見解는 성격상 不可能한 知識의 平等이라는 관점도 수반하고 있는 것 같다.

질문: 만약 近代企業에 있어서 소유권의 기능이 별로 큰 意味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企業의 또 다른 모델을 상정할 수 없을까? 즉 株主들은 별 의미가 없고 經營陣을 포함한 大衆과 勞動者들이 좀더 중요하며 株主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經營陣을 포함하여 生産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업경영에서 株主는 貸主가 되는 그러한 모델에 대하여 생각할 수는 없겠는가? 이 모델에서는 重役會議의 忠誠과 統制權은 그 企業의 株主가 아니라 勞動者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머치랜드: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의 경우, 실지로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타임(Time)』이나 『뉴스위크(Newsweek)』지를 보

254 企業에 대한 社會主義的 批判

자. 그런 기관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겠는가? 기자들과 編輯者들이
것이다. 어디서든지 最高位層에서 政策이 결정되지만 만약 각 部門別
編輯者들이나 記者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잡지가 만들어
질 수 없다.

내 생각으로 權力은 多元的인 概念이다. 權力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다. 레지널드 존스(Reginald Jones)가 아주 잘 묘사한 바와
같이 議長의 권력은 大學總長의 권력과 같이 實在(real)하는 것이다. 그
러나 나는 우리 大學의 總長이 眞的인 意味를 제외한다면 나보다 權力
을 더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권력
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대학의 目的에 좀더 중추적인 어
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作家, 엔지니어, 제도공 등이
企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좋은 점이다.
그리고 물론 다른 종류의 企業들도 상상할 수 있다.

질문: 社會主義 企業이 資本主義 企業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머치랜드: 아마 귀하의 질문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企業과
資本主義 企業의 구별을 묻는 것 같다.

예컨대 生産性이라든가, 각 企業이 富를 창출하고, 生活水準을 향상시
키는 데 얼마나 效果的인가 등을 보라. 그런 特殊한 형태의 企業 내
에서 勞動者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해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實在主義의 기준 중의 하나를 들어서 이 組織이 權
力에의 意志를 어떤 식으로 表現한 것인가를 따져 보라. 會社가 잘 움직
여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최대의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일하고 있는
가? 勞動者가 거의 統制하고 있는 社會主義 企業이 資本主義 企業과
크게 유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흥미로운 質問이다. 근래에 와서 모든 것이 다 잘 섞
이게 되어 모두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社會主義者요, 또 어떤 부분에는

資本主義者가 된다. 모든 사람이 부분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이며, 부분적으로 가톨릭이며, 부분적으로 無神論者이다. 우리는 일종의 收斂時代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유고슬라비아의 企業과 美國의 제너럴 일렉트릭社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差異點들이 존재한다. 問題는 경험적인 것이며 우리는 事實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흥미로운 問題이지만 다음 기회로 넘기겠다.

질문 :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資本主義, 民主主義, 社會主義, 技術——그들 스스로 神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神學, 宗教, 그리고 精神的·道德的 洞찰력을 갖고 대할 만한 水準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일들은 빠짐없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精神的인, 그리고 宗教的인 洞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그 점을 이해해 왔다. 예수는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어려운가를 이야기하였다. 만일 그가 社會主義 經濟의 經營者와 經濟計劃 樹立者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살던 곳에 코끼리들이 있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또 다른 비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技術>과 科學에 구원이 있다는 베이컨의 말은 아마도 인간이 가졌던 가장 기괴하고 잘못된 인도된 이상의 하나이다.

밀턴(Milton)과 포프(Pope), 스위프트(Swift)도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 생각에 우리 시대에는 간디나 출제니친 등이 비슷한 비판을 하였다. 資本主義나 심지어 民主主義에 따라다니는, 내게는 천박하고 형편없는 概念처럼 보이는 것——民主主義에서는 만사가 多數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요한 점——에서 오히려 항상 全般的인 觀點이 발견되는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모든 種類의 기괴한 決定을 끌어낼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머치랜드 : 나는 그 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豫言主義의 기능을 인정할 용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의 하나는 이 경우에 철학과 신학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구원 기능의 現象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내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정의 하나는 中世哲學史이다. 中世神學者나 哲學者에 대한 나의 인상은 그들이 완전히 그 사회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중요한 行政的 役割, 중요한 教育的 機能을 수행했으며, 그들은 그 당시 科學的, 技術的 發展의 선구자가 되었다.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은 암호로 科學論文을 썼는데, 그것은 아직도 해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몇몇 科學者 집단에서 배력의 원천이 되었다. 歷史上 科學과 技術發展의 전면에 나선 중추적인 사람들은 神學者와 哲學者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神學的 그리고 哲學的 限日으로 科學的인 아이디어들을 훌륭하게 다루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이 주로 豫言者的 役割에 관해 언급한 과학·기술과 철학·종교의 分離主義的 立場이,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남겨 놓는다. 神學없는 資本主義, 神學없는 이것, 哲學없는 저것,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귀머거리, 병어리 市民들이 될 것이다.

질문 : 우리가 매디슨(Madison)으로 돌아가서 근대의 主權擴散에 대해 무엇인가 얘기할 수 없을까? 매디슨이 아직 살아 있다면 당신이 主權擴散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20세기판 派閥主義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매디슨이 『聯邦主義者(Federalist Papers)』에서 주장하고 있는 派閥主義는 실은 미국의 새로운 企業, 農業과 商業으로부터 나온 派閥主義였다. 派閥主義는 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로 權力的 擴散이라기보다는 오히려 近代 派閥主義의 확산일는지 모르며, 그러한 派閥은 行政府, 專門職, 科學機構, 그리고 정치 그 자체인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근대 정치가들이 제공할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세로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당신의 주장에 동감이다.

머치랜드 :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매디슨은 동일 논문에서 派閥主義에 관하여 좋은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는 만일 파벌주의가 운영될 수 있는 헌법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派閥들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現存하는 政治狀況의 중요한 상징의 하나는 <技術>이라는 이 새로운 요소이다. <技術>은 존스가 말한 派閥主義를 초래하였다. 왜? 그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敎育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專門家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디슨이 그 시대에 수행했던 구조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문헌에서 자주 나오는 상투어는 오늘날의 政治理論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政治的 挑戰은 매디슨이 그 시대에 수행한 것을 우리 시대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技術>의 中心的 役割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급은 뉘먼저 이 <技術>에 의해 창조되었다.

질문 : 다시 <技術>의 그러한 점에 관해서 말하겠다. 美國 憲法 第1條에 進歩(progress)라는 單語가 나오는데——이는 全文에서 이 單語가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다——議會가 각 개인이 그들의 특권을 보유할 權利를 保障하고 진보에 대비하도록 허용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憲法을 再編할 필요가 있다는 당신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내 생각으로는 美國 憲法基礎委員들은 進歩가 무엇이며 어디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建國 有功者들이 생각했던 進歩에 비하면 오늘날 세속화된 進歩는 形而上學的으로 훨씬 더 비현실적인 것 같다.

머치랜드 : 그러나 技術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 하나의 능동적인 힘이다. 그

것은 媒介體이며 手段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人類가 選擇을 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한 手段이다. 近代 기술은 이전 시대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中性子彈을 동굴 속의 곤봉과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技術의 質的인 性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엘릴(Elul)은 技術이 독립적인 힘이며, 魔力的이며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哲學者, 神學者, 그리고 政治學者들이 말하는 技術에 대한 대부분의 문장들을 보면, 그들은 技術을 우리 內部에 있는 獨立的인 힘이라고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그것은 수정하고자 한다.

技術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選擇을 表現할 수 있는 가장 強力한 媒介體이며, 가장 強力한 手段이다. 이는 우리가 決定하는 主要한 選擇들이 技術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選擇된 世界에 살고 있다. 이것이 技術은 자유로운 主體들에 의해 利用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獨立性 主張의 立場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政策決定은 技術으로써 이것, 저것을 해야 하는 産業, 政府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獨立的인 힘이 아니라 매우 強力한 手段이다.

질문: 기술이 그렇게 능동적인 힘이기 때문에 美國 憲法이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순진한 것 같다.

머치랜드: 여기서 <능동적인 힘(active force)>이란 말이 문제인 것 같다. 귀하는 '능동적인 힘'이 인간의 意圖와 계획을 實現하는 하나의 強力한 手段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질문: 쟁기(plowshare) 이상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머치랜드: 그러면 당신은 근대 技術과 原始的인 技術간의 質的인 차이를 인

정하지 않는가?

질문: 質的인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기술이 나의 選擇能力에 대하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머치랜드: 우리의 의견 차이는 바로 그 점에 있다. 귀하는 오늘날 우리의 技術的 選擇이 활과 화살을 사용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가? 당신은 核戰爭 遂行決定이 활과 화살로 싸우던 ‘百年戰爭’ 시기보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데 동의하는가?

질문: 同意한다.

머치랜드: 그러면 우리의 選擇의 質은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技術的 狀況에서 우리의 自由를 行使하는 방식은 헨리 4세가 그의 自由를 행사하는 방식과는 실제로 다르다.

질문: 量的으로는 그렇지만 質的으로는 그렇지 않다.

머치랜드: 바로 그 문제가 이 論議에서 가장 중요한 核心의 하나이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의 하나이다.

질문: 당신이 경험의 ‘架空的(fictive)’ 차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좋다고 보나 ‘想像的(imaginative)’이라는 말이 더 좋은 表現이 아니겠는가?

머치랜드: ‘架空的’이란 말은 니체의 말이지만 그것이 여기서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니체는 우리의 경험을 ‘架空化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거기에 없던 어떤 것을 거기에 놓는

다는 意味이다. 우리는 工場을 세우거나 貨幣를 발행한다. 貨幣는 技術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허구이며 단지 우리가 창조한 어떤 것, 우리가 目的을 부여한 어떤 것이다. 즉 우리가 그러한 目的들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있지 않았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架空的' 또는 '想像的'이라는 單語들을 얼버무리 넘기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 TV 광고를 보면, 그들은 '架空的'이며 훌륭한 허구는 實體를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는 허구의 世界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虛構들은 그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實體에 대한 고유의 시금석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虛構는 다른 허구들보다도 낫기 때문이다.

카뮈는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에 의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獨逸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獨逸의 프랑스 占領에 대해 그가 反對하는 것은 잔인성과 물리적 억압 때문이라기보다는 獨逸인들이 프랑스인들의 삶의 指標가 된 이미지를 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像(image)', '想像(imagination)', '虛構(fiction)'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 機能을 이해하는 한 모두 좋다.

질문: 나의 질문은 技術에 포함되어 있는 神學的 次元과 中世 수도원에서 태어난 것으로서의 神學, 그리고 近代 수도원인 企業에 關係된 것들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神學이 좀더 넓은 意味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머치랜드: 技術의 歷史 대부분이 중세에서 비롯되었으며 세 가지 技術이 中世에 背景을 두고 있다. 機械技術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技術이다. 또한 貨幣의 技術이 있고, 세제로 法律의 技術이 있다. 法律家들은 法을 技術로 간주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機械와 貨幣가 技術이라는 것과 같은 意味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은 中世의 背景을 가지고 있어서, 몇몇 현대 脫레마의 直接的인 뿌리를 켜다고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득하고, 神話的이며 근본적으로 중요한 淵源을 캐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기술의 神話學에 관하여 보다 많은 作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성과는 적지만 그것은 技術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첫 段階가 될 것이다.

질문 :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이라는 베이컨의 관념과도 관련되는 이야기인가?

머치랜드 : 그렇다. 내 생각으로 우리는 베이컨의 관념으로 돌아가야 한다. 린 화이트(Lynn White)는 근대 기술에 관하여 유명한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서 그는 기술은 支配力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베이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베이컨은 技術을 救援行爲라고 보았던 것이다. 나는 우리가 베이컨을 다시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 내 생각에 해밀턴 같은 사람들은 베이컨을 어느 정도 읽었음에 틀림없다.

非營利法人으로서의 財團

메리몽 커닝엄
Merrimon Cuningim

非營利法人의 예로서 民間財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倫理的(神學的은 아니지만) 重要性을 갖는 몇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969년에 財團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下院 歲入委員會에서의 증언이 좋게 되어가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윌버 밀스(Wilbur Mills)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財團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신경이 예민해졌다. 밀스와 그의 委員會는 포드財團이나 록펠러財團 등과 같이 거대한 재단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런 재단들의 代表者들은 下院에 제류 중이던 稅法改正案(Tax Reform Act)에 관한 그들의 증언을 사전 조정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1969년의 稅法改正案(TRA-69)은 재단의 代表者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재단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稅法改正案이 財團들에게 손해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1969년은 美國社會에서 財團에 대한 하나의 分水嶺이 되었다. 10개월 반 동안 議會에서 財團과 재단의 계획에 관하여 討論이 벌어졌다. 1969년 2

월 下院 歲入委員會에서 첫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財團들은 그들이 심각한 문제에 말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12월 말에 가서야 크게 놀라게 되었다.

財團에 대한 새로운 聯邦法律의 주요한 관심사는 처음으로 부과되는 4%의 會計監査手數料(지금은 2%로 낮아졌다), 6%의 支拂準備金, 다른 慈善團體보다도 적은 租稅上的 인센티브, '立法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試圖'도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

만약 금지한다는 말을 그 정도에서 끝마쳤더라면 어떤 財團측 人士도 이런 條項들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法律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公共大衆이나 그 일부의 意見에 영향을 주려는 試圖를 통하여 立法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試圖'도 금지한다는 條項을 설정하였다. 財團의 活動이 아무도 흥미를 갖지 않는 일에만 제한될 것인가? 마침내 일반적인 敵對的 態度和 새로운 法律에 스며들어 있는 財團에 대한 膺懲姿勢로 인하여 재단들은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였다. 어떤 결과들은 당시에도 유익하다고 인식되었으나 최근에 그 성격이 더욱 분명히 인식된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利己的 分配(self-dealing)를 중지시키는 노력을 가져왔다. 이 점에 관하여는 새로운 법률이 미진하여 재단측이 바라는 만큼은 미치지 못하였지만 일단 그런 일을 시작한 했다. 또한 財團들의 完全公開를 촉진하는 노력도 있었다. 즉 새로운 法律은 財團들이 公共大衆에게 그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누구에게 補助金을 지급해 왔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것 또한 철저히 못하여 公共大衆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완전 公開를 보장하는 의무조항이 없었다.

새로운 法律은 애매한 概念인 費用責任(expenditure responsibility)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投資政策의 改善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法律이 명백히 의도하는 것은 財團들이 지금까지의 活動을 再檢討하고 서로 協力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결과로서 재단들의 協會格인 財團平議會(Council on Foundations)가 크게 강화되었고 큰 도움이 되어왔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그리고 TRA-69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은 그 당시 이슈들 중 대부분이 아직도 존속하기 때문에 아직은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法律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아직도 있으며 또한 새로운 法律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財團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法人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슈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法人의 地位와 活動이 갖는 倫理的 意味(ethical implication)가 무엇인지 法人들에게 묻기 전에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이전보다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法人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대부분 防禦的이고 保護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단들의 업적을 자세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한 기록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해 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切版되어 있다.

慈善事業團體

美國에서 慈善事業은 사실 많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쓰이는 돈은 적으면서도 큰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1978년에 396억 달러, 1979년에 433억 달러). 絕對額의 增加에도 불구하고 國民總生産 중에서 慈善事業支出(philanthropic spending)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88%에서 1979년 1.83%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遺贈을 포함하여 개인이 내는 寄附가 전체 慈善事業의 90% 가까이 된다. 433억 달러 중 나머지 10%만이 企業의 慈善事業을 포함한 慈善團體로부터 나오고 있다.

내가 말하는 '慈善事業團體'란 個別 財團法人體(separate incorporated foundation body)를 통해서보다는 委員會(committee)를 통하여 慈善心を 끌어 모으는 企業의 慈善委員會나 혹은 기타 多樣的 種類의 財團을 가리킨다. 이 분야는 매우 各樣各色이며 그 대상을 財團으로만 한정하더라도 각

財團들간의 차이는 교회나 대학들간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 나는 한때 다음과 같이 財團을 定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즉 “재단이란 民間이 설립하고 운영하나, 公共의 利害와 관련되고, 정부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통상 기부금(endowment)의 형태로 金融資産을 소유하며, 補助金(grant)의 형태로 일반후생이나 그 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非政府機關(non-governmental agency)이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의 主題를 明確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 非政府(non-governmental)라는 용어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간략한 定義에는 財團이 民間機關(private agency)이라고 쓰여 있으나 여기에서 <民間(private)>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財團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公的인 돈이지 어느 個人의 돈은 아니다. 그 돈은 어떤 個人 기부자가 一般厚生이나 一般厚生 중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따로 出損한 것이다. 이는 寄附者의 公共目的을 위한 出捐에 대해 稅上의 혜택을 줄 정도로까지 法律의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은 公的인 돈이다. 많은 재단들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非政府라는 용어가 民間이라는 용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이다.

財團이 소유하고 있는 돈과 마찬가지로 재단의 活動 역시 公的이다. 財團의 활동도 公共大衆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돈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에 관한 財團의 결정이 개인에 의해(privately)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民間이라는 용어를 재단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결정이 隱密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民間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定義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財團의 資源이 기부금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떤 재단들은 家計나 企業으로부터 收入을 얻고 있으므로 寄附金 이외의 財源을 갖고 있다. ‘통상 補助金의 형태로’라는 어귀를 내가 내린 定義의 끝부분에 넣은 까닭은, 財團들 중에 지명된 수령인에게 補助金을 지급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일

을 하는 재단이 있기 때문이다.

財團의 類型에는 獨立財團, 地域社會財團, 企業後援財團의 3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企業의 慈善委員會는 3 번째 범주에 속한다.

地域社會財團의 수효는 약 230개 정도이며, 그들이 매년 지급하는 補助金은 9천만 달러를 넘고 있다. 그들의 資産은 약 14억 달러이며, 여러 곳에서 寄附金を 받고 있고, 法律上 다른 모든 형태의 財團에 비하여 우대 조치를 부여받고 있다. 地域社會財團들은 公共慈善團體(public charity)——이는 稅法改正案에 나오는 전문용어이다——로 규정되며 그들에게 기부하는 사람들은 租稅上 特惠를 받을 수 있다. 몇백만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家族財團(private family foundation)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地域社會財團에 기부하는 일이다.

企業後援財團과 慈善委員會는 企業의 慈善事業을 수행하는 組織이다. 企業의 慈善事業 寄附金은 1978년 20억 달러에서 1979년 23억 달러로 최근 들어 급속히 증대하였지만 企業들이 내는 慈善寄附金은 전체 慈善 사업비의 5%를 약간 上廻하고 있을 뿐이다.

1979년에 처음으로 企業들에 의한 寄附金이 獨立財團들에 의한 기부금을 능가하였다. 지난 해에 순전히 慈善用途에 이용될 수 있는 貨幣金額으로만 볼 때 다양한 형태의 企業基金(company funds)이 모든 民間財團基金(private foundation funds)을 능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企業寄附金이 증대될 여지는 많다. 기업들에게 稅前利潤의 5%까지 그들의 課稅對象所得에서 寄附金を 控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지난 해 企業들이 낸 23억 달러의 寄附金은 稅前利潤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길은 많다.

우리가 財團에 대하여 생각할 때던 늘상 마음 속에 떠올리는 獨立財團은 지금 약 2만 1천개에 달하고 있다. 1971년, 財團센터의 추정에 따르면 그 당시의 獨立財團은 약 2만 6천개였다. 이같이 수자가 줄어든 것은 稅法改正案 결과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새로운 財團을 設立하지 않은 데다 既存 재단 중 많은 수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獨立財團 중

결반에 가까운 47%가 10만 달러 이하의 資産을 소유하고 있으며, 85%가 백만 달러 이하의 資産을 소유하고 있다.

企業後援財團을 제외한 地域社會財團 및 獨立財團의 연간 기부금은 20억 달러를 넘고 있지만 企業後援財團들의 23억 달러에 비하면 적은 것이며 額數도 줄어들고 있다.

누구나 이 분야에서의 巨人들을 알고 있는데 그 수자는 많지 않다. 資産을 1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財團은 35개 정도이다.

財團은 美國社會의 獨特한 産物이다. 美國의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와 똑같은 형태의 財團을 발견할 수 없다. 西歐나 日本에도 類似한 것이 있지만 財團은 美國의 創造物이며 미국 資本主義와 美國式 利潤 추구 衝動의 아들이다.

재단을 반쯤 자유로운(semi-free) 企業이 낳은 子息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만약 政府에 의한 規定이 없고, 慈善目的에 쓰기 위한 돈을 따로 내는 사람들에게 政府가 租稅上의 特혜를 주지 않는다면 財團이라는 것이 존재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財團을 세우는 것은 반쯤 자유로운 企業이지 완전히 자유로운 企業은 아니다. 더우기 재단들은 무엇보다도 美國的 宗教觀의 産物이며 특히 프로테스탄트 倫理(protestant ethic)가 낳은 결과이다.

美國 내에서 慈善事業團體의 노력은 대단하여 연간 합계가 곧 5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전체 慈善事業活動의 10%를 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정부나 기업에 의한 消費支出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그 돈은 이룰테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고 利潤을 추구하지 않는 부문에 있어서 活力의 원천이고 많은 중요한 기관 및 相關事業에 대한 주된 支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制限된 資金力에 비해 훨씬 더 큰 의미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친다. 그것은 慈善事業團體가 우리 사회의 健康에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가 慈善事業團體의 現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財團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얼마 전에 『체인지(Change)』라는 잡지가 후원하는 ‘財團의 장래’

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즉 美國社會에서 財團에 대한 의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재단들 사이에 公的 信賴가 붕괴되고 재단 내부의 權限도 침식당하고 있다. 財團들을 위한 새로운 理論的 根據가 필요하다. 워싱턴 당국이 조속히 새로운 視角으로 財團들을 대할 것이 기대된다. 최근 달러스에서 있었던 財團平議會의 모임은 獻身의인 재단측 人士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關心事들에 대한 意見을 토로하였다. TRA-69 이래 “새로운 財團의 設立率이 급격히 하락해 왔다는 사실은 재단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친구와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한층 더해 주는 것이다.”¹⁾ 나는 재단을 경제적 실체, 중요하면서도 전문화된 기업의 일종으로 나뉘어야 하는 4가지 그룹의 많은 문제점들을 앞으로의 論議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補助金支給의 問題點들

첫번째 범주의 문제점들은 財團들의 計劃과 기타 活動 및 計劃의 提案者와 受惠者에 초점이 맞춰진다. 물론 財團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計劃을 통해서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단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補助金이다.

무엇보다도 財團들은 請願人(petitioner)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어떤 재단들은 請願人들을 무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그들의 편지를 도매금으로 쓰레기통에 처넣는다. 문제의 核心은 대부분의 財團들이 각자 접수하는 請願이나 提案들 중 5% 이상은 應諾할 能力이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접수되는 請願이나 提案들 중 적어도 95%가 拒絕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提案이나 請願에 쓸 돈이 없는 것이다.

受惠人들과의 관계 또한 재단들에게 골치아픈 부분이며, 受惠人(reci-

1) Landrum Bolling, Council of Foundations, *Annual Report*, 1979.

pients)들이 점점 따지길 좋아하고 協商과 交渉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양자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財團의 計劃에 대한 壓力이 批判이라는 형태로 다른 財團이나 政府機關, 기타 組織團體로부터 가해진다. 종종 우리는 大學이나 教會로부터 批判을 받는 企業들의 不滿을 財團측으로부터도 듣는다. 나의 느낌으로는 大學이나 教會로부터 批判받는 것은 不可避하다. 우리 사회에 大學이나 教會와 같이 힘과 영향력을 가진 巨大한 組織體가 들고 일어나는 종류의 문제처럼 민감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비록 이전까지는 거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것이지만 財團에 대해 상당한 비판이 가해진 후에 재단이 내놓는 계획의 한 가지 특징은 補助金を 支給하는 과정이 財團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되는 것이 보조금에 대한 追跡과 評價의 과정이다. 한때 財團들이 전혀 추적을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 점도 지금은 달라졌다. 만약 재단들이 自己防禦를 잘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다른 非營利企業이나 조직과 비교할 때 財團들 역시 支持 기반의 결여로 고통을 받는다. 美國에서 거의 모든 다른 機關들이 그 支持 기반에 의존할 수 있는데 반해 財團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69년 사회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들어오는 財團에 대한 支援(寄附金を 의미함)이 거의 사라졌을 때 명백해졌다.

財團의 計劃과 관계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종류의 문제들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財團들은 그들이 봉사할 새로운 機會, 이전 기회들 사이의 優先順位, 가장 유망한 기회에 대응하는 戰略 등에 관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문제들은 모든 慈善團體들을 괴롭히며,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은 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훨씬 많다. 財團들의 계획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倫理的 함축성이 있는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몇 가지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말할 수 있

는데, 재단들은 그들 자신이 善行을 하기 위하여, 인간과 인간이 만든 制度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人類全體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事物을 變化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財團들이 그들 자신의 可視範圍 내에 있는 地域에서 善行을 하고, 어떤 것을 改善 또는 變化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假定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活動은 무의미한 것이었을 것이다. 財團은 現狀을 固着시키기 위하여(status quo)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變化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나는 이 점이 매우 어렵고 심각한 反響을 가져오는 재단의 計劃들이 갖는 倫理的 含蓄성이라고 생각한다.

構造와 經營의 問題點들

오늘날 재단에 대하여 두번째로 중요한 영역은 構造와 經營의 영역이다.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새로운 것들인데 그 까닭은 오랫동안 財團들 자신이 “재단은 가장 經營하기 쉬운 組織에 속한다”는 假定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財團들은 그런 假定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意識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전에 나는 美國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떤 財團의 理事長과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즉 그가 요사이 財團理事會의 構成과 機能에 대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슨(John Nason)이 財團理事에 대하여 쓴 신간서적²⁾이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財團理事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活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즉 대학 재단이사회의 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한 모든 연구는 전혀 그러한 재단이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2) John Nason, *Trustees and the Future of Foundations* (New York: Council of Foundations, 1977)

예를 들어 봉급 지불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財團理事에게 봉급이 지급되어야만 하는가? 대부분의 財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美國에서 유명한 財團 중 어떤 재단은 理事 각각에 대하여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 財團은 포드재단처럼 큰 財團은 아니다. 포드財團은 年 5천 달러만을 지급한다. 록펠러財團은 연간 3천 달러를 지급하며 카네기재단은 會습을 가질 때만 겨우 250달러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財團 전체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두 財團이 다른 모든 財團들에게 불명예를 끼칠까 봐 염려해서이다. 봉급과 다른 중요 문제에 있어서 財團理事會는 영리추구 企業의 理事會를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非營利機關의 理事會를 따라가는 것이 실제의 경향이다.

덧붙여 諮問委員會 및 相談役의 機能에 대하여 또한 專門職 要員들의 기능과 資質에 대하여 의문이 일고 있다. 財團職員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재단의 業務에 대한 어떤 특별한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美國에는 불과 천 명 정도의 <慈善團體任員(philanthropoid)>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慈善行爲를 하는 사람에게 종종 적용되는 말인 <博愛主義者(philanthropist)>와는 물론 다르다.

理事會에 있어 한 가지 심각한 의문은 政策과 經營의 구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營利機關이든 非營利機關이든 다른 理事會에서 배우는 것은 理事會가 政策을 담당하고 집행부가 經營을 담당하며 兩者 사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그러나 財團의 活動에 있어서는 경계선이 분명치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財團理事會의 멤버가 다른 기관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財團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 묘한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우리는 財團理事가 연설해 주고 謝禮金을 받는 것은 허용해 왔으나 명예학위는 허용치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教授로든 學生으로든 大學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만이 名譽學位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姊妹財團 중 한 財團은 우리와 정반대되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謝禮金은

받을 수 없지만 名譽學位는 여러 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構造와 經營에 관한 財政上의 문제들도 있다. 즉 인플레이션에 의한 資産의 減少, 投資決定의 自由문제, 즉 寄附者가 제한을 두지 않을 때 財團은 어느 곳에든지 投資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豫算 집행의 恣意性과 같은 문제 등이 있다. 교향악단이나 병원, 대학 등의 활동예산은 결코 마음 내키는 대로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收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非營利機關들과는 달리 財團이 豫算을 편성할 때에는 그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데 이는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財團의 예산 문제는 財團 運營에다 돈을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같이 봉급액의 규모가 財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다. 대부분의 재단들은 大學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主要 財團들의 理事長은 大企業의 社長이 아니라, 主要 大學들의 總長에 비견될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 둘의 예외가 있어서 여타 財團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좀더 자세히 언급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조와 경영의 分野에서 倫理的 意味를 갖는 다른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즉 法人에 의한 不動産의 永久所有(dead hand)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 口頭上 혹은 文書上의 寄附者의 意向, 利他心에 반대되는 利己的 分配(self-dealing) 및 自己利益追求(self-serving), 재단의 돈은 아직 자기의 個人金庫라는 기부자의 느낌, 이익 추구하고 無私無欲간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복잡하고 민감한 倫理的 觀心을 불러 일으키며 어떤 재단도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對外關係의 問題點들

내가 세번재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財團의 對外關係 특히 對政府關係이다. 여기에는 TRA-69의 殘滓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서부터 政府機

關의 壓力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 補助金을 支給하는 政府機關들은 激勵補助金(challenge grants) 방안을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격려 補助金은 어떤 財團 特定の 훌륭한 大義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업에 資金을 지급해 주도록 재단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한편 재단들은 요즈음 政府나 다른 재단, 大學, 教會 및 기타 다른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共同의 大義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는 政府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다수의 非營利企業 및 營利企業들이 政府와의 협력 위험에 직면할 때 재단이 어떻게 자유롭게 남을 수 있는가?

나는 이와 같은 對外關係와 관련하여 재단들에게 2차적 혹은 派生的으로 적용되긴 하지만 그러한 派生的 效果 때문에 재단이 당면하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 한 예로서 租稅政策의 變化를 들 수 있는데 或者들은 그런 문제들이 個人寄附者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재단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만약 기부금의 受惠者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도움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財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非營利團體가 더욱더 政府의 恣意감면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독립기관들에 비하여 政府가 비대해지는 것은 財團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이다. 이와 같은 對外關係가 갖는 倫理的 含蓄성은 무엇인가? 재단들은 寄附金의 受惠者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어떤 종류의 利己的 分配나 利蝕 갈등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한두 財團을 어떻게 잘 發展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寄附金 受惠者의 이익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이 性格上 倫理的 含蓄성에 민감한 財團들의 활동을 批判하는 주요한 基準이 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재단간의 협력이 유도되고 재단의 計劃이나 활동에 있어서 共同의 大

義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재단들은 獨立的인 地位에서 意思決定을 自由롭게 하는 것에 더 큰 價値를 두고 있다.

財團의 對外關係에서 排除되어서는 안될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재단의 自由이다. 財團들은 多元主義, 開放性 및 責任性을 밀어 왔고 그러한 것들 속에 재단 활동에 대한 倫理的 意味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倫理的 問題와 基本的 價値

네번째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은 재단의 目的 및 倫理的 立場에 관한 것들이다. 요즈음 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중심적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재단의 目的이다. 왜 財團들은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렇게도 꺼리는가? 財團의 責任은 무엇인가? 그러한 責任性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公共大衆의 눈에는 재단이 어떻게 보이는가? 慈善行爲의 倫理的 意味는 무엇인가? 慈善行爲의 倫理的 基盤은 무엇인가?

나는 앞에서 財團의 行爲에 관한 倫理的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財團의 目的 검토를 진지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한 日常活動에서의 표면적인 倫理 규범의 實踐이 아니라 윤리의 意識的인 根源을 찾아서 요구한다는 것이다.

재단의 存在 및 本質的 性格은 모든 종류의 倫理的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재단들이 긍정해야만 하는 基本的 전제와 價値들이 있다. 나는 결코 우리가 財團神學이라는 것을 論議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倫理的 · 神學的 視角에서 財團들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倫理的 3部劇은 별 수 있는 데까지 별고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고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는 것이다. 실상 프로테스탄트 倫理를 實行하는 사람들은 별 수 있는 데까지 버는 것은 아주 잘하며,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는 것도 곧잘 하나,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는 것은 그다

지 능숙하지 못하다.

비록 慈善行爲가 종종 꺾이운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결코 꺾이운 것 때문에 주지는 않았었다. 또한 慈善行爲가 종종 恩惠를 베푸는 것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지는 않았다. 또한 慈善行爲가 賠償이나 德을 돈 주고 사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주지도 않았었다. 그들은 道德的으로 完全한 狀態(moral integrity)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준 것이었다.

나는 재단들이 긍정하는 價値들에 대해 몇 가지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한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분명히 재단들은 國益이나 國익의 一部와 관계를 갖고 있다. 美國은 自由社會라는 의미에서 財團들은 國益과 관계를 가지며, 財團들은 美國을 自由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政府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되며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相互 補完性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재단들은 요즈음 自由社會로서의 美國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스스로를 正當化시키는 좋은 手段을 찾아냈다.

이것은 대부분의 財團들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自己正當化에 관한 것 뿐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결국 財團들도 우리 사회의 中心的 價値를 받아들이고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근본에 있어 財團은 道德과는 關係없는(amoral) 것이 아니며, 財團이 道德的 혹은 倫理的으로 中立이라는 것은 억지이다.

財團들은 善을 定義하지는 않지만 善을 定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善을 定義하는 것은 아마도 敎會나 혹은 사회의 어떤 다른 機關일 것이다. 그러나 財團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의하여 어떤 道德的 前提를 두고 있다. 개별 財團이 이런 점에 진실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財團의 特性에 內包되어 있는 몇 가지 價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번째 것은 財團行動의 도덕적 완전성이고 두번째 것은 思考方式의 普遍性이다. 이것은 재단이 갖는 戰略의 獨特한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어떤 재단이 멕시코系 美國人(Chicano)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補助金을 지급하는 것은 재단이 教育을 특정한 그룹이 아닌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特殊한 일을 하면서 普遍性을 추구하는 것이 재단의 存在 理由이다.

세번째 前提는 자주 이야기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財團의 活動에서 필요한 人類에 대한 關心이다. 財團들은 매우 평판이 높은 조직만 예를 들더라도 美國學會協議會나 하버드大學, 클리브랜드交響樂團 등과 같은 組織들과는 궁극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財團들의 關心은 일반대중에 관한 것이며, 적어도 財團들이 그들 자신의 性格 및 默示的 價値體系를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거의 언급되지 않은 價値는 財團 自身の 虛弱함(frailty)에 대한 財團의 自覺, 혹은 神學的 用語로 표현한다면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財團의 自覺이다. 이는 주는 것이 非道德的인 行爲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財團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寄附가 德을 행하는 것이라는 假定에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즉 財團性格에 內在해 있는 도와주고자 하는 欲望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다시 도와주는 사람으로 認定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옮겨갈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또 다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意思決定을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간섭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만약 財團들이 그 자신의 倫理的 前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재단은 하나도 없다.

나는 慈善事業機關 특히 財團의 虛弱함을 제시하였기를 바란다. 그러나 재단은 아직 강력하며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재단의 世界는 그 內部에 돌보는 힘(혹은 보호하는 힘)을 갖고 있다.

新約聖書에는 예수가 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福되다”라는 말이 있다. 사실 학자들은 그 引用句가 확실한 것인지 여부를 논쟁하고 있지만 나는 확실한 것으로 믿는다. 그것이야 어떻든 또 우리가 祝福 받음을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사람들이 慈善事業機關의 倫理的 합축성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財團이 양심적으로 活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討 論

질문 : 당신은 美國的 價値에 대한 재단의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美國人들이 높이 評價하는 것들 중 하나가 多元主義(pluralism)인데 財團들은 다원적인가?

커닝엄 : 사업수행에 선택의 여지가 많은 커다란 재단들은 거의 예외없이 多元主義가 우리가 물려받은 국가적 遺産 중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그들 스스로 사업범위를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계획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財團인 포드재단조차도 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포드財團은 사업활동 범위 내에서는 그들 자신의 관점을 넓게 보급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경향은 25년 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질문 : 財團들은 능동적으로 活動하는가 아니면 단지 反應만 하는가? 財團들은 政府에 대하여 단지 反應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財團 자신의 일을 주도할 수도 있는가?

커닝엄 : 재단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改正稅法에 의하여 이전보다 감소되었다. 그 이전의 財團들 태도는 그들이 政府로부터 아무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改善된 지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改正稅法은 적어도 財團의 그러한 입장을 변화시켰다.

왜냐하면 財團들은 지금 政府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가끔 請願的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外部機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소 制限的인 措置로 야기된 財團들의 地位 下落과는 관계없이 재단들은 여전히 당신이 언급한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나는 앞에서 美國學會協議會(ACLS: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한때 ACLS는 會費收入 이외의 대부분의 資金을 財團으로부터 받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ACLS에 대한 지원 중 가장 큰 몫을 人文學支援基金(NEH: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으로부터 받고 있다. 美國學會協議會의 NEH에 대한 의존이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다. NEH는 그 자신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한 非營利機關들에 대한 광범위한 支援基盤을 제공하기 위하여 財團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질문 : 당신은 財團들의 돈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 마음 속에는 내가 教會에 가서 獻金函에 돈을 넣고 또 정부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나의 현금에 대해 租稅減免이 허용되기 때문이라는 類推가 떠오른다. 이런 논리로 나는 財團의 돈이 公的인 돈이 아니라 私的인 돈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커닝임 : 나는 돈이 쓰여지는 용도에 있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社會의 필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돈은 財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財團은 그 자신의 理事나 寄附者, 企業 등의 이익을 위한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재단의 資產은 公共厚生에 쓰여지거나 혹은 資金을 집중적으로 投入할 가치가 있는 공공후생의 특정한 부분에 쓰여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財團의

돈을 公的인 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돈을 쓰는 것에 대한 意思決定이 民間機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財團의 돈이 私的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질문 : 1969년의 改正稅法에는 財團의 돈 지출을 결정하는 倫理的 基準을 개선시키려는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귀하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동기를 어떻게 보는가?

커닝엄 : 그 문제는 복합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財團들이 그들의 資產을 公共大衆의 厚生을 증진시키는 데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어떤 財團들이 실제로는 政治的 目的에 돈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特定財團 任員들의 個人的 行動에 대하여 私的으로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

財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만도 다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때 改正稅法案 속에는 어떤 財團도 個人에 대한 보조금의 지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補助金의 지원대상 선택이 恣意的이고 변덕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런 조항은 일종의 膺懲措置였다. 議會는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한때 法案 속에 그 條項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조항은 削除되었다.

한때 法案 속에는 모든 財團들이 法律에 의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營利活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그 기간을 20년이니, 25년, 30년, 35년 등으로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40년으로 결정되었다. 그 조항은 膺懲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財團들로 하여금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결정에서 생겨난 副産物이었다. 왜냐하면 몇 안되지만 財團들에 의해 놀라운 濫用이 저질러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財團들은 財團 설립자의 수입을 간수하는 금고로서 財團理事會는 금고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상 아무 하는 일이 없었다. 40년이라는 時限은 그러한 행동에 벌을 주려는 노력의

하나였지만 훨씬 더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사회의 문제해결과 필요충족을 위한 能動的 計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할 때 결국 나는 비록 나 자신이 몸 담고 있는 組織이긴 하지만 財團들이 많은 不條理를 지질러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1969년 改正稅法 중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찬성해 왔다.

질문 : 財團들은 그들의 목적을 어디에서 얻는가? 財團들은 사회에서의 相對的 位置(bearings)를 어떻게 確認하는가? 財團들은 그들 자신의 價値體系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美國人들의 생활방식에 동의하는가?

커닝엄 : 나는 美國의 多元主義 體制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는다. 어떤 財團들은 그들의 目的이 무엇이어서 하는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 일반 사람들의 意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시대의 일반적 가치에 반대되더라도 그것을 넘어 더 멀리 가길 원한다. 어떤 財團들은 그들의 相對的 位置를 輿論調查로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教會集團 혹은 기타 다른 國民的 良心의 決定者로부터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또 어떤 財團들은 어떻게 하면 善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大學들이나 다양한 利害勢力으로부터 그들의 相對的 位置를 확인하고 있다.

나는 財團들이 그 자신 우리 사회의 價値를 정의하는 자로 자처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그러한 役割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미 財團들의 행동 속에는 神이 되고자 하는, 즉 神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을 神과 혼돈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財團들은 그들의 相對的 位置를 다른 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재단들이 그들의 相對的 位置를 한 가지 기준에서 確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財團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서 相對的 位置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특성지우고 축복해 주는 多元主義가 財團이나 慈善事業 分野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질문 : 귀하는 財團들이 接受하는 제안들 중 매우 적은 비율만이 補助金을 支援받는다고 말했다. 일단 자금이 모아지면 財團들은 그 많은 돈을 분배하는 導管이 되어서 經濟體制에 의하여 생산된 剩餘資源을 처분한다.

그렇다면 정신분열증 같은 얘기 아닌가? 우리가 資源이 희소한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가 財團들을 감시하는 警察官이라는 생각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資源이 풍족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財團을 통해서 풍족함을 나누어 주는 導管이라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은 資源이 희소한 세계인가 풍족한 세계인가? 財團들의 世界觀은 무엇인가?

커닝엄 : 나는 프로테스탄트 倫理의 殘滓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 간단히 말해 벌 수 있는 데까지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하고, 줄 수 있는 데까지 주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倫理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숙된 基督教 倫理가 아니라 財團의 활동을 묘사하는 有用하고도 간편한 表現이다. 財團은 利潤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가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려고 하지는 않는다. 財團은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資源에 대한 충실한 下人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財團의 投資政策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財團들은 收入이나 貯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주는 일이다.

資源이 풍부하다는 가정에서 무엇이나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다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 어떤 財團은 다른 財團들보다도 좀더 풍족히 줄 수 있을 것이다. 財團을 통해서이든 혹은 단순히 사회의 個別構成員으로서든 그러한 행동이 우리들 누구에게나 적절한 행동인가? 나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믿는다.

내가 상대적으로 풍요하여 남에게 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나의 기부가 기부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한 결핍을 단지 짧은 시일밖에 해소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질문 : 19세기 때의 慈善事業은 어떠했는가? 所得稅는 191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세금과는 무관하게 19세기 전반에 걸쳐 독특한 美國的 慈善活動이 매우 활발하였다.

커닝임 : 19세기의 慈善活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財團들처럼 組織化되지 않았었다. 組織化된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 당시에는 피바디基金(Peabody Fund)이나 슬래터基金(Slater Fund) 등이 있었고 해방된 노예들을 教育시키는 활동에 寄附金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慈善的 衝動을 표현하는 색다른 방법이었다.

질문 :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所得稅法 成立 이전의 독특한 慈善活動에 好意的인 이 나라의 精神에 관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독특한 美國的 精神이란 많은 富를 축적한 부자들이 자신의 기부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참모들이 결정할 정도로 組織化된 寄附 형태를 말한다.

커닝임 : 물론 慈善機關의 설립이나 운영을 돕기 위한 개인적 寄附는 있었지만 19세기에는 따로 거액의 寄附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카네기財團이나 록펠러財團은 20세기 初盤의 產物이며, 우리는 寄附金으로 운영되는 財團을 19세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질문 : 나는 歷史를 잘 모르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빌딩도 세워지고 빌딩의 유지 및 활동에 쓰는 돈도 공급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이 혼한가?

커닝햄 : 그렇다. 개인이 특정 목적이나 과제의 수행을 위해 補助金이나 贈與를 제공하였다. 全國의 大學設立은 이런 방법으로 크게 도움받았다. 나의 母校인 밴더빌트大學을 보자. 1876년 어떤 海軍提督이 테네시주 내쉬빌에 大學을 세우기 위하여 내 생각으로 總額 1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록펠러도 개인적 寄附金으로 시카고大學의 출발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財團 같은 것이 없었고 실제로 寄附가 있기는 하였지만 내가 아는 한 비율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 점을 證明한 구체적인 수자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의 印象은 財團이나 재단이 설립한 회사나 교회에서의 獻金을 통해 많은 적든 기부금을 내는 美國人들의 취향은 상당히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이제까지 오늘날의 慈善活動 規模인 430억 달러에 도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액수는 돈이라는 측면에서 본 慈善事業이지만 다른 형태의 寄附까지 고려에 넣는다면 慈善事業의 범위는 굉장히 증대되어 왔고, 그것은 19세기나 18세기에 볼 수 있었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당신이 질문한 것은 나 자신의 個人的 經驗과 知識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나는 19세기의 寄附 性向이 18세기 때보다는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20세기에다 다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특히 지속적이고 민감한 補助金支給이라는 문제를 떠맡기 위하여 法律에 의해 특별히 설립된 조직으로서의 財團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런 형태의 財團은 새로운 것이다.

질문 : 나는 어떻게 우리가 美國에서 兄弟愛라는 개념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어떻게 그런 형제애로부터 주교자 하는 態度決定이 계속 생겼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왔다. 이 점에 대한 코멘트를 바란다.

커닝엄 : 한때 나는 財團의 任務가 性格上 내포하고 있는 몇몇 價値들을 나타내려고 시도했었다. 그런 價値들 중 時期的 制約 때문에 여태껏 말하지 않은 것은 人間 家族의 連繫性(relatedness of the human family)이다. 나는 財團들이 回避할 수 없으며, 또한 재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중심적 價値 중의 하나는 모든 人類가 같은 種族이라는 認識을 포함한 인류에 대한 관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시 나는 내 자신, 個別財團들이 이런 價値를 認定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社會에서 慈善事業團體가 전적으로 이전 價値를 認定하거나 혹은 그런 가치가 存在한다는 것을 그들의 活動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財團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業務를 잃어버리게 된다.

질문 : 두 주요 財團이 약 4백만 달러의 赤字를 안고 破産이 예정된 『하퍼(Harper)』誌를 구하려고 힘을 합하였다. 이는 주요 財團들에게 있어서 흔치 않은 행동이라고 보는가? 그 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커닝엄 : 개인적으로 나는 그와 같은 특별한 補助金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내가 덴포드(Danforth) 財團에서 일을 맡고 있었을 때 한번 그러한 종류의 意思決定에 직면했었다. 그리고 어떤 大學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도 한두 번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나는 雜誌社나 大學과 같은 機關이 그 자신의 獨自의인 運營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 그 잡지사나 대학에게 특별한 支援을 해주는 것이 短期的으로 볼 때 感傷的인 제스처일 수는 있겠지만 長期的으로는 그 기관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政策에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財團측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同意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한때 몇몇 機關을 구제하는 일에 관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機關을 구제하기 위하여 8천만 달러를 급히 지출하는 데 關係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덴포드財團에서 물러났다. 그런 전략은 내가 의문을 품어 온 戰略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매우 특별한 정도로 狀況의 특수한 環境에 따라 그 有用性이 변하기도 한다. 즉 어떤 大學이 발전할 기회를 갖고 있는지,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퍼』誌의 모습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그러한 戰略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財團들은 그런 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답은 財團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질문 : 財團은 資本主義의 產物이기 때문에 재단이 資本主義 體制의 일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資本主義 體制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레지널드 존스(Reginald Jones)의 말도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갖는 의문은 왜 企業의 指導者들은 財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좀더 나누어 주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財團들의 연결망과 수혜폭이 확대될 수 있다면 資本主義라는 精神은 더욱 확고한 存立基盤을 갖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企業의 指導者들은 財團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당신은 이 점이 좀더 改善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다. 왜 企業의 指導者들은 그들 자신의 활동보다는 財團을 통해서 활동하려는 宣敎 熱意를 갖지 않는가?

커닝엄 : 그러한 熱意가 주목할 만한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財團 및 慈善委員會를 통한 기업들의 寄附金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다. 미국에서 財團들이 내는 寄附金은 다른 어떤 형태의 寄附金보다도 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方向은 제대로 잡혀 있다.

둘째, 企業의 指導者들은 企業이 寄附金을 내는 데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企業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事業主體(business entity)로서의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稅前利潤의 5%까지 寄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 기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 4%의 차이라는 것은 企業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寄附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企業들이 大企業이든 中小企業이든 전혀 아무 것도 寄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이 寄附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株主들이 承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寄附를 하는 企業에서도 대부분의 株主들이 기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점을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한다.

經營者들은 그런 論爭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만약 企業에서 寄附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quid pro quo)이 卽刻의이고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보답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인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의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질문 : 財團들은 단지 요청받은 양만큼만 寄附하는지 또한 재단側 立場에서 얼마만큼의 創造的 생각을 포함시키는지, 즉 어떤 일을 좀더 좋고 새롭고 색다르게 창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단側의 主導權을 행사하는지 알고 싶다.

커닝임 : 대규모 財團들은 그들이 접수하는 提案이나 請願에 단지 응하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계획을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나는 우리들이 財團측에서 指導力, 想像力, 創意力이 增大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번덕이나 恣意性이나 또 다른 모습의 利己的 分配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규모 財團들이 현재 발휘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創意力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나는 財團의 활동을 定義하고 가장 유익한 재단의 活動領域을 찾는 데 職員들이 能力 있고 적극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일들을 그 전보다는 더 잘 처리하고 있으나 그들의 활동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財團이다.

財團들이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 없이 외부세계의 조언에 쫓겨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主張도 위험하지만 외부세계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계획만을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

질문 : 나는 財團들에게는 자기 독특함이 있다는 당신 말에 同意한다.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十一租(tithe)와 같이 所得만의 10%를 내는 것이 아니라, 所得과 資產을 합하여 연간 2.5%를 내도록 요구하는 回教徒들의 자카트(Zakat : 빈민구제를 위하여 기부하도록 하는 회교도들의 관습)에서 어떤 類推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蓄積된 資產의 再分配를 위한 道德的 命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즉 富가 처음 創出되어 축적되고 재분배의 필요가 생겼을 때 税金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道德的 命令이 그런 상황을 支配하게 된다.

커닝임 : 回教徒이건 基督教徒이건 혹은 그 밖의 어떤 教徒이건간에 이러한 指標가 없었더라면 寄附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어느 특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특정 방향의 제시도 나름대로 用途가 있다고 생각하나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은 推進力이라고 본다. 그런 推進力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 많은 일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떤 도덕적 규범도 나로 하여금 十一租를 내도록 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도록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도덕적 규범에 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반면 나는 주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새로운 도덕적 호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질문 : 귀하는 『하퍼』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귀하가 개인적으로 관계하였던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귀하는 提起된 질문들의 종류 및 그러한 意思決定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爭點들의 종류를 나타내는 경험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커닝엄 : 1970년대 초반 웹스터(Webster)大學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이었다. 덴포드財團은 세인트루이스(St. Louis)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웹스터大學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웹스터大學의 資産 규모와 사실 파악, 웹스터大學 자신의 소유물 및 문제점들에 대한 認識 등 廣範圍한 實査에 착수했다. 우리는 우연히 비록 웹스터大學이 財政上의 문제 때문에 그 學事年度가 끝나기도 전에 문닫을 것이 예상되긴 하였지만, 웹스터大學은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웹스터大學은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런 사실을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일을 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責任感 있는 判定을 하려고 하였다. 즉 우리는 그 機關의 분위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最善의 努力을 하였던 것이다. 그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교수들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인가? 지도층이 유능한가? 학장만이 아니고 이사회도 그러한가? 그 지도층이 남아 있을 것인가? 理事會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많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大學을 存續시키는 요인이 廢止시키는 요인을 능가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그 大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關係사실 및 분위기에 대하여도 조사를 확대시켰다. 그것은 덴포드財團이 웹스터大學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결정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情報가 정확했기 때문에 성공한 예를 선택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른 財團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카네기財團, 슬로언財團, 포

290 非營利法人으로서의 財團

드財團, 록펠러財團 등등, 커다란 財團들 중의 상당수가 이전 방식으로 活動하고 있다.

질문 : 財團은 웨스턴大學이 우선적으로 支援할 價値가 있다는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었는가? 웨스턴大學은 支援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支援되어야만 했는가?

커닝엄 : 그렇다. 그 점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 財團도 祈禱와 答에 의한 論爭 및 意見의 不一致 과정을 거쳐 意見이 合致되어 結論에 도달한다. 財團이 重大問題를 결정하는 방식은 組織의 책임자가 중대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企 業 神 學

마이클 노박
Michael Novak

우리는 企業人과 勞動者에게 봉사하는 聖職者가 보다 설득력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판자들에게 企業에 대한 보다 건전한 神學的 判斷基準을 제공해 주는 신학을 필요로 한다.

오래 전부터 내가 좋아해 온 성경구절이 하나 있다. 바로 이사야 53장 2~3절이다. “모양도 불품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수많은 간교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현재 크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귀절을 現代企業에 적용하고자 한다.

成肉身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보통 可視與否와 罪의 여부에 무관한 教會를 뜻한다. 하느님의 신도들은 그들의 일과 일상의 생활, 그리고 歷史에서 하느님의 존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召命의 教義이다. 예베식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소명으로써 끝난다. 즉 “世上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전도하라.”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표현에

만 있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召命意識은 유대교, 회교 및 기타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고 있다. 非宗敎人들도 역시 자신의 일을 유용하고 고상하다고 여긴다. 그들도 인류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使命感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가톨릭 信者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의미없는 피상적인 말보다는 나 자신에게만이라도 의미있는 말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信仰試驗에 합격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宗敎的 信念도 밝힐 필요가 없다. 기업이 종교적 多元主義를 인정한다고 해서 종교적 소명의식을 갖추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多國籍企業

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00개 大企業, 그 가운데서도 3분의 2가 美國系인 소위 多國籍企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¹⁾

먼저 이러한 大企業(big corporation)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이유는, 社會主義者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市場, 所有, 協同組合 및 小企業(small business)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코트(J. C. Cort)와 같은 宗敎的 社會主義者들은 소기업의 私有, 協同組合의 所有 및 自由市場 메카니즘에 호의적이다.²⁾

多國籍企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타국에서 자신의 財貨를 판매하고, 그곳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他國과 貿易을 행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타국에서의 경영(operate)을 위해 그곳에 생산

1) Sperry Lea and Simon Weble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A Review of Recent Research and Policy Thinking* (Washington, D. C. : British-North American Committee, 1973), p. 1.

2) John C. Cort, "Can Socialism Be Distinguished from Marxism?" *Cross Currents*, vol. 29 (1979~1980. 겨울), p. 423-434.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이다. 타국에 경영기반을 건설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多國籍企業으로서의 중요한 자격조건이다. 제조공장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現地投資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역시 그러한 경영기반을 건설할 수 있다.

現地 勞動力과 經營能力 훈련은 엄밀한 의미에서 多國籍企業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국계 기업의 공통된 특성이다.

다국적기업은 現地國(host country)에 4가지 중대한 공헌을 한다. 이 가운데서 資本設備와 人力訓練에서 구체화되는 技術移轉은 母會社의 운영과는 별도로 영원히 現地國에 남는다. 그 나라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타국에서의 輸入 需를 줄여준다. 따라서 현지국의 國際收支問題가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被雇傭者에게 지불되는 賃金은 국내에 남아 있게 되고 現地國의 국민들이 多國籍企業에 투자하기 시작함으로써 대부분의 未來資本은 국내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³⁾ 이러한 것들은 多國籍企業의 母國으로부터 現地國으로 이전되는 相對的 富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다국적기업의 비판자들은 오로지 投資所要의 流出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資本投資, 訓練, 國際收支 문제의 개선, 賃金 및 國內投資의 촉진을 고려에 넣지 않으려 한다.

미국계 200대 多國籍國企業의 대부분은 소수의 은행 및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포춘(Fortune)』誌가 선정한 500대 工業部門企業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저개발국가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現地國 價格水準의 공산품과 은행 및 보험회사의 금융서비스이다.

3) Ronald E. Muller는 라틴아메리카에서 多國籍企業에 의해 증대된 자본의 80%가 現地國資本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1957년에서 1965년까지의 기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의 美國의 總投資額 가운데 미국에서 건너온 자본은 실질적인 금융자본 투자액의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同期間 동안 제조업부문을 보면 우리는 미국기업 총투자액의 78%가 미국의 저축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國內貯蓄에 의해서 조달된 것임을 알게 된다.”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sset or Impediment to World Justice?” in Paul Hallock ed., *Poverty, Environment and Power* (New York: International Documentation on the Contemporary Church-North America, 1973), p. 42.

일반적으로 말해 『포춘(Fortune)』誌가 선정한 500大 기업 정도의 규모를 갖는 회사만이 낯선 문화에서 활동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資本과 技術을 갖고 있다. 사실상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海外販賣 가운데서 40%는 서유럽에서 이루어지고, 25%는 일본, 캐나다, 대만, 홍콩, 한국, 호주, 및 기타 産業國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開途國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계 多國籍企業의 營業활동 가운데 단지 약 12%만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극히 낮은 비율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 중 한 기업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다.⁴⁾

미국 기업의 거의 대다수는 多國籍企業이 아니다. 多國籍企業의 요건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利得보다는 골치거리가 더 많을 것이라 믿고 다국적기업이 되길 원하지 않고 있다. 몇몇 多國籍企業은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의 특징인 불안정한 政治·經濟·社會的 여건하에서 경영활동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 비율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낮은 이유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私企業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비교적 극히 적은 국가에서만 私企業이 허용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自國에 기반을 둔 사기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道德的·文化的 환경의 차이가 중요하다. 어떤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도 훨씬 고도의 숙련된 발명가, 건축가 및 경영자를 開發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에서보다도 勞動力이 보다 생산적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과 훈련이 새로운 도덕적 모델과 상당히 급속한 문화적 발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舊文化秩序의 옹호자들과의 사이에 격렬한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다.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制度에 불과하지는 않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4) U. 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79*. (Washington, D. C. : U. S. Department of Commerce, 1979), 表 944.

않다. 기업은 道德的·文化的, 制度이기도 한 것이다. 기업은 일정한 도덕적·문화적 조건하에서만 존재하고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私企業이 非社會主義的, 非國家統制的(non statist) 政治秩序에 의존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自律的인 기업을 실험하고 있는 유고와 같은 사회주의 정부가 自由市場 메카니즘을 도입하고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實績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한 그것들은 民主資本主義(democratic capitalism) 정치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중산계급(middle class)이 성장함에 따라 政治的 自由, 正當한 節次, 民主的 方式, 自由言論, 宗教의 自由 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커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私企業은 自由民主主義와 더불어 성장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신분적·사회적 이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貴族과 農奴 사이의 계급구별을 붕괴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다.

私企業은 특히 미국에서 활발하다. 오스카 핸들린(Oscar Handl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1800년 미국 인구는 겨우 4백만에 불과했지만 기업은 이미 유럽 전체보다도 많은 수가 존재했었다. 이러한 기업 가운데 몇몇은——주로 철도의 발전에 따라——19세기 말엽에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美國系 企業, 특히 『포춘』誌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 속하는 미국계 기업은 新發明期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企業들은 당시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산물이나 혹은 그것들을 생산하는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販賣量, 規模 및 資本을 키웠다. 비행기, 자동차, 석유, 가스, 전기, T.V. 영화, 컴퓨터, 복사기, 사무기기, 전자 및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은 모두 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것들을 발명한 사람들에 의해 設立된 기업에 의해 발전되었다.

神學的 出發

역사상의 기업과 기업의 神學的 의미를 생각함에 있어서 나는 일반적인

神學的 原理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조지 버나노스(George Bernanos)는 “은총이 도처에 있다.”⁵⁾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곳에는 하느님의 존재를 말해 주는 은총이 있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人間歷史도 역시 그렇다.

만일 우리들이 기업에서 은총의 징표를 찾으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7가지들을 생각해야 한다.

1. 創造性 : 造物主는 오로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대한 富를 자연 속에 감추어 두었다. 존 록크(John Locke)는 만일 인간의 天才性和 農學을 생산성을 增大시키는데 응용한다면 영국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의 產出量이 백배나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⁶⁾ 자연 자체는 인간의 지혜로 경작되는 자연보다 풍요롭지 않다. 세상은 造物主의 손에서 나왔을 때는 매우 풍요로웠다. 그러나 단지 潜在的으로만 그러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인간의 발견에 의해서 그 일부분이 인간에게 有用하게 되기 시작했을 때까지 수천 년 동안이나 감추어져 있었다. 오늘날 人類는 지혜의 한계로 말미암아 相對的인 貧困 속에서 살게 되었다.

1979년 아틀랜틱 리치필드(Atlantic Richfield)社는 노트르담의 신부 헤스버그(Hesburgh)가 처음으로 발표한 소논문에서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즉 전 세계 에너지의 40%가 세계인구의 6%에 불과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⁷⁾ 사실을 이와 같이 다루는 것은 바우어(Bauer)교수가 서술한 마와 같은 罪意識의 助長에 속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얼핏 생각해도 이것이 더무니없는 공식화임을 알 수 있다.⁷⁾

미국의 발견과 미국의 경제학으로 인해 觸發된 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류의 에너지는 태양, 바람, 水車, 동물 및 인간육체 등의 자연력이었

5) George Bernanos, *Diary of a Country Priest*, trans. Pamela Morris (New York: Macmillan Co., 1962), p. 233.

6)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Co., 1947), p. 20.

7) Theodore Hesburgh, *The Humane Imperative: A Challenge for the Year 20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4), p. 101.

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일생 동안 도보로 또는 당나귀를 타고 7번이나 로마에서 파리까지 往復旅行하였다. 교황이 최초로 열차를 타고 그러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후 6세기 후인 19세기 중엽이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기원전과 마찬가지로 줄곧 마차, 노새 또는 도보로 여행하였다. 그 당시의 社會秩序로 말미암아 발명과 新技術은 촉진되지 않았다. 과학적인 發明法이 고안되지 않았던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외에 사는 한 미국인이 1809년에 無煙炭 點火法을 고안해냈다. 역청탄보다도 高熱로 보다 서서히 연소되는 무연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선과 증기기관차가 實用化되었다.

1859년에 펜실베니아주 티투스빌 교외에서는 최초로 石油가 채굴되었다. 석유는 聖經의 시대에도 알려졌었으나 그때는 단지 향료나 잉크와 같은 제품에만 사용되었다. 만일 누군가 그 시켜면 불질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아랍은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부유했을 것이다.

피스톤 엔진의 발명과 採油를 위한 시추법의 발견도 또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1879년에 전구는 최초로 에디슨(Edison)에 의해 뉴저지주에서 點燈되었다.

제 2 차대전 후 미국정부는 公益事業會社(utilities)에게 核에너지에 관한 실험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公益會社들은 핵에너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들은 핵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석유와 석탄은 값이쌌다. 그러나 정부는 原子力의 平和的 이용을 장려했다.

이와 같이 소위 현대세계의 에너지는 모두 다 세계인구의 6%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그 에너지의 60% 이상이 나머지 세계에 분배되었다. 우리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가 지상에 가져온 불과 같은 유용한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미국이 발명한 것에 대해서 罪責感을 느낄 필요가 없다.

發明品과 發見物으로써 인류에게 생산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다. 오랫동안 창조된 그대로 묻혀져 온 富는 기업의 창조성으로 인해 대중이 市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創造性은 조물주의 창조성을 반영

한다. 그것은 기업의 선행과 악행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다.

2. 自由: 기업은 자유——나는 이것을 국가로부터의 獨立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면에서 역시 하느님의 存在를 반영한다. 그 독립이란 경멸을 받아왔으나 세계인구의 6%를 차지하는 創造的인 미국인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그들은 先祖의 偉業을 받들어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한계를 설정하고 일정 한도 이상의 간섭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을 고안하여 法律을 만들었다. 개인과 가정의 權利, 言論의 自由, 出版의 自由 및 기타 여러 가지 자유가 憲法과 헌법에 의해 자신을 방어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은 강력한 利益集團에 의해서 보장받게 되었다. 法的自治權이란 심지어 王도 농부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농부의 집은 백작의 성만큼이나 보호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의 移住民들이 요구했던 권리이다. 私的營利企業은 成敗에 관계없이 선의의 실험을 행하도록 즉 經濟的行動主義를 추진하도록 허용받았다. 국가는 規制할 權利와 義務를 갖게 됨으로써 산업과 상업에 대한 간접적인 진흥정책을 수행했다. 국가만이 유일한 經濟主體가 되는 것은 금지되었다. 경제적 자유의 영역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自由의 목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커다란 富를 세상에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자유는 아담 스미드와 기타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연 및 인간사회의 法則과 일치한다고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實驗이다. 이들의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주장을 실험할 여지를 요구하는 주장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흘러왔다. 자유를 지지하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

民主資本主義의 기초개념은 마르크스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사적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제한된 정부이다. 물론 私的 所有란 정부에 대한 하나의 制限이다.⁸⁾ 私的 所有에 있어 흥미로운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진다기

8) Paul Johnson, "Is There a Moral Basis for Capitalism?" in Michael Novak ed., *Democracy and Mediating Structures: A Theological Inquiry* (Washington, D. 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0), pp. 49-58 을 참조할 것.

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 핵심은 맥퍼슨(C. B. Macpherson)의 ‘所有權的 個人主義(possessive individualism)’가 아니다.⁹⁾ 그 반대이다. 그 핵심은 국가가 모든 權利와 財貨를 統制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제한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私生活이나 개인의 勞動과 危險負擔의 과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허버트 슈타인(Hervert Stein)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資本主義 體制의 思想은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단지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본주의를 정부나 他人, 他組織과는 독립적으로 소득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광범하게 配分되어 있는 體制라고 생각한다.”¹⁰⁾

이것은 분명히 私的 所有에 대한 미국식 사고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財産은 그 물질적인 실체보다는 그것의 所有와 使用이 나타내는 法的 權利와 그것이 국가권력에 대해서 가하는 制限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사적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불가결하다. 그러한 기업은 자유가 국가를 초월하고 전제하는 經濟的 實體性을 갖도록 한다.

3. 誕生과 死滅: 전형적인 기업은 技術進歩에 의해서 탄생되고 新技術에 의해서 대체될 때 사멸하는 탄생과 사멸의 순환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업이 매일 생겨나며 문을 닫는 기업도 속출한다. 『포춘』誌가 선정한 500大 企業을 10년 간격으로 보면 순환과정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전의 우수한 기업이 사라진다. 1954년에 최초로 『포춘』誌가 선정한 500大 企業 가운데 1974년에는 285개 기업만이 남게 되었다. 탈락한 215개 기업 가운데 159개 기업은 통합되었고, 50개 기업은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탈락되거나 혹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6개 기업은 再分類되거나 資本未備로 인해 탈락되었다.¹¹⁾ 최근 크라이슬러(Chrysler)회

9) C. 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p. 263.

10) Herbert Stein, *Capitalism—If you Can Keep It* (Washington, D. C.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0), p. 6.

사는 1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1990년이 되던 리스트에서 사라질 것인가? 포드(Ford)社도 리스트에서 사라질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의 자유의 산물인 기업은 浮沈과 生成消滅의 과정을 겪는다. 그 누구도 어떤 기업의 永續性을 주장할 수 없다.

4. 社會的 動機: 기업 (corporations)이란 바로 그 語原이 제시하듯이 그 개념, 활동 및 목적의 면에서도 개인주의적이지 않다. 아담 스미드는 그의 著作을 『國富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探究(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고 題名했다. 그 책의 사회적 영역은 개인과 大英帝國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에 걸쳐 있다. 그 책의 체제는 처음부터 人류의 富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도로 삼았다.

民主資本主義의 發明, 기업의 발명 및 기업의 국가통제로부터의 解放(비록 어떤 통제는 항상 존재하고 또 어떤 통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國家의 次元을 넘는 발상이다. 스미드는 극도의 궁핍과 빈곤과 미참을 최초로 극복할 수 있는 相互依存的인 世界를 예측했다. 그는 富의 諸淵源에 관해서 新知識을 적용하는 모든 종족, 문화, 종교들을 상정했다. 사람들은 기독교도나 유대교도일 필요가 없고, 유대교나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또한 自由經濟의 宗教的·經濟的·潛在力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스미드는 당시 도요다(Toyota)와 소니(Sony)를 알 수 없었을 것이나 만약 오늘날 살아 있다면 日本人에 의해 그의 假定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章을 그의 방대한 저작에 추가하며 틀림없이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¹²⁾

5. 社會性: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협동적이다. 어휘 그 자체가 公共的이고 非個人的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함을 뜻한다.

11) Linda Grant Martin, "The 500: A Report on Two Decades", *Fortune*, 1975. 5, p. 238.

12) 1977년말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저축액은 4,354달러임에 비해 일본의 1인당 저축액은 9,531 달러이다. *Facts and Figures of Japan*(Tokyo Foreign Press Center, 1980).

개인기업가를 중심으로 資本主義를 설명하게 되면 그 핵심을 놓치게 된다. 개인기업가에 의한 賣買는 聖書의 시대에도 행해졌었다. 흥미롭고 새로운 것——최소한 막스 베버(Max Weber)를 흥미롭고 새롭게 한 것——은, 공동 위험부담의 증진, 資源의 共同管理 및 運用, 그리고 경제행위에 있어서의 公共的인 宗教的 使命感이라는 새로운 倫理(ethos)에 대한 공공적인 관심이 다. 法律과 會計技術은 확실히 企業이 현대적인 형태로 제도화되기 전에 일정한 정도로 발전되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企業은 사회적 創造物이다.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共同協力을 가능케 하는, 지적 생활에 있어서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의 출현에 의존한다. 기업은 공동의 일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충분히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명료한 思想에 의존한다. 더우기 이러한 사상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될 정도로 강력해서 그러한 사상에 충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召命을 수행하는 데 30~40년을 바치게 될 것이다. 수백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는 일상생활의 환경은 작업장이라는 自治的인 협력의 세계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업장은 제 2의 家庭이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노동자 동료들 중 좋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同僚意識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勞動組合은 완전히 동료의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6. 洞察力: 모든 기업의 일차적인 자본은 洞察力, 創造力 및 自己改革能力이다. 통찰력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그 역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즉 그것은 발명의 중요요소이고 組織의 핵심이며, 技術革新과 生産 및 販賣戰略의 生命力이다. 기업경영은 공동의 통찰력이 있을 때 열심히 행해진다. 자 팀은 공동전략을 짜내기 위해 끊임없이 회합을 갖는다. 통찰력이란 모든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아무리 풍부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찰력이 부족하면 우둔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을 주로 기계, 화폐 및 기타 有形的인 생산

수단으로만 생각함으로써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는 자본의 주된 형태가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¹³⁾ 산업 아이디어의 상표권은 극히 중요한 法的 權利이다. 그것은 작가에게 著作權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기업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아이디어가 없는 자금은 자본이 아니다. 라틴어로 ‘머리(Caput)’가 어원인 ‘資本(capital)’이라는 단어 자체가 富의 주된 형태로서의 人間精神을 가르킨다. 금괴를 가지고 앉아 있는 구두쇠는 資本家가 아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投資家만이 資本家이다. 洞察力의 有無與否가 그 기준이 된다.

잠깐만 本題를 벗어나 이야기하자. 화폐는 金貨나 銀貨를 사용했던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그 후보라도 훨씬 물질적이었다. 자본주의에서의 대부분의 거래는 지능화된 帳簿去來(book transactions)이다. 더우기 주식, 채권, 헌법 및 법적 계약이 필수적이듯이 지폐도 필수적이다. 물질주의는 貨幣의 가치가 물질보다도 약속, 사회질서의 健全性, 제도의 안정성에 더 의존할수록 뒷전으로 밀려난다. 사회적 건전성의 파괴는 지폐가 갖는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말하면 화폐는 ‘종이값보다도 그 값이 못할’ 때가 종종 있다. 그 實質價值는 社會性, 信用, 健全性 및 永續性에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화폐의 상징성에 관한 신학적 논문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논문은 대부분의 화폐가 단지 정신적인 領域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人種, 宗教, 性 및 國籍의 차별을 초월하는 화폐의 非人格性 및 화폐의 현저한 不確實性——이에 따르면 화폐의 도덕적 가치는 사람들이 화폐

13) Stephen B. Roman과 Eugen Loebel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즉 “경제란 본질적으로 自然力과 自然의 財貨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사려깊은 사람들이 창조한 질서이며, 인간의 지적, 정신적 성장의 결과로서 발전된 질서이다. 더구나 경제를 사려깊은 인간의 창조물로 여길 때 經濟的 富는 自然的인 富의 변형 이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질 것이다. 자연의 富와 인간이 자연으로 창조한 富 이외의 물질적인 富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 Responsible Society (New York: Regina Ryan Books/Two Continents, 1977), pp. 22-23.

를 自由意思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유래한다——을 다뤄야 한다.

화폐는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화폐는 사물보다도 洞察力 및 自由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시대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7. 自由와 選擇의 위험: 기업은 자유와 선택에 직면한다. 기업은 항상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다. 전략상의 실수로 인해 대회사마저도 무너지는 수가 있다. 시라쿠스의 이지 세탁기 회사(Easy Washing Machines)는 이전에는 훌륭한 세탁기를 만들었으나 메이타그(Maytag) 회사가 新技術 발명에 성공하여 이지社의 시장을 잠식하였다. 이지社는 모든 자산을 공장 내에만 썩혀 두으로써 신기술을 재빨리 흡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붕괴해 버렸다.

이와 같이 급격한 技術進歩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떤 회사나 산업을 넘어뜨릴 수 있다. 1, 2년에 걸쳐 기업의 역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理事會의 간단한 전략적 실수만으로도 결국 여러 해 동안 기업의 전망이 흐려질 수 있다. 현대화의 실패는 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企業指導者들은 과학적인 確實性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는 判斷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지도자들은 각각 자신에게 “누가 올바른지를 보겠다”라든가 혹은 “1, 2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들 戰略的 代案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판단을 내려 投資를 해야 한다. 따라서 政策決定者들은 종종 그들의 결정에 고유한 위험을 경험한다. 최소한 그들은 그들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잘못된 위험에 항상 직면하고 있다.

이상의 7가지 방식으로 기업은 역사에 있어서의 하느님의 길에 대한 일종의 통찰력인 은총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은 現世의 존재이고 따라서 려를 짓는다. 그것들은 항상 改革될 필요가 있다.

規模의 문제와 기타 비난

大企業은 市場체제, 小企業 및 私的 所有가 비난받거나 거부되지 않을 때에도 비난받고 거부당하고 있다. 일부 宗教的 社會主義者들은 民主資本主義 思想의 일정 요소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大企業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 비난한다. 그들의 대기업에 대한 비난——그 가운데 대부분은 대학교나 流通機構에 대한 비난과 같이 실제로 많다——은 여러가지다.

그 가운데 하나는, 기업은 獨裁的이어서 결코 내적으로 民主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이 얼마만큼 올바른가를 결정하려면 『포춘』誌가 선정한 500大 기업의 경영기법을 조사해 보면 된다. 그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경영은 대학, 교회,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들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 몇몇 獨裁者가 오늘날 기업을 포함한 여러 權力機關에서 아직까지도 기능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업 내에서 독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오늘날 모든 부문에서 지도력의 발휘가 合意(consensus)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지도자들은 <명령하기(command)>보다는 <경영하는(manage)>것 같다.

나는 내가 만난 이사회 의 고위 간부로부터 미국의 가톨릭 주교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즉 스페터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사무실 밖에서는 누구한테 야단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본 바로는 그들은 전혀 독재자가 아니다. 세상에 아직까지도 스펠만(Spellman), 코넬(Connell), 키싱(Cushing) 및 기본스(Gibbons) 추기경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니면 카네기(Carnegie), 멜론(Mellon) 등과 같은 産業獨裁者가 있겠는가.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것 같다. 대신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 아이오와 출신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관습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우 평량하고 친절한 그들은 모든 면에서 저널리스트만큼이나 비독단적이다.

그들은 대체로 학자들과 같은 職業的 自慢感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활의 다른 영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성질의 것으로서의 會社 內에 독재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양태에 의거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두번째 비난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이다. 현재제하에서나 혹은 다른 가능한 제제하에서 현대적인 勞動條件에 의해 초래되는 그러한 疎外感은 어느 정도인가?

브라티스라바(Bratislava)나 또는 포즈난(Poznan)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은 미국의 노동자들과는 다른 勞動條件下에서 일하는 것인가? 이를 알려면 勞動時間, 作業場의 諸 條件, 給料, 作業過程 및 公害의 정도를 비교해 봐야 한다. 현재의 社會主義나 장래의 社會主義가 현대적 작업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또한 진저리나는 작업이 현대의 공장에만 특유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옛날의 유럽 농민의 작업에서도 지배적이었으며, 오늘날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가 14시간씩이나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경험에 의하면 농업노동의 소외감은 조립공정에서의 7시간 노동——그것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보다도 결코 적지않다.

疎外란 資本主義나 대기업에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관료의 노동은 소외가 덜한가? 政治的 行動主義者와 政治家를 각종 죄목으로 구금하는 대신에 3개월 정도 오하이오나 아아칸소州와 같은 지역출신 상원의원의 담신서한을 절해 두는 벌을 받도록 했을 경우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세번째 비난은 기업들이 지나치게 거대한 權力集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사실 그 집단 안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다운 집단, 즉 작고 아름다운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거대한 세계 전체에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인 폰다(Jane Fonda)와 톰 헤이든(Tom Hayden)이 經濟的 民主主義의 구호를 내걸고 72개 도시를 순회하였을 때 그들은 아주 작은 공장에서 제

작한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그와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모든 항공기와 공항의 관제탑을 컴퓨터와 텔레텍스로 연결해 주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社會主義 經濟學者 로버트 레커치만은 대기업의 규모가 보다 경영하기 쉽도록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내 생각으로 그러한 문제는 현실적이고 실험적인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회사를 생각해 보라. 이 회사는 미국의 177개 이상의 선거구에 200군데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다. 가장 큰 미시간주의 공장도 고용인이 14,000명 이하이다. 많은 대학들—미시간 대학과 미시간 주립대학만 하더라도—은 그보다 2~3배 규모의 人間共同體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레커치만이 고려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子會社原理(principle of subsidiarity)를 따르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훨씬 더 작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회사들—아메리칸 모터스, 크라이슬러, 포드—이 규모가 작을수록 새로운 자동화기술을 장치하는 데 소요되는 대규모 비용을 조달할 수 있기에 충분한 자본규모를 갖지 못함으로써 사멸하게 되는 위험에 분명히 처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제너럴 모터스사와 경쟁하는 외국의 자동차회

14) “내가 사회주의로부터 찾되자 하는 두번째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슈마허(E. F. Schumacher)의 중급기술로 거대한 항공기를 제조하려고 하거나 혹은 시골의 영세한 작업장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에서 대기업의 규모는 기술적인 규모의 경제보다는 시장을 조정할 기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광고, 마케팅, 급전적 및 법적 이익과는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自由企業主義 經濟學者들은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자는 생각에 놀랄 것이다. 나는 경쟁이란 오직 자유기업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유효 경쟁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장한다. 生産單位의 平均的인 크기를 줄이면 기업의 수가 증가되고 그리하여 잠재적인 경쟁가능성이 증가된다.”

Robert Lekachman, “The Promise of Democratic Socialism” in Novak, ed., *Democracy and Mediating Structures*, p. 40.

사(심지어 미국 내에 투자한 회사도)도 역시 대규모이다. 만일 작은 것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은 설로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가 필수적일 것이다.

실제로 나는 대량소비시장이 요구하는 유형의 인간능력과 인간의 선택가능성이 대규모조직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 작은 국가에는 小規模組織이 알맞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2억 2천만의 인구를 거느린 大陸國家가 모든 면에서 小規模産業의 小規模組織을 통해서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딘지 터무니없어 보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규모체제를 고안해 낸다면 좋겠다. 나는 그것에 원리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제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원래 邪惡하다고 비난받는다. 이윤이 없다면 研究, 開發 및 新規投資에 새로운 자본이 투하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maximization)와 이윤의 適正化(optimization)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즉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가능한 극대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에 貪慾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이윤의 극대화를 피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는 상품을 超過需要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을 축소시키며 자신을 파괴한다. 그는 자신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그의 명예도 파괴한다. 아담 스미드는 이 점을 오래 전에 생각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 반면 利潤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新投資, 消費者 保護 및 公正價格에 의한 공정 서비스 등 이윤 이외의 다른 제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이윤동기는 반드시 작용해야 한다. 진보를 피하는 경제는 모두 그 동기로서 경제과경상 투입량보다도 많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만일 투자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축적이나 성장이 없이 停滯에 빠져 버릴 것이다. 資本蓄積은 社會主義 기업에서 이윤에 해당한다. 만일 소련이 댐이나 철교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투입한다면 적어도 투자한 만큼은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의 손

실을 보게 된다. 만일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면——이러한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그들은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체제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면 경제의 정체 및 붕괴는 필연적이다.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에는 동일한 법칙이 작용한다. 즉 경제발전, 성장 및 進歩的 行動은 投資收益이 投資額보다도 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이윤은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자체의 목표를 위해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배분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를 제도화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매우 크다. 그것은 자유와 선택의 가능성을 크게 침해한다. 그것은 동기와 창조성을 크게 침해한다.

기업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많다. 그 중 정당한 것도 있지만 그릇된 것도 있다. 본격적인 기업의 신학은 그들 각각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한다. 그들 몇몇에 대해서는 리차드 바네트(Richard J. Barnet)의 『企業의 危機(The Crisis of the Corporation)』 가운데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¹⁵⁾ 바네트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1) 다국적기업들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 (2) 그들이 빈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3) 그들의 실제 행동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神話〉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바네트는 多國籍企業의 권력이 계획, 생산, 금융 및 마케팅을 국제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 계획에 있어서는 각 부문이 진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생산에 있어서는 여러 국가의 자원이 통합된다. 금융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통해 資本市場의 변동을 이용하는 이점을 취할 수 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재화와 소비가 표준화된다.¹⁶⁾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판은 다국적기업이 주는 이익을 열거하고

15) Richard J. Barnet, *The Crisis of the Corporation* (Washingto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1975).

16) 위의 책, pp. 7-8.

있는 것이 된다. 바네트가 말하는 바와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경제조직은 어떤 것이든 최소의 비용으로 산출량의 극대화를 실현하도록 적절히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율성은 수익성있는 투자를 통해 자본을 증대시키는 한편, 희소한 자원을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윤의 극대화와 利潤의 適正化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상호의존적인 世界經濟秩序의 목적은 한 지역의 이점을 다른 지역의 이점과 조화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은 풍부하나 임금비용이 큰 지역은 값싼 勞動力은 풍부하나 자본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하다. 서로를 무시하면 그 비용은 보다 높아진다. 기업은 양편에 이득을 주어야 한다.

바네트는 多國籍企業은 현지국의 정부가 알지 못하게끔 기업 내부에서 자금이전을 하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힘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多國籍企業은 노조의 분규가 보다 적은 저임금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산하고, 租稅優待가 보다 큰 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동하며, 어떠한 나라에도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또 현지의 소규모 기업을 광고를 통해 축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국에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타국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다고 했다.¹⁷⁾

최소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와 같은 주장 모두가 사실일지라도 그 효과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자들간의 경쟁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현실은 市場競爭이 국제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에는 이익과 손실이 있는 법이다. 미국 시민들은 이 경쟁에서 品質과 비용면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외국의 자동차노동자들도 이득을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자들이 보다 잘하지 못하면 미국의 자동차노동자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만일 모든 민족국가가 자국의 산업만을 보호하려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과거 여러 번 保護主義가 승리했었다. 국가는 외국

17) 위의 책, pp. 8-11.

기업을 추방하고 폐쇄하며 규제하고 國有化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에는 이익만이 아니라 비용도 뒤따른다. 마네트는 이와 같이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가 반대하는 競爭費用보다도 낮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크라이슬러社가 1979년 동안에 아무리 廣告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동차를 모두 다 판매처분할 수는 없다. 광고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부정확하다.

마지막으로 마네트는 獨占化로 말미암아 自由競爭企業이 도태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獨占은 좀체로 존재하지 않으나 그 효과가 거의 동일한 寡占(예컨대 여러 산업에서 대부분의 판로를 지배하는 4개의 주요기업)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¹⁸⁾ 그는 기업내부의 거래 때문에 效率性이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동일한 생산물이 현지에서 조달될 수 있는데도 租稅法 때문에 遠隔地로부터 생산물을 수송해 와야 할 경우가 있다.¹⁹⁾ 즉 미국의 최상위 소득자 20%와 최하위 소득자 20% 사이의 소득 분배가 45년 동안 동일했다는 것이다.²⁰⁾ 그리고 自由經濟가 民主主義를 촉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²¹⁾

마네트 자신은 社會主義型의 國家獨占에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寡占(oligopolies)>에 대한 반대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한 산업을 4개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國家獨占보다도 나은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3개의 미국 자동차회사는 국제무대에서 서로 경쟁할 뿐 아니라 볼보(Volvo), 피아트(Fiat), 푸조(Peugot), 폴크스바겐(Volkswagen), 도요다(Toyota) 등의 자동차회사와도 경쟁하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도 國際競爭이 치열한 것이 역시 사실이다.²²⁾

복잡한 高度技術産業에서 가격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니와 價格이 費用과 價値에 대한 유용한 指標가 더 이상 효과적이 아니라고 주장

18) 위의 책, p. 14.

19) 위의 책, pp. 16-17.

20) 위의 책, p. 20.

22) Lester C. Thurow, "Let's Abolish the Antitrust Laws," *New York Times*, 1980. 10. 19.

하는 것도 엄밀성이 결여된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어떤 차를 사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도대체 차를 사야 할 것인가, 혹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집을 증축해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경제적 선택을 해야 한다. 消費者들의 돈을 수중에 넣기 위해 生産者들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서로 경쟁해야 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도 경쟁해야 한다. 價格策定(pricing)은 그에 이르는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다른 市場戰略에서 광범하게 볼 수 있듯이 購買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所得分配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社會主義者들도 오늘날 所得이 평등하지 않고 또 완전히 평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社會主義 國家에 살고 있지 않다. 만일 所得分布의 最上位에 있는 사람들이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8배나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최상위 그룹의 總所得占有率이 최하위 그룹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관계는 극히 산술적인 것이다. 바네트 자신이 그의 俸給과 著作權 수입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의 소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 所得水準을 4인 가족을 거느린 非農家를 기준으로 할 때 공식적으로 貧困層으로 규정된 수준보다도 7배나 높은 것으로서 미국 전체 家計 가운데 상위 3% 이내에 속한다.²³⁾ 산술적으로 말하면 그가 속한 계급은 미국 전체소득 가운데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어느 일정 시점에서의 집단의 比率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버드대 法科大學의 대학원생으로서의 바네트의 수입은 현재보다도 분명히 낮았다. 貧困水準보다 낮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바네트가 결코 빈곤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후 매 10년마다 그의 未來所得으로 보아 그는 다른 所得階層에 속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比率自體는 상대적으로 일정할 수 있으나 그에 소속된 사람들은(적어도 流動性이 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그 내부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더구나 한 家計의 相

23) “4인 가족 비농가의 빈곤수준은 1979년에 7,412달러였다.” U.S. Bureau of the Census, *Money, Income and Poverty Status of Families and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1979* (Advanced Report) (Washington, 1980), p. 1.

對的 富는 장기적으로는——예를 들어 3세대 이상으로는——이용 가능한 자원에 의한 투자의 종류에 크게 의존한다. 消費投資는 성장을 배제하고 교육, 재산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물질적 증진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많은 家計에서 한 세대는 자신만이 아니라 미래의 後代를 위해서도 일한다. 이전에는 부유했던 家計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가난했던 가계가 부유해지는 경우는 사실상 종종 있다. 따라서 통계적인 비율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율 내의 가족과 개인의 浮沈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추적해야 한다. 어떠한 개인이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개인이나 가족들보다 더 지적이고 현명하고 행운을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용모, 인간성, 재능, 의지 및 행운의 不平等이 문제거리가 될 수 없듯이 所得의 不平等도 문제거리가 될 수 없다. 소득의 불평등은 모든 대규모 사회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 같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기타 西歐제국에서의 自由民主主義의 출현과 自由經濟의 출현 사이에는 특정한 역사적 관련——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이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概念 자체가 필연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다. 만일 개인에게 기본적인 經濟的 自由, 즉 所得, 消費, 貯蓄 및 投資의 자유가 없다면 각 개인은 필연적으로 효과적인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없다. 만일 개인들이 經濟的 決定을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문제에서도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될 것 틀림없다. 더구나 國家官僚들에게 공익을 위한 경제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소련, 폴란드, 쿠바, 유고의 노동자의 經濟的 福祉를 생각해 보면 지나친 생각이다. 스웨덴과 서독의 社會民主主義者들까지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社會主義 社會는 私企業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는 국가 관리들이 공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운영된다. 사회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면 民主資本主義가 오히려 사회주의의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民主資本主義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한 사회적 도구는 私企業이다. 누구나 기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성공한 자는 공익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업은 眞空狀態에서 살(혹은 죽을) 수 없다. 기업은 道德, 文化制度와 政治制度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업은 自由, 主權, 未來의 投資, 協同 등에 관한 가장 고귀한 理想에서 유래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이상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企業은 經濟制度일뿐더러 道德·文化制度이기도 하다. 기업의 주된 과제는 경제적인 것이다. 이 기업에게 지나치게 자기파멸적인 짐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한 經濟組織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도덕적으로도 판단해야 한다.

세 가지 제도—責任의 세 領域

요컨대 民主資本主義의 최초의 社會的 發明品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私企業이다. 이러한 발명의 동기는 역시 사회적 것이다. 즉 國富를 증진하고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사실상 달성되었다. 그러나 기업——자발적인 형태의 結社——은 단순한 經濟的 制度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도덕적 제도이며 정치적 제도이다. 그것은 새로운 政治形態에 의존하며 새로운 정치형태를 낳는다. 그것은 짧은 2세기 동안에 거대한 社會革命을 일으켰다. 그것도 經濟活動의 중심을 토지로부터 産業과 商業으로 이동시켰다. 革命이란 社會的 費用과 고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既得權의 포기를 초래한다. 그러나 經濟發展이라는 관념이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은 경제를 그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다.

企業은 경제에, 효과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풍조와 문화의 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기업은 古代의 人間關係의 방식을 철폐해 버렸는데 그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기업의 출현 이후 종교는 새로운 心理的 實體를 다뤄야 했다. 농부의 종교는 새로운 생활형태의 종교, 즉 처음에는 도시노동자의 종교, 다음에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와 화이

트칼라 사회의 종교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經濟의 生産力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많은 시간을 단순한 生存 이외의 문제에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週末이 생겨났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을 마친 후 週當 나머지 40시간을 회합, 스포츠, 여행, 정치, 종교 등과 같은 자발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및 사회의 유동성이 증대되었다. 학교 교육은 보편화되었을뿐더러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10代(teenagerhood)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自我를 실현하기 위한 여유가 생기게 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경제적 제도나 도덕적·문화적 제도만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기초도 제공한다. 오직 자유로운 政治制度만이 自發的인 私企業의 설립을 허용한다. 이리하여 私的인 營利企業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國家主義와 社會主義를 강력히 반대한다. 기업인들이 정치제도에 극히 중립적이라고(혹은 中立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私企業이 작용하는 經濟制度가 정치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 올려 광범한 中產階級을 창조함으로써 귀족신분의 토대를 약화시킨다. 기업의 힘은 國家權力과 독립적인 것으로서 어떤 때는 國家權力과 競爭關係에 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서기도 한다. 말하자면 120개의 선거구에 공장과 플랜트를 두고 있는 기업은 매우 많은 雇傭人과 株主를 대표한다. 최소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정치적 관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잘 조직되어 있는 것 같다. 政治權力者들은 종종 기업을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러 가지의 도덕적 잘못을 저지른다. 기업들은 선전을 통해 責任民主主義에 요구되는 자제와 자기훈련을 저지하고, 또한 미래를 위한 貯蓄과 投資에 필요한 현재의 만족의 포기를 억제하는 등 향락주의와 도피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 그것들은 尊嚴性, 協同心, 創造性 및 개인적 발전을 손상시키는 支配方式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것들은 公益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직접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그것들은 부당하게

政治權力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들은 經營者와 勞動者의 양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것들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수 있을뿐더러 모든 기구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제도적인 범죄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반 사회인들은 기업의 道德性을 提高하며, 잘못을 꾸짖고 모든 형태의 腐敗에 대해 감시할 매우 정당한 의무가 있다. 기업은 經濟的 行動主義를 자극하여 고도의 道德的·文化的 理想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바쳐진 민주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건설하도록 계획된 인간의 制度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그 실패에 의해 모든 것이 손상된다.

私企業이란 사회적 조직이다. 自由放任의 이데올로기나 粗野한 個人主義는 기업의 현실이긴 하나 본래의 이상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은 危險, 發明, 投資, 生産, 分配 및 서비스를 사회화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重商主義와 教權主義 體制가 경제활동에 대해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배력을 타파하도록 발명되었다. 반면에 그것들은 자신들의 번영조건을 확립하고 북돋우도록 발명된 정치제도 내에서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고 기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번영조건에는 건전한 通貨體制, 法律體制, 경쟁적 관행의 규제, 그리고 도로, 항구, 공항 및 특정한 福祉機能 등 下部構造의 건설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은 民主資本主義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다. 民主資本主義의 이상은 自由放任主義의 그것과는 다르다. 民主國家와 私企業을 중심으로 한 市場經濟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상호의존적이고 복합적이다.

그리고 民主資本主義의 이상은 단순히 個人主義의인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상호신뢰, 협력, 양보, 창조성, 독창성, 합리적인 경영 및 인간 관계와 같은 고도로 발달된 社會的 機能(social skills)에 의존하며, 또한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初期의 한 신화에 나오는 단순한 개인주의자는 현재 존재한다고 해도 존속을 위협받고 있는 部類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道德的 責任意識은 企業의 존재에 고유한 것이다. 기업은 경제

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道德的·文化的으로, 그리고 政治的으로도 실패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영역에서 곧잘 잘못을 저지른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개혁된다. 그러나 비판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어떤 비판은 私的 營利企業制度에 고유한 이상을 받아들여고서 단지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이상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또 어떤 비판은 제도로서의 제도에 반대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가권력과 여론, 불명예, 조소, 보이코트 및 도덕적 권고(예컨대 “남아프리카에 투자하지 말라” 등과 같은) 등을 통해서 기업제도를 금지, 규제, 지도하고자 한다. 混合經濟體制의 이론에서는 民主資本主義의 理想이 民主社會主義의 이상으로 변색된다. 전자는 私的部門에 후자는 公共部門에 더 크게 의존한다. 또 다른 비판에 의하면 企業制度를 국가의 직접적인 支配下에 두어야 한다. 이 마지막 비판자들은 그들의 이상에 의하면 組合國家主義者나 社會主義者일 수 있다. 또 中央集權的 社會主義者나 혹은 地方分權的 社會主義者일 수도 있다. 이러한 諸批判은 모두 비록 民主資本主義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民主資本主義의 발전과 진보에 유용할 수 있다.

企業의 경제적, 정치적 및 도덕적·문화적인 구체적 결점을 거론할 여지 및 증거는 매우 많다. 非難과 논증된 誤謬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기업은 개인처럼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다. 大規模에 대한 극렬한 敵意(심지어 經濟的 自由에 대해서도)는 국가주의에 대한 열렬한 확신과 같이 敵對者의 觀點에서의 비판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단지 民主資本主義와 私企業의 혁신적인 이상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주장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비판을 구분하는 것은 유용하며, 특히 비판자들이 自己中心的이고 理想에만 집착할 때는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資本主義의 理想이라는 자신의 이상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國家主義나 社會主義의 이상에서 기업을 비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상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神學者들은 經濟學에 대해서 前資本主義的이거나 혹은 순수히 社會主義的인 이상을 갖기 쉽다. 그들은 民主資本主義의 理想과는 매우 다른 이상을 가지고 기업을 비판하기 쉽다. 따라서 경작 民主資本主義의 이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비판은 비현실적이며 부적절한 감정을 갖기 쉽다. 따라서 그 주장이 일반적인 경제개념에 관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그것이 民主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경쟁적인 이상에 관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구체적 사례와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간에 적절한 수준에서 對話를 통해 토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떠한 수준의 토론이든 각각 나름대로 유용할 것이다. 현명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사려분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前題이다.

經濟制度, 政治制度 및 道德·文化制度의 三位一體 체제의 통합성을 목표로 하는 自由社會를 경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가 설정한 중요한 표준이 빌헬름 뢰프케(Wilhelm T. Roepke)의 걸작인 『人間的 經濟(A Humane Economy)』에 題詞로 인용되었다. 즉,

政府를 만드는 데는 별다른 사려분별이 필요하지 않다. 권좌를 만들고 順從을 가르쳐라.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더욱 더 쉬운 일이다. 관리할 필요는 없고 억제만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自由政府를 만드는 것, 즉 하나의 일관된 틀 속에 자유와 規制라는 상반된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은 보다 많은 사상, 심사숙고, 현명하고 강력한 정신을 요구한다.²⁴⁾

그런데 自由經濟를 통치하는 것은 자유정부를 확립하는 것보다 어렵다. 정부를 통치하기만 어렵다. 自由經濟를 통치하는 것——즉 민영의 조건을 확립하고 건전한 流通秩序를 유지하며, 경쟁을 진작시키고 모든 사람을 규율할 일반법률과 표준을 확립하며, 市場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

24) Wilhelm T. Roepke, *The Humane Economy: The Social Framework of a Free Society* (Chicago: Henry Regnery, 1960), p.1을 참조할 것. 인용문의 출처는 Edmund Burke,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1970)

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모든 市民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大衆의 欲求를 보살피며 불행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일 모두를 현명하고 끈기있게 사리에 맞게 적절히 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神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놀랄 만한 은총을 나타내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내지 못하면 비판받기 쉽다.

기독교도들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經濟體制下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은 양심상 한 경제체제만을 지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현실의 또는 想像할 수 있는 經濟體制는 모두 다 역사의 일부분이며 이 세계의 일부분이다. 民主社會主義도 民主資本主義도 하느님의 왕국은 아니다. 기업의 신학은 기업을 궁극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단지 수단이며 도구이고 지상의 代理人에 불과하다.

그러한 神學은 기업이 어떻게 救濟手段이 되며, 인간의 목적과 가치 및 하느님의 은총을 실행하는 수단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영역의 기업의 특성과 거둬지는 오류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구원의 장애요소로 혹은 하느님의 은총의 體現者로 보일 수 있다. 바닷물은 비행기나 쟁기, 심지어 즉각적인 전쟁에 대비한 군대와 마찬가지로 축복받는다. 텍사스의 한 도시는 <聖體祝日(Corpus Christi)>로,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는 <성체(Sacrament)>로 명명될 수 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現實世界의 죄악을 거부하며 현실세계에 善을 가져와서 그것이 최대의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애매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를 神聖化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지금 大企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작은 기업, 즉 레스토랑, 이발소 및 기타 다른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大企業의 神學이 결여되어 있는 기독교의 社會神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가장 실행가능성이 큰 기독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변화되어야 할 기업의 제측면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수단도 갖지 못한다. 대기업을 기독교의 召命을 실천하기 위한 잠재수단으로 여기든지 혹은 대기업을 불가피한 罪惡을 비판하든지간에 기독교신학은 기업의 모든 면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해하는 데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러한 神學을 필요로 한다. 또한 汎基督教企業倫理委員會(the Interfaith Center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에 있는 企業批判者들도 역시 그러한 神學을 필요로 한다. 단일 야밤의 무식한 군사와 같이 충돌하길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광명이 있으라(Let their be light)”라고 말한 창세기의 야훼(Yahweh)를 따라야 한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빛을 밝히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討 論

질문: 第3 세계의 貧困은 단일국가보다 규모가 큰 거대한 多國籍企業에 의해서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노박: 라인홀드 니버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美國經濟는 지난 2세기 동안 外國貿易 특히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의 무역에 별로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빈영과 그러한 지역의 빈곤을 연관시키는 것은 결코 合理的이지 못하다. 오늘날에도 美國의 海外投資, 販賣 및 利潤의 4분의 3은 시구, 캐나다 및 일본과 관련된 것이다. 第3 세계에 대한 投資, 販賣 및 그로부터의 利潤은 美國經濟活動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貧困의 원인에 관한 어떠한 이론이 귀하의 質問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사실 第3 세계의 貧困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흥분시킬 만한 빈곤의 원인은 결코 없다. 역사상 빈곤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慈善 이외에는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道德的으로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다. 貧困이 감소될 수 있다는 생각은 존 록크와 아담 스미드에게서 생겨났다. 經濟發展은——비난조의 표현을 원한다면——백인종 특히 앵글로 색슨족의 몇몇 철학자가 고안해 낸 것이다. 그들의 理想은 그 당시 또한 그 후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대륙의 많은 哲學者들과 신학자들——라틴인들, 게르만인들, 슬라브인들——은 19세기 동안 줄곧 <민체

스터 자유주의(Manchester liberalism)에 반대했으며 이를 매우 싫어했다. 로마교황의 回勅은 그것을 新敎徒의 異端으로 다루었다. 國富의 원인에 대한 탐구인 經濟發展論은 새로운 倫理的 문제를 제기했다. 빈곤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할 道德的 義務를 갖는 것이 아닌가? 빈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생산이다. 근본적인 倫理的 問題가 곧 社會正義라는 근본문제인 바 그것은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하느냐이다. 두번째의 倫理的 문제는 생산물의 分配方式이다. 즉 최량의 분배메카니즘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내 견해로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실험의 여지가 있다. 쿠마와 같은 社會主義 社會는 인구의 最下位 20%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우선권을 두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그 면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80%를 불리하게 했다. 쿠마의 經濟狀況은 대부분의 면에서 이전보다도 악화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점을 높게 평가한다.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말하자면, 라틴아메리카 자체가 생산할 현재 GNP의 6%를 매년 투자하면 人口의 最下位 20%를 생존수준 이상의 적절한 영양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정부가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밑바닥의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大量 生産을 위한 市場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大衆의 달리는 부유한 소수의 달러보다도 구매력이 더 크다. 대부분의 국가들, 심지어 니카라과나 짐바브웨 같은 社會主義 國家들도 미국의 기업이 자국에 플랜트를 건설하여 貨金, 技術 및 美國製品을 들여와 주길 원한다. 물론 外國 會社가 外國風潮(foreign ethos)를 들여오더라도 말이다. 호메이니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의 활동은 經濟的 次元만이 아니라 文化的 次元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大企業의 자본이 기존의 투자와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제너럴 모터스를 資產規模가 거대하다고 하여 강력하다(powerful)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회사는 기존의 투자로 인해 크게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자신이 원할 때 多國籍企業을 추방하고 현지 투자를 몰수하며 또는 現地活動을 규제하는 법규를 만드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貨幣價值가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는 外國換投機를 방지하는 國際通貨委員會(international currency board)를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多國籍企業은 분명히 문제를 초래하고 또한 골치를 앓고 있다. 多國籍企業들이 안정적인 산업국가 이외에서는 가급적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질문 : 疎外の 觀點에서 주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生産性的 폭발에 비견할 정도의 폭발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專門化는 疎外の 한 원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협된 분야에 익숙해지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넓은 사회에서는 둘 내지 세 개의 神學博士學位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經濟學에서도 필수적인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내 자신이 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다른 분야를 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지만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다 살아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첫째 전문성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겸손과, 둘째 사람들에게 상표를 붙여가지고 불필요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매우 폭넓은 관점에서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하는 정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 전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專門領域 이외의 다른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노박 : 훌륭한 질문이다. 그것은 최근의 일이다. 專門知識이 理想化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 대학교수란 한심한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들은 전문가로 여겨지지 않았었다. 專門家가 양성된 것은 技術知識이 팽대해진 2차대전 이후였다. 나는 하버드대학의 대학원에서, 〈當爲(ought)〉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중요한 것은 〈現實(is)〉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는 現實態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규범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았다. 케네디(John Kennedy)는 1963년 예일대학에서 세계의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표명했다. 문제는 오로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專門家들의 傲慢이었다. 그 이후로는 줄곧 전문가들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들이 문제 전체에 대하여 말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잘못을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한 부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닌 데 반해 그들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한 측면에 대해서만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선거운동을 도왔었는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즐거웠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유쾌한 대화를 나눈 후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면 주도권은 갑자기 전문가에게로 돌아가곤 했다.

질문: 귀하는 資本主義에 대한 포위공격에 대응하여 일부 정신적인 방어태세를 전개하고 있는 위협이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미국인들——學界에 있어서도——은 미국의 民主資本主義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가? 귀하의 생각으로는 그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노박: 내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가들은 그러한 위협이 매우 절실하고, 후손들에게 自由企業을 물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에 강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른 4백만 명은 정부의 하청을 받은 기업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간접적인 所得을 얻고 있다. 더구나 社會保障이나 失業手當으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교사들도 있다.

내가 이번 주에 들은 생생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國家의 祿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자는 매우 많다. 앞으로는 투표를 통해 그들을 추방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들은 통제기구가 많아질수록 정부의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즉각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회 관료들은 모두 다 기업을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하급관료인 GS-14도 현지공장의 生産活動을 몇 년간이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적용 가능한 政府規制法規만도 3만 8천페이지에 달한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당하기가 쉽다.

나는 이 나라의 공장 중에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폐쇄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이 나라의 歷史를 통해 어떤 순간에도 있을 수 없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왔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크다. 모든 사람이 이 대가를 치른다. 파이어스톤(Firestone) 회사를 규제하는 데,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규제하는 데, 또한 철강공장과 화학공장을 규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생각해 보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견제와 균형의 문제이다. 내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이익과 권력이 지금은 정치부문에 옮겨가 버렸다.

그러던 사람들은 즉시 “나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日本會社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난장판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가장 나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 동년배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평판은, 내가 民主社會主義者였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가 民主資本主義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반역자(traitor)〉와 〈배반자(sell-out)〉라는 말을 들었다. 적어도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國家主義者이어야 한다는 도덕적 압력이 매우 컸다.

대다수의 미국인 교수들은 단연코 민주자본주의의 편에 서 있다. 81%

나 된다. 19%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완전히 몰두해 있다.²⁵⁾ 그러나 종교에 몰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회윤리에 관하여 저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질문: 그러면 그 위협이 매우 현저하다는 것인가?

노박: 나는 위협이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國家權力的 증대에 대한 합법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국가 권력이 관대하고 도덕적이며 숭고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견해는 영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어찌 이곳(미국)이라고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곳에서 그러한 위협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질문: 귀하는 일찌기 企業界에게 지나치게 많은 계획과 생각을 앞서서 행하도록 요구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귀하는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첫째는 敎會學의 입장에서이다. <교회(church)>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뜻하며, 하느님의 사람들은 교회 관료들에 의해서 주도된 계획과 野望 및 전략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목사는 일 주일 내내 계획하여 그들에게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 헌금을 하고 목사가 계획한 전도사업을 하라고 요구한다.

25) 1977년에 161개 대학과 종합대학교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의하면 81%가 “미국의 私企業制度는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산업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른 제도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는 질문에 동의했다. 반면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58%가 <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 요구했다. Everett C. Ladd, Jr., and Seymour Martin Lipset, “Professors Found to Be Liberal but Not Radical,”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1978. 1. 16)을 참조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이 포위공격을 받는 병커 속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격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입장이 유리한 상태에 있고 지배적인 것이 될 것이다.

둘째로 나는 산업과 기업의 입장에서든 똑같은 문제를 느낀다.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울러 상상하고 창조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노박: 좋은 지적이다. 나는 아직까지도 기업간부들이, 자신들이 기업간부인 한, 기업이 행하고 있는 정의와 자유라는 도덕적 견해를 기업의 이름으로 지나치도록 상세히 표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간부들 자신의 언명이 무엇이든, 기업을 위해 일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도인 것은 아니다. 기업은 多元主義를 숭상해야 한다. 기독교도인 기업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풍부히 키워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을 지나치게 派黨化해서는 안된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단지 신학자만이 아니라, 그 4분의 3이 경제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남녀 평신도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교회의 사회교육을 취하러 싶다.

나는 Rerum Novarum(새로운 것이라는 의미) 이후 90번째 해이고, Quadragesimo Anno(10번째의 해라는 의미) 이후 50번째 해인 내년에 누군가가 <Nonagesimo Anno(90번째의 해라는 의미)-81>이라 불리는 십포지움을 개최하길 기대한다.

그 목적은 지식수준이 높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옥스포드(Oxford) 문서나 교황의 回勅과 같은 교회의 사회적 교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敎會에 대해서 보다 많이 배울수록 나는 經驗的 分析이 결여되어 있고 傳統的 偏見에 빠져 있는 교회의 諸假定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경제적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가톨릭 예수회 회원인 아더 맥거번(Arthur McGovern)의 저서 『마르크시즘: 美國 基督教의 見解(Marxism: An American Christian Perspective)』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民主資本主義: 美國 基督教의 見解(Democratic Capitalism: An American Christian Perspective)』라는 저서는 없으나 美國 基督教의 見解에서 본

마르크시즘에 관한 저작이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다.

맥거번은 극히 시험적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그는 그를 성장시켜 준 經濟學의 創意力보다도 마르크시즘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마르크시즘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르크시즘에 끌려 있는가? 그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첫째, 많은 基督教人들은 이 세계의 상태, 즉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들과 극히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격차에 크게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반면에, 군사무기와 사치품에 지출되는 엄청난 비용에 의해서, 팽창하는 巨大企業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위치와 진정한 인간의 욕구를 침해하는 문화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²⁶⁾

달리 말하면 비전이 필요하다. 道德的 行動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맥거번이 제시하는 증거의 수준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民主資本主義가 그가 시험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마르크시즘보다도 우수하다. 그의 책을 읽고 나는, 만일 하느님의 은총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비난하듯 교육받은 資本主義에 대해서만큼 단호하게 民主社會主義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까지 내가 걸었던 길이다. 맥거번이 언급하고 있는 貧困은 社會主義에 의해 치유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의 富는 유사 이래 최고수준으로 증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神學者들이 현재 民主資本主義의 神學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르크시즘의 神學을 탐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民主資本主義의 神學을 확립하기 전에는 國富의 本質과 原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教會는 자신을 獨裁的인 道德制度에 대한 선호로부터도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작한 일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설정해 주고 있다.

26) Arthur McGovern, S. J., *Marxism: An American Christian Perspective* (Maryknoll, N. Y.: Orbis Books, 1980), p. 135.

參考文獻

- Barber, Richard J. *The American Corporation: Its Power, Its Money, Its Politics*. New York: E. P. Dutton, 1970.
- Berle, Adolf A., Jr. *The Twentieth Century Capitalist Revolution*. New York: Harcourt, 1954.
- Brozen, Yale; Mott, William C.; Tyrmand, Leopold; St. John, Jeffrey; Shenfield, Barbara; and Howard, John A.,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Viability of Capitalism in an Era of Militant Demands*. Edited by John A. Howard. Rockford, Ill.: Rockford College Institute, 1978.
- Davis, John P. *Corporations: A Study of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Great Business Combinations and Their Relation to the Authority of the State*. 2 vols. New York: Putnam, 1961, reprint of 1905 edition
- Davis, Joseph S. *Essays in the Earlier History of American Corporations*. 2 vol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17.
- Drucker, Peter F. *Concept of the Corporation*. New York: John Day Co., 1946.
- Finn, David. *The Corporate Oligarch*.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69.
- Frank, Isaiah. *Foreign Enterprise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0.
- Galbraith, John Kenneth.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 Mifflin, 1967.
- Hessen, Robert: *In Defense of the Corporation*.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9.
- Hewlitt, Sylvia Ann. *The Cruel Dilemmas of Development: Twentieth Century Brazil*. New York: Basic Books, 1980.
- Hunt, Bishop C.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England, 1800-1867*.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Hurst, James Willard. *The Legitimacy of the Business Corporation in the Law of the United States, 1780-1970*. Charlottesville, Va.: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0.
- Kristol, Irving. *Two Cheers for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1978.
- Manne, Henry G. and Wallich, Henry C. *The Modern Corpor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4.
- Moore, Wilbert E. *The Conduct of the Corpora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2.
- Moran, T.H.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Politics of Dependence: Copper in Chi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4.
- Novak, Michael. *Toward A Theology of the Corpo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1.
- Powers, Charles W. *Social Responsibility and Investment*. Nashville: Abingdon, 1971.
- Powers, Charles W. and Vogel, David. *Ethics in the Education of Business Managers*. Hastings-on-Hudson, N.Y.: The Hastings Center, 1980.
- Sigmund, Paul E. *Multinationals in Latin America: The Politics of Nationalization*. Madison, Wisc.: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0.
- Vernon, Raymond.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 U.S. Enterprises*. New York: Basic Books, 1971.
- Walton, Clarence. *The Ethics of Corporate Conduc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 Williams, Oliver F. and Houck, John W. *Full Value: Cases in Christian Business Ethics*. New York: Harper & Row, 1978.

筆者紹介

P. T. 바우어 (P. T. Bauer)

런던政治經濟大學의 經濟學教授. 콘빌엔케이어스大學과 케임브리지大學의 펠로우이며 美國學術院 會員. 부다페스트에서 出生하여 부다페스트에 있는 스칼라피에大學과 케임브리지大學에서 修學. 런던大學과 케임브리지大學에서 講義. *Commentary*, *Fortune*, *Wall Street Journal* 등에 論文 多數寄稿. 著書로는 『西아프리카 貿易(*West African Trade*)』, 『低開發國의 經濟(*The Economics of Under-Developed Countries*)』 (B. S. Yamey와 共著) 『開發의 虛實(*Dissent on Development*)』 등이 있으며 『貧困, 貧國 및 經濟(*Poverty, Poor Countries & Political Economy*)』는 近刊 예정.

메리몽 커닝엄 (Merrimon Cuningim)

北캐롤라이나州 살렘大學의 명예총장으로 밴더빌트大學, 듀크大學, 옥스포드大學, 예일大學에서 修學. 여러 大學의 宗敎學教授를 거쳐 서던 메쏘디스트大學의 퍼킨스神學校 學長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포드財團의 理事長顧問과 덴포드財團 理事로 在職. 著書로는 『大學과 宗敎(*The College Seeks Religion*)』 『高等教育과 프로테스탄트 信條(*The Protestant Stake in Higher Education*)』 『美國에서의 財團의 役割(*The Role of the Foundations in American Society*)』 등이 있음.

오스카 핸들린 (Oscar Handlin)

하버드大學의 명예교수, 브록클린大學과 하버드大學에서 修學. 1944년 이후 하버드大學에서 美國史를 講義. 著書로는 풀리처賞 受賞作品인 『뿌리 뽑힌 자들(*The Uprooted*)』을 비롯하여 『機會와 運命(*Chance or Destiny*)』 『美國人(*The Americans*)』 『美國인의 富(*The Wealth of the American People*)』 등이 있음. *New York Times Magazine*, *Commentary*, *The Saturday Review* 등에 寄稿.

레지널드 H. 존스(Reginald H. Jones)

1972년 이후 제너럴 일렉트릭(GE)社의 代表理事 社長. 英國 태생으로 펜실베이니아大學에서 修學. 1939년 GE 入社. Business Roundtable의 공동 의장이며 Business Council 議長. 1980년 306개 美國大企業 社長 중 가장 존경받는 人物로 선정됨.

폴 W. 맥크라켄(Paul W. McCracken)

미시간大學 經營學教授. 펜실베이니아大學과 하버드大學 修學. 메리아大學 교수를 역임하고 通商省과 연방준비은행 미니아폴리스 支店에 근무한 후 48년 미시간大學으로 옮김. 금융·통화 專門家로서 大統領經濟諮問委員 역임. 著書로는 『國際收支와 國內景氣(*Balance of Payments & Domestic Prosperity*)』 『經濟進歩와 公益産業(*Economic Progress & the Utility Industry*)』 등이 있음.

버나드 머치랜드(Bernard Murchland)

오하이오 웨슬리안 大學의 哲學教授. 캐나다 태생으로 몬크톤大學, 몬트리올大學, 오타와大學, 뉴욕州立大學 등에서 修學. 100편이 넘는 論文을 썼으며 著書로는 『疏外の 時代(*The Age of Alienation*)』 『새로운 偶像破壞(*The New Iconoclasm*)』가 있으며 『自由藝術의 沒落(*The Death of Liberal Arts*)』은 近刊 예정.

티모시 스미드(Timothy Smith)

뉴욕에 있는 ICCR(Interfaith Center for Corporate Responsibility) 理事이며 NCC(National Council of Churches)會員. ICCR은 法案제출과 株主決意案을 통해 企業간부와 一般大衆에 대한 社會的 觀心을 적극적으로 환기해 왔음. 토론토大學과 유니온神學校에서 修學. United Church of Christ와 Australian Council of Churches의 간부 역임.

마이클 노박의 經歷과 背景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知識人의 한 사람으로 현재 시라큐스(Syracuse) 대학 宗敎學科 敎授 및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哲學, 宗敎 및 公共政策 연구책임자로 있다.

그는 神學者인 뿐만 아니라 思想家, 社會科學者, 政治活動家, 言論人, 小說家로서 다방면에 걸쳐 다채로운 활동과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노박은 1933年 펜실베이니아州 존스타운에서 태어나 스톤힐(Stonehill) 대학과 로마의 그레고리안(Gregorian)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뒤 65년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5~75년까지 스탠포드 대학, 뉴욕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에서 宗敎 및 哲學 강의를 했다. 스탠포드 재직시는 졸업반 학생들로부터 3년 동안 두 번이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뽑히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急進自由主義의 旗手로 民主黨의 Sargent Shriver, Edmund Muskie, George McGovern 등의 공보비서 및 選舉顧問을 지냈으며, 反戰主義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동시에 종교관계 잡지인 *Christian Century*(1966~1969), *Christianity and Crisis*(1967~1980), 그리고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誌(1967~)의 편집인으로 일했었다. 1973~1974년에는 록펠러 財團에서 새로운 人文學敎育 프로그램을 推進하도록 초청되어 敎育制度 改善 등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와 고교생을 위한 「大衆 人文學(The Public Humanities)」이란 敎育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

다. 72년에는 National Book Awards의 심사위원, 그리고 71년부터는 방송인론인에게 주어지는 Du Pont 상의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知的 努力으로 70년 Keuka College에서 名譽法學博士, 71년 Davis and Elkins College에서 名譽人文學博士 학위를 수여받는 등 모두 8개의 名譽博士 학위를 갖고 있다.

70년대 후반들어 노박은 사상적으로 右旋回하여 新保守主義 運動의 선구적 지식인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의 思想的 轉換은 이른바 프랑스에서의 新哲學派(New Philosophers)의 등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977년 시라큐스 대학의 宗教學科 教授로 취임한 후 종교와 경제와의 관계에 흥미를 느껴 78년 워싱턴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상임연구위원직을 맡게 된다. 그는 거기에서 시라큐스 대학 宗教學科와 공동으로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에 대한 宗教學的 探索 시리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번째 成果인 『資本主義와 社會主義(Capitalism and Socialism: A Theological Inquiry)』 두번째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Democracy and Mediating Structures: A Theological Inquiry)』 그리고 세번째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The Corporation: A Theological Inquiry)』은 이미 그 결과가 책으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經濟學과 經濟的 正義(Economic and Economic Justice)』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그는 『企業神學의 摸索(Toward a Theology of Corporation)』 『民主資本主義의 精神(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 등의 力著와 『資本主義의 冒瀆(The Denigration of Capitalism)』을 편집, 출간함으로써 그의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理念과 思想을 체계화시켰다.

노박은 이와 같은 연구노력 이외에도 思想家, 社會科學者, 社會運動家, 言論人, 說小家로서 폭넓은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The New Republic*, *Commentary*, *Harper's*, *National Review* 및 기타 저널에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The Washington Star* 紙의 常任寄稿家로서 그의 칼럼인 "Illusion and Realities"는 Universal Press Syndicate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1982년에는 美教育問題研究所(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Affairs)와 A EI 共同으로 창간한 *This World* 지의 편집 일도 맡고 있다. 이 잡지의 創刊은 現代社會에서 宗教와 精神的 價値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노박의 活動영역과 무대는 UN 人權委員會의 美國代表(1981~), AT & T, IBM 社 등의 顧問 등으로까지 넓혀지고 수많은 기업 세미나 등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企業神學의 탐색을 위한 基底를 제공해 주고 있다.

노박은 다수의 賞을 수상했는데 그 중에도 1978년에는 <信念과 自由>의 賞, 1981년에는 <自由의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自由의 親舊>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노박은 두 권의 小說과 여러권의 영향력 있는 著書를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民主資本主義에 대한 종교학적 탐색 시리즈 외에도 『래티머의 총』(1978), 『스포츠의 즐거움』(1976), 『帝王의 選擇』(1974), 『排他的 異邦人の 登場』(1972), 『과격파의 擡頭와 온건파의 敗退』(1971), 『無價値의 經驗』(1970), 『信念과 疑惑』(1965), 『나는 벌거숭이』(小說, 1970), 『은빛의 티베르 江』(小說, 1961) 등이 포함된다. 그의 著作은 오늘날 日本을 비롯한 주요 西方國에서 널리 翻譯, 紹介되고 있다.